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 | | | |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② | 04. ⑤ | 05. ④ | 06. ② | 07. ④ | 08. ③ | 09. ④ | 10. ② |
| 11. ⑤ | 12. ② | 13. ④ | 14. ① | 15. ③ | 16. ⑤ | 17. ⑤ | 18. ④ | 19. ① | 20. ⑤ |
| 21. ② | 22. ⑤ | 23. ③ | 24. ④ | 25. ② | 26. ③ | 27. ③ | 28. ① | 29. ④ | 30. ④ |
| 31. ⑤ | 32. ④ | 33. ⑤ | 34. ② | 35. ⑤ | 36. ⑤ | 37. ① | 38. ② | 39. ③ | 40. ② |
| 41. ③ | 42. ① | 43. ② | 44. ① | 45. ③ | 46. ① | 47. ① | 48. ⑤ | 49. ④ | 50. ① |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어로 알아보는 삶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는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 어인 ‘크리네인(krinein)’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 것인데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진행자는 ‘위기’란 단어에 대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인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 ‘crisis’는 그리스어의 ‘분리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한자어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나,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에서 ‘여유’를 이끌어낼 수 없다. ②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과 중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요한 일을 해결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 ③ 타인의 충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을 뿐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다음 주에 동아리 발표회가 있잖아. 우리 동아리가 발표할 내용을 그림판으로 만들어 봤어. 이걸 초안이니까 같이 보고, 고칠 내용을 찾아보자.

남학생 : 알았어. 발표 제목을 ‘우리 주변의 자생 식물’로 했네.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우리는 떡갈나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제목은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떡갈나무에 대해 잘 모를 테니까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줘야 할 것 같아. 나도 떡갈나무가 참나뭇과에 속하는지 몰랐거든.

여학생 : 좋아.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말이구나. 그런 다음 떡갈나무 식별법을 알려 주잔 말이지?

남학생 : 그래 맞아. 떡갈나무는 잎의 모양과 도토리 집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떡갈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의 모양을 알 수 있게 그림을 넣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떡갈나무를 식별할 때에는 잎 모양이 도토리 집 모양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림에도 잎이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 그림 밑에 있는 도토리 집 모양과 잎 모양에 관한 정보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여학생 : 그거 좋겠다. 그리고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없니?

남학생 : 글썄……, 발표 중에 퀴즈를 내서 집중력을 높이면 어때? 잎을 설명한 다음, 도토리 집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맞춰 보게 하자. 그러려면 그림판에서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려 놓아야겠어.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그의 첫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가 참나뭇과에 속하는지를 몰랐던 자신의 경험을 들며 친구들에게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주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남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으니 제목을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한다. ② 남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주자고 제안하고, 여학생은 이를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남학생은 자신의 두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 잎 모양보다 도토리 집 모양이 더 중요하므로 잎 모양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한다. ⑤ 남학생은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리고 퀴즈를 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3.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학 단신입니다. 최근,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칩 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컴퓨터 칩 위에, 약국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약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약물이 몸 안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칩 위의 약국’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기로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달리, 약물이 전달되는 시간과 양이 미리 프로그램된 칩을 환자의 몸 안에 심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칩 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양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칩 위의 약국’을 몸에 지닌 환자들은 약물이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투여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는 또,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뉴스의 첫 부분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칩 위의 약국’은 처방된 약을 투입하는 역할만 할 뿐, 병을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뉴스의 첫머리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이를 ‘칩 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칩 위의 약국’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개발자의 말을 인용해 ‘칩 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당량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④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 시간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⑤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5] 이번에는 수업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시오.

교사(여) :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 자료를 하나 들려 줄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효과음)

연구원(남) :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을 조사했는데요,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들이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세 영역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관리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관계 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을 묻는 ‘사회적 협력’ 점수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 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효과음)

교사(여) :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소라가 한번 말해 볼래요?

학생(여) :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에 동의해요. 실제로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어요.

학생(남) :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는 동의하기 힘들습니다. 봉사 활동이다 뭐다 해서, 매주 체험 활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생(여) : 하지만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머리로만 아는데 몸으로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들은 나부터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배운 지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결과 해석은 인터뷰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인터뷰에서 남자 연구원은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은 낮고, ‘갈등 관리’는 높은 조사 결과를 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여학생은 연구원의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⑤는 ‘공동체 의식은 높지만 실천력은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부족'이라고 메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터뷰 첫머리에 나타난다. ②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직접 밝히고 있으며,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점수를 분석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공동체와 관련된 '관계 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협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④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 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반응의 평가)

정답해설 : 여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남학생이 반박하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의 예를 들고 그 원인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어서 학교나 지역 사회, 청소년 스스로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인터뷰 내용에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② 인터뷰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쪽은 남학생이다. ③ 새로운 관점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인터뷰에서 제시된 조사 결과와 조사 방법을 수용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탁구 대회 우승 비결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관한 글의 내용을 연상해 내는 문제이다. 인터뷰 내용 가운데, 까다로운 강팀들의 전력을 분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실력이 우수한 토론 팀들의 전력을 분석한다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같이 약체로 판단되는 상대 팀의 전력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한 연상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속공을 잘하는 선수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만나 찰떡궁합을 이루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 팀을 꾸린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③ 강팀의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상대 팀의 ~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④ 연습 경기를 통하여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모의 토론을 통해 ~ 실전 대응력을 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운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⑤ 감독님의 지적에 따라 연습 경기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④에서는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격차를 ~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에는 성별 고용의 실태만 제시되어 있고 (다)에서 언급한 정책에는 사회적 편견에 관한 것이 빠져 있어 (가)와 (다)는 그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에서 여성 취업 장애의 요인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육아 부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자료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보다 크게 높고 최근 20년간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에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이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여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글에서 활용할 때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③ (다)의 자료에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서 '육아 부담'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고, (다)에서 정부의 '보육 서비스' 정책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IV-1에 제시된 방안(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고려한다면, ㉔의 자리에는 기존의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확대'는 문제점에 해당하지도 않고, IV-1에서 제시된 방안과 어울리는 문제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은 주제('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상위 항목(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III-3('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을 고려하여 IV('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의 하위 항목을 추가할 때,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㉔의 내용은 주제('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III-2('방과 후 문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하자는 방안은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말줄임표 자리에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생략된 내용을 넣는다면, 빛 공해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빛 공해의 심각성을 다루는 앞 문장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라는 내용을 말줄임표 자리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진전을 다녀온 의도와 감상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진전’을 ‘빛 공해 사진전’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② ‘결맞다’는 ‘두 편이 잘 어울리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며,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현재의 뜻을 담고 있는 ‘-는’을 결합시킬 수 없다(예 : 좋는(×), 착하는(×), 아름답는(×)). ③ ㉠의 앞 문장에서는 빛 공해를 정의하고 ㉡에서는 빛 공해의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의 앞 문장과 ㉡은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제기하다(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는 문맥(표어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의 자리에 ‘제출하다(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②의 표어는 ‘당신이 불을 끄면’으로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숨 쉬는 나무들’, ‘미소 짓는 나무들’과 같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 ~나무들, ~면 ~나무들’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현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도 않다. ④ 빛 공해 줄이기와 무관한 내용의 표어이다. ⑤ 빛 공해의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을 뿐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11. 어휘·어법 (완곡어법의 표현)

정답해설 : ⑤의 ‘주다’는 ‘~에/에게 ~을 주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지혜에게’는 문장 구조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빌리다’는 ‘~에서/에게서 ~을 빌리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친구에게’도 필수적 부사어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비슷하다’는 ‘~과 비슷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이것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보다’는 ‘~을/를 보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② ‘이탈하다’는 ‘~에서 이탈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퀘도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만나다’는 ‘~을/를 만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③ ‘잡다’는 ‘~을/를 잡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몽둥이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며, ‘삼다’는 ‘~을 ~으로 삼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사위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④ ‘적합하다’는 ‘~에/에게 적합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벼농사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방문하다'는 '(어떤 사람이 나 장소)에 방문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오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12. 어휘·어법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덧대다'의 뜻은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이며, '덧-'의 의미는 '겹쳐'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치뜨다(눈을 위쪽으로 뜨다)'의 '치-'는 '위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③ '들끓다(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의 '들-'은 '마구', '몹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④ '되감다(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의 '되-'는 '도로', '다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⑤ '휘젓다(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의 '휘-'는 '마구'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13-18] 시가 복합

(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

지문해설 : 이 시는 모두 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통해 '누구'가 그 배후에 있음을 표현하고, 이 모든 자연 현상을 만들어낸 존재(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을 차분한 목소리로 읊고 있다. 1행부터 5행까지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그 현상을 보면 생각나게 되는 '누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 반복되어 드러나면서 진리를 향한 화자의 끝없는 관심과 의문이 드러난다.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도 '누구'의 발자취이고,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현상을 보며 생각에 잠기던 화자는 6연에 이르러 이러한 절대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약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진리의 궁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도 정신

(나) 장석남, 「배를 매며」

지문해설 : 이 시의 화자는 갑자기 다가온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사랑이라는 경험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밧줄이 날아와서 그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 경험과 비슷하다. 2연에서는 배를 매는 경험과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비슷한지를 보여 준다. 사랑이란 '뉘 놓고 앉았다가', '어찌 할 수 없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바다 위에 구름, 빛,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4연, 5연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 사랑도 그런 것에 다름 아님을 깨닫게 되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 결국 이 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본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다) 정철, 「사미인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우거(寓居)할 때 지은 가사 작품으로 송강의 대표작이다.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며 표현이 세련되어 가사 문학의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임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연군지사’의 하나로서,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빚대어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시상 전개는 춘, 하, 추, 동 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점점 깊어 가는 화자의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제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 임의 선정(善政)에 대한 갈망, 임에 대한 염려와 고독함 등의 내용이 차례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연군의 정)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가), (나)에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매화에 말을 건넨 부분이 대화체에 해당한다. 독백체는 (가)의 뒷부분과 (다)의 일부에만 나타나지만, (다)에서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색채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이다. ‘백옥함’, ‘청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사되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나)의 ‘털썩’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구비구비’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14.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현상 어디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나)에는 뚜렷한 시상 전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의 경우는 1~5행은 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6행은 이러한 임(진리)을 향한 구도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상이 바뀌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자연현상을 가져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경우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의 경우 사랑을 자연과 관련해 빗댄 것이지 상황과 자연현상의 '대비'로 볼 수는 없다. ⑤ (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의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조적이며,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④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으로,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로 이해 가능하다. ⑤ ㉣'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16.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은 이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연에 밝혀졌다. ④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17. 비판적 사고(핵심어의 비교 및 감상)

정답해설 :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부듯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남이 떠나고 난 뒤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부듯가’에서 반복되는 시련을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② ‘부듯가’는 나와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다. ‘수막’은 남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이다. ③ ‘수막’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나, ‘부듯가’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나, ‘부듯가’는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18.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 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지,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옷’은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와 천상의 ‘달, 별’은 군신 간 수직적 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신하인 화자가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임금’이 맞다. ⑤ 차가운 ‘양금’으로 신하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2] 인문, ‘개념사란 무엇인가’

지문해설 : 이 글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지은 ‘역사’라는 책의 제목이 어떤 어원으로부터 나온 말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 연구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는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처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종교적인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수단이었지만, 헤로도토스는 신화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여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과거의 사건은 단순히 지난 옛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훈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데 몰두한 나머지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5세기 이후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된 이후 객관적 역사 서술의 태도는 다시 증시되었다.

[주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후대에 남긴 영향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객관적 역사

서술의 중요성

1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가 수사학적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 흐름이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긴 했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15세기 이후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어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헤로도토스는 과거의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는 그의 책 ‘역사’에서도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사실적으로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단락에서 ‘histor’가 원래 ‘목격자’, ‘증인’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라 설명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로 인식한 것은 과거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세 번째 단락의 앞 부분을 통해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주는데 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0. 추론적 사고(외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을 강조하는 측은 역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설득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어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의 ‘폴리비오스’나 (다)의 ‘투키디데스’는 모두 설득력 있게 과거사를 전달하는 것을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필라르코스는 독자에게 동정심을 일으키고 과장된 묘사로 감동을 주려 했기 때문에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거울이 가진 성질을 왜곡이나 채색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정확성과 객관성의 관점에서 역사 서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③ 과거사가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순환 사관에 해당한다. ④ 폴리비오스나 루키아노스는 모두 정확성과 객관성의 관점에서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서술의 태도로 보았다.

21.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객관적 서술 태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리아스’가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일리아스’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므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서술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③ 트로이 전쟁을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술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실제 확인하지 않고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서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일리아스’를 통해 호메로스는 전쟁이 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함을 알 수 있다. ⑤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2. 어휘 · 어법(합성어의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앞세운’의 기본형은 ‘앞세우다’인데, 이는 ‘앞’이라는 부사어와 ‘세우다’라는 서술어가 결합한 형식이다. ‘남다르다’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남과 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합성어인데 ‘남’이 부사어로 ‘다르다’가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멍이 들다’의 의미이므로 ‘주어 + 서술어’이다. ② ‘빛을 내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 서술어’이다. ③ ‘힘을 쓰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 서술어’이다. ④ ‘그늘이 지다’의 의미이므로 ‘주어 + 서술어’이다.

[23-25] 과학,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과정과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잎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물 내부에서 물의 이동은 ‘증산-응집력-장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수분 퍼텐셜의 변화 양상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게 된다.

[주제] 수분 퍼텐셜에 따른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원리

2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식물이 기공을 여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기공이 열리면 잎의 표피에 있는 물이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지만 물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4문단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2문단에 기공을 통해 물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긴다고 언급되어 있다. ⑤ 2문단에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올라간다고 언급되어 있다.

2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의 이동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토양 > 뿌리 > 줄기 > 잎 > 대기 순으로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물이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하게 되고(㉠),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하게 되며(㉡),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잎의 수분 퍼텐셜보다 대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기 때문에 물이 잎에서 대기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은 적절하지 않다.

25. 추론적 사고(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식물은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게 된다. 식물은 일출부터 일몰 순간까지 기공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공이 열려 있다는 것은 식물에서 증산 작용이 일어나 물이 이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물의 이동이 시작되는 일출 순간에 잎의 수분 퍼텐셜은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고, 일몰 순간 또한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은 양상을 띠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④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높다는 것은 물의 이동이 잎에서 토양으로 거꾸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이 0이므로 잎이 물과 같은 수분 퍼텐셜을 보인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일출 순간 잎의 기공이 열리면서 식물 내부에서는 물이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일출 순간 잎의 수분 퍼텐셜과 토양의 수분 퍼텐셜이 같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6-29] 현대 소설 - 황석영, ‘가객(歌客)’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인 거지 ‘나(깨꾸쇠)’가,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가객 ‘수추’의 이야기를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담담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전달하고 있다. 작품은 ‘수추’가 죽은 후 ‘나’가 그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를 만나고 그가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이 작품은 자기 예술의 완성에만 집착하던 예술가가 어떻게 민중 예술가로 거듭나는가, 또한 독재 권력은 왜 이러한 예술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든 '수추'는 신묘한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추한 외모를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간다. 강 건너편에서 '수추'는 예술의 완성에만 골몰하며 모든 것을 미워했던 뒤틀린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타인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수추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런 '수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마을의 최고 부자 '장자'는 '수추'를 가두고 그의 혀를 잘라 버리지만, 그의 노래는 끝까지 살아남아 마을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진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수추'의 죽음을 믿지 않으며, '나' 또한 수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주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도달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

26.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가)는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관찰자의 관점에서 수추와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으나, (나)는 작품 외적 서술자가 수추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점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다. ② 저자의 사람들이 수추의 노래를 듣고 모였다가 그의 흉한 얼굴을 보고 흠어진 것과 강 건너편에서 동물들이 그러했던 것은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등을 통해 수추의 내면 변화가 표정의 변화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7. 비판적 사고(갈등의 파악)

정답해설 : 수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흉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후 강 건너편에서 시냇물에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며 괴로워한다. 이를 통해 (가)와, (나)의 전반부에서 수추가 그의 예술과 용모의 괴리감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환희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내적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한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의 전반부에 보이는 수추의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내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④ (가)에서가 아니라 (나)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진다. ⑤ 저자 사람들과 짐승들은 수추의 노래에 매혹되어 모여든 것이므로 모여든 이유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8.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 ㉡은 모두 수추가 자신의 모습을 비취 봄으로써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다. ㉠을 통해서는 음률을 완성한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음을 확인했고, ㉡을 통해서는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자신의 환희에 찬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모두 ㉠, ㉡의 ‘시냇물’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29.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언급한 예술가, 작품, 수용자는 제시문에서 각각 수추, 그의 노래, ‘나’를 포함한 저자 사람들에 대응한다. 그러나 제시된 부분에서 수추의 노래 속에 당대 사회의 모습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에서 ‘나’가 수추의 노래 그 자체에 자극받아 수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만 일어섰는가?~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에서 수추의 노래가 저자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을 보고 ‘나’가 그의 노래가 가진 힘에 부러움과 시샘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지고 말았다.’에서 저자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수추의 흉한 얼굴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수추가 음률의 완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음악과 그의 용모 사이의 괴리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33] 예술, ‘이차 프레임의 기능’

지문해설 : 이 글은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차 프레임은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로,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차 프레임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여러 시도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주제]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

3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3문단에서는 이차 프레임이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함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③ 3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옴을 언급하고 있다.

3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는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집 <미국인들>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를 통해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인물을 이중 프레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차 프레임은 ‘문, 창, 기둥, 거울’ 등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를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꾸게 되면 ㉡로 인한 이차 프레임은 없어지지만, ‘원형의 빈 액자 틀’로 인한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는 프레임 안에 만들어진 프레임이므로, 이로 인해 화면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②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이다. ③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이 아니라 내부의 인물에 시선이 유도되고 있다. 인물을 창으로 에워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④ ㉡가 없다면 ㉡ 안의 인물은 작품 내 존재감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차 프레임이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반쯤 열린 창틈’ 역시 영화에서는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쯤 열린 창틈’은 ‘한 가족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에서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 인물의 모습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②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은 문이나 창을 봉쇄하여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상실시킨 것이다. ③ 문 안에 있는 대상을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한 것은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게 것이다. ⑤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한 것은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이차 프레임의 범례를 벗어나게 한 것이다.

33. 어휘 어법(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 파악)

정답해설 : ‘조성(造成)되다’는 주어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분위기가 정세 따위가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形成)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결성(結成)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② ‘구성(構成)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③ ‘변성(變成)되다’는 ‘변하여 다르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④ ‘숙성(熟成)되다’는 ‘충분히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34-37]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임진록’

작품해설 :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쓰인 이 작품은 당시의 국제 정세 및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전쟁의 발생 과정과 전쟁 중에 활약한 장수들의 활약상을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임진왜란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정신적 위안을 얻고 민족의 정기를 고취하려 하였다. 전쟁 승리의 과정을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한 승리로 그리지 않고, 수많은 의병장, 명장들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애국적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싸워 나가는 것을 보여준 것은 임란 이후 각성된 민중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후반부로 사명당이 왜왕을 도술의 힘으로 압도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부분이다.

[주제] 임진왜란의 치욕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3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한 부분은 없고,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명당과 왜왕의 갈등은 사명당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③ ‘벽력 소리 진동하며~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등에서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명당이 도술을 부리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를 통해 비현실적 장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명당과 송정의 대립은 사명당의 일방적인 징벌로 간단히 마무리되는 반면, 국외에서 벌어지는 사명당과 왜왕의 대립은 수차례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갈등과 긴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장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비판적 사고(인물 간 갈등의 파악)

정답해설 :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는 송정의 말과 ‘네 벼슬이 비록~국법을 엄히 하라’는 사명당의 말에서 사명당은 자신이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명분)이며, 대사마대장군(직위)이라는 점을, 송정은 자신의 신분(옥당)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인’은 사명당이 온다는 소식을 전달했을 뿐 둘 사이의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둘의 갈등을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이 아니라 봉명 사신을 대하는 지방관으로서의 도리에 관한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 ④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신념의 충돌은 드러나지 않는다.

36.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 개인의 활약상을 보인 것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기>를 참고한 감상으로 볼 수도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역사적으로 패한 전쟁인 왜란의 수치를 왜를 철저히 응징하는 사명당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민중들이 받은 고통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지방관의 도리에~화를 면치 못하리로다’는 하인의 말을 통해 어리석은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④ 압도적인 힘으로 왜왕을 수차례 굴복시키는 이야기 전개는 전란으로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37.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왜왕이 마지못해 항복하는 상황이므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울며 겨자 먹기’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스로 요구하거나 알려주어 억지로 대접을 받는다는 말. ③ 아이가 울려고 할 때 뺨을 치면 울음이 크게 터진다는 뜻으로, 일이 틀어져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충동하여 더욱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이르는 말. ⑤ 변변찮거나 하찮은 사람이 신분이 귀하게 되어 아니꼽게 큰소리를 친다는 말.

[38-40] 극(희곡) - 윤대성, ‘출세기’

지문해설 : “나는 이 작품을 마스크의 역기능을 주제로 하여 마스크에 의해 조작되는 인기, 그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 그로 인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 집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필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작품은 상업주의에 물든 매스컴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1967년에 실제 발생했던 광부 매몰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무너진 갯에서 16일 동안을 견딘 끝에 극적으로 구출된 광부 김창호가 온갖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유명인사가 되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성이 떨어지자 주인공은 언론의 철저한 버림을 받고 절망한다는 줄거리를 지닌 희곡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부풀려 관심을 한껏 증폭시키다가 효용성이 상실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자본주의 속물적 생리를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극적으로 구출된 직후 어리둥절한 김창호의 모습과 심리, 이를 이용하려는 주변 인물들(홍 기자, 소장, 비서관, 주치의)의 반응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주제] 대중 매체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38. 비판적 사고(극 전개상의 특징)

정답해설 : 아무것도 모르는 김창호의 행동과, 그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켜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 대조되는 면이 있으나, 김창호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자1, 기자2, 홍 기자, 소장, 비서관, 주치의가 모두 사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특히 홍 기자의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갯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에서, 인명이 구조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과 대비되는 구경꾼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10. 사무소와 갯내’에서 ‘사무소’와 ‘갯내’라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9. 현장’에서 홍 기자의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와, 비서관의 ‘뭘 부족한 거 없습니까?’ 등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를 확인할 수 있다. ‘10. 사무소와 갯내’의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에서 ‘작위적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황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관객이 극중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바짝 조였던 정신이 풀려 늦추어짐.)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9. 추론적 사고(등장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9. 현장’의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에서 ‘현장에 등장하면서 비서관이 언론을 의식’하는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9. 현장’의 다섯 번째 홍 기자의 대사인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와, ‘14. 가지 회견 석상’의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바입니다.’ 등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9. 현장’에서 홍 기자의 인터뷰에 망설임 없이 응하는 장면을 고려하면, 소장은 취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재 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9. 현장’의 기자1, 기자2, 홍 기자 모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14. 기자 회견 석상’에서 주치의는 김창호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은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김창호가 매몰된 갯에서 구조된 이후를 뜻하고, ㉡의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라는 주치의의 인식이 담긴 대사는, 주인공이 앞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에는 주인공이 ㉠을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는 자신이 구출될 것이라는 비서관의 말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인사일 뿐이다. 즉 주인공은 ㉠에 대해서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를 확신하는 주인공의 기대’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구출된 직후에, 주인공이 괴로운 상황을 견디는 장면이므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주인공이 왜 인터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주인공이 영문도 모른 채 주인공이 억지로 국민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에 ‘㉠을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43] 언어, ‘국어의 2인칭 대명사’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등과 같은 2인칭 대명사의 쓰임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주 높임의 대상자에게는 2인칭 대명사 대신 존대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경우가 있으며,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는 ‘너’, ‘너희’, ‘자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예사 낮춤 말인 ‘자네’가 ‘너’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 높임의 등급 구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위 글에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대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②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에게 ‘임자’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에 따라 2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달라짐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 중 ‘너희’는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 곧 2인칭 복수를 지칭할 때 사용함을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2인칭 대명사는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 사용한다. <보기>는 ‘한 상무’와 ‘김 부장’의 대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은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상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와 듣는 이인 ‘김 부장’ 이외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 자신과 듣는 이인 ‘김 부장’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④ ㉣는 ‘고모’와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는 말하는 이인 ‘고모’와 듣는 이인 ‘한 상무’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3의 인물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과 ㉡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칭을 나타내고 있다. ②의 ‘자기’ 역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이고 있다. 즉, ②의 앞 문장에서 ‘자기’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뒤 문장에서 ‘자기’는 ‘학생’을 가리키는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너’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③ ‘자네’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④ 앞 문장에서 ‘그대’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뒤 문장에서 ‘그대’는 상대방을 친근하게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⑤ ‘여러분’은 모두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

다.

[44-46] 기술, '디스크 스케줄링의 네 가지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는 네 가지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FCFS 스케줄링은 입출력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SSTF 스케줄링은 헤드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트랙에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SCAN 스케줄링은 디스크의 양쪽 끝을 오가는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대로, LOOK 스케줄링은 요청된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헤드가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주제] 디스크 스케줄링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순서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하드 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해 놓고 헤드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섹터의 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 디스크에 일정한 수의 섹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탐색 시간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③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디스크 스케줄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대기 시간은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가)는 헤드가 '53 → 37 → 14 → 98 → 122 → 183'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는 SSTF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53 → 98 → 122 → 183 → 37 → 14' 순서로 헤드가 양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헤드가 트랙의 끝인 199까지 가지 않고 요청된 트랙의 최댓값인 183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나)는 LOOK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추론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탐색 시간은 헤드의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각 스케줄링에서 헤드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 비교해 보면 ①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인 '200, 100, 50, 25'라고 가정해 보자. SSTF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스케줄링은 헤드의 위치와 가까운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LOOK 스케줄링은 현재의 헤드 위치인 0에서 최댓값인 200으로 이동하는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두 스케줄링 방식에서 소요되는 헤드의 이동 거리 즉,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00 → 100 → 50 → 25'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SSTF 스케줄링은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보다 크다.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LOOK 스케줄링 또한 트랙의 최댓값인 200으로 가는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SCAN 스케줄링 또한 헤드가 가장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과 SCAN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⑤ 트랙 번호의 끝이 200이라고 할 때, SCAN 스케줄링은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LOOK 스케줄링 또한 최댓값인 200번 트랙으로 가는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SCAN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47-50] 사회, '대의 민주주의의 딜레마'

지문해설 : 이 글은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글이다. '명령적 위임 방식'이란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자유 위임 방식'이란, 국회의원이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국민은 국회의원 선출권을 통해 국회의원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주제]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장점과 단점과 이에 대한 보완 방

안

47. 사실적 사고(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해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관계에 대해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견해가 시간적 순서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명령적 위임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역으로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두 견해는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⑤ 두 견해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 어느 특정 견해를 지지하거나 특정 견해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글이 아니다.

4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상황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경우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법안에 찬성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는 것이 명령적 위임 방식이다. ②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명령적 위임 방식이다. 기권 하는 것 역시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선거 공약에 따라 지역구 주민의 의사로 당선이 되었지만,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에 해당한다. ④ 소속 정당의 당론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이다.

4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하는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직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 위임 방식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②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③ 명령적 위임 방식을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즉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자유 위임 방식에서 국민과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근거를 찾으면’에서의 ‘찾으면’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실마리를 찾다’의 ‘찾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원상태를 회복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 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거나 그 사람을 만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어떤 것을 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④	09. ①	10. ④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④	18. ③	19. ②	20. ⑤
21. ⑤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①	27. ③	28. ⑤	29. ②	30. ④
31. ⑤	32. ②	33. ①	34. ②	35. ③	36. ④	37. ⑤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⑤	43. ④	44. ④	45. ③	46. ④	47. ①	48. ②	49. ③	50. ③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전통 택견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고 택견에 매력을 느껴 오늘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얼핏 보면 그냥 걷는 것처럼도 보이고 걸음에 율동을 가미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굵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이 무척 경쾌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상하좌우로 휘젓는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동작과 손동작이 굵실굵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한 발차기로 이어질 때에는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를 통한 주제의 도출)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주제가 ‘택견’이라고 말한 후,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굵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 ‘두 팔을 상하좌우로 휘젓는 모습’, ‘발동작과 손동작이 굵실굵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택견의 동작을 소개한 후,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표의 주제는 ‘택견 동작의 멋’이라고 한 ②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⑤ 발표의 첫머리의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택견 보유자가 언급되긴 했지만, 택견 보유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2.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너, 미술 과제 다 했니?

여: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 말이야? 응. 마침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

남: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 어떤 이야기야?

여: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뺐대. 그 소문을 들은 파라시우스가 자신의 실력도 그에 못지않다는 걸 보여 주려고 제옥시스를 초대 했다는 거야.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작업실에 가서 제옥시스의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커튼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지.

남: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솜씨에 속아 넘어간 거구나. 난 신라 때 화가의 이야기를 찾았어. 너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황룡사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솔개나 제비, 참새들이 보고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솔거라는 사람의 이야기지.

여: 두 이야기가 비슷한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림에 공통점이 있잖아.

2. 추론적 사고(공통점의 추리)

정답해설 :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가 주제인 대화의 일부이다. 여학생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뺐으며, 파라시우스의 초대에 응한 제옥시스가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그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남학생은 신라 시대의 화가 솔거가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이 진짜일 줄 알고 각종 새들이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이야기는 ‘실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 소재가 지닌 특징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다. ④ 여학생은 고대 그리스 화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남학생은 신라 화가 솔거의 그림을 소개하였으므로 동서양의 그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3. 이번에는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표정 관리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표정을 통해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표정을 관리한다는 말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은 친구와 화해하기 전의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친구에게 보여 주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이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군요.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함께 볼까요? 운동 경기에서 힘겹게 승리한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겠지요? 그런데 승부에 진 상대 선수를 배려해서 이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어찌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의도와 표정을 분석해 봅시다.

3. 비판적 사고(자료의 분석)

정답해설 :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교양 강연이다. 첫 번째 자료는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이 기쁜 표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한 경우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학생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는데 강연자는 이를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에서 이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하여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상대 선수를 배려하여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의도’하지만 자신의 기쁜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미소로 표출하고 만다. 그러므로 의도는 기쁜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이고, 표정은 자신도 모르게 기쁜 감정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④ 표정에는 의도와 다른 감정인 미소가 드러나지만(㉠), 의도는 기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5]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출판 협회에서 김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주변에서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전자책의 출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남: 저희 협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자책 판매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저도 출퇴근 때 틈틈이 전자책을 읽습니다.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소설을 읽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은 어떤 분야의 책입니까?

남: 남자들은 자기 계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야의 책을 합하면 전체 전자책 매출의 2/3가 넘습니다. 반면 그 밖의 책들은 그리 많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책 출간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다 보니 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 전자책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쇄하는 데 비용도 들지 않는데 가격은 종이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 그렇습니다. 현재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퍼센트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이책과 달리 재판매와 대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책의 가격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 다소 뜻밖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어떤 연령층이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 그거야 전자 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아닐까요?

남: 재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올해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였고,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20대는 그다음이고요. 이 결과는 전자 기기에 친숙한 것과 전자책을 즐겨 읽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라는 남자의 발언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지만, 이는 전자책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기기의 종류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남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출퇴근 때 틈틈이 읽을 수 있고,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 여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남자들은 자기 계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한 남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이고, 두 번째가 40대, 20대가 그 다음이라고 말한 남자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자책 판매가 1.5배 늘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언에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자기 계발서와 여자들이 선호하는 소설이 전체 전자책 판매량의 2/3가 넘는다고 했으며, 세 번째 발언에서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에 이른다고 했고, 이어서 전자책의 최대 고객층이 30대→40대→20대 순이라고 했다. 즉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에 이르는데,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자 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층일 거라는 여자의 추측과는 다른 결과를 남자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②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고 있는 쪽은 남자라기보다는 여자이다. ④ 남자는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낯선 개념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남자는 특정 연령대의 전자책 구매 특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특정 인물을 사례로 들지 않았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한 부분도 없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용기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유추해 내는 문제이다. 용기 제작 과정의 각 단계에 비추어 한 편의 글이 제작되기까지 거쳐야 할 각 단계를 연상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용기 제작 과정에서는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라는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보기>에 다른 재질의 흙을 확보하여 이미 있는 용기 재료를 보완한다는 성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용기를 만드는 목적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흙을 골라 채취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라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③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 서로 연결시키며 각 부분을 잘 연결하여 구조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는 글을 쓴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전체적으로 살펴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⑤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무늬만을 새겨 넣음으로써 개성을 살린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의 주제와 글의 구성 단계를 고려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강사의 시범 보이기로 그치는 교육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위 항목 '응급 처치 교육의 문제점'에 어울린다. 또한 'IV-2'는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에 어울린다. 따라서 상위 항목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위해 ㉠과 'IV-2'를 맞바꿈으로써 기존의 항목 배열에 변화를 주자고 한 ㉡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응급 처치'가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을 '응급 처치의 의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III-2'는 '응급 처치 관련 교육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해당하므로, 'IV(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의 아래에 'III-2'과 대응하는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④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 강화'는 상위 항목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을 매듭짓는 단계에서 이전의 내용을 강조하는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촉구'로 ㉡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8. 비판적 사고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교내 학생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는 학생의 주된 고민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자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④의 경우, 이 두 자료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인식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는 친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제시하고 있는 (나)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방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학생들의 고민 내용이 학업-진로-외모 등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이 학업이나 진로라는 해석을 이끌어낸 ①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가 친구-선배-교사 순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자가 교사-선배-친구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해석을 이끌어 낸 것은 적절하다. ③ (다)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상담이 일회적인 상담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있으므로, 이 자료를 지속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밝히는 데 활용하자고 한 방안은 적절하다. ⑤ (가)의 자료에서는 학업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내용을, (나)의 두 번째 자료에서는 선배가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에 관한 좋은 상담자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글은 청산도, 그 중에서도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돌담길을 여행한 소감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제목인 ‘㉠ 청산도의 바다’는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나, ①과 같이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꾸어도 글 전체의 내용이 포괄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구들장 논’을 ‘먼저’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는, 글쓴이의 여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둘째 문단은 상서리의 돌담길을, 셋째 문단은 구들장 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의 여정을 고려한다면, 두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은 2문단에 포함된 문장이다. 문단이 바뀌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내용은 상서리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에 관한 것인데, 이는 상서리 돌담길에 대한 문단의 중심 내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의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는 이전에 제시된 정보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므로, 반복되는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를 활용하여 ‘그 위에’로 간결하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의 서술어 ‘곳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없으므로, ‘청산도는’이라는 주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내용상 친구의 행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표현상 역설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④는 ‘~ 당신도 함께 하세요’라는 구절이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라는 구절이 표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라는 구절은 논리나 일상적인 어법으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다’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지만, 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② ‘우리도 힘을 보탬시다’가 내용 조건을 충족하나,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⑤ ‘당신이 돕는다면’에서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어휘·어법 (준말의 용법 이해)

정답해설 : ‘파이다’는 ‘ㅏ’로 끝난 어간에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보기>의 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명에 따라 ‘꽤다’와 같이 ‘ㅈ’로 줄여 적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이유로 ‘괘인’도 ‘괘’으로 적어야 한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꽤다’에서와 같은 ‘ㅈ’ 다음에 ‘-었-’이 결합하여 줄 경우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꽤었다’를 준 대로 적은 것이 ‘꽤다’가 된다. 따라서 ‘꽤다’가 줄기 이전의 본말은 ‘꽤었다’이다. 정답 ①

12. 어휘·어법 (관용 표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⑤의 ‘혀를 내두르다’는 ‘깜짝 놀라다’의 의미에 가까우며, ‘안쓰러워하다’의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혀를 내두르다’는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의 의미이며, ‘안쓰러워하다.’는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을 마음에 언짢고 가엾게 여기다’의 의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③ ‘발을 구르다’는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를 뜻한다. ④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손’과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재다(동작이 재빠르다.)’가 결합한 관용 표현 ‘손이 재다’는 ‘일 처리가 빠르다’는 뜻이다.

[13-16] 인문, ‘공자가 제안한 군자에 의한 정치’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자가 제안한 예에 기반을 둔 정치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글로, ‘예’, ‘정명’, ‘군자’, ‘소인’, ‘성인’ 등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학적 정치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를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공자는 군자를 정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군자는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예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존재이다. 또한 군자는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덕적 수양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공자의 정치 제도는 춘추 시대라는 혼란한 사회를 도덕적 본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 도덕적 수양을 실천하는 군자에 의한 정치

1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을 보면 정치에 있어서의 법과 형벌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만약 정치가 법과 형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강압적인 것으로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도덕적 삶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이나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한 도리를 행하고 있는지,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예를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법과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일삼던 시기라는 진술이 나온다. ② 4문단에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3문단에서 제시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극복하여 군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의 실천, 도덕적 수양 등의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③ 2문단에서 정명을 실천할 주체로서의 군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군자는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독서나 육예의 수련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14. 사실적 사고(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예’가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도리를 행하는 정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도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군주는 군주의 예를, 신하는 신하의 예를, 부모와 자식 역시 각각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예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예는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각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마지막에 진술되어 있다. ② 1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춘추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③ 1문단 세 번째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⑤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예는 도덕적 본성을 규범화한 개인의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 내의 모든 계층이나 개인은 그러한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

1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의미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어 5문단에서 군자의 요건으로 도덕적 수양과 학문적 소양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소인도 군자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군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ㄷ) 6문단에서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필요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자이며 군자는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적 본성을 완성하면 ‘성인’이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노력하는 존재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ㄷ)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는 존재는 ‘성인’이다. ㄴ. 완전한 인격체이며 유학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은 ‘성인’이다.

16. 어휘 어법(문맥에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만 정신이 쏠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사로잡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되다’의 의미이다. ‘매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일’의 의미로 사리사욕에 마음이 쏠린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합당’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음’을 의미한다. ② ‘의거’는 ‘어떤 힘을 빌려 의지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③ ‘지칭’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의 의미이다. 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의 의미이다.

[17-19] 기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은 감광 물질, 마스크, 레이저 빛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기판 위에 같은 모양의 패턴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감광 물질을 반도체 기판 위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판에 감광 물질을 바른 후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감광 물질 위에 놓고 빛을 쬐여 준다.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그런 다음 현상액으로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마스크와 동일한 패턴이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들어지게 된다. 반도체 기판의 집적도는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많이 만들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주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1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마스크 위에 빛을 쬐이면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반도체 기판 위의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고, 마지막 공정에서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1문단에서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관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양성 감광 물질과 음성 감광 물질을 사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두 번 수행하고 있다. 양성 감광 물질은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이고, 음성 감광 물질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이다. 사용된 감광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공정은 양성 감광 물질 위에 가운데 부분에만 넓게 패턴이 있는 마스크 A를 놓는 것이므로, 공정이 끝나면 ②의 그림과 같이 빛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분만 남고, 빛을 받은 양쪽 부분은 제거된다. 두 번째 공정은 첫 번째 공정에서 만들어진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반도체 기판 ②에 음성 감광 물질을 바른 후 그 위에 가운데 부분에만 좁게 패턴이 있는 마스크 B를 놓는 것이므로, 공정이 끝나면 빛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분만 사라지고, 빛을 받은 나머지 부분은 남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두 공정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 ③의 그림과 같이 반도체 기판 위에 바깥쪽의 양측과 가운데 부분만 제거된 패턴이 형성되게 된다. 정답 ③

19.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패턴의 크기를 줄여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만들 수 없다. ③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하나의 마스크 원판은 반도체 소자의 기판 위에 같은 모양의 패턴을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20-23]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작품해설 :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소재의 현실성, 배경의 향토성, 인물 성격의 창조성, 주제의 저항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문 소설의 백미(白眉)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그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20. 비판적 사고(서술상 특징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술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가 중심적이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향의 말을 통해서 이몽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신이 죽은 이후에 소망하는 것 등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향의 꿈은 춘향의 간절한 소망을 제시한 것으로 환상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제시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내용이다.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이몽룡이 자신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춘향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④ 우의적이란 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한다는 의미로, 제시된 부분에서 우의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도 등장하지 않는다.

21.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킨 것은 당대 사회의 강요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의 주체적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산(先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자신의 시신을 ‘선산(先山)발치’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춘향의 말로 보면 ㉠은 춘향이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시문의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이란 표현을 통해 ㉡이 둘의 사랑이 싹튼, 추억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둘의 사랑이 싹튼 추억의 공간이므로, 춘향에게는 ‘나(춘향)의 혼백 위로하여’ 줄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이몽룡에게 자신을 손수 염습하여 묻어 달라고 했으므로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④ 춘향은 이몽룡에게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자신을 ㉢에 묻고, 자신의 묘에 ‘정절을 지키다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묘’라 새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은 정절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공간이자, 이몽룡에 대한 정절의 보상으로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이뤄 내고 싶은 춘향의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22.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D]의 발화가 나타난 맥락을 볼 때, 춘향이는 옥에 갇혀서도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금의환향하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딸의 바람과는 달리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에 대해 춘향 모친은 [D]를 통해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는 언어유희를 이용해 이몽룡을 비꼬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사또는 춘향 모친에게 말을 낮추고 있다. ②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몽룡의 목소리가 들리자 춘향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는 표현이다. ③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자신의 모친을 염려하고 있는 표현이다. ⑤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라는 말에서 어사또에 대한 믿음보다는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에 대한 충격과 실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문자답을 하고 있지도 않다.

23.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의 ‘오매불망(寤寐不忘)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寐不忘)’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병상련’은 같은 병자(病者)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同情)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③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이다. ④ ‘조변석개’는 일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⑤ ‘풍수지탄’은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24-26] 언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지문해설 :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필요에 의해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하고, 이 때 근거로 삼을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주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

2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단어 형성 방식 중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위 글을 통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이외의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1문단의 ‘잉어빵’이나 3문단의 ‘종이공’은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다. ④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2문단에서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3문단에서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결혼반지’의 경우 반지 앞에 오는 말이 반지의 사용 목적인 반면, ‘금반지’는 반지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금반지’를 근거로 삼아 ‘수정으로 만든 반지’를 의미하는 ‘수정반지’라는 새로운 단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가 형성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닷물’의 경우 물 앞에 오는 말이 물이 흐르는 장소인 반면, ‘설탕물’은 물에 탄 재료이다. 그러므로 ‘인삼 가루를 탄 물’을 의미하는 ‘인삼물’은 ‘설탕물’을 근거로 형성된 단어이다.

③ ‘생일떡’의 경우 떡 앞에 오는 말이 떡의 사용 목적인 반면, ‘호박떡’은 떡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회갑을 기념하는 떡’을 의미하는 ‘회갑떡’은 ‘생일떡’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④ ‘겨울옷’의 경우 옷 앞에 오는 말이 옷을 입는 시기(계절)인 반면, ‘비단옷’은 옷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비닐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 ‘비닐옷’은 ‘비단옷’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⑤ ‘유리잔’의 경우 잔 앞에 오는 말이 잔의 재료인 반면, ‘우유잔’은 잔의 용도이다. 그러므로 ‘돌로 만든 잔’을 의미하는 ‘돌잔’은 ‘유리잔’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언중들은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중들이 많이 쓰는, 즉 널리 쓰이는 ‘맑은탕’이 ‘싱건탕’보다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싱건김치’는 국물이 맑은 김치이다. ‘싱건탕’ 또한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제안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둘 모두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맑은탕’은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이다. ④ ‘싱건탕’은 ‘싱건김치’에서, ‘맑은탕’은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들이다. ⑤ 언중들은 ‘싱겁다’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싱건탕’을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다.

[27-30] 현대시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작품해설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갈등과 이상향에 대한 내적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1연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방'에 누웠으나 자신의 '백골'이 따라와 함께 누워 있다고 생각한다.

제2연에서 '어둔 방'은 고독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열린 세계인 '우주'로 통하고 있으며 화자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한다.

제3연에서는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고민하는 이상적 자아('아름다운 혼')가 갈등을 일으킨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제4연에서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들려 온 '지조 높은 개'는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제5연에서 '어둠을 짓는(짓는)' 소리를 통해 진정한 '나'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제6연에서는 '백골'을 떠나 새로운 이상 세계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가자'라는 청유문의 반복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 회복과 자아분열의 극복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아의 성찰을 통해 드러난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

(나) 오세영, 「자화상·2」

작품해설 : 까마귀를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1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의미상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2행에서는 '까마귀'와 '까치'가 다름을 언급하고, 이어서 3~6행에서는 의연하면서도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7~11행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얼어붙은 지상'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굶어 죽더라도 '까치'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16행에서는 '눈'이 내려 '저마다 하얗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위 속에 덮여 있지만, 자신은 까마귀처럼 철저하게 본질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17~21행에서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검은 까마귀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검은 까마귀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성찰해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삶의 다짐

(다) 김기택, 「멸치」

작품해설 : 생명의 소중함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1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4행에서는 생명력을 잃기 전의 '딱딱한 멸치'가 본래 '물결'이었다고 말하며 생명력이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다니던 멸치의 본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5~13행에서는 멸치의 생명력을 뺏은 부정적인 힘을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멸치의 생명력이 박탈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4~21행에서는 화자의 상상력을 통해 멸치의 본래적 생명력을 추측하고 있다. '딱딱한 멸치'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상상하며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해서 반생명성과 폭력성을 의미하는 '고깃배'와 '그물'을 부수고 찢었던 것을 상상하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생명 회복의 의지

27.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백골'이 있는 '어둔 방'과 '아름다운 혼'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지향하는 ‘또 다른 고향’의 공간 대비를 통해, (나)는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안마당’과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의 공간 대비를 통해, (다)는 멀치가 생명력을 잃은 공간인 ‘건어물집’과 생명력이 있는 ‘바다’의 공간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영탄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가)의 ‘가자 가자’와 (다)의 ‘~것이다.’ 같은 시어의 반복은 있지만, (가),(나),(다) 모두 시행의 반복은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28.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가)의 ‘방’은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함께 있는 곳이다. 즉, 부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공간이므로 화자의 어두운 내면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의 ‘먼 지평선’은 까마귀가 응시하는 공간으로,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안마당’과 대비되는 공간이므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백골’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정적 자아이며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화자의 내면 성찰이므로, ‘들여다보며’에서는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조 높은 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력한 생활을 하는 ‘나’를 일깨우는 존재로,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③ (나)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이므로, ‘형형한 눈’에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릴 수 있다. ④ (나)의 2행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다름을 말하고 있으며, 11행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9.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나)의 ‘눈’은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을 하게 한다. 이는 저마다의 본질을 가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까마귀’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어라.’를 통해 ‘눈’ 때문에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눈’에서는 충만한 느낌을 얻을 수 없고, 화자는 ‘눈’으로 분장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삶이라 보는 것도 옳지 않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화자의 순결한 정신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④ ‘눈은 내려’ 부분까지 의미를 확장하면 하강 이미지가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눈’이 내려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0.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에서 화자는 상상력을 통해 멸치의 본래적 생명력을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D]가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기 전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바닷속을 유유히 흘러다니는 멸치의 자유로운 모습과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② [B]의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은 멸치를 바다에서 끌어내 생명성을 잃게 하는 존재이므로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는 멸치가 잡혀서 생명력을 잃고 반찬으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⑤ [E]는 멸치가 본래 지녔던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하며,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4] 사회, ‘시대에 따른 놀이의 성격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시대가 지닌 특성에 따라 놀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 놀이는 제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며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생산성 극대화, 이익의 획득 등이 중시되면서 놀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상품 소비를 통한 또 다른 이익 획득의 기회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놀이의 성격 변화는 놀이를 즐기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 구경이나 소비 위주의 놀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디지털 혁명을 겪으면서 자발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마침 인터넷이 가진 쌍방향성이 이러한 놀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놀이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며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와 인터넷 시대의 놀이 방식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주제] 시대가 지닌 특성에 따른 놀이의 성격 및 방식의 변화

31. 사실적 사고(전개 방식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고대인에게 있어서의 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놀이, 디지털 혁명 이후 인터넷 시대의 놀이를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서술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놀이’라는 중심 화제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는 글로, 두 개념의 장단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필자의 관점만 제시될 뿐 다른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놀이의 성격을 설명한 글로 경험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3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고대 사회에서의 희생 제의는 자연을 훼손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 훼손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돌리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라는 진술이 있다. ③ 2문단 중간 이후를 보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④ 3문단 첫 문장에 나와 있다. ⑤ 4문단의 셋째, 넷째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놀이를 즐기는 상황이다. 축구 경기 동영상을 보는 것이기에 구경꾼의 입장으로 수동적 소비를 하는 경우이다. 쌍방향적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도 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생산성 향상이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근무 중의 개인의 놀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 놀이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 축구에 직접 참가한 사례이다. ④ 경기장에 가기는 했으나 축구를 구경하는 것이기에 구경꾼의 입장이다. ⑤ 인터넷은 쌍방향 활동이 가능하기에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이 형성된다.

34. 어휘 어법(다의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바로'는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앞의 단어를 받아 이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②의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에서 '바로'와 동일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의 의미이다. ③ '사리나 원리,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이다. ④ '도리, 법칙,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이다. ⑤ '비뿔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의 의미이다.

[35-39] 갈래 복합

(가) 박인로(1561-1642), '누항사(陋巷詞)'

작품해설 : 조선 중기의 가사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이전과 달라진 양반 사대부의 궁핍해진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누추한 거리(陋巷)'에서 겪고 있는 사대부의 삶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기의 삶의 방식이 붕괴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좌우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대부로서의 권위도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을 통해,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양반 계층의 갈등과 괴로움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 진솔한 감정을 고백하면서도 대자연에 과문혀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충효와 신의, 우애 등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시에 사대부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궁핍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안빈낙도의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궁핍한 생활상

(나) 권구(1672-1749), '병산육곡(屏山六曲)'

작품해설 : 조선 후기 권구(1672-1749)가 지은 6수의 연시조 작품 가운데 제2수와 제4수이다. 작자인 권구의 고향 마을인 경상북도 안동의 풍천면 병산리에서 작품의 제목을 따왔다. 이 작품은 세상사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安分知足)하겠다는 사대부의 삶을 그리고 있다. 퇴계 이황의 <도산육곡(陶山六曲)> 등 육가계(六歌系) 시조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삶

(다) 김용준(1904-1967), '조어삼매(釣魚三昧)'

작품해설 : 1948년 『근원수필』에 수록된 수필 작품이다. 지은이가 낚싯대를 들고 나가 낚시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다. 해방 이후라는 혼란한 시대에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괴로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시선은 매우 직선적이고 예리하면서도 마음 속 울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선비정신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말미에 '현명한 신사 잉어' 등을 언급한 것은 맑고 고결하며 품격 있는 정신을 지향하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괴로움

35.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인 '개구리'와 '방게', '망둥이'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내 채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 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라는 표현에서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가)에서는 풍자의 기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대상을 조롱하는 장면도 없다.
- ② (나)에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은 작품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에서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서러운 정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두 작품이 선경후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 않다. 화자나 지은이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36. 비판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풍월강산’과 (나)의 ‘세간’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풍월강산이 세간(속세)과 대비되는 자연의 공간이라면, 세간은 세상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현실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월강산과 세간이 모두 풍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먹을 것이 있어봤자 ‘죽’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겨우 ‘죽’을 먹거나 그도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궁핍한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무심한 백구’는 사심이 없는, 순진무구한 자연물의 표상이다. 흔히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무심’이라는 표현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심이 없는 ‘순진무구함’을 일컫는다. ‘백구’는 순진무구한 존재를 표상한다.
- ③ ‘잉어’는 ‘개구리’나 ‘방개’, ‘망둥이’ 등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고상하면서도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날짐승이 의지할 곳을 잃은 상황에 번민하며, (다)의 화자는 자꾸만 들려오는 세간의 시비 소리에 번민한다.

37. 추론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실제 역사 속 인물의 구체적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은 누구나 공평한 것이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년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월헌’과 ‘석승’ 등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백년 살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과 “~ 몇 해 살았나.”와 같은 의문형 표기만으로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② <보기>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보기>의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단서라고 하기에는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인물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38.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 의 등장,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라는 표현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다. 자연과의 일체감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천심절벽’을 통해 수직적 이미지를, ‘일대장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수평적 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미지를 제시하면서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③ 텅 빈 산중 떠가는 달의 형상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④ “낙화광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라는 표현을 통해 드세게 불어대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꽃이 지는 형상을 제시하면서 어떤 나뭇가지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두견새의 처지를, “어느 가지 의지하리(의지할 곳이 없다.)”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했다.

⑤ [B] 와 [C] 의 종장에서는 각각 “나는”과 “내곳” 등과 같이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다)의 화자는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삭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세상에 대해 분노와 고뇌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보기>의 ‘어옹’은 그림의 제목인 ‘차가운 바위에서 물고기 낚시를 함’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사를 넘어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의 화자가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답답하고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낚시를 하는 것이지,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③ (다)의 화자는 고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기>의 어옹 또한 물고기를 잡으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대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고, <보기>의 ‘어옹’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⑤ (다)의 화자와 <보기>의 ‘어옹’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40-43] 예술, ‘바실리카식 성당’

지문해설 :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4세기 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은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 이후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 공간인 트란sept가 추가되어 열십자 모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양의 건물이 되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 이는 신에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제]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와 종합예술로서의 성격

4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바실리카 형식은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원래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실리카식 성당이 종교적 기능을 가진 로마 시대 건축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④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었고,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다. ⑤ 4문단을 보면,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었다고 하였다.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었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보면,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곳은 나르텍스이다. ② 2문단을 보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은 네이브이다. ④ 2문단을 보면, 복도로 활용되는 곳은 네이브 양 옆에 붙어 있는 아일이다. ⑤ 2문단을 보면, 신성한 제단이 있고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앱스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파르테논 신전을, 위 글은 바실리카식 성당을 설명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미의식이 파르테논 신전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중세인들은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의식이 바실리카식 성당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에 신들의 조각을 새겨 넣었고, 바실리카식 성당 또한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4문단). ② 파르테논 신전은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 반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4문단). ③ 파르테논 신전은 건물 외부가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는 반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내부 공간에 퍼지도록 하였다(4문단). ④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된 바실리카식 성당이다(3문단).

43.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위계’는 ‘위치나 지위의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편, ‘위엄’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답 ④

[44-46] 과학,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체의 운동과 관련된 맥스웰의 이론을 설명한 후에, 그것을 입증한 밀러와 쿠슈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기체 분자는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체 분자들이 갖는 다양한 속력 분포는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맥스웰은 기체의 속력은 온도와 분자의 질량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질량이 적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속력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분자 수 비율과 속력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를 고안하였다. 밀러와 쿠슈는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고안했는데, 이 실험 장치는 작은 틈이 있는 두 개의 원판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기체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밀러와 쿠슈는 이 실험에서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주제]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과 그것을 입증한 밀러와 쿠슈의 실험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분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 기체 분자의 속력이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 그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기체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기체 분자들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설명된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기체 분자의 속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질량이 적을수록 빨라진다. 또한 기체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며, 속력이 느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이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질량이 가벼운 아르곤 분자는 크립톤 분자보다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727℃의 아르곤이 25℃의 아르곤보다 분자의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체 분자의 속력은 727℃의 아르곤 > 25℃의 아르곤 > 크립톤 순으로 빠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727℃의 아르곤은 가장 납작한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C, 25℃의 아르곤은 중간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B, 가장 느린 크립톤은 가장 뾰족한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A와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밀러와 쿠퍼의 실험 장치에서는 앞뒤로 두 개의 원판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 원판은 첫 번째 원판에 있는 틈과의 각도를 달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문단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에 설명된 바처럼, 두 회전 원판의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느린 분자들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밀러와 쿠퍼의 실험은 기체 분자가 각기 다양한 속력을 갖는다는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② 실험 장치는 첫 번째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 것만 검출기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③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 분자들의 속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검출하기 위해 두 번째 원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첫 번째 원판을 통과한 기체 분자들 중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47-50] 현대 소설 - 김동리, ‘역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48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역마’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액운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겨 있다. 성기의 역마살은 외할아버지인 চে 장수 영감과 아버지인 떠도는 중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성기의 어머니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동생인 계연과 아들인 성기를 이어 주는 일음을 깨닫고 계연을 떠나 보낸다. 옛 장수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길을 떠나는 성기의 모습에서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편안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성기의 삶은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패배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과거 장면이 삽입된 부분으로 사건의 요약적 서술과 옥화의 말을 통해 채 장수 영감과 옥화, 그리고 계연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동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③ 옥화가 성기에게 그간의 숨겨진 사연을 말해 주는 부분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드러나긴 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④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⑤ 서술 속에 인물의 말이 문장 부호 없이 인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독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48. 비판적 사고(시점)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작가를 대리하는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나)는 작품 속 인물인 옥화가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다면, ㉠에서 ‘어미’는 옥화 자신이므로 ‘나’로 서술되고,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은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나의 뼈만 남은 손’으로 쓰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③과 ⑤는 1인칭 주인공인 옥화의 말이므로 ‘나는’으로 써야할 것을 ‘옥화는’, ‘엄마는’ 등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9.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⑥의 ‘유달리 맑게 갠’ ‘햇빛’과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우는 ‘뼈꾸기’는 계절적 변화를 알려 줌과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함으로써 성기의 절망적인 심리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고운 햇빛’은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으로 표현된 계연을 잡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성기의 안타까움을 대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② ㉠의 ‘거의 울음이 다 된’ 계연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올라오는 뼈꾸기 울음’과 어우러져 성기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④ ⑥의 ‘뼈꾸기’와 ‘화개 장터’가 시대적 상황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제시된 부분에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⑥의 ‘또다시’ ‘햇빛이 젖어 흐르는’ ‘늘어진 버들가지’는 성기의 내적 갈등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50.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ㄱ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물은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ㄴ에 따르면 현대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대비적인 두 관점 중 ‘ㄴ에 따’라 「역마」의 인물들을 해석할 경우 ‘성기를 떠난 계연은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므로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㉒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세상과 조화되는 것이므로 성기의 행동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다. ㉔ ㄴ에 따르면 「역마」의 인물들은 비합리적인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옥화가 명도의 말에 따르는 것이다. ㉕ ㄴ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운명에 따라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① 26. ④ 27. ③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⑤ 33. ③ 34. ③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③ 40. ①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④ 46. ② 47. ④ 48. ② 49. ④ 50. ②

[1-5] 듣기

1. 이제 음악과 함께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참 듣기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국악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은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 음악을 일반 대중들이 즐겨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창작곡입니다. 이 국악인들은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전통 악기를 서양 악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연주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악기들의 합주를 시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악기 조율 체계부터 달라서 같은 음을 내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야금, 피리, 대금 등과 같은 전통 악기에 기타, 신시사이저 등의 서양 악기를 더해서, 전통 악기만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국악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이들의 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즈, 가요, 록 음악 등 여러 장르와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국악인들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악기들의 협연과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해서 국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젊은 국악인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강연에서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한 젊은 국악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이질적인 악기들의 합주를 시도’했으며, ‘새로운 방식의 국악’을 위해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했다. 따라서 이 강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젊은 국악인들이 보여 준 ‘실험 정신’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2.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교양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한글의 서체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 수(남):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여): 요즘 한글 서체에 관심이 높은데요, 다양한 한글 서체의 뿌리가 되는 서체는 무엇인가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교 수(남): 예, 한글 서체의 뿌리는 문자를 창제할 당시의 모습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체입니다. 이 서체는 직선과 점 그리고 원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시죠. ‘사름’이란 글자와 ‘과’ 자를 볼까요? 모서리가 각이 진 직선과 동그란 점 보이시죠? ‘사’ 자와 ‘과’ 자는 모음 ‘ㅣ’와 같은 세로선이나 모음 ‘ㅡ’와 같은 가로선에 동그란 점이 결합되어 있죠. 또 ‘사름’의 ‘름’ 자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인 동그란 점도 있습니다.

진행자(여): 예, 그런데 붓으로 각이 진 직선이나 동그란 점을 나타내기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 수(남):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한글 서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월인석보』에 벌써 그 변화가 보이는데요, 여러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 점은 ‘ㅡ’나 ‘ㅣ’와 결합할 때 동그란 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례본의 ‘사’ 자와 ‘과’ 자의 동그란 점들이 모두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진행자(여): 아, 그렇군요. 그럼 ‘사름’의 ‘름’ 자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점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 수(남): 예, 그 경우 역시 쓰기에 편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점이 붓으로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방송의 주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최초의 서체가 『월인석보』에 이르러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에서 나타나는데, ‘사’ 자와 ‘과’ 자의 동그란 점들은 모두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되고, ‘름’ 자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점들은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①의 경우, ‘사’ 자와 ‘과’ 자가 모두 짧은 선으로 나타났고, ‘름’ 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나타났으므로, 이것이 『월인석보』에 나타났을 동그란 점의 서체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사’ 자의 동그란 점이 짧은 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 자의 동그란 점이 짧은 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인 원자시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똑딱거리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세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이용하는 국제 원자시는 30만 년에 1초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하루 24시간은 지구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주기는 달의 인력 등에 의해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원자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지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이 차이가 누적된다면 먼 미래에 아직 해는 뜨지도 않았는데 원자시계는 정오를 가리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시계의 시각에 때때로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그 1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예를 들면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가 된 후, 1초가 아니라 2초가 지난 뒤에 24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원자시가 도입된 1972년 이후 약 20여 차례 윤초가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학생의 발표에서 ‘원자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지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였으므로, ④의 ‘지구의 자전 주기와 원자시계의 24시간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발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장 정밀한 시계인 원자시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 ‘시계추의 움직임을 세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의 차이를 조정’, ‘그 1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5]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청소년 국제 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정책 담당자 분과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담당자(남): 네. 청소년 국제 교류란 청소년들이 외국과 인적, 문화적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진행자(여): 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남): 여기서 공동체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류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당자(남): 고등학생들의 국제 학술 교류 행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상대국을 방문해 학술 교류뿐 아니라 홈스테이도 하고 현지 학교생활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자(남): 네,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 청소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여):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혹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담당자(남): 사실, 청소년 국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은 대상, 장소 등, 상황이 다양한데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교류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진행자(여):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라디오 대담에 참석한 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준비, 입안, 발표, 집행 등의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 ‘정책의 추진 절차’는 이 대담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정책의 목적은 ~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에 ‘정책의 추진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 ② ‘고등학생들의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에 ‘정책의 추진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④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에 ‘정책에서 보완할 점’이 언급되어 있다. ⑤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후 부분에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라디오 대담의 진행자는 ‘정책에 대해 ~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등에서와 같이, 궁금한 점을 제시하며 정책 담당자의 추가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진행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기(②),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기(③), 논점을 환기시키기(④),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하기(⑤)와 같은 말하기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쇠뿔으로 (목재를) 결합하는 방법’과 ‘짜 맞춤 기법’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에서 ‘조직의 화합’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의 내용은 ‘짜 맞춤 기법을 통해 튼튼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짜 맞춤 기법’의 장점은 목재 자체의 단단함이 아니라 재료의 결합 방식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이나 합의를 강조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 내용은 적절하게 유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쇠뿔으로 결합하는 방법’에서 ‘외부의 개입’을, ‘쉽고 간단’에서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에서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를 유추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와 ‘착안점’의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한 유추이다.

② ㉣의 ‘짜 맞춤 기법’은 ‘서로 모양을 맞추는’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내부의 합의’는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③ ㉤의 ‘한번 결합된 목재들’은 ‘튼튼하게 맞물린다’는 내용에서,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 낸 조직’은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④ ㉥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내용에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합의 방식’이 있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7. 비판적 사고(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의 자료는, 누수 현상의 원인이 대부분 노후 수도관의 부식 때문이며, 기존의 탐지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의 자료는, 센서를 부착하여 누수를 즉시 탐지하는 새로운 누수 탐지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④에 제시된 방안에는, 수도관에 센서를 일정하게 부착하지 않고 누수 지점에 센서를 부착한다고 한 점,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 지점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의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나)와 (다)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이끌어 낸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돗물 누수 현황과 노후 수도관 비율’은 (가)의 자료에 소개되어 있고, ‘누수율 감소 대책’의 필요성은 (나)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② ‘현재의 누수 탐지 방법’이 갖는 ‘한계’는 (나)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③ ‘새로운 기술의 원리’와 이를 통한 누수 방지의 가능성은 (다)의 ‘진동의 형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탐지한다는 내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가)에는 수도관 누수의 현황이, (나)에는 기존 탐지 방식의 한계가, (다)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다루고 있으므로,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수도관 교체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누수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수정 및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I-2(주민들의 참여율 저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②에서는 '(나) III(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에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 제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I-1(~주민들의 무관심)'은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나)의 'II(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의 하위 항목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다. ③ (가) 'II(생활 체육 활동의 중요성)'의 하위 항목들은 '(나) I(생활 체육의 필요성)'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예상 독자인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계자를 고려하여 '(나) III-2(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⑤ 정책 수립과 지원 요청이라는 이 글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IV'를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 도모'가 아닌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분명하게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신입 회원이 기타를 마련하기 어려울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자리에는 ③의 '악보를 읽을 줄 모르시나요?'보다는 '기타를 마련하지 못할까 염려되시나요?' 같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소리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자, '소리샘'이 어떤 동아리인지를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샘이므로'보다는 '샘이라는 뜻으로'가 적절하다. ④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문단에서 문단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동아리의 활동 소개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셋째 문단을 둘째 문단과 맞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라고 권유한 부분은 첫째 조건(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족하고 있고,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은 둘째 조건(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충족하고 있으며,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라는 것은 셋째 조건(점층적 표현)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둘째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② 셋째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③ 첫째 조건('즐거움')만 충족하고 있다. 둘째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다른 동아리처럼'), 셋째 조건의 경우, 점층적 표현 '오늘', '내일', ' 먼 미래'가 쓰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첫째 조건('외롭고 우울한', '알 수 없는 힘')과 셋째 조건('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을 충족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11. 어휘·어법(이형태)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형태’는 의미는 서로 같고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①의 ‘에’와 ‘에서’는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이형태로 볼 수 없다. ‘에’는 앞말에 붙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에서’는 앞말에 붙어 출발점의 뜻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로/으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로’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③ ‘나/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④ ‘면/으면’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면’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⑤ ‘아라/어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간의 끝이 ‘ㅏ, ㅑ’일 때는 ‘-아라’로, 어간의 끝이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어라’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12. 어휘·어법(반의어)

정답해설 : <보기>의 ‘시계가 서다/가다’, ‘서서/앉아서 보다’에서처럼, 다의어를 반의어로 바꾸어 쓸 때는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해당 의미에 대응하는 반의어를 선택해야 한다. (가)에 들어갈 예문은 반의어 ‘넣다’와 짝을 이루는 ‘빼다’가 쓰인 ①(‘바람을 빼다/넣다’), ③(‘손을 빼다/넣다’), ⑤(‘경기에서 그를 빼다/넣다’)가 적절하다. 그런데 ①, ③, ⑤에서 (나)에 들어갈 말로 제시된 것 가운데, ‘적금을 빼다’의 ‘빼다’와 반의관계를 이루는 것은 ‘(적금을) 들다’뿐이다. **정답 ⑤**

[13-16] 고전 소설 - 작자미상, ‘금방울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남주인공 해룡과 여주인공 금령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전생의 인연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주인공 금령의 적극적인 활동과 애정 성취는 당시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귀 획득과 신분 상승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 계층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주인공의 고난과 시련은 이런 독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금방울전’과 유사한 작품으로 ‘김원전’이 있는데, ‘김원전’의 김원도 해룡과 같이 요괴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한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작품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장면은 막 씨가 금령을 낳고 처음에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결국 금령에 정이 들게 되는 부분과, 요상한 금령을 제압하고자 했던 장 공이 금령의 신통함 앞에서 의지를 접자 금령이 보은초로 장 공의 부인을 살리는 부분에 해당한다. 금령의 신이한 능력이 잘 드러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금령의 가치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혼사를 성취하는 금방울(금령)의 삶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1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A]에는 장 공이 뇌양에 온 후 부인이 병을 얻어 위독했으나 금령이 보은 초를 가져다 주자 살아나게 된 사건의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부인의 말을 통해 과거 난리 중에 아이를 잃고 한을 품은 채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금령에 대한 장 공 부부의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등장인물은 장 공 부부와 금령, 그리고 집안사람들이며,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14.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장 공은 금령이 가져다준 보은초로 인해 부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뻐한다. 부인이 회복된 후에 장 공 부부는 막 씨를 찾아가 금령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금령을 아끼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㉔의 ‘집’을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집’에서 막 씨와 장 공의 부인은 형제의 연을 맺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초막’은 ‘조그맣게 지은 초가의 막집’이라는 의미로 빈곤한 막 씨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② 막 씨가 금방울을 아궁이에 집어넣었는데, 그 곳에서 향기가 풍겨 나왔다는 것은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③ ‘정문’은 ‘충신, 효자, 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으로, 막 씨의 효행을 널리 알려 막 씨를 본받을 만한 인물로 칭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금방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주인공 금방울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내용으로 볼 때,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치는’ 것은 모두 금방울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로, 금방울에게는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처음 금방울을 낳았을 때, 막 씨는 금방울이 해괴한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해치려고 하였다. ③ 금방울은 늘 막 씨 곁에 머물며 딸처럼 막 씨를 봉양하고 있다. ④ 제시된 행위들은 초월적인 행위들로,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⑤ 금방울이 가져온 보은초를 통해 장 공의 부인이 살아났으므로, 금방울은 장 공 부부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16. 사실적 사고(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은 ‘죽어도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장 공 부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각골통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 ㉢ 사필귀정: 만사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20] 현대 소설-박태원, ‘천변 풍경’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청계천 변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한 세태 소설로,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품이다. 우선 이 작품은 대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도시의 문화와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물질주의에 경도되어 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도시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가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단편 소설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어 총 50개의 절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 작가는 소년 창수의 눈으로 도시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영화적 촬영 기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서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제] 1930년대 서울 중산층과 하층민의 삶과 애환

1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된 본문을 읽다보면, 삽표의 잦은 사용이 쉽게 눈에 띈다. 이 때 삽표는 여러 대상과 장면을 한꺼번에 이어서 서술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문장 안에서 삽표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와 장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창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내면을 모두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간혹 제시되긴 하지만, 이 대화는 도시에 처음 온 창수의 상황과 도시에 대한 창수의 심리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 창수의 의식이 분열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제시된 본문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놀라는 창수의 모습이 부각된 부분으로,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8. 창의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한다는 의미이다. 즉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의 현실과 관련지어 작품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작품을 탐구하는 것은 청계천 주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려는 ⑤번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물의 의식과 행동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는 작품 내부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감상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② 작중 인물 간의 갈등에 주목하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속한다. ③ 작중 인물, 공간에 주목하며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④ 작중 인물의 외양, 인물의 성격 등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19. 추론적 사고(인물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은 창수 주위로 몰려든 서울 아이들로, 이 아이들은 창수를 시골 아이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고 있다. ㉡은 ‘서울 아이’들을 포함하면서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는 아이도 포함하고 있다. 즉 창수를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아이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는 아이를 뜻한다. 그리고 ㉣은 이 소설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창수’이다.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서울 아이들 외에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던 아이’도 ‘창수를 비웃은 아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라고 말을 거는 것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창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20.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의 화려함과 그 이면적 풍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 소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감상할 때,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는 것은 대상에서 받는 느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작품 내의 흐름으로 볼 때, 창수는 도시의 현란한 모습에 신기해하고 있을 뿐, 아직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리 밑’은 거지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창수가 이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현란함에 휘둘려 도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서울 아이들은 놀라지도 않는 ‘자전거 종소리’에 놀라는 창수의 모습은 도시에 존재하는 생소한 것들에 대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창수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④ 이발소 창 앞에 있던 아이가 건네오는 말에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창수의 위축된 심리를 드러내준다. ⑤ 도시의 모습에 황홀해하며 흥미를 느끼면서도 아버지를 따라 내려갔으면 하는 데서, 창수가 꿈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21-24] 인문, ‘과학적 지식의 검증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귀납 논증의 장점과 한계를 밝히고, 귀납 논증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포퍼의 주장을 제시한 글이다.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은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역 논증을 통해 반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이 성공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연역 논증을 통한 반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과학적 지식의 진위 여부를 논증하는 방법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그 이유를 귀납 논증에 의한 결론이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은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의 출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은 귀납 논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2. 추론적 사고(견해의 추리)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과학은 반증에 의해 발전된다고 언급한 것과, 4문단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퍼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반증의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귀납 논증은 치밀한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더라도 거짓일 수 있으므로 반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성공적인 지식은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지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학적 지식은 반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반증을 회피하는 것은 포퍼의 생각과 다른 견해이다. ⑤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되는 과학적 지식은 연역 논증에 의한 반증을 극복해야 성공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므로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3.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ㄱ), (ㄴ)에서 (ㄷ)이 도출되는 과정은 연역 논증이고, (가)에서 (나)를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 논증이다. 그런데 1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귀납 논증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ㄱ), (ㄴ)에서 (ㄷ)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귀납 논증은 전제인 (가)가 참이어도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의 존재 여하에 따라 결론인 (나)가 거짓이 될 수 있다. ② (ㄴ)과 (가)는 관찰한 사실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ㄴ)이 성립한다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와 같은 전제가 아무리 많이 쌓인다 해도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없다. ⑤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과학적 지식은 (ㄱ)~(ㄷ)과 같은 연역 논증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24. 어휘(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의 의미이므로 ‘지식’을 주어로 한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는 반증들을 잘 참아낸다는 의미보다는 반증을 적극적으로 잘 ‘방어해’ 낸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씬’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실재’는 ‘실제로 존재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입증’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전무’는 ‘전혀 없음’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25-28] 예술,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

지문해설 : 이 글은 만화와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화는 정지된 이미지이고, 영화의 이미지는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만화에서의 움직임은 읽기라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만화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만화처럼 자유롭게 구현하기 어렵다. 만화의 이미지는 만화가 개인의 해석을 담아 독특한 시선과 솜씨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카메라라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기술적 익명성을 함축하고 있다. 영화의 이미지는 현실의 개입이 필연적이지만, 만화의 이미지는 외부적 현실의 개입이라는 외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제] 만화의 이미지와 영화의 이미지의 차이점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첫 단락에는 영화와 만화가 ‘움직임의 유무’로 구별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으로 제시되는 이미지인 반면 영화는 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간을 재현한 예술 장르라는 것이다.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이 영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①은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답이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만화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가 일정하여 감상의 속도가 강제되지만, 만화에서는 각 칸에 대한 독자의 읽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④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필름에 착상되는 사진적 원리에 따라 생산되는 것은 영화 이미지이다. ⑤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어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되는 것은 영화 이미지이다.

26.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영화 이미지는 촬영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화의 이미지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영화에서는 촬영한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에서 합성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특수 효과가 활용되는데, 이는 영화가 만화처럼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특수 효과는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던 영화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으로 인해 제작 주체의 의도가 비교적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기존의 영화이다. ③ 촬영된 이미지를 다시 합성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⑤ ㉠은 영화에 만화적 상상력이 도입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만화 표현을 통해 확인하고자 제시된 것이다. <보기>의 ㉠에 나오는 효과선은 속도감을 암시하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효과선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발 쪽에 ‘다다다’라는 글자가 크기를 점점 크게 하는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효과선을 지우면 속도감에 대한 효과는 줄어들겠지만, ‘다다다’로 인해 속도감을 드러내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만화는 각 칸에 대한 독자의 읽기 시간이 다를 수 있다. ② ‘짜당’은 언어적 정보를 통해 인물이 넘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이 넘어진 그림은 ‘인물이 넘어졌구나.’를 드러내주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④ 인물의 얼굴과 몸의 형태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담겨 있는 ‘서명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⑤ 영화의 프레임은 변화가 없지만 <보기>의 ㉠부터 ㉢의 칸들은 모양도 크기도 각각 다르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28. 어휘·어법(합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은 합성어인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가 원래 서로 담고 담길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주머니’는 ‘돈 따위를 넣으려고 형겅으로 만들어 끈을 꿰어 허리에 차게 된 물건’이라는 의미므로, 이 안에는 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들어가게 된다. 또 ‘피’는 추상적인 것으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과 ‘그릇’의 합성어로, ‘국’은 ‘그릇’에 담길 수 있다. ② ‘기름’과 ‘통’의 합성어로, ‘기름’은 ‘통’에 담길 수 있다. ④ ‘물’과 ‘병’의 합성어로, ‘물’은 ‘병’에 담길 수 있다. ⑤ ‘쌀’과 ‘가마니’의 합성어로, ‘쌀’은 ‘가마니’에 담길 수 있다.

[29-31] 과학,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제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는 이상 기체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실제 기체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방정식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학 연구의 절차를 잘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는 1문단에서, ③, ④는 2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0. 사실적 사고(두 대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부피가 V 인 용기 안에 있는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를 b 라 할 때,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 만큼 줄어든 $V-b$ 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기체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에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과 4문단을 통해 기체 상태 방정식이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을 통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한 것임을 알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분자의 자체 부피를 b 라고 설명했고, 4문단에서 b 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3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고, 반발력은 기체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A와 B는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하면서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작다는 것은 A가 B보다 분자 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A가 B보다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데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지면 A, B 모두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분자 간 상호 작용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③ P2에서 P3 사이에서 A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작고 B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통해 A가 B보다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는 이상 기체보다 A와 B 모두 그 부피가 크다는 것을 통해 A와 B 모두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압력에서 B의 부피가 더 크므로 B가 A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는 반발력 때문에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35] 현대시

(가) 김수영, 「폭포」

지문해설 : 이 시는 ‘폭포’를 통해 시인이 지향하는 정신적 자세를 상징적으로 그린 시이다. 폭포의 의미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물결’, ‘고매한 정신’ 등의 시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떨어진다’의 반복을 통해 그 내적 속성을 부여 받는다. ‘폭포’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떨어진다’는 부서짐과 직결되며, 이는 고통의 감내를 의미한다.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타협하지 않는 양심이며 굴종이나 무기력을 용납하지 않는 투철한 정신을 의미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곧은 소리’를 통해 이러한 폭포의 강직함과 의로움을 알 수 있으며, 다시 이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불러내는 정의의 확산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폭포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으면서 높이와 폭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다. 시인은 부정적 현실 앞에서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주눅 들지 않고, 조금의 나태함과 개인적 편안함을 용납하지 않은 채 늘 변함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 존재를 그림으로써 자신과 동시대인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다.

[주제]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고매하고 정의로운 삶의 자세

(나)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11」

지문해설 : 이 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 발견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살아 있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흔들림으로써 튼튼해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때 흔들림은 인간과 관련하여서는 슬픔이나 고독, 고통 등을 의미하게 된다. ‘수만의 잎’에서 알 수 있듯이 존재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성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빈 들’이라는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쓸리고 흔들리는 잎을 보며 인간의 삶도 그러함을,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성숙해지는 삶의 의미

(다)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지문해설 :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 고향을 떠나던 때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로 시작하여 ‘~에 있지 아니하고’로 끝나는 구조가 5번 반복된 후,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끝났다’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상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가을의 초가지붕, 여름날의 뒤란,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울리는 기적 소리,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웃고름, 눈물 흘리던 저녁 등의 핵심 소재들을 통해 화자는 고향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으며, 마지막에서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를 통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

32. 추론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폭포’, ‘떨어진다’, ‘곧은 소리’ 등의 시어와 어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살아 있는’, ‘흔들리면서’, ‘하나’ 등의 어구가 반복·변화되면서 ‘흔들림’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있지 아니하고’의 반복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환기하면서 시적 통일감을 얻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마지막 연에 ‘~있음을 피하지 마라’의 일상적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피하지 마라’가 먼저 나타난 도치가 사용되었다.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끝났다’, ‘남기며’로 표현되어 ‘~남기며 끝났다’의 문장 순서가 뒤바뀐 표현이 나온다. ② (가)와 (다)에 ‘-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나 명령적 어조는 활용되지 않았다. ③ 색채의 대조는 (다)의 ‘흰 옷자락’과 ‘파르라한 웃고름’에서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만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나타난다.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33.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가)와 (나)의 작가인 김수영과 오규원의 시작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김수영과 오규원은 방법은 다르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시인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가)의 소리는 '폭포'의 소리로 화자는 이를 다시 '곧은 소리'라고 말한다. 이는 화자가 '고매한 정신'으로 비유했듯이 대상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초월한 대상이다. 한편 (나)의 '바람'은 잎을 흔드는 외적 요소로, 존재에게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존재를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존재가 이를 통해 살아 있음을 증명하며 성숙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어이기도 하다. ③에서는 '소리'와 '바람'을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리'와 '바람'은 두 작가에게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어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매한 정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대상의 위대성, 숭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바람이 잎을 휩쓸고 지나가며 헤집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오규원이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몸의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④ 흔들리는 잎을 보며,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흔들리면서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⑤ (가)의 '폭포'는 숭고함과 위대성을 가진 존재로 김수영이 추구하는 이상인 자유와 관련되며, (나)의 '잎'은 흔들림이라는 동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흔들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3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는 다양한 소재들을 동원하여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이다. 이때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라는 고향의 특정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순이 누나 역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순이 누나' 이후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기에,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참새 떼 내려앉는', '초가지붕', '토란 잎', '뒤란', '추수 끝난 빈 들판', '짚벼늘' 등의 소재를 통해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② '웁자히 내려앉는', '쿵쿵 울리며 가는' 등에 청각적 이미지, '노오란 초가을', '흰 옷자락', '파르라한 웃고름' 등에 시각적 이미지, '서늘하고 뜨거운 기적 소리'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다. ④ 시의 마지막 부분에 수레바퀴 자국을 뒤로 하고 고향 마을을 떠나던 때의 일을 그리고 있다. ⑤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끝났다'를 통해 화자의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형상화해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부각하는 것이다.

35. 추론적 사고(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는 늘 변함없이 폭포의 '물결'이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지는 시행에서 이를 다시 '실 사이 없이'로 표현했으며, 이는 고매한 정신으로서의 폭포가 항상성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나타와 안정'은 폭포가 뒤집어 놓은 대상이다. 화자는 이 시에서 폭포를 긍정적 의미를 지닌,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런 고매한 정신인 폭포가 뒤집어 놓은 '나타와 안정'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와 연관되며, 화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 '빈들'은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장소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고요 적막한 뒤란'은 화자가 회상하는 여름날의 고향집의 한 장면으로, 화자에게는 그리움의 장소이다. ㉤ '수레바퀴 자국'은 화자가 고향 마을 떠나던 때의 상황으로, 그 자국을 뒤로 하고 화자는 고향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화자에게 '수레바퀴 자국'은 고향 상실감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36-38] 언어, '용언의 어미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용언의 문법적 기능이 용언의 어미에 의해 나타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용언의 어미가 지닌 속성을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특히 어미의 특성을 조사나 접미사의 특성과 대비함으로써 그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용언의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사와 공통적이지만 대상의 앞에 오는 선행 요소가 독립적인가 아닌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 어미와 접미사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의 여부와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 용언의 어미가 지닌 문법적 특성

36. 사실적 사고(설명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용언의 어미를 중심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조사와 접미사를 활용하고 있다. 즉 중심 논의 대상인 어미와 다른 대상인 조사, 접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개념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용언의 어미를 조사와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접미사와 비교하면서 병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 부분은 없다. ④ 대상에 대한 이견이 대립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37. 추론적 사고(숨겨진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어미, 조사, 접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어미와 조사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어미는 항상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선행 요소인 어간 또한 자립할 수 없음에 비해, 조사와 함께 쓰이는 선행 요소는 독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어간과 어미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어간+어미’의 형태로 문장 성분이 된다. ③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품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용언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 반면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3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마음이 놓이네.’라고 할 때의 ‘놓이네’는 동사 어간 ‘놓-’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놓다’와 ‘놓이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나가는’이라는 용언은 ‘선우’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만났어’는 ‘만나-’, ‘-았-’, ‘-어’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병원에 가는 길’은 ‘병원 가는 길’로 써도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 예가 될 수 있다. ⑤ ‘걱정하고’라는 용언은 ‘걱정하-’라는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인데, ‘걱정하-’라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를 결합시킬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42] 사회, ‘공적 연금의 실시 목적과 운영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국가가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운영 방식과 관련된 상반된 두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사적 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공공 부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제도를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기금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을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보는 입장이다.

[주제] 공적 연금 제도의 실시 목적과 운영 방식의 쟁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39.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 제도와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적 연금, 공공 부조, 공적 연금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공적 연금 제도와 사적 연금은 병행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공공 부조가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납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공적 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입장의 비교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③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기금을 신탁 기금으로 규정한 법률을 바꾸는 데 찬성한다. ④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은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를 비판적으로 본다. ⑤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4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가)와 (나)는 공적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불가피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이고, (나)는 고의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이다. 공적 연금 제도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사적 연금에서와 같은 역선택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하게 되면 (나)와 같이 고소득자들이 연금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역선택의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적 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경제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고용 불안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② (나)는 고소득자들이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이므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나)는 고소득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것이므로 공적 연금에서도 사적 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 (나)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커질 수 있어 공적 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42. 어휘(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의 의미이다.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은 ‘도래(到來)’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①

[43-45]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이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의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입력 패턴은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에 대응되도록 조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이 보여 주는 패턴 거리의 최솟값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단어로 추출하게 된다.

[주제] 음성 인식 기술의 실행 방법

4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이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입력 패턴은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생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44. 추론적 사고(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4문단 및 5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입력 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기준 패턴의 음소에 대응될 수 있는 개수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2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그에 맞게 입력 패턴도 ‘음소 추정 구간’을 3개로 맞추게 되고, 특징 벡터는 음소 추정 구간마다 1개씩 추출하게 된다. ② 입력된 음성 신호가 세 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준 패턴의 음소 수가 3개 이므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음소는 일대일 대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패턴 거리는 1개가 된다. ④ 입력 패턴은 기준 패턴의 음소의 개수에 대응되도록 생성된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s_1 \ s_2 \sim s_3]$, $[s_1 \sim s_2 \ s_3]$ 의 두 음소 추정 구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배열에서 입력 패턴을 생성하게 되므로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 개수 또한 2개가 된다. ⑤ 5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6문단에서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46-50] 갈래 복합

(가) 정철, '성산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서하당과 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성산(전남 담양군 창평에 있는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사'에서는 김성원의 풍류와 식영정의 자연경관을 예찬했고, '본사'는 성산의 아름다움을 계절별로 노래한 것이다. '결사(結詞)'에서는 독서를 하며 지내는 산중생활과 뜬구름 같은 세상에 술과 거문고를 즐긴다며 진선(眞仙) 같은 생활의 즐거움을 읊었다. 표현 면에서는 한자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고사의 인용이 많다.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사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를 그리고 있다.

[주제] 성산의 풍경 예찬 /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사는 풍류적 삶

(나)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작품해설 : 이 시는 봄이 되면 남산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봄나들이를 거부하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남산에 다녀오게 된 일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시이다. 특이한 점은 화자와 다른 청자들의 대화 형식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1·3·5연은 화자가 노래하는 반면, 나머지 연들은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되어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이다. 화자는 친구들에게 봄나들이를 권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과거 급제를 위한 준비나 고단함 등을 이유로 화자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자 화자는 친구들이야 가거나 말거나 혼자라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다른 인물들과의 의견 차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산수 유람을 권유하는 대화와 혼자라도 유람을 하겠다는 다짐

(다) 이양하, '신록예찬'

작품해설 : 이 글은 봄을 맞아 신록이 우거진 계절에 자연을 즐기면서 인간의 삶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출발 사이에 ‘나의 자리’라고 명명된 그루터기에 앉아 자연에 몰입하는 글쓴이는 사람을 떠나 와 조용한 자리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신록의 계절을 맞은 이때는 자연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욕망과 비루함을 떠올리며 자연의 순수함을 닮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신록의 아름다움 예찬과 인간의 욕망 비판

46. 추론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불과 손, 주인을 등장시켜 자연을 벗하며 사는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와 대비하여 변화무쌍한 인심과 세상사의 험난함을 말하고 있다. 세속의 욕망을 벗어나 한가로운 자연에서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다)에서는 신록으로 싱그럽고 반짝이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지위와 명예, 이익 등의 세속적 욕망으로 물든 사람들의 일을 떠올린다. 자연의 순수함과 무욕과 대비된 인간 삶의 욕망을 대비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책을 읽으면서 성현과 호걸의 삶과 인생의 무상함을 떠올리고 변화 많은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앞부분에 경치를 먼저 노래하고 그 후에 정서를 노래하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나)는 화자가 교체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각 수에서 화자들이 산수 유람과 관련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에 선경후정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두 작품 모두에 화자의 애상적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표면에 드러난 시간적 배경은 없으며, 삶의 무상함이 아니라 산수를 구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다)의 시간적 배경은 봄으로, 화자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이기에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④ (가)~(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나)이다. (나)의 제1수에서 친구들끼리 과거에 남산에 구경 가기로 약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전개에 따라 이런 기대와 약속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자는 아쉬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혼자라도 구경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47. 추론적 사고(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파악)

정답해설 : ‘손’과 ‘주인’이 어울려 거문고를 타며 풍입송을 즐기는 모습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로운 풍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이기에,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이 심화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한기’를 보며 역사적 인물들을 떠올려 생각해 보고 있다. ② 화자는 역사 속의 인물을 떠올리며 시대의 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 즉, 역사의 흥망에서 세상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③ 고불이 박소리를 핑계로 세상에 나가지 않은 행동을 화자는 기개가 높은 품행으로 여기고 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다. ⑤ 손은 이 골짜기의 신선이 바로 주인인가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주인의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삶이 신선의 삶과도 같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손이 주인의 삶을 흠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세사’는 세상일을 말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오던 내용을 통해 추리하면 고불이 거부했던 세속적 삶,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세속의 일이 구름처럼 매우 빨리 변하여 예측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중시 급제’는 과거 급제를 말하는 것으로, 당대 선비들의 입신양명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산수 유람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사’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중시 급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산’은 화자가 봄나들이를 가고자 하는 공간으로 자연 친화의 공간이다. ③ ‘승유편’은 자연을 즐기는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세사’와는 오히려 대비된다. ④ ‘창’은 몸이 고단하여 편안한 집에서 쉴 것이라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다. ⑤ ‘양신 미경’은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 것으로, ‘세사’와 대비되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9.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 창작 배경과 시상 전개の特徴을 설명한 글이다. 제3수의 종장에는 복건 망혜의 소박한 차림으로 자연을 즐기다 돌아와 승유편을 지어 후세에 남기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므로,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관용어구가 사용되지도 않았다. 제4수의 초장은 벗이 함께 가든 아니든 남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은 봄나들이를 갈 것을 말하는 부분으로, 역시 엄숙한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다)의 시상이 서로 다른 인물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제1수와 제3수에서는 산수 유람의 약속을 지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화자가 나타나며, 이에 대해 제2수에서는 과거 급제를 이유로, 제4수에서는 고단함을 이유로 산수 유람의 청을 거절하는 친구들이 나타난다. ③ 제1수에서 화자는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찌리’라고 말하며 산수 유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5수에서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은 몸이 고단하여 산수 유람을 거절하고 있는 친구가 편안한 집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며 지내는 것이 더 좋음을 말하는 부분이다. 방의 모습,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50. 비판적 사고(어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및 정서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신록이 황홀함과 기쁨을 준다고 말한 것이지, 자신이 고고하다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하지 않았다. ‘고고함’은 세속을 떠난 선골의 자세를 말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신록’이 고고한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자리’는 솔밭 사이의 소나무 그루터기로,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명명해 주었다는 진술로 볼 때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홀로 와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자신에게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이 가득 한 계절에 글쓴이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비유한 것이다. ④ 2문단에서 글쓴이는 ‘사람 사이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라고 말하고 있다. ⑤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볼 때, 글쓴이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③ 18. ③ 19. ① 20. ②
 21. ③ 22. ⑤ 23. ② 24. ③ 25. ④ 26. ③ 27. ④ 28. ① 29. ④ 30. ④
 31. ② 32. ② 33. ① 34. ③ 35. ③ 36. ②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④ 43. ① 44. ⑤ 45. ④

[1~5] 화법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지현의 ‘연못 말고 다른 사례를 ~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아야.’로 보아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제시되기는 했지만,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경완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미의 ‘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해야겠어.’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현의 ‘이 원리를 알아 두면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덧붙이면 좋겠어.’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현의 ‘마무리할 때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질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수미의 발표를 보면 물이 어는 원리와 관련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발표에서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과학 시간에 ~ 배웠는데, 기억나시죠?’라는 발언으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 ‘물은 4°C에서 0°C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이 어는 현상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발표에는 어떤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 발표에는 물이 어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실험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3.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진행자가 종합해야 하는 댓글 내용은 ‘759, 남의 집을 기웃거림’, ‘758,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굴’, ‘757,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756, 벽화 보존에 대한 걱정’ 등이다. 여기서 759와 758은 사생활 보호, 757과 756은 벽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모두 다룬 ④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댓글 756이 벽화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지만 벽화의 훼손 실태나 그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②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효는 댓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댓글 758의 전반부에 마을 주민이 화를 내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후반부에는 자신이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다. ⑤ 소음 피해 최소화와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은 댓글 758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다.

[4~5]

4.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소연은 창완의 발화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창완의 마음에 어떤 장면이 와 닿았는지를 물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②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연은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는 창완의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창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이전 발화에서 창완이 말을 중단하자, 소연은 ㉡ ‘괜찮아, 말해 봐.’라고 창완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④ ㉢에서 소연은 ‘부자간의 갈등이 ~ 인상적이었어’, ‘영화를 보면서 ~ 자꾸 떠오르더라고.’ 등 창완의 발화를 토대로 창완이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⑤ ㉣에서 소연은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창완의 감정을 파악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며 창완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는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났다',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며 아버지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족'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 받고, 글쓴이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글쓴이는 작문 일지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 정하기, 제재 연상하기, 예상 독자 설정하기, 개요 수정과 고쳐 쓰기 등을 통해 좋은 글이 완성되기 위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작문 일지에는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예상 독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반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쓴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하기도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의 주제가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족 여행, 어머니의 사랑, 우리 집, 영화, …….' 등을 무작정 떠올려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④의 (가) 그래프에서 청소년 체험 활동의 유형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종류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그래프를 통해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체험 활동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시간이 없어서'나 '비용이 부담되어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자료 해석은 적절하다. ③ (다)에서 체험활동이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청소년의 체험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나)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에 전문가가 주장한 것처럼 국가와 자치 단체, 그리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자료 활용은 적절하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홍보 문구 제작을 위해 제시된 조건은 첫째, 자료 (나)에 제시된 이유 즉, '시간, 비용, 정보, 필요 및 흥미' 중 두 가지를 활용하라는 것과 둘째, 문답법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⑤의 경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후, '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라고 답하고 있어 문답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원하는 재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에 제시된 이유 중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의 경우, '무료'와 '정보'라는 (나)의 이유 중 두 가지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의 경우, '~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묻고 그 답을 던지고 있으나, (나)에 제시된 이유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③의 경우, (나)에 제시된 이유 중에 '정보'와 관련된 이유 한 가지만 반영하고 있으며, 문답법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에 제시된 이유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홍보 문구의 내용도 청소년의 체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를 때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잊고 학교에 갔었던 상황 등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즉 20초 동안 대상을 집중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제안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친숙한 대상에 비유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②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대한 비유를 찾기 어려우며, ㄴ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④, ⑤ ㄴ에서 말하는 공간적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단어 수준에서부터 연결 관계와 호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고쳐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주어인 ‘전문가들은’을 고려하면 서술어인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그러므로’는 이유나 원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그렇다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의 ‘-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저장되어진다고’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형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므로 이를 피하여 ‘저장된다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인 기억력 향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5] 문법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사례들의 정확한 발음을 파악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단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8개의 사례는 각각 ‘부역[부역], 간[간], 옷[옴], 빛[빔], 달[달], 섬[섬], 앞[압], 창[창]’으로 발음된다. 정답은 ④로, ‘박’이 [박]으로, ‘밑’이 [밋]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부역[부역]’을 통해 ‘ㄱ’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과 ‘옷[옴]’, ‘빛[빔]’을 통해 ‘ㄷ’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박]’, ‘밑[밋]’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사례로 적합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사례 중에서 ‘부역’은 [부역]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의 자음이 ‘ㄱ’에서 ‘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② ‘부역[부역]’, ‘앞[압]’은 거센소리(ㅋ, ㅍ)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뀐 경우이고 ‘달’, ‘섬’, ‘창’은 예사소리(ㄹ, ㅁ, ㅇ)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뀌지 않은 경우이지만, ‘옷[옴]’, ‘빛[빔]’을 보면 예사소리(ㅅ, ㅈ)일 때에도 음절 끝 자음이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③ ‘옷[옴]’, ‘빛[빔]’을 통해 ‘ㄷ’으로도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부역), ㄴ(간), ㄷ(옷, 빛), ㄹ(달), ㅁ(섬), ㅂ(앞), ㅇ(창)’이다. 따라서 이를 ‘ㄱ, ㄴ, ㄹ, ㅁ, ㅂ, ㅅ, ㅇ’라고 진술한 ㉤은 타당하지 않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이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보기 1>에서 ㉠의 ‘달리기’는 명사로서 관형어 ‘하는’의 수식을 받으며, ㉡의 ‘달리기’는 동사로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는다. <보기 2>에서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와 ㉤인데, ㉣는 ‘추-’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는 ‘걸-’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다.

13.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에 대해 제시된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함에 비해,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누나가’라는 주어에 더해 각각 ‘동생을’과 ‘실내 온도를’이라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이 누나에게 선물을 주다.”의 ‘주다’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할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을’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다. ㉡에서 A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에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③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과 ㉣의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다. ④ ㉤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데 B의 사례가 없음을 통해 ‘공을 차다’의 서술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A(주동문)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의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14.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㉔로, ㉔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㉔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㉑은 “(네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㉒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㉓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㉔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특정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㉔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바래다'㉔이 아닌 바래다'㉑의 용례에 해당한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다의어(多義語)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데, 바라다'과 바래다' 모두 각각 ㉑과 ㉔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국어사전에서 【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바라다'과 바래다'㉔ 모두 【…을】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바라다'은 ㉑ ‘(누가) 요행을 바라다.’, ㉔ ‘(누가) 돈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바래다'㉔ 역시 ‘(누가) 이불을 바래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에 쓰인 ‘*바래’는 바라다'㉔의 뜻을 지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바라다’의 ‘바라-’에 종결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어울릴 때 “*집

에 가아.”가 아니라 “집에 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 -아’는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④ 국어사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데, ‘바래다’의 발음이 [바:--]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첫 음절 ‘바’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30] 독서

[16~18] 과학, ‘태양빛의 산란’

지문해설 : 이 글은 태양빛에 포함된 가시광선이 여러 빛깔로 나뉘게 되는 산란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나뉘게 된다.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에 의해 하늘빛은 파랗게, 구름빛은 하얗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른 산란의 원리와 유형

16.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글의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산란의 개념을 제시한 후, 산란을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의 관계라는 원리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구분했다. 2문단에서는 레일리 산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3문단에서는 미산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산란의 원리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는 1문단에서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므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는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므로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④ 3문단에서는 미산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구름의 색을 미산란의 구체적 사례로 들고 있다. 따라서 미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은 3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기는 어렵다. ⑤ 1문단에서 가시광선의 종류와 파장의 관계가 언급되고, 2문단에서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모두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므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17. 내용 추론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레일리 산란의 경우 ‘산란의 세기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이 파란빛을 가장 잘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파란빛이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라빛이 가장 크고 붉은 빛이 가장 작다.’라고 했으므로 이 빛깔 사이에 들어 있는 파란빛은 보라빛보다 진동수가 작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라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라고 하였으므로,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 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2문단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 1문단에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산란의 세기는 진동수의 네제곱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3문단의 8행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로 미루어 보아 달의 하늘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와 같은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보기>에 나타난 산란 현상을 지문의 내용에 비취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직경 10~20nm의 먼지 미립자가 균질하게 분포하였다’에서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따라서 먼지 미립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가 온 후는 ‘먼지 미립자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에서는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다고 하였고, 이때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 범위를 초과한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미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산란 때문이겠군.’은 타당한 진술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 직경 10~20nm의 먼지 미립자가 균질하게 분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므로 먼지 미립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먼지 미립자가 제거되어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더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낮은 하늘의 구름이 희게 보이는 것은 직경이 10,000nm 정도의 에어로졸 입자가 미산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A 도시에 비가 온 후에는 ‘먼지 미립자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맑은 날에는 공기 입자에 의

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 범위를 초과한 에어로졸 입자가 분포하므로 미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1] 기술, 플래시 메모리

지문해설 : 이 글은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1개의 셀은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차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0의 상태가 된다. 이 정보를 읽을 때는 D(드레인) 쪽에 3V의 전압을 가해주는데, 이때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없으면 전자가 흐르게 된다. 이 전자의 흐름을 통해 셀의 값을 확인한다. 그리고 G(제어 게이트) 혹은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 주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를 채우거나 없앨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쓰기과 지우기를 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EPROM이 가진 장점과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 EEPROM이 가진 장점을 취하였으며, 비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

19.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메모리 셀이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 한 개로 되어 있음을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읽기와 지우기, 쓰기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앞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 언급되어 있으며, 사용 방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플래시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기능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을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이나 새로운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

20.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터널 절연체는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절연체를 사용했을 경우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채우거나 비우는 작업, 즉 데이터를 쓰거나 지우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에 3V의 전압을 가하는 것은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 유무를 확인하기(데이터 읽기) 위한 것이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없으면 흐르는 것이지 전자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칩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은 5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EPROM에 대한 설명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④ 5문단에서 EEPROM은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반면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셀 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EPROM이다. ⑤ 5문단에서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과 4문단에서 설명하듯 데이터의 저장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데, 이때는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한다. <보기>에서 ㉠과 ㉡에 20V의 전압을 걸어 주는 것이다. 2단계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한다. <보기>에서 ㉢에 20V의 전압을 걸어 주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걸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이동하고, G에 20V의 전압을 걸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1을 0으로 만들고, 0을 1로 만들기 위해 1단계에 ㉠과 2단계에 ㉢에 전압을 걸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문단에서 '데이터 지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을 0으로 만들고 난 뒤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

[22-25]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움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의미

22.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1문단에서 기마상에서 뺀어 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3.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어느 곳에 있던 중심의 기마상에 시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월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②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④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⑤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5.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갠다는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름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②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③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⑤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6~27] 인문, '냉전의 기원에 대한 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냉전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수정주의는 전통주의를 비판하는 견해로, 냉전의 책임이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정책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탈수정주의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주장을 절충한 견해로, 냉전의 책임을 어느 한 쪽이 아닌,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탈수정주의의 연구 성과는 무난해 보이지만,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세 가지 연구 결과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수정주의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정책으로 냉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서 미국이 봉쇄 정책을 수행했다고 보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봉쇄 정책이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은 수정주의 견해가 아니라 전통주의 견해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절충적 성향을 가진 탈수정주의 시각은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미국과 소련이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여 대응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게 된 것이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닌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가)는 ㉠의 탈수정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미국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폈더라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소련이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나)는 ㉡의 전통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세계 철강 총생산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앞서므로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소련이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다)는 ㉢의 수정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28~29] 사회,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지문해설 : 이 글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데 공해 사건에서 인과 관계라는 요건은 입증 어려워 문제가 된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위치에서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해 소송에서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여전히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지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다.

[주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요건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지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과 관계'이다. 따라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성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요건들의 입증 책임은 부담이 덜한 쪽에 지우는데, 그 사람은 상

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이다. ④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부담하고, 입증 책임 당사자는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입증 책임자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공해 소송에서 공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라는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즉 <보기>에서 제시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입증되어야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지문에 진술된 것처럼 공해 소송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보기>의 대법원은 세 가지 중에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하여 입증의 정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어민들에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 회사 쪽에 있다고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입증해도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민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② 4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인과 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③ <보기>에서 대법원은 어민들이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하면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0] 생활독서, 독서 과정

30.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부분을 통해 볼 때, 학생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는 내용은 있지만,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나는 역사책을 좋아하니까 ~’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45] 문학

[31~33] 현대시 - 김소월, '접동새'

지문해설 : 이 시는 설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슬피 우는 접동새를 보며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누이는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죽은 후 접동새가 되어 떠돌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죽은 누이의 애절함과 누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주제]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월한 혈육의 정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에서 '-랴'는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시의 주된 정서는 한으로서,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인한 누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애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는 '진두강 가람 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고향이나 시골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이 시에서 행의 길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같은 연에서도 상대적으로 길고 짧은 행이 교차되고 있다. ⑤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라는 시구가 2연과 3연에서 반복되는데,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것과 그 이유를 결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의 화자는 '누나'에 대해 시종일관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이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연민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3연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연에서는 '누나'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울음이 비극적으로 죽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죽었다는 비극적 사연이 제시되어 있다. ④ 4연의 '오오 불설워'는 화자의 서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구절이다. '불설워'는 '몹시 서럽다'라는 뜻의 방언이다. 따라서 직설적으로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우리'는 흔히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므로, 화자와 '누나'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김소월의 시에서는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한이 생긴다고 했다. 5연을 보면 죽어서도 동생들을 ‘차마’ 못 잊어, 밤이 깊어도 이 산 저 산을 훑어가며 슬피 운다고 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체념적 상황에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한 ‘누나’의 한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누나’가 의붓어미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시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은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를 의미하므로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체념하고 있을 때는 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④ ‘누나’가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오래동생’과 이별하는 ‘누나’의 심경은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슬피’ 우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것은 ‘누나’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다.

[34~37] 현대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미국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주인공 방삼복에 대한 희화화와 풍자를 통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채만식의 소설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해방이 되어도 기뻐할 줄 모르던 신기료장수인 방삼복은 귀동냥으로 배운 서툰 영어로 우연히 미군의 통역을 해 주면서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빼푼이’라는 별명은 ‘미스터 방’이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고, 미군의 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부를 축적하게 된다. 방삼복과 함께 이 소설의 또 다른 풍자의 대상인 백 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해방과 함께 몰락하게 되자 새로운 권력을 이용하여 일제 강점기 때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는 인물이다. 시대의 격변기에 하루아침에 지위가 뒤바뀐 방삼복과 백 주사를 통해, 작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권력에 기생하며 득세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과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출제된 부분은 방삼복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방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과 백 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복수를 방삼복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다.

[주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풍자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주요 등장인물인 방삼복과 백 주사의 심리 상태는 물론, 해방을 맞이하여 자기의 이익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방삼복의 작중 상황이나 백 주사가 예전의 부를 되찾기 위해 불쾌하지만 방삼복에게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건 등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소설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②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④ 지문 속에 회상과 관련된 장면은 없으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는 액자소설식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지문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상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에 신기료장수인 방삼복 혼자 값을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파는 업자들도 값을 올려서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만 올랐지, 자신이 얻는 소득은 예전과 비슷하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방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 자체를 갖지 못한 방삼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방삼복은 해방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② ㉢은 순사가 없어져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한 치안 부재의 상황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방삼복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④ ㉣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권력과 부를 누리던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몰락하여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백 주사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⑤ ㉤은 갑자기 득세하여 미스터 방이 된 방삼복이 술을 먹으면서 생긴 버릇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혼란스러운 내면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36.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친일파로 일제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백 주사의 몰락을 가져온 해방의 시대 상황은 올바른 역사의 흐름이지, 개인을 억압하는 부당한 시대 변화로 볼 수 없으므로 ㉡는 올바른 감상 활동이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방된 사회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방삼복의 출세는 해방 직후의 사회의 혼란상을 통해 부정적 단면을 보여 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올바른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백 주사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상황을 반전시켜 옛날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방삼복

을 이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독립을 기뻐했다가 다시 불리할 때는 해방의 상황을 욕하는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비판하는 활동은 올바른 감상이다. ⑤ 해방 전 자기가 권력을 누릴 때 대수롭지 않았던 존재였던 방삼복이 미군정 시대에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부탁하는 백주사의 이중적 태도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 감상이 가능하다.

37. 상황에 적절한 속담 적용

정답해설 : ㉠은 백주사가 방삼복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간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고 동시에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의미하는 ‘뽕 먹고 알 먹는다.’가 이에 부합하는 속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을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방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⑤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말 못하다가 뒤에 가서 불평하는 것으로, 화가 난 마음을 애매한 다른 곳에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8~40] 고전시가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한 민요로, 경북 경산 지방에서 채집된 것을 현대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이다. 친정에 다니러 온 여인과 사촌 자매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 여인들의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그려 냄으로써 힘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38.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형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

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1~43] 고전소설 - 김만중, ‘구운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유배지에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고전 소설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원하던 부귀영화를 꿈속에서 이루지만 이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 불교에 귀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현실-꿈-현실’이라는 액자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은 초월적 세계로, 꿈은 현실적 세계로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세속적 욕망을 원하던 성진은 꿈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이루지만 이것이 결국 덧없음을 깨닫고 불교에 정진한다. 유교의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空)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4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는 성진과 그 주변 환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것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는 성진의 내적 독백이지만 이것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성진과 육관 대사의 대화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⑤ 서술자가 개입하거나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4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노승이 양소유에게 아직도 춘몽에서 깨지 못했다라고 하자, 양소유가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소유가 팔 낭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진의 말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육관 대사의 말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성진의 생각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성진의 생각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의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은 성진이 아직 꿈속 삶(세속적 삶)을 살기 전의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은 꿈속 삶의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은 성진의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은 꿈속 삶(세속적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이후의 일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꿈속 삶으로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③ ㉢은 성진이 꿈속 삶에서 깨어난 후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이 있기 전이므로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④ ㉣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을 성진에게 주기 위해 비유한 것이므로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은 육관 대사의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깨닫지 못한 성진이 가르침을 달라는 내용이므로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4~45] 수필, 윤오영, ‘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4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수필은 봄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통념,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필은 흔히 일상적 소재를 취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개성적인 통찰이 중요한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도 봄에 대한 개성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분석이란 복잡한 대상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봄이나 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볼 수 없다. ③ 자연친화적인 수필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걸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싹싹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훌쩍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⑤ 이 수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⑤ 22. ④ 23. ④ 24. ⑤ 25. ② 26. ③ 27. ④ 28. ④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② 37. ① 38. ① 39. ④ 40. ③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1~5] 화법

[1~3]

1. 토의의 절차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진행된 토의 속에서 토의의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먼저 정 과장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관광객이 줄고 있음을 문제와 관련된 현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김 교수의 제안에 대해 정 과장은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2.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김 교수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서원을 전통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다녀온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이끌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발언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정 과장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3. 협상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의 후 진행된 협상에서 참여자들이 조정 단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토의에서 고택 주인은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라며 이미 정 과장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고택 주인이 토의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협상 조정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정 과장은 고택 주인이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고택 주인은 정과장이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⑤ 고택 주인은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4~5]

4.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소연은 창완의 발화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창완의 마음에 어떤 장면이 와 닿았는지를 물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소연은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는 창완의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창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이전 발화에서 창완이 말을 중단하자, 소연은 ㉣ ‘괜찮아, 말해 봐.’라고 창완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에서 소연은 ‘부자간의 갈등이 ~ 인상적이었어’, ‘영화를 보면서 ~ 자꾸 떠오르더라고.’ 등 창완의 발화를 토대로 창완이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에서 소연은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창완의 감정을 파악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며 창완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는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났다’,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며 아버지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7]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청소년 소비 태도’와 관련한 주장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④의 경우 ‘Ⅱ-3-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상표에 기대려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소비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경우, 글의 유형이 논설문인 점과 글의 내용이 ‘청소년의 소비 태도’와 관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경우, ‘Ⅲ. 결론’의 제시 방법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경우, 상위 항목인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의 원인 분석에 해당하는 현황이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청소년의 금융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의 경우, ‘Ⅱ-2-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글의 흐름에 어울리므로 ‘또래 집단 내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Ⅱ-3-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로 인해 충동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청소년이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들의 구매 선택에 광고 속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상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 내용은 ‘Ⅱ-3-다’의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에 접목하면 ⑤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충동 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광고와 연관된 내용과 비판적 수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비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광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는 ‘II-3-다’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광고가 비효율적인 광고임을 청소년이 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개요의 흐름과 거리가 멀다. ④ 청소년의 소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모바일 기기’와 ‘정보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은 개요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8. 글쓰기의 전략

정답해설 : 개요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글쓴이의 계획이 실제 글쓰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는 답사 취지는 제시되어 있지만, 답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2행에는 베개 용암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이 밝혀져 있고, 13행에는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밝혀져 있다. ③ 11~12행에서 베개 용암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답사의 목적이 밝혀져 있다. ④ 3행에서 ‘베개 용암’이라는 답사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8행에서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에서 밝히고 있듯이 답사 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1행에서 ○○신문에 언급된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2~4행에서 답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 또한 밝히고 있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를 때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잊고 학교에 갔었던 상황 등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대한 비유를 찾기 어려우며, ㉡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단어 수준에서부터 연결 관계와 호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고쳐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주어인 ‘전문가들은’을 고려하면 서술어인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그러므로’는 이유나 원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그렇다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의 ‘~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저장되어진다고’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형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므로 이를 피하여 ‘저장된다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인 기억력 향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의 일부 조항들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의 세 번째 항목인 ‘니’ 모음의 발음에 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첫째 ‘그, 니’처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기], [니]처럼 []로 발음할 것, 둘째 ‘충의’와 같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로도 발음할 수 있어 ‘충의’는 [충의]나 [충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것, 셋째 관형격 조사 ‘의’는 [게]로도 발음할 수 있어 ‘우리의’는 [우리의]와 [우리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충의의’를 [충의의], [충이의], [충의에],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는 ⑤의 진술은 사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개’의 ‘개’와 ‘계’의 ‘계’는 엄연히 다른 단모음으로 이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흔히 사람과 지역에 따라 ‘개’를 ‘개’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기>의 두 번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계’와 ‘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보기>의 첫 번째 항목을 확인하면,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때 그 발음은 [네]와 같아진다. 따라서 ‘금괴’를 [금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③ <보기>의 두 번째 항목을 확인하면, ‘예, 레’ 이외의 ‘케’는 [게]로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④ <보기>의 첫 번째 항목에서 규정한 것은 ‘비취다’의 ‘귀’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귀’를 []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따라서 ‘비취다’를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녀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등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의 의미에 따라 ‘(으)로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데’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13. 각 품사의 기능,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아니오’와 ‘아니요’에 대한 탐구를 일반화하여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어말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확인하면 ‘아니오’는 부정의 대답 ‘아니’에 보조사 ‘요’가 붙어 된 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 어미 ‘-오’가 붙어 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종결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으로, “당신이 와서 기쁘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도 종결 어미 ‘-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의 ‘적용’ 단계에 제시된 빈칸에는 ‘요’가 아닌 ‘-오’가 와서 ‘안 되오’가 되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칸에 ‘요’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되어’의 준말 ‘돼’에 보조사 ‘요’가 붙은 ‘돼요’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아니-’, ‘기쁘-’ 등은 모두 어간이며 여기에 ‘-오’가 붙어 ‘아니오’, ‘기쁘오’로 실현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멈추시오’는 ‘멈추- + -시- + -오’로 분석되어 ‘용언 어간 + 선어말 어미 + 종결 어미’의 구조인데, 이를 통해 ‘-오’가 선어말 어미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오’를 뺀 상태의 문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십시오, 가오, 가게, 가라(가렴, 가려무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상대방을 보통 정도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14.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네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특정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바래다1㉠이 아닌 바래다1㉡의 용례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의어(多義語)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데, 바래다1과 바래다1 모두 각각 ㉠과 ㉡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국어사전에서 【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바래다1과 바래다1㉠ 모두 【…을】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바래다1은 ㉠ ‘(누가) 요행을 바래다.’, ㉡ ‘(누가) 돈

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바라다1㉠ 역시 ‘(누가) 이불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에 쓰인 ‘*바래’는 바라다1㉠의 뜻을 지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바라다’의 ‘바라-’에 종결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어울릴 때 “*집에 가아.”가 아니라 “집에 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 -아’는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④ 국어사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데, 바라다1의 발음이 [바:--]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첫 음절 ‘바’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 어휘의 변화 유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 ‘ㆍ’의 통시적 변화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사슴’이 ‘사슴’으로 변화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사례(㉠)이며, ‘가장’이 ‘가장’으로 변화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은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마늘’이 ‘마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흙’이 ‘흙’으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하나’가 ‘하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며, ‘오늘’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다. ④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가 ‘다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이다.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ㅑ’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는다.

[17~30] 독서

[17-20] 인문, ‘대상의 본질’

지문해설 : 이 글은 대상의 본질에 대한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의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한 글이다.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후적으로 구성된 언어 약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철학적 탐구가 본질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제] 대상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17.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반본질주의’는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은 없으며, 다만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인 본질은 어떤 대상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본질주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② 개체의 본질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주의’의 입장이다. ③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인 본질이 어떤 대상에나 있다고 보는 것은 ‘본질주의’의 입장이다. ⑤ ‘반본질주의’는 같은 종류에 속한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인 본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18. 내용 간의 의미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은 ‘사람’에 대한 정의이고, ㉡은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이다. ㉡을 통해 ㉠이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위’에 대한 정의인 ㉢의 ㉠과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위’가 아닌 ㉢의 ㉡은 지문 속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은 ㉠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③ ㉡은 ㉠의 피정의항과 동일한 대상이다. ④ ㉡은 ㉠의 피정의항에 속해 있지만, 정의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⑤ ㉡은 ㉠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19.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반본질주의’는 대상의 근원적 속성인 본질이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을 발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반본질주의자’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본질주의’는 우리와 무관하게 본질이 대상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본질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은 ‘반본질주의’이므로,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개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정한 언어 약정인 ‘사바کم’은 본질과 거리가 멀어 널리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반본질주의’는 사물의 본질이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으로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본질주의

자'는 (가)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의가 약정적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보면,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본질주의자들은 그것이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반본질주의자들은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다.

20. 읽기 방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의 '이른바'는 '반본질주의자'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부사어이므로, 이를 통해 글쓴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는 이 글의 핵심어이므로,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㉕는 '예를 들자면'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㉖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족한 이해를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㉔는 앞에 나오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㉔를 통해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④ ㉔는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㉔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21~23] 사회,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의 공유'

지문해설 : 이 글은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규정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제도 및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개념과 한계

21.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4문단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물 공유 캠페인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는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과 같이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

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공정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도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주장의 확인

정답해설 : 5문단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은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 허락 조건’의 표시가 창작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5문단에서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의 확대를 반대할 것이다. ⑤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으로 인해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공유가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3.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A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하였고, B는 이와 같은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 A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A의 저작권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A는 B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A는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에 따르면 B는 침해된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A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정 이용 규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므로 이 규정이 없었다면, A는 공정 이용을 근거로 저작권자인 B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④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저작물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B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A가 B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저작물 이용이 이 규정을 준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⑤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으므로, B가 A의 출처를 표시한 미술 평론의 일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24~27]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옴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

24.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기마상에서 뺀어 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5.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옴팔로스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어느 곳에 있던 중심의 기마상에 시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원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갠다는 의미이므로 ‘분할된’으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8~29] 과학, ‘입체 지각’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람이 입체를 지각하는 방식 중의 하나 단안 단서를 설명하고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는 정보를 말한다. 한 눈으로 얻는 정보는 2차원이지만, ‘시각(視覺)의 차이,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 등을 활용해서 입체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제] 단안 단서에 의한 입체 지각의 방법

28.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 의하면, 직선 원근은 단안 단서의 하나이므로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4문단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에서 일부 동물들은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문단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즉 단안 단서만을 활용할 수 있을 때에도 ‘경험을 통해’ 입체로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라는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⑤ 4문단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와 3문단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물체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를 연결지으면, 새가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운동시차’를 얻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관찰자인 다람쥐가 운동할 때, 정지해 있는 여우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운동시차를 이용해서 여우와의 거리를 파악한 행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양안 단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안 단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3문단 1행을 보면,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를 통해 다람쥐에게서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 6행에서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안 단서이므로 축구공의 크기 변화는 결 기울기로 볼 수 없다. ⑤ 2문단 2행에서 ‘시각의 차이’ 활용은 단안 요인이므로 눈 한쪽을 가려도 여전히 축구공이 커지는 것을 축구공이 다가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 생활독서, 선인들의 책임기

30.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알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다. ② (가)에서는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성인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나)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는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독서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를 찾으라는 것은 (가), (나) 모두와 맞지 않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한 민요로, 경북 경산 지방에서 채집된 것을 현대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이다. 친정에 다니러 온 여인과 사촌 자매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 여인들의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그려 냄으로써 힘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31.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험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4-37] 고전소설, 작가 미상, ‘조웅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로,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조웅이 역적이두병을 처단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나라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영웅 일대기 형식을 취하면서도 일반적인 영웅 소설에 나타나는 신이한 출생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의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 무용담이 중심을 이루며 도술적 힘에 의한 영웅적 활약상과 함께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작품의 전면에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진흥보국을 위한 영웅의 활약상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리구러 삼 년이 되었는데.’와 같이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한 장면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는 모두 현실 속에서 일어난 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은 찾을 수 없다. ③ [A]와 [B]에는 모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은 [A]와 [B]에서 모두 찾을 수 없다. ⑤ [A], [B]에는 모두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공간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5.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강백’은 일부러 삼대를 흔들어 놓기 위해 두 형의 혼백에 대해 언급하며 ‘삼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으므로 슬하를 잠깐 떠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이 신의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웅은 삼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강백에게 삼대의 우편만을 공격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우편만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삼대가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조웅이 엎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크게 놀랐다고 하였으므로, 부인이 조웅의 죄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를 통해 월경 대사가 부인에게 조웅의 미래에 대해 미리 말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이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형세의 어려움을 들어 예절을 차릴 수 없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욕망보다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였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조웅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장 소저를 취하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다. ③ 대사가 웅을 데리고 삼 년에 걸쳐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사가 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조웅이 삼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을 통해 조웅의 지략과 용맹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삼대가 왼손과 관련하여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7.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는 삼대의 죽음을 보고 적진이 크게 놀라 허둥지둥거리며 도망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몹시 놀라 낮을 잃음을 뜻하는 혼비백산(魂飛魄散)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38~40]

[38-40] 현대시 - (가) 백석, '팔월-서행시초 3' / (나) 하종오, '동승'

지문해설 : (가)는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린 계집아이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계집아이의 불확실한 행선지는 바로 식민지 치하의 우리 민족의 방향성을 상실한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새하얗게 얼은', '텅 비인 차 안' 등과 같은 구절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추위를 뜻한다기보다는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극성을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주제] 한 소녀의 삶을 통해 본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고난

(나)는 국철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연히 보게 된 경험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과 그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의 행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편견에 사로잡혀 외국인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았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그에 대한 반성

38.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꺾속말',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성찰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는 화자가 자신의 일상을 반성하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이것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부정적 현실은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이므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여유롭게 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계집아이를 내지인 주재소장 집의 식모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므로, ㉠의 ‘유리창 밖’에 있는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은 유리창 안의 ‘계집아이’와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합자동차’에 나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인 채로, 즉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터졌다는 것은 손잔등이 갈라졌다는 의미이므로 어린 나이임에도 노동에 시달렸음을 드러낸다. ③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소녀가 가기에 매우 먼 거리를 뜻하므로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의 앞 행에는 ‘계집아이는 운다’고 되어 있으며 ㉡에는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고 했으므로 ‘눈을 씻는’ 행위는 결국 운다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의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저이들’은 ‘아시안 젊은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이다. 모자를 하나 사서 서로 번갈아 써 보는 행동 등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철’을 타고 있는 화자의 시선은 처음에는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 ‘나’의 시선이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가 <보기>에서 말한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가졌다면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④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시선에 가치 평가적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승’은 차, 비행기 등을 함께 타는 행위를 뜻하므로 조화로운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1-43] 현대소설, 염상섭, '만세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이 동경을 출발하여 서울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전형적인 여로형 구조의 소설이다. 이인화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식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조선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한 지식인의 의식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4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천대를 받아도 얻어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의 잘못된 유행과 근본 정신은 생각지도 않고 선조의 산소 치레나 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쌀쌀하게 비웃는 '나'의 태도가 냉소적인 어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적 배경을 찾을 수 없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장면만 제시되고 있어 빈번한 장면 전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주어진 장면 속 사건 외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삽화 형식으로 나열된 인물들의 체험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다.'를 통해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는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다. ②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나'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장돌뱅이가 '공동묘지 법'은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집터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 장면 속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⑤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것은 지문에 나타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 속에서 '나'는 '생활 철학'을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는 진술은 작품의 내용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생활 현실과 관련된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

고 있으므로, 생활의 표현을 통해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려고 한 작가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③ ‘나’는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제와 관료제의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④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공동묘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의 흔적을 다루려고 한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⑤ 일인칭 시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성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관심을 찾을 수 있다.

[44-45] 수필, 윤오영, ‘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4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수필은 봄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통념,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필은 흔히 일상적 소재를 취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개성적인 통찰이 중요한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도 봄에 대한 개성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분석이란 복잡한 대상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봄이나 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볼 수 없다. ③ 자연친화적인 수필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걸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흠결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⑤ 이 수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⑤ 06. ⑤ 07. ⑤ 08. ② 0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2. ① 23. ② 24. ④ 25. ② 26. ③ 27. ① 28. ② 29. ⑤ 30. ④
 31. ① 32. ③ 33. ③ 34. ③ 35. ① 36. ① 37. ⑤ 38. ③ 39. ④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⑤ 45. ④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에 따른 준비성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파일을 정리하는 이유가 파일 관리의 효율성과 파일 찾기의 편리성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파일 정리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는 파일 정리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의 '저의 컴퓨터~소개하려고 합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표 시작 부분의 '~관리하시나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발표자의 '보시는 것은~도식화한 것입니다.'라는 발언과 시각 자료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발표 끝 부분에서 '이와 같이 풀더는 3단계까지~제 파일 정리 방법의 핵심입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의 "각 단계별 풀더 수는 5개로~많은 경우에도 파일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라는 발언을 볼 때, 발표자는 풀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③ 발표자는 파일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단계가 너무 많으면 파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자신의 파일 정리 방법이 다른 컴퓨터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주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3.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담에서 학생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정거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방법과 관련하여 액체가 아닌 음식물을 먹는 방법을 연구원에게 추가로 질문하고 있으나 자신

이 이해하지 못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요청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교내 신문에~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등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우주인들이 공중에~본 적이 있죠?'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괜찮잖아요?' 등의 발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4. 의사소통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성민은 강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인상이 깊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성민의 견해에 대해 혜경도 '정말 좋아어'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혜경의 물음에 대해 병수가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혜경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병수의 말을 요약한 성민의 말이지만 병수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병수의 말에 대한 혜경의 비판적 태도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조언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후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⑤를 볼 때, '요즘 너 삶에 대한~힘들었겠구나.'는 상대를 이해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는~쉽지 않을 거야.'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경험이~어떨까?'는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상대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6~8]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나)의 2문단에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 즉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를 주로 읽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왜 그 분야의 책들을 읽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 ‘청소년에게 독서란 지적인 성장과 인성 계발의 밑거름’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하여, 청소년기에 독서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라는 독서 실태 조사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 ‘학생들의 독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1년간 읽은 책의 권수와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조사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독서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은 ~이라고 답했다.’에서 독서량이 적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④ 2문단에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 등을’ 읽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독서 경향 실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자료 수집·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㉔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독서량의 차이가 나타나 있고, ㉕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성별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㉔에는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에 해당하므로 (가)의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또한 (나)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독서량이 적다는 내용의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는 ‘중간’ 부분의 내용인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중간’의 새로운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면, 학생들의 독서 실태로 ‘독서량’과 ‘독서 경향’만 다루던 것보다 내용이 풍부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판단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㉔에 나타난 전국 고등학생들과의 비교로써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④ ㉕에서 독서 동기로 책 읽기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나)의 끝 부분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넉넉하고’에서 독서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균형 잡힌’에서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풍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듯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졸리면 틈틈이 자듯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에서 독서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플 것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책을 적게 읽으면 생각이 여물지 않는답니다'에서 독서량 부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시들어 축 처진 풀에 물을 흠뻑 주면 되살아나듯'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서량 부족이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⑤ '골고루 그리고 많이 읽어'에서 독서량 부족과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작문 일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민하던 필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을 떠올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문단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등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⑥: 문화유산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⑦: 아리랑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이나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것이나 필자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므로 '되었다'를 현재형 '된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그러자'가 적절하다. ② '정도를 더 높이다'의 뜻으로는 '돋우다'가 표준어이다. ③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적절하다. ④ '무관심하다'는 '에/에게'와 함께 쓰이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음운의 변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급행열차’가 [그팽널차]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급행’의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열’이 [널]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랑잎’이 [가랑닙]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ㄴ’이 ‘첨가(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㉗)’ 현상에 해당한다. ② ‘값지다’가 [갑찌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값’이 [갑]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㉙)’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가 [찌]로 발음되는 과정은, ‘ㄱ, ㄷ, ㅂ’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교체(㉗)’ 현상에 해당한다. ③ ‘술하다’가 [수타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술’의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㉗)’ 현상에 해당한다. 또한,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축약(㉔)’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⑤ ‘서른여덟’이 [서른녀덜]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ㄴ’이 ‘첨가(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덜’이 [덜]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㉙)’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2. 문장 성분 분석·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서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㉑), 연결 어미(㉒), 전성 어미(㉓)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그 종류에 따라 평서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㉑ ‘읽었다’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보기>에 제시된 ㉓ ‘읽을’의 ‘-을’은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으로, ‘가는’의 ‘-는’은 ㉒의 연결 어미가 아닌 ㉓의 전성 어미, 그중에서도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②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맥락에 따라 ‘-지’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④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⑤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13. 피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해 국어사전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갈-리다¹’과 ‘갈-리다²’의 품사가 모두 동사라는 점, ‘갈-리다¹’과 ‘갈-리다²’가 모두 동작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응되는 능동사 ‘갈다¹’과 ‘갈다²’의 품사는 동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리다¹’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갈다¹’에는 ①과 ②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갈다¹’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인 다의어(多義語)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갈-리다¹’과 ‘갈다¹’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로 ‘갈리다’는 ‘갈- + -리- + -다’로 분석되어 피동 접미사 ‘-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갈-리다¹’ ①이 ‘갈다¹’ ①의 피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고려하면, ‘갈다¹’ ①은 ‘갈-리다¹’ ①과 비교하여 능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갈-리다²’와 ‘갈다²’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갈다²’의 의미로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를 추론할 수 있다.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

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은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16~18] 과학, '동물의 길찾기'

지문해설 : 이 글은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길을 찾는 동물들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는데,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에 대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법으로 곤충과 포유류 등이 주로 활용한다. '재정위'는 공간적 정보와 같은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식이며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동물의 현재 위치와 돌아갈 장소에 대한 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다. '경로적분'에 있어 방향 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 함께 사용된다.

[주제] 동물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원숭이는 길찾기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도 함께 활용한다고 했는데, 같은 문단에 앞서 설명된 내용이 '재정위'에 대한 것이고, '재정위'의 핵심이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원숭이는 장소기억과 함께 장소의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길을 찾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보면 곤충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이 '경로적분'이므로 곤충이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새가 장소기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산란된 햇빛 정보는 '경로적분'에서 방향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흰쥐는 길찾기의 방식으로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재정위'를 사용하므로 산란된 햇빛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꿀벌이 사용하는 길찾기 방법은 '장소기억'으로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길을 찾아가므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 새로운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사막 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사막에는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막개미가 장소기억을 활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막개미가 '경로적분'을 통해 방향을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므로 햇빛을 사용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는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경로적분'을 활용하는 능력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이 온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집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는 경로를 따라 집으로 되돌아간다. ⑤ 사막개미가 이동하면서 매 순간 계산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집까지의 직선 ‘거리’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파악되는 집 ‘방향’이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상황에서 먹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아리가 활용하는 기하학적 정보는 먹이가 있는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벽의 길이이다. 이에 따라 먹이가 있는 A 주변의 벽은 긴 벽이 먹이의 왼쪽, 짧은 벽이 오른쪽이라는 기하학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가 높은 빈도로 찾아가는 장소는 이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A와 C이고, 긴 벽이 오른쪽, 짧은 벽이 왼쪽에 있는 B와 D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탐색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A와 대각선에 위치한 C의 기하학적 정보는 A와 같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므로 A와 C의 탐색 빈도는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추론된다. ② A는 C와, B는 D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A와 B, C와 D를 비슷한 빈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A는 C와, B는 D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A와 D, B와 C를 비슷한 빈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C가 지닌 기하학적 정보와 B와 D가 지닌 기하학적 정보는 상반되므로 A, B, C, D에 대한 탐색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9-21] 기술,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지문해설 : 이 글은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를 통해 인체 조직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X선이 인체를 투과할 때 조직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X선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한 것이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이다.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감쇄되는데, 이렇게 감쇄된 총량을 환산값이라고 한다.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활용하면 단면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고, 이런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면 입체 영상을 얻을 수도 있다.

[주제] CT로 인체의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X선을 인체에 조사하면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 산란되고 나머지

는 조직을 투과한다. 이것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할 때 조직에서 흡수·산란되는 것이 많을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X선의 세기는 약해지고, 흡수·산란되는 것이 적을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X선의 세기는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와 4문단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소된 총량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역투사 결괏값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환산값이 클수록 역투사 결괏값은 커진다. 그런데 환산값은 X선이 조직에 흡수·산란되면서 감소된 총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환산값은 커진다. 이것은 조직이 없거나 공기만 있는 부분은 환산값이 가장 작아 역투사 결괏값도 가장 작다는 의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법이 이용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역투사는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이 아니라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③ 6문단의 '역투사 결괏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감소되는 X선도 많아 환산값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라고 했으므로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역투사 결괏값도 커질 것이다. ⑤ 5문단에서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라고 했으므로 CT 촬영기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로 처리하면 역투사 결괏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B는  같은 모양의 물체를 45° 방향에서 비추게 되므로, B에 투과되는 물체는  모양이 된다. ㉠의 X선 투과율은 ㉡의 2배라고 하였으므로, ㉠의  부분을 투과하는 X선 환산값은 물체 ㉡의  모양( 모양을 반으로 접은 모양)을 통

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때, ㉞는 정사각형이고 ㉜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며 맞닿아 있는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 모양의 크기와 높이는 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㉞와 ㉜가 합쳐진 ▲ 모양의 물체를 투과하는 X선의 환산값은 물체 ㉜의 ▼ 모양을 투과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B 방향에서 해당 도형의 환산값을 구하면 0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승하다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 후 점차 감소하여 다시 0이 되는 ㉠번 그래프가 된다. 정답 ①

[22~25] 사회, '소송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소송 제도에는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등이 있는데, '공동 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소송 비용이 고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가 소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니지만 손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소송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최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징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피해를 입은 갑이 A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송 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원칙이 아닌 해결의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 간의 관계 역시 대립적이지 않다. 또한 각각의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소송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소송과 관계된 몇몇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통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이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소송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

을 뿐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4.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A회사의 잘못된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26~27] 인문,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세계관은 다양한 신념들의 체계인데, 그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Berkeley)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하지만, 그의 주장은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제]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버클리의 반박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다. 버클리가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신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며,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로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

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7.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는 세계 속의 대상이나 현상으로 가득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번개가 치는 현상으로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의 견해와 부합한다.

ㄹ. 버클리는 맛뿐 아니라 형태도 주관적 속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사과와 단맛뿐 아니라 사과와 둥근 모양도 주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28-30] 예술, '한옥의 창호'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국 전통 건축인 한옥에서의 창호(窓戶)의 의미와 역할, 심미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는 창호는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공간의 연결, 분리, 실내 공간 구획의 변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 열린 창호는 안과 밖,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된 심미적 공간이며,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도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옥에서 창호(窓戶)의 의미와 역할 및 심미적 기능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의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에서 창살이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뽕안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에서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는 ‘여러 쪽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한다고 하였으나, 4문단에서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도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을 내려 달았을 때,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 2문단의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 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사람의 표정이나 행위 따위를 보고 뜻이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은 글을 보고 그 음대로 소리 내어 말로써 나타내다, ㉢은 (작가의 이름을 목적으로 하여)작가의 작품을 보다, ㉣은 글자의 음대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디스크 따위에 든 정보를 가져와 그 내용을 파악하다는 의미이다.

[31~33] 현대시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지문해설 : 이 시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려는 강인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든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존재든지 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라는 것이다. 화자의 이러한 믿음은 뿌리가 깊으면 밑동이 잘려도 새순이 돋는 갈대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지만 물 고이면 꽃은 피더라는 자연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자연

의 이치이므로 ‘고통’은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히 흔들리자고 말한다. 심지어 고통과 살을 맞대며 가자고 말한다. 외로움을 걱정하며 목숨을 거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면 고통과 설움의 땅을 벗어나 ‘뿌리 깊은 별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슬픔은 없다는 생각과 고통을 함께 극복할 존재(‘손 하나’)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낙관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주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다짐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대구’란 비슷한 어조를 가진 구절을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2연의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나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3연의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어조를 가진 두 행이 짝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순’이나 ‘꽃’이라는 시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의인화로 잘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는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한 영혼이여’나 ‘고통에게로 가자’ 등에서 ‘영혼’, ‘고통’ 등의 관념적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추상적 관념어들이 구체적인 대상인 양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작품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인간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조는 화자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새순’은 ‘밑둥 잘리어도’ 돋는 것이며, ‘등불’은 ‘이 세상 어디서나’ 켜지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갈대의 밑둥이 잘리는 것은 갈대에게 일종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잘려도 ‘새순’이 돋는 것은 갈대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등불’은 켜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밝은 빛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둠은 고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밑둥’은 밑둥을 가리키는 말로 나무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므로 ‘밑둥 잘리어도’가 바로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울’은 ‘등불’과 마찬가지로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고난 극복

복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② ‘한 계절’ 동안 ‘넉넉히’ 흔들린다고 했으므로 상한 갈대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극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와 [B] 모두에서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자 하는 어조를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낙관적 믿음과 의지적 태도가 반복적으로 변주되고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3연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3연은 계속해서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비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고난을 막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 ‘고통과 설움의 땅’을 지나서 도달하는 공간이므로 긍정적 공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을 영원한 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 깊으면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 역시 굳건한 이미지를 가진다. ② ㉠의 ‘별판’은 갈대가 뿌리를 박은 채 자라야 하는 지상의 공간이므로 ‘하늘’에 대응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손’은 ‘감감한 밤’과 대비되고 ‘오고 있’는 것이므로, 희망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또한 ‘별판’에 서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므로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이다.

[34~37] 현대소설 - 전광용, ‘꺼삐딴 리’

지문해설 : 이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을 겪은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오직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 친일파에서 친소파로, 다시 친미파로 재빨리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일제 강점기에 제국대학에서 명예의 시계를 탄 수재로서 평양에서 개업하여, 일본인과의 교제를 넓게 트고 일본말만 하는 철저한 친일파이다. 그는 광복 직후 소련군이 평양에 진군한 후에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방에 갇히게 된다. 감방 안에서 러시아어를 익혀 소련군 스텐코프 소좌의 혹 수술을 성공리에 마쳐 감옥에서 풀려나 오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소련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철저한 친소파로 변신한다. 그 후 1·4후퇴 때 서울로 오게 되고 미군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미 국무청 초청 케이스를 할당받기 위해 대사관 직원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를 선물한다. 이러한 이인국 박사의 삶을 통해 작가는, 권력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시대에 따라 약삭빠

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인국 박사가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나기 전의 현실 상황과 회중시계를 매개로, 과거 소련군이 입성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따라 변절해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인국 박사는 회중시계를 보며, 과거 회상에 잠긴다. ‘중략’이전은 해방 후 소련군이 입성한 북한에서 월남하여 서울에 있는 현재의 행적에 관한 것이고, ‘중략’이후는 월남하기 이전 소련이 입성한 북한에서의 과거에 행적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② 등장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④ 감각적인 수사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현학적 표현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인국 박사를 통해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창틀이나 탁자 위에 있는 먼지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결벽성을 지닌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인국 박사의 심리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모습이지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려 깊은 자세는 아니다. ③ 액자 속의 모조지를 빼내어 찢는 장면을 고려할 때,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그동안 추구해왔던 친일을 버리려는 행동이므로,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인국 박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이기는 하지만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물건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계’는 인생의 반역이자 이인국 박사의 삶의 모습이 작품 속에 반영된 소설의 중요한 구성 장치이다. ③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통해 이인국 박사의 주도면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④ ‘신사복’은 이인국 박사가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 및 감회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⑤ ‘라디오’에서 여러 날째 소련군이 입성한다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인국 박사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알려 주는 소재이다.

37. 상황에 적절한 속담 적용

정답해설 : ㉠은 이인국 박사가 역사의 질곡 속에서 겪었던 죽음의 고비 즉, 일제 강점기,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등의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을 의미하는 ‘생사기로(生死岐路)’가 ㉠에 부합하는 한자성어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②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이인국 박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고비와는 거리가 멀다. ③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태도로 ‘죽음의 고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8~40] 고전시가 - 안민영, ‘매화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영매가’라고도 불리며 작자인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에 있는 매화를 보며 노래한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자는 전체적으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편 매화가 지닌 우아함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3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로 표현되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6수의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에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 전체적으로 매화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인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애상감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제6수의 '바람'과 '눈'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들이 매화에게서 '봄뜻'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명령형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8수에서 화자는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두세 명의 노인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고 있다. 이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하는,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 앓을쏘냐', 제8수에서 '~있으리'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매화가 지닌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할 때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으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봄뜻'이라는 시어 또한 당대 이념과 관련지으면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서만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행위에서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잔 들어 권할 적에'에서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매화를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할 때, '황혼월'로 인해 조성되는 낭만적 분위기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매화를 '아치고절'로 예찬하고 있는데 매화가 나타내는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41~43] 고전소설 - 작자미상, '속영낭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한 양반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현실적 사건을 소재로 한 애정 소설이다. 전체 내용은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적강하여 백선군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결하자 백선군이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 살아난 숙영이 선군과 행복한 삶을 살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효를 요구하는 부모에 맞서 자식이 애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가치관의 변모 양상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현실의 장애를 극복한 남녀의 숭고한 사랑

41. 발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마지막 부분에 백선군은 죽어서라도 숙영남자를 만나겠다는 자기 희생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A]의 마지막 부분에 백선군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준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한다고 말할 뿐, 자신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숙영남자가 백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원혼을 갚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② [B]는 백선군이 죽은 숙영남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쓴 제문을 읽은 것이다. ③ [A]에는 죽은 숙영남자가 산 백선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고, [B]에는 산 백선군이 죽은 숙영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④ [A]는 '낭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로 시작하고 있고, [B]는 '성인도~다시 없으리오.'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백선군과 숙영남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다.

4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매를 견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선군이 엄하게 매월을 추궁하였기 때문이지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백선군의 매월을 신문한 것은 숙영남자의 몸에서 칼을 빼자 그 구멍에서 파랑새가 '매월'이라고 울면서 나오는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A]에서 숙영남자는 억울한 누명을 써 혼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매월이 스스로 밝혔듯이 '간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민 것은 스스로 밝혔듯이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로 인해 숙영남자는 억울해서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공이 선군의 성혼 문제로 선군과 갈등하고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를 이 작품에 적용하면 과제를 수행하는 주인공은 백선균이고, 과제는 죽은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것이다.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로부터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백선균이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로부터 과제를 부여받는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가 맞기는 하지만, 백선균은 숙영남자가 나타난 원인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 ㉤은 상공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백선균을 방해하기 위해 한 말로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는 맞지만, 부자간의 갈등은 상공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은 아니다. ㉥ ㉦은 백선균이 상공이 과제 수행의 방해자임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백선균은 숙영남자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임 진사의 딸과 성례 시키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의 실제 상황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아직까지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지 못했으므로 과제 해결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4~45] 극, 이근삼, '원고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대학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며,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

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굵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굵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짚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④ 12. ① 13. ③ 14. ①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⑤ 20. ①
 21. ① 22. ③ 23. ① 24. ① 25. ② 26. ④ 27. ② 28. ④ 29. ⑤ 30. ⑤
 31. ③ 32. ④ 33. ⑤ 34. ③ 35. ⑤ 36. ② 37. ① 38. ④ 39. ③ 40. ③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1~3]

1. 사회자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사회자는 토론자 간의 감정적인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은 하고 있으나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는 “교내 음악 방송~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토론 배경과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첫 번째 발언에서 말하고 있다. ④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인 “잠깐만요,~삼가 주십시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입론에서 ‘반대자 2’의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연구도 많습니다.”라는 발언은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 교내 음악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론을 보강하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내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됨을 말하고 있다.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장르의 음악만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간 이동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다.

3. 협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을 바탕으로 협상 참여자의 교섭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를 묻는 문항이다. 반론에서 ‘찬성자 1’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라는 발언을 통해 볼 때, <보기2>의 ‘ㄱ’은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반론에서 ‘반대자 2’가 제안한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찬성자 2’가 수용하고 있으므로, <보기 2>의 ‘ㄴ’도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보기 2>의 ‘ㄷ’은 반론에서 ‘반대자 2’가 제안했으나 ‘찬성자 2’가 반대했으므로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ㄹ’의 ‘교내 음악 방송 시간의 연장’은 찬성자나 반대자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4~5]**4. 의사소통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성민은 강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인상이 깊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성민의 견해에 대해 혜경도 ‘정말 좋았어’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혜경의 물음에 대해 병수가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혜경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생략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병수의 말을 요약한 성민의 말이지만 병수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병수의 말에 대한 혜경의 비판적 태도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조언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후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을 볼 때, ‘요즘 너 삶에 대한~힘들었겠구나.’는 상대를 이해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는~쉽지 않을 거야.’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경험이~어떨까?’는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상대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6~7]

6.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나)-1을 참고하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관련되지만 도시 농업의 문제점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 농업 활동의 부진'과는 관련성이 적으므로 'II-1-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가)를 참고하면, 도시 농업은 도시민의 여가 활동으로서 도시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 인구의 증가'는 도시 농업의 '현황'을 보여주기에 부적합하며,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가)에는 '도시 농업'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II-2-라'에서는 '인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II-2-라'는 '도시 농업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2에는 도시 농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재배 기술 지식 부족'이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에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한 쿠바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도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에는 도시의 농지 감소와 경작 공간 부족 문제가 나타나 있으며, 'II-2-가'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 ㉡은 모두 도시 농업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므로, 이들을 묶어 '도시 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보니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며, '국내 도시 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는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지 않았다. ② '도시 농부'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지 않았다. ③ '이웃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도시 농부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8. 요약하기의 전략과 실제

정답해설: 첫째 문장은 1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둘째 문장은 2문단의 중심 내용이다.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나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 등과 같이 반복되거나 부가적인 내용은 '자유'나 '용맹성' 등으로 압축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이 추가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의 중심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1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③ '번지점프는 ~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라는 내용은 <보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이 추가된 것이다. ④ '뱃줄을 몸에 고정하고'나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 등에는 반복되거나 부가되는 내용이 압축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 있다. ⑤ 첫째 문장에는 1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둘째와 셋째 문장에는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 추가되어 있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작문 일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민하던 필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을 떠올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문단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등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⑥: 문화유산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⑦: 아리랑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이나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것이나 필자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므로 '되었다'를 현재형 '된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그러자'가 적절하다. ② '정도를 더 높이다'의 뜻으로는 '돋우다'가 표준어이다. ③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적절하다. ④ ‘무관심하다’는 ‘에/에게’와 함께 쓰이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조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이다. ‘장마비’는 ‘장마+비’의 합성어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 발음은 [장마뻘] 혹은 [장맘뻘]이므로, 3-2단계가 아닌 3-1단계를 만족한다. 즉,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장맛비’로 적는 것은 맞지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개살구’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개살구’로 적어야 한다. ② ‘총무과’는 ‘총무(總務)+과(課)’, 즉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므로 2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총무과’로 적어야 한다. ③ ‘만둣국’은 ‘만두(饅頭)+국’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만두꼭] 혹은 [만둔꼭]이므로, 3-1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만둣국’으로 적어야 한다. ⑤ ‘허드렛일’은 ‘허드레+일’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허드렌닐]이므로, 3-3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허드렛일’로 적어야 한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 제13항과 제15항의 내용에 대해 ‘앞앞이[아바피]’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선 제13항에서는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앞이’의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이’는 [아피]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앞’은 [아밥]으로 발음해야 한다. 즉,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은 ①로, ‘무릎이야’에서 ‘이야’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무르피야]로 발음하며, ‘무릎 아래’의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무르바래]로 발음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넛이나’와 ‘서넛에서’의 ‘이나’와 ‘에서’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서녀키나]와 [서녀케서]로 발음한다. ③ ‘겉으로’의 ‘으로’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거트로]로 발음한다. ‘겉아가미’의 ‘아가미’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거다가미]로 발음한다. ④ ‘배꽃이’의 ‘이’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배꼬치]로 발음한다. ‘배꽃 위’의 ‘위’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배꼬뒤]로 발음한다. ⑤ ‘빛에’와 ‘빛이며’의 ‘에’와 ‘이며’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비제]와 [비지며]로 발음한다.

13. 문장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여전히’와 같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이다. 예를 들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그 사태의 해결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에는 ‘대하지’와 호응하는 ‘누구에게’의 부사어나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에는 ‘지내기도’와 호응하는 ‘누구와’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에는 ‘존경했다’와 호응하는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에는 서술어 ‘유학자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㉔는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㉓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㉔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㉔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㉑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심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㉒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㉓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㉔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16. 훈민정음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순경음과 초성 합용 병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형태를 <보기 2>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순경음(脣輕音)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ㄴ’, ‘ㄷ’, ‘ㅍ’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 ‘수빅’의 ‘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초성 글자를 나란히 쓰는 초성 합용 병서(合用竝書)에 대한 설명으로, ‘ㄱ, ㄴ, ㄷ/ㄸ, ㄹ, ㅁ/ㅂ, ㅅ/ㅆ’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썩크미니라’의 ‘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뭉츨내와 ㉣ 뭉궂노니를 통해서는 ‘아래 아(ㅇ)’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순경음이나 초성 합용 병서와는 관계가 없다.

[17~20] 인문,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해석

지문해설 : 이 글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훈고의 차이와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름에서 비롯되는데, 주희는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인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하는 것, 정약용은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인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명명덕’의 의미라 하였다. 그리고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백성을 가르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친민(親民)’을,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잘 표현하는 ‘신민(新民)’으로 고쳤는데, 정약용은 이에 대해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지만,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정약용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주제]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 차이

17.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와 4문단의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에서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1문단의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의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에서 글자의 혼고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정약용은 당대의 ~관심이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명명덕을 주희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으로,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주희와 정약용은 ㉠은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는 백성을 가르쳐 인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를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다. ③ 2문단의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는 명명덕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이다. 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신민’이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1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주희는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양명은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신’보다는 ‘친’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왕양명은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한정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것은 정약용이 아니라 주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③ <보기>에서 정약용은 왕양명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왕양명과 정약용의 ‘친민’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보기>에서 왕양명은 당시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친민’으로 고쳤으므로,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정약용은 주희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

2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인도(引導)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다’, ‘이끌어 지도하다’는 의미를 지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고 있다. ㉠은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는 의미와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시(指示)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은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일을 알도록 알려준다는 의미이므로 지도(指導)가 더 적절하다. ③ 개편(改編)은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다’는 의미이다. ㉡은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점을 고친다는 ‘수정(修訂)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도착(到着)은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는 의미이다. ㉢은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의미이므로,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는 의미인 도달(到達)하대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쇄신(刷新)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다’는 의미이고, ㉣은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는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21-23] 예술, ‘20세기 미술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단토의 ‘미술 종말론’을 바탕으로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예술가의 주체성에 따른 ‘무한한 다원성’으로 설명한 글이다.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르네상스 미술,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에서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예술가의 정신적 저작권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이는 ‘형식의 자율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흐름은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이 내면을 무한하게 표출하게 되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20세기 미술은 이와 같은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지만 이와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이 종래에는 ‘전시적 요소’에 의존한 반면 20세기 미술은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미술은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제] 20세기 미술의 연속성과 질적 차별성

2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 둘째 문장에서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은 화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는 내용을 통해 화가들의 서명이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는 내용을 통해 르네상스 때 예술가들이 자율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율성의 표출이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는지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3문단 첫 문장을 통해 '형식의 자율화'는 르네상스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내용의 자기 중심화'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 셋째, 넷째 문장에서 현대 미술에서 작품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가 아니라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 넷째, 다섯째 문장에서 현대 미술에서 비평이 중요시되는 까닭이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22.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단토에 따르면 '20세기 미술'에서는 미술을 정의하는 (종래의) 기준이 해체된 것은 맞지만 이와 같은 기준의 해체로 인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단토가 말하는 미술의 '종말'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0세기 미술'은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으로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②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세기 미술'에서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된다. ④ 4문단 첫 문장에서 '단토'는 '20세기 미술'과 과거의 미술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질적 차별성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0세기 미술'은 더 이상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를 통해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해도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작품이 아니라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에 의존하여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예로는 이론적 해석에 따라 일상품인 '소변기'가 미술 작품으로 인정받은 뒤샹의 <샘>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는 했으나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미술 작품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예이다. ③ 플록의 <1950년 32번>은 즉흥적 이미지로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를 표현하였으나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작품’으로 인정된 예이다. ④ 칸딘스키의 <컴퍼지션 VII>은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지적인 행위인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다.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으로 음악적 리듬감을 추구하였으나 지적인 행위인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24~27] 사회, ‘소송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소송 제도에는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등이 있는데, ‘공동 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소송 비용이 고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가 소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니지만 손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소송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최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징

2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피해를 입은 갑이 A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송 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원칙이 아닌 해결의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 간의 관계 역시 대립적이지 않다. 또한 각각의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소송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소송과 관계된 몇몇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통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이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소송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6.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A회사의 잘못된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

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28~29] 과학, '각운동량'

지문해설 : 이 글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인 각운동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운동량은 질량(m),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r), 속도(v)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m \times v \times r$ 로 표현된다.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은 보존된다.(각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며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회전 관성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피겨 선수의 움직임을 예로 들으로써 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원리)

28.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는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 회전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속도, 회전 관성 등의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 보면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는 진술이 있다. 답지에 제시된 쇠공과 플라스틱 공은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지만, 플라스틱 공은 속이 차 있고 쇠공은 속이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 공은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과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배열되어 있으나, 쇠공은 질량 요소들이 모두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쇠공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쇠공의 회전 관성이 더 크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

회시키는 힘이 돌림힘이다. 팽이가 회전을 멈추는 것은 곧 각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는 없다. ③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이다. 따라서 마찰이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1문단에 의하면,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변화하게 하는 것은 각운동량이고, 이에 따라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질량이나 회전축과의 거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두 점이 있다면 중앙의 동일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두 점은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에 두 점이 회전하는 각도는 동일하게 된다. 2문단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라고 했으므로,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있는 두 점의 각속도는 동일하다. 회전축과의 거리는 각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문단에 따르면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것은 회전 관성이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윗글에서 각운동량을 표현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멀면 회전 관성이 커지고 각속도는 작아진다. 반대로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가까우면 회전 관성이 작아지고 각속도는 커진다. <보기>의 상황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각운동량에는 변화가 없다. <보기>에서는 B단계에서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따라서 회전 관성은 작고 각속도는 크다. 그러므로 B 단계의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 하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A~E 단계의 자세보다 회전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A~E 단계를 거칠 때 회전하게 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4문단의 피겨 선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겨 선수는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다고 했는데, 이는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E의 각 단계는 각운동량이 모두 같다. ② A~E의 단계는 같은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할 때 자세가 변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질량 요소들의 합은 늘 같다. D 단계에서는 B 단계보다 회전축과 질량 요소들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속도가 작은 것이다. ③ B 단계는 질량 요소들과 회전축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가장 작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될 것이고, 회전 관성이 가장 작으므로 각속도는 가장 크다. ④ C에서 E로 진행되면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는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회전 관성은 커진다.

[30]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지문해설 : 이 글은 그 이전과 구별되는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2세기 이전의 독서는 종교적 목적에 의해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세기에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과 절의 구분, 주요 구절 표시, 차례와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 마련 등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를 논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게 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주제]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와 그 장단점

3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전 부분에서 12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책의 종류, 12세기 독서법의 장단점, 12세기 독서의 목적, 12세기 독서법과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 등은 드러나 있으나 12세기 유럽에서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에는 주로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가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 첫째,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의 독서법인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2세기 독서의 주된 목적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에 있었음을 2문단 첫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 첫째 문장에서 이전 시기의 독서는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문단의 편집 방식의 변화와 3문단 둘째 문장에서 12세기 독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이었음을 추론,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31~33] 고전시가 - 안민영, ‘매화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영매가’라고도 불리며 작자인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에 있는 매화를 보며 노래한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자는 전체적으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편 매화가 지닌 우아함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31. 표현상 특징 파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로 표현되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6수의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에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 전체적으로 매화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인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애상감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제6수의 ‘바람’과 ‘눈’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들이 매화에게서 ‘봄뜻’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명령형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8수에서 화자는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두세 명의 노인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고 있다. 이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하는,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 앓을쏘냐’, 제8수에서 ‘~있으리’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매화가 지닌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할 때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으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봄뜻’이라는 시어 또한 당대 이념과 관련지으면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서만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행위에서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잔 들어 권할 적에’에서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매화를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할 때, '황혼월'로 인해 조성되는 낭만적 분위기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매화를 '아치고절'로 예찬하고 있는데 매화가 나타내는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4~37] 고전소설 - 임춘, '국순전'

지문해설 : '국순전'은 고려 고종 때 임춘이 지은 작품으로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의인화한 술(국순)의 일대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는 임금,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관리들, 임금의 눈을 가리는 간신배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전체의 전기(傳記) 형식과 허구적 성격은 후대 고전 소설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제] 술에 탐닉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간사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국순이 섭법사와의 담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기, 산도의 국순에 대한 평가, 청주종사(높은 벼슬)에서 평원독우(낮은 벼슬)로 강등되었을 때의 국순의 반응, 관상가가 국순의 미래를 예언한 일 등을 열거하며 국순의 인물 됴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뒷글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뒷글에서는 대화를 통해 작중 정황을 드러낼 뿐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뒷글에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뒷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인물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이지만, 국순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국순은 임금이 자신을 꺼려하는데도 벼슬에 연연해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국순의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만경창파’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뜻하고 이는 곧 국순의 마음이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의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에서 국순이 장래에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 국순이 자신의 벼슬이 강등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강등된 벼슬을 거절하고 차후에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는 포부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의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손님을 대접하고,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에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정답해설 : [B]에는 국순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와 국순에 대한 산도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C]에는 국순의 관직 입문, 국순에 대한 임금의 총애, 국순의 입신양명, 국순의 국정 문란, 퇴임과 사망이 시간적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B]에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국순의 조상 ‘모’가 공이 있음에도 벼슬을 마다한 일, 임금이 그 후손을 후대하고 교분을 맺은 일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순의 가문 내력’과 ‘국순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부정 축재를 일삼는 국순(간신)을 비판·풍자하고 있고, 이를 다시 [E]에서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라고 하며 재차 강조하고 있으므로 ‘[C]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D]의 ‘자식은 없고, 먼 친척인 ‘청(淸)이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에서 ‘후대의 가문 내력’과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E]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계-행적-논평’ 중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논평은 사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속에는 순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 작가의 견해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인물의 태도를 한자성어와 관련짓기

정답해설 : ㉠(입을 굳게 다문 채)는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외면하는 임금의 태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국순의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함구무언(緘口無言)’이다.

정답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사실 그대로 고함.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38~40] 현대시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지문해설 : 이 시는 고민, 좌절, 절망의 끝에서 허무 의식을 떨치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생명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삶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대결의 공간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설정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열렬한 고독'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의 세계에 자신을 바치겠노라는 비장한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참된 '나'란 성취하고자 하는 '근원적 생명과 순수성으로서의 자아'라 할 수 있다.

[주제] 본연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현대시 - 신경림, '농무'

지문해설 : 이 시는 1970년대 농민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농무'는 농민들에게 신명과 흥겨움을 주는 놀이지만,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장치가 된다.

[주제]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한과 고뇌

3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대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 고개 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강한 인상을 주면서 시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꺼나'라는 의문형 어미가 대구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여운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 있지만, '보름달은 밝아' 등으로 볼 때 시간적 배경이 밤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다른 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아라비아 사막'은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을로 서면’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오히려 화자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자가 ‘원시 본연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추구하는 대상인데 반해, ‘병든 나무’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 화자 자신의 모습을 표상한다. ② ‘영겁의 허적’은 아무 것도 없이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의 극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나’와 대면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④ ‘나’란 ‘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래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회한 없는 백골’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0.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는 오히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 ‘농무’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농무가 역설적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 준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농무를 추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A]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약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⑥는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정서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70년 전후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와 시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③은 비참한 농촌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화자가 자조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1~43] 최인훈, ‘광장’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 등에 대한 모색을 그리고 있다. 다른 전후 소설이 대체로 전쟁의 참상 및 그 속에서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그리며 이념적 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이 소설은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의의를 갖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 '명준'은 아버지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고난을 겪고 개인적 공간인 '밀실'만 존재하고 '광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남한 사회에서 환멸을 느껴 밀입북을 감행한다. 외부에서 봤을 때 '밀실'과 '광장'이 균형 잡힌 것처럼 보였던 북한 사회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명준은 또 다시 환멸을 느낀다. 북한은 남한과 반대로 '광장'만이 존재하고 '밀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남한과 북한 양쪽의 체제와 실상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양쪽에서 환멸을 느낀 명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중립국을 택하여 인도로 향한다. 인도로 향하던 중, 자신을 따라 오던 갈매기 두 마리를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뱃속에 있던 아이로 여기게 된 명준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푸른 바다가 광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바다로 뛰어든다.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4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명준'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경험, 인민군 장교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서술한 부분이다. 첫 부분의 큰 따옴표가 붙은 부분도 실제 대화가 아니라 '명준'이 혼자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말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웃겠지' 등의 서술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준'이라는 인물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명준'이 남한과 북한, 한국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부분은 '명준'이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판단한 것을 관념적인 어휘를 이용하여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장면 전환이 거의 없으며 그 분위기도 긴박하지 않다. ③ 공간에 대한 묘사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공간 자체만으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④ '명준'이 남한행을 권유받는 장면과 중립국에 가서 사는 장면은 회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준'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 또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았던 공간들에 대한 관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명준'이 혼자 생각하는 내용들만 제시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4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5면의 네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를 보면 셈할 줄 모르고, 환상에 빠지고, 마술을 믿었으며, 속은 사람들에게 대해 서술이 되어 있다. 열 번째 줄에 '난파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본 후 참을 알고 돌아온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난파꾼**은 이명준을 가리킨다. **정답 ③**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서는 존재이다. **난파꾼**의 네 줄 윗부분을 보면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서술도 있다. 따라서 난파꾼은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잊고자 하는 존재이다. ② **난파꾼**은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달기를’ 바란다. 이는 곧 그 섬이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곳에 달기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며, 혹시 안다고 해도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존재이다. ④ **난파꾼**이 가기로 결정한 곳은 중립국이며, 그 중립국에서 바라는 삶은 소박한 소시민의 삶이다. 따라서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⑤ **난파꾼**은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는 아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광장」이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명준’은 이분법적 구도의 희생자에 해당한다. ‘명준’은 그러한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중립국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준’의 선택을 ‘이념’을 택했다고 한 진술이나 ‘행복한 삶’을 마다했다고 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명준’은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반감과 환멸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고 탈이념적인 소시민적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후 마음껏 웃음을 터뜨리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웃음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조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한 후련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마술사를 언급한 부분의 어조는 매우 냉소적이다. ‘허황하고’, ‘철없는’, ‘잘못’, ‘환상’, ‘마술’ 등의 어휘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 준다. 마술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마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참’을 안다는 것은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명준’이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며 탈이념적이다. 이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4~45] 극, 이근삼, ‘원고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재가 되어 버린 대학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며,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굵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굵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짚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①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④	22. ①	23. ③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①	35. ④	36. ⑤	37. ③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②	43. ③	44. ①	45. ④					

[1~2]

1.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의 성격과 요소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대화에서 ‘재은’의 발언은 ‘문화적 배경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문화’는 지역, 계층, 세대 등 집단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재은’의 발언은 집단의 성격이나 세대 차이 등으로 형성된 문화적 배경의 차이라기보다 ‘성아’의 평소 행동에 관한 공유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재은’은 상대방인 ‘성아’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인 ‘점심 먹을 때부터~했지.’라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② ‘(엄지를 치켜들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김성아’를 한껏 치켜세우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③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라는 발언을 통해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성아’의 ‘(잠시 침묵)’에 대해 대화 참여자인 ‘재은’의 ‘그리고? 계속해 봐.’라는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의 내용과 흐름을 고려하여 이어질 대화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화 참여자인 ‘재은’은 ‘㉠’에 대한 발화 이전에,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여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에서는 ‘성은’의 ‘훌륭한 성품(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그동안~도와줬던 이야기)’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 회장’의 책임자가 ‘성은’이라는 점을 청중에게 부각시켜 대중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발화는 ‘재은’의 평소 조심스러운 재은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 적절하지 않다. ③ ‘네가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 일을 주도해 왔다.’라는 발화는 대화의 내용(‘앞에 나서서 건 꺼리지 않았어?’)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성은’이 ‘임시 반장을 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발언은 대화의 문맥을 고려할 때, '재은'이 제시한 의미 있는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3.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담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담에서 전문가는 진행자의 생각,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구조라는 말씀이시죠?'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진행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두 번째 발화 즉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과 전문가의 두 번째 발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그러니까 섬이 많고~말씀이시죠?'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작가가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발표 앞부분인 '이 인물화는 고호가~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발표 뒷부분인 '이 인물화가 그려진~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발언에서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 학교 미술 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아마 그럴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나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들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식적 호칭인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6~7]

6. 작문의 목적 추론

정답해설: 제시된 글은 청소년인 글쓴이가 방송국 담당자에게 특정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작문 행위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글쓴이의 요구를 전달하는 표현 행위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필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제시된 글은 필자의 정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 글이므로, 이 글이 필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작문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시된 글이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라는 특정 독자를 설정하기는 하고는 있으나, 글의 내용이 청소년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글이 '개별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표현 행위라는 작문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시된 글의 요구가 수용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받게 될 도움이 진솔되어 있기는 하나, 그 도움의 내용이 사회적 갈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필자가 속한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글의 내용상 이 글이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에 관한 친교적 목적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자료 수집·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다)의 자료에는 UCC 제작 활동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 자료에서는 상당수(72%) 학생들이 UCC 제작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가)의 2 자료에서는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 상당수(89%) 학생들이 향후 UCC 제작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나)의 그래프에서는 청소년의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중 '제작 기술을 모름'이 가장 큰 요인(68%)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UCC 제작을 안 해 본 청소년 중에서 향후 제작을 희망하는 이가 많다는 내용의 (가) 자료와, UCC 제작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제작 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술을 모름'이라는 내용의 (나) 자료는,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글의 셋째 문단은 청소년 UCC 제작 활동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UCC 제작을 못 해 본 청소년이 많다는 (가)의 내용과 UCC 제작 활동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다)의 내용을 활용한다면, 글의 셋째 단락에 ' ~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자료는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과 독서 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하다는 내용이다. 조건 1은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여 글을 시작하라는 것으로 글의 첫째 내용 요소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학습 만화를 전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여 표현하여 글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건 2는 글의 둘째, 셋째 내용 요소로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 제기과 그 해결 방향 제안이다. 조건 1과 2를 결합하면, 글을 쓸 때, 학습 만화 읽기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다음 문제를 제기한 후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 ③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라고 하여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 긍정하여 글을 시작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에서 학습 만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다음, '같은 주제를 다룬 참고 도서를 폭넓게 읽도록 한다'에서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양한 어휘 습득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을 뿐, 그 해결 방향이 제안되지 않았다. ②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라는 문제 제기과 그 해결 방향 제안만 있을 뿐,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이 제안되어 있지 않다. ⑤ 학습 만화의 긍정적인 측면만 진술되어 있을 뿐, 학습 만화에 대한 문제 제기과 해결 방향 제안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글에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읽은 책을 집에 쌓아 두고만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 글의 서두에 도서관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겠다는 필자의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 글의 필자는 '책값이 부담되어 ~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책을 나눔, 물건을 나눔, 노인들을 위한 '듣는 책 교실'), (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가)에 소개된 첫째, 둘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독자가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듣는 책 교실'에 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⑤ (나) 글이 쓰인 매체는 인터넷(게시판)이며, (나) 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자리에는 시민들로 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부(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가 적절하다. ③ ㉣의 '그 동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하는 '나눔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뒤, 각각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각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이다. 정답은 ③으로, '따뜻하다'는 '따뜻 → [따뜨]'의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며, '따뜻하다 → [따뜨타다]'의 과정에서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가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음절 종성의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는 변동이지만, ㉡은 음절 초성의 자음 중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다. ② ㉠에서 ‘앞 → [압]’의 사례에서는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었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은 거센소리로 변동되는 현상이지,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 아니다. ④ ㉣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현상이지만, ㉤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아니다. ⑤ ㉥이 음운의 축약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은 음운의 첨가에 속하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는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은 음운의 수에는 변함이 없이 교체만 이루어진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조사 ‘에’, ‘에서’의 국어사전 뜻풀이 및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③’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격 조사로 쓰일 때의 뜻풀이임에 비해 ③에서 제시한 문장은 ‘에서’가 처소의 부사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①’의 용례에 해당한다. ‘에서③’의 용례로는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뜻풀이를 보면 ‘에’는 ㉠에서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음에 비해, ‘에서’는 격 조사로 쓰이는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다. ②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의 뜻풀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는 타당한 용례이다. ④ ‘에㉢①’의 용례,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에서 ‘집에’를 ‘집에서’로 바꾸어 쓸 수 없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와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에’가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고, 후자는 ‘에서’가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에서 명사절 ‘겨울이 오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명사절이 명사 ‘전(前)’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명사절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③ 명사절 ‘자식이 행복하기’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 조사 ‘를’은 생략되었다. ⑤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⑤로, ㉠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먹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과 ‘댁’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댁’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16~18] 과학,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지문해설: 이 글은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창안한 분광 분석법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인접 과학 영역인 천문학에 활용됨으로써 과학사에 남긴 업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이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화합물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은 키르히호프에 의해 천문학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나온 금속 원소의 스펙트럼을 태양빛의 스펙트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태양과 같은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히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주제]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이 천문학 분야로 확장되어 태양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인접 과학 영역에 적용되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내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천체에 가지 않고도 천체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광 분석법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광 분석법이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했다고 볼 수 없다. ②, ④ 3문단에는,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 스펙트럼에 있는 검은 선들을 발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빛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낸 것이나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한 것은 키르히호프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여 물질 고유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꽃 반응을 통해 물질 고유의 불꽃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분젠의 연구 이전에 발견된 사실로 볼 수 있다.

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위치는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화합물로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 원소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을 통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분광 분석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루비듐이 분광 분석법 출현 이전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될 때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키르히호프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D선이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4문단 처음 부분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철, 헬륨과 같은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트륨의 존재가 철의 존재보다 먼저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젠은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버너를 고안한 이후에도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 분간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젠이 금속 화합물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는 버너를 고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고 이 글의 3문단에는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과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3문단에서 천체의 스펙트럼에서 나온 검은 선들은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D선과 나트륨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광 분석을 통해 태양 대기에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기>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 중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α 에는 나트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항성 α 의 검은 선들은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항성 α 의 대기 속에 있는 리튬이 빛을 흡수하여 생긴 검은 선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선과 겹쳐지는 것은 있지만 리튬의 스펙트럼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태양빛 스펙트럼에는 D선 이외에도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서 검은 선들이 나타났다고 언급되어 있다. 같은 원리로 항성 β 의 스펙트럼에도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보기>에 제시된 나트륨 스펙트럼과 겹쳐지는 검은 선을 들 수 있다.

[19-21] 예술,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선암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돌다리인 승선교를 제재로 하여, 승선교의 건축 원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승선교는 계곡으로 끊긴 산길을 이어줌으로써 경건한 세계와 번잡한 속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무엇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번잡함을 안고 산길을 오르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해준다. 승선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인데,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이 대비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멀리서 승선교를 바라볼 때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이는 산자락의 풍경이나,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가 홍예와 자연스럽게 원으로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승선교 주변 수목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아른거리는 풍경 등은 승선교와 어우러지면서 계절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자연 속에서 극적인 합일을 만들어낸다.

[주제] 홍예다리인 승선교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19.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멀리서 바라본 승선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아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서 홍예가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는 양식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홍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조 가설틀은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반원형이다. 사다리꼴 형태를 띠는 것은 홍예를 만들 때 쓰이는 장대석들이다. 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홍예다리가 구조적 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승선교와 옥천교가 유사한 위치에 장식을 덧붙였다는 유사성은 있지만, 이 장식에 담긴 의미가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승선교의 홍예 천장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은 사람들이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옥천교의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 조각되어 있는 도깨비 형상은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승선교는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천교는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승선교의 석축은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다소 무질서해 보이지만 옥천교의 석축은 홍예와 마찬가지로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으며 다리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③ 옥천교는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지만, 승선교는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 만들어 설치한 다리이므로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인 공간을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라 할 수 있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의 ‘방지한다고’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막아준다고’로 바꿔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용되었다’는 ‘이용되었다’, ‘쓰였다’ 등으로 무난하게 바꿔쓸 수 있다. ② ‘견고하다’가 ‘굳고 튼튼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돌출’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의미이다. ⑤ ‘선사하다’는 ‘존경·축하·애정의 뜻으로 남에게 선물을 줌.’의 의미이므로 ‘주다’와 바꿔쓸 수 있다.

[22~23] 인문, ‘토인비’의 역사 연구

지문해설 : 이 글은 ‘토인비’의 역사 연구가 지닌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토인비가 역사 연구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가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개념이다.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 달려 있으며, 이때 도전은 통상적으로 문명이 처한 역경에 해당한다. 한편 토인비는 이러한 도전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되며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성공적인 응전을 통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창의적 소수의 역량이 발휘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중의 모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모방은 그 방향이 선조와 구시대가 아닌 창조적 소수에게로 작용할 때, 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제] 토인비의 역사 연구가 지닌 특성

22.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인비는 자신의 가설을 보완하면서 도전의 강도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응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명의 발생과 생존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에서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방의 존재 여부가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을 살펴보면,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⑤ 5문단을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과거의 인습이 사회를 지배하여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는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급속한 사막화라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3가지 양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응전의 양상 중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사막화된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문명의 정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문명이 성장하려면 창조적 소수들이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보기>의 둘째 집단은 문명이 정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응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둘째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사막화는 기존의 삶의 방식과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적 도전이자 역경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첫째 집단은 환경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집단이다. 그러므로 첫째 집단은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세대와 죽은 선조들을 모방함으로써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④, ⑤ <보기>의 셋째 집단은 수렵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의 도전이 나타나자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달리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응전함으로써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편 4, 5문단에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룩한 집단은 환경의 도전에 대해 창조적 소수가 역량을 발휘하고 대중들이 이를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셋째 집단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24~27]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배치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밝히며,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광고 효과가 크다. 간접 광고는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며, 상품 활용이 프로그램의 맥락과 잘 부합하면 맥락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협찬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간접 광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접 광고는 은연중에 시청자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 간접 광고의 특성 및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2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3문단과 4문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간접 광고의 개념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밝히고 있고,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4문단에서는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간접 광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요즘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맥락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간접 광고가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든다고 하였으므로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미디어 이론가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의 간접 광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 광고는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맥락 효과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는 모두 간접 광고에 해당하므로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여자가 의상을 입고 있으므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기>의 남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한다. <보기>에서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으므로 커피 전문점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기>의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 제조업체는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남자가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맥락 효과란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후 <보기>의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한 것은 연인이 함께 하는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의 광고 효과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30] 기술,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CD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정보를 판독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 모터가 CD를 회전시키면,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광 검출기가 CD에서 반사된 광선을 받아들여 랜드와 피트 정보를 구분한다.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켜 CD의 정보를 읽어 낸다. 때때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트랙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움직여 편차를 조정하고, 초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 초점을 맞춘다.

[주제] CD 드라이브의 구동 원리 및 정보 판독시 오류 해결 방법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광학계 구동 모터는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照射)될 수 있도록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편차를 보정한다. ⑤ 2문단에서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을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조사된 모양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할 때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가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한다고 하였으므로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상태1>은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의 출력값보다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광선이 해당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2>는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져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졌으므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태1>은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하며, <상태2>는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으나, <상태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트랙의 전후좌우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1>의 출력값의 총합은 8이고, <상태2>의 출력값의 총합은 16이므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③, ④ <상태1>은 광선이 트랙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상태2>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졌으므로,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31~33] 현대시 - 이형기, ‘낙화’

지문해설 : 이 시는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별을 꽃이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이별을 끝이 아닌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낙화’가 꽃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녹음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이듯이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 역시 자아의 내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긴 안목으로 ‘낙화’를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낙화’가 아픔이나 슬픔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룻하룻’ 떨어지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1연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에서 ‘낙화’의 의미를 드러낸 후, 이를 자신의 이별과 관련지으면서 이별이 비록 슬프지만 영혼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됨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의 화자는 이별과 낙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별이 내적 성숙을 위한 계기임을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 독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또한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시는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작품으로, 스스로를 조롱하는 자조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하는 ‘하롱하롱’이라는 의태어는 사용되었지만 의성어는 쓰이지 않았으며 시의 분위기 또한 진지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다. ④ ‘분분한 낙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지만, 이는 꽃이 지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상의 불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구를 찾을 수 있으며, ‘가야 할 때’라는 시구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금 꽃이 지는 것, 청춘이 죽는 것은 여름의 녹음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은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실을 가져오듯 이별 역시 인생에서의 충실한 성장, 내적인 충만을 가져오기 위한 것임을 ‘가을’이라는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이별의 의미,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있는 화자가 이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화자는 내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가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이별에 대해 ‘걱정을 인내한’이라 말하면서 이별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지나간 사랑’과 관련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은 꽃이 떨어진 후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낙화’가 끝이 아니고 여름과 가을로 이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이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으므로, 삶의 목표 상실이나 번민으로 볼 수 없다. ⑤ 이별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고 비유한 표현으로, 과거로의 회귀와 연결 지을 수는 없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봄 한철’은 뒤에 이어지는 행을 볼 때, 걱정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청춘기의 열정과 걱정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꽃답게 죽는다’는 ‘낙화’와 ‘이별’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그 아름다움은 가을의 열매와 관련되며 이는 자아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야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이며 이는 ‘열매’나 ‘성숙’과 이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③ ‘결별’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이 더 나은 발전이나 성숙과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낙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긍정적 자세를 드러냄과 동시에 <보기>와 연관 지으면 ‘이별’이 이전까지의 세계와 헤어지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임을 인식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눈’을 통해 성찰의 태도를, ‘슬픈’을 통해 시련에 부딪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별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련에 부딪혀 변화를 겪게 하고 새롭게 성숙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

[34~37] 현대소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게 된 도시 빈민의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다. 난장이 아버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가야만 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소설의 앞부분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가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와 영수는 현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알루미늄 표찰을 떼려고 하는 반면 영호와 영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난장이 아버지는 지섭과 교류하면서 사랑은 없고 물신주의적 욕망만 남아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달나라로 갈 결심을 한다.

[주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나’(영수)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몰려가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쓸 데 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알루미늄 표찰을 떼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나’는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는 것을 과장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것이지 반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학’이란 학식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인데, 서술자가 학식을 과시하는 내용은 없다. ④ 이 글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서술하고 있지만 액자 구조는 아니다. 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은 모두 시간의 선후가 있는 것으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배열한 것은 아니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거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떼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임을 알고 ㉠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생활의 의미마저 포기한 절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가 부엌 바닥과 가슴을 치는 것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으로 비통함이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②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상황과 ‘행복동’이라는 지명은 상반되는 것이다. ③ 어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이 모여든 이유가 철거 계고장 때문이므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그것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가 공장 굴뚝 위에 올라 간 것을 본 어머니의 반응이므로 고조된 음성과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섭과의 대화에서 난장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난장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고문’은 재개발을 통해 빈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가진 자들은 아파트 입주나 입주권 거래로 돈을 버는 상황과 관련되므로 ‘불평등’을 들춰내는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성실하게 살아 온 ‘난장이’ 가족의 비극은 ‘욕망’으로 가득 찬 ‘죽은 땅’의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달나라’는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달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④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라는 지섭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은 여러 사람이 질서가 없이 동시에 마구 떠드는 상황이다. 중구난방(衆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口難防)이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조리가 없이 말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

[38~40] 고전시가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원천석, ‘흥망이 우수하니’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자신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해야 했던 신하 왕방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 슬픔 등의 감정이 냇물에 이입되어 처연한 시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주제] 유배된 임금에 대한 슬픔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임제가 35세 때 평안도 도사(都事)로 부임하려 가는 길에 개성 황진이의 묘에 들러 제를 올리며 쓴 시라고 한다. 사대부가 기생의 묘에 잔을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 행동이었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름난 미인이기도 했던 여인에 대해 절절한 애도의 심정을 담아 질문과 영탄의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생 무상

(다) 원천석, ‘흥망이 우수하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의 유신인 시인이 잡초가 우거진 옛 궁궐의 터를 바라보며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추초’, ‘목적’과 같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무상감

3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운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묻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궁핍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화자가 호송의 임무를 담당

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유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미감'과 거리가 멀다. ⑤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 ('내 안 같아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숲)'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눈물 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 떠한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1~43] 고전소설 - 허균, '홍길동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허균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전 소설로서 최초의 국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조정과 대립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가 울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적서 차별로 인해 인재마저 버리는 당시의 신분 제도의 모순과 불의와 비리가 판치는 당대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조선을 떠난 홍길동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는 소설의 결말 부분이다.

[주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상 사회의 건설 추구

4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울도국의 태수는 홍길동의 군사가 몰려오자 왕에게 보고하고 홍길동에 맞서 싸웠다. 홍길동의 격서에 놀라 항복한 사람은 태수가 아니라 울도국의 왕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은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이라고 하며 홍길동을 선동으로 오해하고 있다. ② 인형은 홍길동을 ‘아우야’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장례에 늦은 것에 대해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라고 하며 홍길동을 동생으로 대하고 있다. ③ 홍길동은 남경 땅 제도에서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으며,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⑤ 홍길동은 자신의 부하인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렸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호부호형하는 것을 허락 받음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A] 부분에서는 자신이 구한 터에 부친의 산소를 정하고, 산소의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지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자신의 부하들(영웅들)과 함께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맞지만 ‘길동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들을 모아’라는 부분을 볼 때, 함께 삼년상을 치른 것은 아니며,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졌다는 내용도 없다. ③ 부친을 운구한 사람들은 홍길동의 부하들로 부친의 평소 인간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④ ‘(인형이)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모부인은 산소를 모시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홍길동이 지술을 배운 것에 대해 모친이 염려하는 내용은 없으며, 가족들도 모두 홍길동의 지술을 인정한다.

43.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왕이 홍길동을 칭찬한 것은 ‘그 재주’이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자신의 능력을 조선에서 펴지 못하고 국외로 가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등용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폐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홍길동은 조선을 개혁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의 행적에 대해 ‘폐를 끼쳤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국외에서 이상을 실천하는데 이것은 당대 사회에 타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홍길동은 신분제를 개혁하기 위해 왕에게 건의하지 않고, 병조판서가 되어 본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의 해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⑤ 이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홍길동이 이미 이상적인 사회인 율도국을 정벌하는 데는 개인적 욕망과 명분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 글쓰이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이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작품은 평안도 성천에서 글쓰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글쓰이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쓰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4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라고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쓰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과거의 삶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4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를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는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에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고 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②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③	17. ④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②	26. ③	27. ②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③	33. ①	34. ⑤	35. ①	36. ③	37. ⑤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③	44. ①	45. ④					

[1~3]

1. 협상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모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협상 참여자인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직원 수’와 ‘하수 처리’, ‘지역 농산물 구입’이라는 협상 안건에 대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② 회사 측과 시청 측은 회사의 지역 주민 ‘채용 인원’ 수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가고 있다. 즉,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회사 측의 발언과 시청 측의 ‘알겠습니다~수용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에서 요구 수용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처리를 하겠습니다.’에서 의견이 절충되고 있다. ⑤ 회사 측과 시청 측 각각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2. 협상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의 발화 의도나 발화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회사 측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지만,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가 아니다.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가 아니며, ‘㉣’도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가 아니다.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며,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다.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가 아니고, ‘㉧’도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로 볼 수 없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3.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들의 공통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㉗'와 '㉘'는 모두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다. 즉, '㉗'의 경우, 회사 측은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10%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10% 충원은 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시청 측도 지역 주민이 회사에 채용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㉘'의 경우, 제안하는 시청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도 '운송비 절감'이라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㉘

[오답피하기] ㉑ '㉗'와 '㉘' 모두 제안하는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㉓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㉘'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㉔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라 볼 수 없다. ㉕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㉘'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작가가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발표 앞부분인 '이 인물화는 고호가~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발표 뒷부분인 '이 인물화가 그려진~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㉒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발언에서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㉓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㉕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아마 그럴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나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들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식적 호칭인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6~7]

6. 자료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나)의 1에서는 관광객들이 희망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적 실태를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의 자료에서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실태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자료에서 생태 보전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에 관한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첫째 문장), 관광지의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그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셋째 문장)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 ~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 내용으로 ‘생태계 훼손’ 문제를 다룰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의 참여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고, (나)의 2에서는 ‘주민 참여 유도의 어려움’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다)의 첫째 사례에서는 생태 관광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었다는 내용을, 둘째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가계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생태 관광에서 얻는 ‘이득’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에 관한 글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의 1에서는 관광객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첫째, 둘째 유형으로,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 걷기 프로그램’, ‘지역의 전설, 문화, 자연 이야기 듣기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 자연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프로그램 운영 측면의 개선 방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 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첫째 조건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것은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서술하라는 것이다. 둘째 조건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된 순서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열하라는 것이다. ④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경우, 우선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자연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표현은 '근거'에 해당하고,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해당하며,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이 관광객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서술하도록 한 첫째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관광객의 태도 측면을 다루고 있고(첫째 조건 충족), 그 근거나 주장, 실천 방안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이들의 순서도 적절하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②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으나(둘째 조건 충족), 그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다(첫째 조건 미충족). ③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첫째 조건 미충족), 원론적인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⑤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주장이기는 하나(첫째 조건 충족), 주장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순서에 어긋나며 주장과 실천 방안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8.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인 '소쇄원'의 유래와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분에서 참고 자료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기> ㄴ의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의 계획은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로 볼 때 <보기> ㄹ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의 계획은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ㄱ의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의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의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는 2문단의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의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2문단의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글에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읽은 책을 집에 쌓아 두고만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나) 글의 서두에 도서관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겠다는 필자의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 글의 필자는 ‘책값이 부담되어 ~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책을 나눔, 물건을 나눔, 노인들을 위한 ‘듣는 책 교실’), (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가)에 소개된 첫째, 둘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독자가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듣는 책 교실’에 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⑤ (나) 글이 쓰인 매체는 인터넷(게시판)이며, (나) 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자리에는 시민들로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부(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가 적절하다. ③ ㉣의 ‘그 동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하는 ‘나눔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해설 : ‘파생어/합성어’,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밝히어 적지 않기’를 기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으로 하여 네 유형을 제시한 후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무덤’과 ‘지붕’은 각각 ‘묻- + -엄’, ‘집 + -옹’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있다.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면 “*묻엄, *집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뒤뜰’, ‘쌀알’은 각각 ‘뒤 + 뜰’, ‘쌀 + 알’의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②에 제시된 ‘무덤, 지붕, 뒤뜰, 쌀알’ 이외에 제시된 단어는 ‘마중’과 ‘길이’인데, ‘마중’은 ‘맞- + -옹’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이며, ‘길이’는 ‘길- + -이’의 파생어(명사 또는 부사)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나)에 적용하여 제시된 사례(가)의 표준 발음을 묻고 있다. 제시된 사례는 ‘꽃이랑(㉠)’과 ‘꽃오목(㉡)’인데, 전자는 제29항과 후자는 제15항과 관련된다. 먼저, ‘꽃이랑’은 해당 단어의 뜻풀이를 참조할 때 ‘꽃 + 이랑’의 합성어이다. 또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이다. 따라서 ‘ㄴ’ 소리를 첨가하여 [꼐니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음으로, ‘꽃오목’은 ‘꽃 + 오목’의 구조로, 이때 ‘오목’은 ‘ㄴ’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부사)이다. 따라서 ‘꽃’의 받침 ‘ㄷ’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꼬도목]이 표준 발음이다. **정답 ①**

13.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문장에 대해 설명한 후, 같은 유형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주어인 ‘특징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경우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구매’와 ‘구입’의 의미가 중복되어 잘못된 문장이다.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나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여간하다’는 부정어 앞에 쓰여 ‘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여 잘못된 문장이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인데 ‘연료 효율을 높여 주다.’는 성립하지만 ‘유해 물질을 높여 주다.’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형언하다’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형용하여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따라서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㉔로, ㉔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㉑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㉒ ㉒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㉓ ㉓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㉔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㉕ ㉕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㉑으로, '먹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㉑)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㉑)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㉑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㉑)이다. ㉒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과 '댁'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댁'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㉒)이다. ㉔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㉕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㉕)이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을 제시한 후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㉑으로, ㉑에서는 종성의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해 ㉓에서는 ‘어엿비’의 ‘ㅅ’이 ‘ㄷ’으로 발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답 ㉓**

[오답 피하기] ㉑ ‘수뵈’에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인 ‘뵈’를 확인할 수 있다. ㉒ ㉔의 진술에 의하면, ‘쁘들’의 ‘ㅄ’은 ‘ㅂ’과 ‘ㄷ’의 두 개의 자음 모두 발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㉕ ㉖에서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하였다고 했는데, ‘히여’의 ‘히’에는 방점 ‘:’가, ‘여’에는 방점 ‘.’가 쓰인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의 성조가 서로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㉗ 연철 표기는 이어 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 적기를 의미하는데, ‘뿌메’에서는 이어 적기(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7-18] 독서 이론의 적용,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지문해설 : 이 글은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이덕무의 글로, 바람직한 독서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수준의 책을 어떤 단계별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런 단계적 독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책을 읽는 바람직한 방법을 오곡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며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며 독서에 관해 본받을 만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여러 의견을 수용하면서 각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 의심이 나는 것을 해결하는 독서법,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글의 끝부분에 ‘용촌 이광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바람직한 독서법으로 삶을 가꾼 모범적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독서를 큰 가치로 여겼던 당대 선비들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독서를 하기 위한 노력은 선비들이 거쳐야 하는 수양의 필수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본받아야 할 선인의 올바른 독서 방법

17.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법 중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독을 배제하고 다독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글쓴이는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다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세밀하게 읽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㉔**

[오답 피하기] ㉑ 글의 첫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글쓴이는 ‘사서’는 배움의 첫 단계에서 읽고 ‘후사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읽어야,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독서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㉒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이라는 내용은 의문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㉓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

며 읽고, 그 중 그른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⑤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학식에 대해 겸손할 것과 판단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18.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수용하기 위해 어떤 독서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즉, 제목이나 차례, 서문 등을 살핀 후에 책을 결정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며 훑어 읽는 방법,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며 읽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내용과 <보기>에서 제시한 방대한 정보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의 독서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독서 방법은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견주어 가며 읽으라는 것이다. 이는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서법이기도 하고 포용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법이기도 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으라는 것은 선인의 독서법이나 <보기>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다. ②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며 읽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책의 서문이나 차례 등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많은 양의 책을 읽을 때 훑어 읽기를 하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차례나 서문을 먼저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정보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많은 현대에서 활용되는 독서법이다.

[19~21] 인문,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신 이원론’과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심신 일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 작용론, 평행론, 부수 현상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입장이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심신 이원론은 각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상호 작용론’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평행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수 현상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 심신 일원론인데, 심신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관계에 대한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의 입장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상식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된다는 생각’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동일론(심신 일원론)’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육체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론’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 이원론’에서는 두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평행론’은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이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행론’에서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4문단에서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평행론’은 모든 물질적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물질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론’과 ‘동일론’은 모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부수 현상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진술은 ‘평행론’의 입장일 뿐 ‘동일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상호 작용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적 현상이라고 보는 ‘부수 현상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부수 현상론’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는 조수 간만과 달의 모양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육체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수 간만)는 ㉠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면서 개펄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달의 모양)는 ㉠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지만 ㉡에 의해 ㉢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인과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즉 ㉠이 ㉢의 원인이 되지만, 역으로 ㉢이 ㉠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22~25]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배치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밝히며,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광고 효과가 크다. 간접 광고는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며, 상품 활용이 프로그램의 맥락과 잘 부합하면 맥락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협찬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간접 광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접 광고는 은연중에 시청자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 간접 광고의 특성 및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3문단과 4문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간접 광고의 개념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밝히고 있고,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4문단에서는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간접 광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3.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요즘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맥락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간접 광고가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든다고 하였으므로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에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미디어 이론가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의 간접광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 광고는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맥락 효과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는 모두 간접 광고에 해당하므로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여자가 의상을 입고 있으므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착용하

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기>의 남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한다. <보기>에서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으므로 커피 전문점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기>의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 제조업체는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남자가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맥락 효과란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후 <보기>의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한 것은 연인이 함께하는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의 광고 효과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6~27] 과학, '지구 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전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향력은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할 때 위도에 따라 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이에 따라 적도 상의 특정 지점(자전 속도 1,600 km/h)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자전 속도 1,400 km/h)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했을 때,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지점(북위 30도)은 발사 지점(적도)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 30도(1,400 km/h)에서 북위 60도(800 km/h)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두 지점의 자전 속도 차이만큼 발사된 물체가 동쪽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더 커질 뿐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쪽뿐 아니라 다

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주제]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이유와 그 양상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고, 3문단에서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가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 또한 북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고, 5문단에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은 이동 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이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전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푸코의 진자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진자의 진동면은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전향력에 의해 진자의 진동면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B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면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해 보면, ②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더 커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져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전향력이 더 커짐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더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에는 북반구와 반대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남극과 북극의 자전 속력은 동일하게 0이고, 4문단에서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동일하게 최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극과 북극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위도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도의 변화가 없이 적도 상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축에 해당하는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30] 예술, '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에 대한 평가를 소재로 하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이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성이라는 내적인 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청중들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적 담론 등이 담당할 역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 음악에 대해 열광하였는데 이는 순수 기악 음악이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지고지순의 음악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기악곡 음악은 언어로 해석될 수 없는 숭고미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여졌고, 철학적인 것으로 청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여기에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는 독일 비평가들의 평가가 청중들에게 수용되었고, 베토벤이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천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다.

[주제]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 바라본 베토벤 신화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는 베토벤 신화에 영향을 미친 베토벤의 천재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베토벤이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교향곡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토벤이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글쓴이는 베토벤 신화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②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토벤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 방식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지만,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에게 과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된 교향곡 3번 ‘영웅’의 예로 볼 때, 베토벤의 음악이 단순한 모티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들리는 것은 단순한 모티프를 다양하게 가공함으로써 ‘복잡성’을 성취해냈기 때문이다. ④ 베토벤은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프로 하면서도 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변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29.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은 순수 기악에 열광했던 1800년 전후의 빈의 청중들이다. 이들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던 것이다. 즉, 당시 빈의 청중들에게 있어 음악은 언어가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예술이었다. 이는 음악을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기를 바랐던 당대 빈 청중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는 베토벤이 단순한 모티프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변주·변형함으로써 청중의 귀에 다채롭게 들리도록 하는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음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③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음악 그 자체’를 바랄 뿐 가사 등의 음악 외적 요소를 원하지 않았다.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 음악 외적 상황을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라고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에 열광하면서 가사 등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는 오페라 작곡가인 로시니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음악의 중심이 ‘순수 기악이나, 오페라나’에 따라 음악가에 대한 청중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악을 중심에 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호평과 더불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보기>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판단해 보면, 4문단에 나오는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본 사람이므로 1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빈의 청중들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에 열광하며 제목,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슐레겔은 빈의 청중들이 그랬듯이 베토벤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호프만은 4문단에 나와있듯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 즉 오페라가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③음악을 ‘앎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라고 보지 않고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여겼다. 4문단의 정보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은 순수 기악에 대해 열광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페라를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스탕달은 로시니를 극찬하는 반면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문에 제시된 베토벤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로시니가 베토벤의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 따르면, 당시의 오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향유된 것이었는데, 음악을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빈의 청중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31~34]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평생 은거한 남영로가 1840년경에 지은 소설로서, 자신이 쓴 소설 ‘옥련몽’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몽자 소설(夢字小說)의 계보를 집대성한 작품이자 군담계 영웅 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은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보면 가정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녔고,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뤄 나가는 애정 소설의 특성도 띠고 있어서, 대중적인 재미와 문학적 품격을 겸비한 고전 소설의 백미로 꼽히던 작품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

3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처음에는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잠시 잠이 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이후는 꿈의 장면으로, 휘황한 천상계의 백옥루가 나타난다. 강남홍은 자신을 인도한 보살을 통해 자신들이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들임을 알게 된 후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꾸고 깨는 사건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특히 천상계라는 환상적 공간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장면은 보살이 던지는 석장에 의해 순식간에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주로 전지적 서술자의 설명이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은 없으며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도 없다. ② 이 글은 꿈을 통해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적강하였음을 보여준 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음을 드러내는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인물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꿈의 장면, 꿈 이후 인물들의 대화, 후일담 등이 나타나지만, 인물의 내적 독백은 없으며 난관 극복 의지 또한 인용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⑤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짊고 있다’라는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3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강남홍은 꿈에서 한 명산에 이르러 보살을 만나 남천문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백옥루를 바라보다가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보살은 그중의 한 선녀(홍란성)가 바로 강남홍의 전신이라 말하며 그들이 천상계의 인물이었으나 하계로 적강하였음을 알 수 준다. 강남홍은 선관과 선녀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 그들과 재회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라는 강남홍의 물음을 통해, 강남홍이 보살을 명산에서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를 통해 보살이 인도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허 부인의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양창곡)을 낳았으니”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정답해설 : <보기>는 ‘옥루몽’의 환몽 구조를 설명한 글이다. ‘옥루몽’은 다른 환몽 구조와 달리 속세에서 천상계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을 꾸는 것은, 인간계에 적당한 인물이 꿈을 통해 다시 천상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속세에서 천상계로의 입몽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남홍은 꿈에서 보살의 도움으로 백옥루를 보게 되고, 백옥루에서 취해 자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천상계에 진입한 것이며 강남홍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③ 강남홍은 천상계를 경험하는 꿈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살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보살이 강남홍을 다시 인간계로 보내는 각몽을 유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허 부인은 연왕을 낳게 해준 돌부처가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보살임을 말하면서 암자를 창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 이후 속세에서의 보답이라 할 수 있다. ⑤ 속세에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것은 <보기>를 보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양창곡 일가가 천수를 누리며 영화롭게 살았음이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속세에서의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배회하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라는 뜻으로, 이 글의 문맥으로 볼 때는 ‘돌아다니며’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어울리며’는 ‘함께 사귀어 잘 지내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끼어들어 같이 헝싸이며’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지하여’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어’의 의미이다. ② ‘망연히’는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한 태도로’의 의미이므로 ‘멍하니’는 적절하다. ③ ‘인도’는 ‘이끌어 지도함’ 또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의 의미이기에, ‘이끌어’가 적절하다. ④ ‘휘황한데’는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이는데’의 의미이다.

[35~37] 현대소설 - 이청준, ‘소문의 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삶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다. 소설가 박준은 억압된 상황과 작가의 사명 의식 사이에서 절망한 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의식의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 주인공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러한 현상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인물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의 충격에서 비롯된 공포증의 원인을 밝혀낸다. 이 소설은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다. 지문은 김 박사와 ‘나’가 박준의 전깃불에 대한 병적인 증세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과, ‘나’가 박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깃불의 실체에 대해 단서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김 박사는 박준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털어 놓게 하려는 방법을 세우고 있는 반면, ‘나’는 그의 소설들을 단서로 비밀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주제]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김 박사’는 ‘박준’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깐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에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김 박사’의 해결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라는 ‘김 박사’의 말을 통해 김 박사도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어머니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⑤ ‘나’는 ‘전깃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신문지 조각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나’가 실망한 것은 신문 기사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36.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특정 부분이 가지는 서사적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A] 부분은 앞부분에서 의문으로 남겨 두었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어둠 속에서 전깃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과거에 전깃불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음을 [A]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A]부분은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우리 고향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곳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일을 고백하는 내용이므로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은 아니다. ④ [A] 부분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⑤ [A] 부분에는 이질적인 시선이 없으며, 역사적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37.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박준’은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깃불의 공포와 자기가 현재 소설을 쓰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통해 ‘위험한 질문’의 의미를 추론해보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 외상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 박사’는 ‘박준’이 전깃불의 실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을 털어놓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박사’가 시도하려는 방법은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통해 말문 트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박준의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박준’은 소설을 쓰면서 전깃불 앞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기 진술을 한다. 이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박준은 ‘자기 진술’을 하면서도 전깃불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이것은 <보기>에서 말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박준’의 외상이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의 대결, 즉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8~40] 고전시가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자신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해야 했던 신하 왕방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 슬픔 등의 감정이 냇물에 이입되어 처연한 시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주제] 유배된 임금에 대한 슬픔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임제가 35세 때 평안도 도사(都事)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개성 황진이의 묘에 들러 제를 올리며 쓴 시라고 한다. 사대부가 기생의 묘에 잔을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 행동이었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름난 미인이기도 했던 여인에 대해 절절한 애도의 심정을 담아 질문과 영탄의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생 무상

(다) 원천석, '흥망이 우수하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의 유신인 시인이 잡초가 우거진 옛 궁궐의 터를 바라보며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추초', '목적'과 같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무상감

3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은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문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궁핍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화자가 호송의 임무를 담당 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우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외감'과 거리가 멀다. ⑤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잔 자바 권홀 이 업스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니 은 곳혀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정답해설 :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숲)’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눈물계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 더흔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1~43] 현대시 - 조지훈, ‘파초우’/ 곽재구, ‘사평역에서’**(가) 조지훈, 파초우**

작품해설 : 이 시는 자연과 마주 대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화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자연과 교감하는 존재로, ‘구름’은 이러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저녁 어스름’, ‘푸른 산’ 등의 시각 이미지와 ‘후두기는’, ‘물소리’ 등의 청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연과 5연은 수미 상관의 기법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2~4연에서는 ‘싫지 않은’,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자연을 그리고 있다. 어디에서도 편안히 설 곳 없는 현실에 지친 화자는 자연 앞에서,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소망

(나) 곽재구, 사평역에서

작품해설: 이 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대합실 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허름한 공간 안에는 툭밥 난로가 지퍼져 있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침을 하거나 졸면서 막차를 기다리는 그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주변부 인생이 겪는 서러움과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합실의 풍경에 대한 뛰어난 묘사와 자연스러운 서술, 반복적 변주의 시상 전개 방식 등으로 주변부 사람들의 고단하고 서러운 삶과 그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41. 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어디서 쉴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세계는 화자로 하여금 마주 앉아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모습이다. 빗방울이 넓은 파초잎에 떨어져 후두기는, 매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를 내는 언제나 그리운 자연인 것이다. 한편 (나)의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매우 늦은 시골 대합실에서 툇밥 난로에 불을 쬐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이 눈물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구름’에게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구름’을 사람에게 비유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도 ‘흰 보라 수수꽃’, ‘그름처럼’, ‘단풍잎 같은’ 등의 비유가 나타난다. ② (가)와 (나) 모두에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닌 역동적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후두둑 떨어지는’의 의미를 지닌 ‘후두기는’이라는 시어가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이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파초잎에 떨어지는 성긴 빗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나)에는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시어나 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는 것이지만, 이 시에서 ‘구름’은 화자 자신이기도 하기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에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4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떠돌고 있다. 화자의 발 닿는 곳은 산과 물, 파초가 있는 자연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러한 화자가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서 ‘어디메’는 화자가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정처 없이 자연을 떠도는 사람으로,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면엔 자신에 대한 물음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저녁 어스름 무렵 파초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그러한 배경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소망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산에 대해 창을 열고 마주 앉아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대상이라 말하고 있다. ④ ‘들어도 싫지 않은’은 화자가 자연과의 교감을 계속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교감이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감상의 적절성 평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정답해설 : 이 시에서 ‘눈꽃의 화음’은 힘겨운 삶에 지친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재이다.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지금은 모두 그 화음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얼은 몸을 푹밥 난로의 열기로 녹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줌의 눈물’은 <보기>에 나와 있듯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와 선물이다. 따라서 이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푹밥은 난로의 연료로 추위를 녹이게 하며, ‘눈물’은 <보기>에서 보듯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통해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불을 쬐면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한 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이 ‘그리웠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자신의 눈물을 푹밥 난로에 던지는 것은 그 눈물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기>와 관련해 볼 때 힘든 삶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 글쓰이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이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작품은 평안도 성천에서 글쓰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글쓰이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쓰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4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흉명한 형리(刑吏)’라고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쓰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삶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4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에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도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① 05. ⑤ 06. ① 07. ③ 08. ② 0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⑤
 21. ⑤ 22. ③ 23. ④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⑤ 29. ② 30. ①
 31. ② 32. ④ 33. ⑤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③ 44. ③ 45. ②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독서 토론 노트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발표를 끝맺고 있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이 시간에 저는 ~ 제안하고자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독서 토론 노트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작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함으로써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학생 5’는 부장의 발표를 들은 후 독서 토론 노트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독서 토론 노트를 실제로 사용해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듣기 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의 생각은 발표자가 설문 조사 결과로 제시한 동아리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발표 동기에 공감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의 생각은 발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므로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 3’의 ‘~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발표에 사용된 설문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을 점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학생 4’의 생각은 발표의 내용이 독서 토론 노트의 긍정적 효과에만 한정된 것에 주목한 것이므로 편향성 여부를 평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5]

3.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방송 대담에서 진행자는 해설가의 발언에 대해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제가 어릴 때 듣던 대중가요네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의 발언 중 ‘소나무가 아닌가요?’, ‘소나무인가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진행자의 두 번째 발언,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 더 기대가 되는데요.’에 나타나 있다. ④ 진행자의 발언 중 ‘굽은 모습 때문이라니 ~ 어떤 의미인가요?’, ‘의외네요.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발언 중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4.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정답해설 : 공적 담화는 공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규범적인 언어 사용을 중시한다.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공적 담화의 성격이 강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자인 시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사적 담화에 비해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적 담화인 <보기>에 비해 시간상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③ 사적 담화인 <보기>는 공적 담화인 방송 대담에 비해 형식이나 절차가 자유로운 편이다. ④ <보기>는 자매가 방송 대담을 시청한 후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이므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담화로 보기 어렵다. ⑤ ‘복수의 가상적 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은 방송 대담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5.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해설가가 버드나무 영상을 보여준 의도는, 소나무와 대비되는 버드나무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향을 연상케 하는 시냇가 버드나무의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담의 도입 부분에서 ㉠ ‘그림(산수화)’을 보여 준 것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화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해설가의 ‘표를 보면 ~ 소나무가 두 배 정도 많이 출현했습니다.’라는 발화를 통해 ㉡ ‘표’가 설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해설가의 발언 중 ‘나무의 굽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와 ‘전통 조형의 아름다움은 ~ 적합하죠.’ 등을 통해 ㉢ ‘사진’의 사용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해설가가 ‘이번엔 노래를 한 곡 ~ 잘 들어 보세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 ‘음악’을 들려준 의도가 ‘그림’ 속의 나무에서 ‘음악’ 속의 나무로 화제가 전환됨을 알리고자 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에는 똑똑 우체통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똑똑 우체통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알려 줘야지.’라는 생각은 (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에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장점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우체통에 넣어 주신 이야기는 학생 자치회에서 선별하여 학교 누리집과 교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④ ‘똑똑 우체통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똑똑하게’ 반응하는 우체통이란 뜻입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⑤ ‘똑똑 우체통을 잘 활용한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에 똑똑 우체통의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7.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실내화 착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갈아 신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에서 실내화 착용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자는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실내화 착용의 이로운 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학생 대부분이 실내화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실내화 착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사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실내화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을 뿐, 실내화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저 역시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 수업 시간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에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계단이나 복도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곳을 청소하는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에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8.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교실 청결, 호흡기 건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제시된 계단이나 복도 청소의 어려움 역시 실외화 착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또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는 앞의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기에 적합하므로 ㉠을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악영향’에는 이미 ‘나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쁜 악영향’은 의미가 중복된 말이다. 따라서 ‘나쁜 영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서술어 ‘끝내지 못해’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청소를’을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이 글은 실내에서의 실외화 착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내화 착용을 촉구하는 글이므로, 청소 도구 확보 문제는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처럼 학생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을 고려할 때, ㉠이 앞 문장보다 먼저 제시되도록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9~10]

9.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예상 독자를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나)를 작성하였다. 이는 작문이 예상 독자를 고려한 행위임을 보여 준다. ② (가)의 ‘자료 수집’에서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나)에는 잡상의 다양한 형상이나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 등 잡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첫 단락에서 ‘정의’의 방법으로 잡상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봉황, 용, 해태’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쓰기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계획된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라는 ‘글 쓰는 목적’에 따라, (나)에서 잡상을 소개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에서 (나)의 마지막 단락은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직유법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①에서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잡상은~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잡상의 가치를 드러냈으며,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으므로 ①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열병식을 하듯이’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마치~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궁궐의 비밀을 전해 주는 것’에서 잡상의 가치가 담겨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에 잡상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온고지신’의 자세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음절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우리말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오지 못한다. 제시된 자료 중 ‘끼’, ‘딸’의 ‘ㄱ’, ‘ㅌ’는 각각 된소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음이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strike’처럼 초성에 해당하는 자리에 ‘str’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오기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성 자리에는 모음이 오는 것을 네 유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ㄷ과 ㄹ 유형에서 중성 자리에는 자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ㄱ 유형은 초성과 중성이 없이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며, ㄷ 유형은 초성이 없는 음절, ㄴ 유형은 중성이 없는 음절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네 유형 모두에 중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격 조사와 보조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친구한테’의 ‘한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에게’보다 구어적인 말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한테’는 다른 문장 성분에는 쓰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를 대신하여 ‘나한테’를 쓰면 해당 문장 성분의 격이 주격에서 부사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한테’는 부사격 조사로만 쓰이는 격 조사에 해당하며 보조사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밤에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오늘은’의 ‘은’은 ‘선수들은’, ‘간식은’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④ ‘약기도’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⑤ ‘책으로까지’의 ‘까지’는 ‘도’와 비슷한 의미를 지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3.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동사와 피동사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기다’의 ‘안기다’는 사동사이며, ㉡‘아기 품이 어미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이다. 참고로 ‘품에 안기다’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도 사동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운동화 끈을 풀다’, ‘피로를 풀다’와 비교할 때 ㉠운동화 끈이 풀리다의 ‘풀리다’와 ㉡피로가 풀리다의 ‘풀리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②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다’와 비교할 때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다의 ‘업히다’는 피동사이며, ‘이모가 아이를 업다’와 비교할 때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히다의 ‘업히다’는 사동사이다. ③ ‘옷이 마르다’와 비교할 때 ㉤옷을 말리다의 ‘말리다’는 사동사이다.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니며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④ ‘몸이 녹다’, ‘고드름이 녹다’와 비교할 때 ㉦새들이 몸을 녹이다의 ‘녹이다’와 ㉧햇살이 고드름을 녹이다의 ‘녹이다’는 모두 사동사이다.

14.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확인 사항’에 따라 ㉠, ㉡, ㉢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니, ㉠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와 ‘-아서’가 교체 가능할 때에는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서 가다’가 가능한 ㉡의 ‘받아가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며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의 ‘땀아가다’는 ‘땀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다. 그런데 만일 ‘땀아가다’가 한 단어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땀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띄어 쓴 ‘땀아 가다’와 붙여 쓴 ‘땀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 ㉡, ㉢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이다. **정답 ①**

15.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 속에 쓰인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 속에서 지시 대상, 화자, 청자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이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

다. ③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6~19] 예술, ‘작가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작가주의 비평을 설명하고 있다. 작가주의는 당시의 상투적인 프랑스 영화에 반발하여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하였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가장 산업화된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상업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을 복권시키기에 이른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된 ‘좋은’ 영화와 ‘위대한’ 영화들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 작가주의의 개념 및 영화사적 의의

16. 글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은 1문단에서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3~5문단에 걸쳐 작가주의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했던 할리우드 영화와 히치콕 감독을 예로 들고 있다. 또 6문단에서 작가주의의 영향력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윗글은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와 대립하는 비평 이론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⑤ 6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윗글에서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맥거핀’ 기법은, 히치콕 감독이 관객의 오인을 부추겨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기법은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 극적 장치이다. 따라서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작가주의는 당대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 이유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할리우드에서는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8.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과 더불어 영화 흥행의 변수로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서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③ 5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이 복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뒷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한 결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뒷글의 ㉠이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여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반면, <보기>의 ㉡은 감독을 영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1, 2문단에 따르면, ㉠은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여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④ ㉡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과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20~21] 기술, ‘조명 기구의 발광 효율과 수명’

지문해설 : 이 글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의 구조와 발광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발광 효율과 수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 조명 기구는 발광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제시문에서는 ‘백열전구

→ 형광등 → 발광 다이오드'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백열전구는 필라멘트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열의 형태인 적외선의 방출이 많아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수명도 짧다. 열전자가 수은 입자와 충돌하여 발생한 자외선이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내는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다. p형,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한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어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다.

[주제] 조명 기구의 구조와 발광 원리에 따른 발광 효율과 수명

2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들을 파악하는 문제는 대체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크게 변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부분을 찾아 진위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3문단에서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와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로 형광등의 발광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원통형 유리관 속에 들어 있던 수은 입자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백열전구가 '동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임에 비해, 3문단의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구조'로 구조가 더 복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문단에서 형광등은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 백열전구보다 '수명도 5~6배 정도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때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전자는 그 전압 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글의 중심 화제인 '발광 효율'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발광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인 발광 효율은 발광 다이오드가 가장 높고 형광등이 그 다음이며, 백열전구가 가장 낮다.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는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의 손실이 작아 발광 효율이 높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백열전구는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의 형태인 적외선으로 방출되어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2

문단의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에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에서 형광등에 사용하는 형광 물질의 종류를 바꾸면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소비 전력으로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면 발광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2~25] 인문, '고고학의 유물 자료 해석'

지문해설 : 이 글은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을 해석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진화고고학에서는 진화론에 기초하여 토기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나, 세밀한 연대 측정 기술에 힘입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자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 유물이 사용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한 설명 등과 같은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는 고고학은, 그 특성상 발굴을 통한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자료 해석이 제시된다. 따라서 고고학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주제] 유물 자료를 해석하는 고고학의 연구 방법 및 특징

2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가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과,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이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연대 측정 기술의 발달 덕분에 고고학자들이 이전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는 토기 두께가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화고고학적인 해석이, 4문단에서는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생태학적 설명이, 5문단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졌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고학은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세밀한 연대 측정 결과 토기의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과,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은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문단에서는 이러한 사실

중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를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5문단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진화고고학은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4문단에서 생태학적 설명은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과거를 설명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토기에 탄화된 채로 남아 있던 식재료에 사용된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대로 갈수록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당시의 자연 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열전도율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하여 토기 두께가 얇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의 전분 함량 변화가 토기의 두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진화고고학은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토기 두께의 변화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분이 많은 씨앗을 조리하는 데에는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4.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에서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의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같은 관점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번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토기를 선호하게 된 일은 사람들의 기호 변화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두께가 얇은 토기가 생존에 유리해졌다고 보는 것은 두께가 얇은 토기 제작을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기는 진화고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삶을 자연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여긴 진화고고학의 관점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식

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토기 제작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능동적 선택을 강조한 생태학적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④ 기후의 변화로 주요 식재료가 바뀌면서 음식을 조리하기에 편리한 토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주목한 생태학적 설명으로 볼 수 있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축적(蓄積)되다’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이다.’라는 말이므로 ④는 ‘나타나고’가 아니라 ‘쌓이고’와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증가(增加)하다’는 ‘양이나 수치가 늘다.’라는 말이므로 ㉠는 ‘늘어난다’는 ‘과’ 바꿔 쓸 수 있다. ② ‘초래(招來)하다’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다.’라는 말이므로 ㉡는 ‘일으킨’과 바꿔 쓸 수 있다. ③ ‘단축(短縮)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든다.’라는 말이므로 ㉢는 ‘짧아짐에’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집착(執着)하다’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라는 말이므로 ㉤는 ‘얽매이는’과 바꿔 쓸 수 있다.

[26~27] 과학, ‘원유의 열처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유해 미생물이 들어 있는 원유를 우리가 마시는 우유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열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생물은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열처리에 필요한 온도와 시간이 다르다. 미생물에 따른 열처리 시간과 온도는 D값과 Z값으로 표현한다. D값은 미생물을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Z값은 D값의 1/10의 시간으로 미생물을 1/10로 줄이기 위해 추가로 높여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실제 원유의 열처리에는 낮은 온도에서 살균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한 ‘저온살균법’과 살균 시간을 줄이는 대신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한 ‘저온순간살균법’이 있다. 그리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종류의 미생물까지 제거하여 장기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온처리법’도 있다.

[주제] 미생물 제거를 위한 원유의 열처리 원리와 방법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초고온처리법은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해도 죽지 않는 미생물까지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했을 때는 저온순간살균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적은 수의 미생물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초고온처리법으로 살균한 우유가 1개월 이상 장기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미생물 개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원유를 가공하지 않았을 경우 유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원유는 유해 미생물 성장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가 냉장 상태에서 유통 기간이 5일 정도인데,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한 우유는 1개월 이상 장기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미생물의 수가 더 많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제거하려면 열처리 온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저온살균법으로는 미생물을 99.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4문단에서 이 방법으로는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D값은 특정 온도에서 미생물 수를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열처리 시간을 D값의 2배로 늘리면 미생물 수는 1/100로 줄어든다. <보기>에서 A는 D값이 50초이므로 60°C에서 50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미생물 수는 100개가 된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D값의 2배인 100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미생물의 수는 1/100인 10개가 된다. B도 D값이 A와 동일하므로 60°C에서 100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미생물의 수는 10개가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Z값이 높은 미생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열에 대한 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은 5초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Z값이 5°C인 B는 65°C에서 1/10로 줄어들지만, Z값이 10°C인 A는 70°C까지 높여야 1/10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65°C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남아 있는 개체 수는 A가 더 많다. ③ B는 65°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로 줄어들고, A는 7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70°C로 열처리를 했을 경우 B는 A보다 오래 견디지 못한다. ④ A, C 모두 D값의 1/10인 5초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A는 70°C에서 1/10이 된다. C도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70°C에서 1/10이 된다. 그러므로 7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A와 C의 개체 수는 같게 된다. ⑤ Z값의 정의에 따라 B를 65°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인 100개가 남게 된다. 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인 100개가 남는다.

[28~30] 사회,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의 인센티브 계약을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글이다. 이 글은 인센티브 계약의 방식에 따라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인센티브 계약은 기업이 제공하는 보상과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력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 맺는 약속을 말하는데,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계약은 강제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조건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 고정급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소득의 불확

실성 증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로, 근로자가 보상 가능한 성과에만 집중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도입된다. 암묵적 방식의 인센티브는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장기적 이익과 신뢰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기업과 근로자는 이러한 인센티브 방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로 볼 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명시적인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에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법의 보호 대상임을 알 수 있고, 3문단의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 ∞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에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기업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성과에 기초하여'에서 성과와 달리 노력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4문단의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에서, '암묵적 계약'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에서, 암묵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 행동하는 것'에서, 암묵적 계약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의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과, '신뢰를 잃게 되면 ~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에서, 암묵적 계약은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에서,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암묵적 계약에 따른 협력 관계가 더 잘 유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0.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α × 성과' 일 때, α 는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낸다. <보기>의 '가'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α 의 크기가 기업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의 α 크기가 갖는 효과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는데, 2문단 끝의 ' α 를 늘리면 ~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로 볼 때, '가'의 상황에서 α 가 커지면 기업의 이윤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보기>의 '나'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상황에 해당하며,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의 첫 번째 문제점에 해당한다. 3문단의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와, ' α 가 커지면 ~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에 따르면, '나'의 상황에서는 α 가 커질 때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보기>의 '다'는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의 두 번째 문제점인 인센티브 왜곡의 상황에 해당한다. 3문단에 따르면, 인센티브 왜곡은 근로자가 (보상이 어려운 노력은 힘쓰지 않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문단의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에서, 인센티브 왜곡이 일어나는 '다'의 상황에서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31~33] 현대시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품해설 : 이 시는 '그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가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 비로소 대상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는 마음을 쉽게 알 수 없는, 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예를 들어 부모님 같은 존재)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가까이 다가간 적도 없으며 그늘 밑에서 앉아 본 일도 없다는 식으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복숭아나무'에게서 여러 겹의 마음을 읽게 된다. 여러 겹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의 마음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는데,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해 외로움을 느꼈을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1연 2행을 보면 화자는 대상을 ‘그 복숭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시적 감흥을 촉발시키는 복숭아나무가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그 복숭아나무’라는 특정한 대상임을 부각하는 효과를 낸다. 시상이 전개될수록 ‘그’라는 지시어는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시적 대상이 특정한 ‘그 복숭아나무’임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규모가 거대하고 성대할 때 조성되는 웅장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에 사용된 ‘-습니다’라는 경어체 표현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차분히 드러내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 ② 2연을 도치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작품의 시적 상황은 긴박한 분위기를 띠지 않고 있다.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시적 여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이 작품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구절과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이라는 구절에 드러난 ‘그 나무’는 분명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인식된 ‘그 나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구절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우고 싶은 꽃빛’은 대상의 이러한 다양한 마음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의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라는 구절에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으로 드러난다. ② [B]에서는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화자가 그 나무를 피우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나무의 ‘그늘’에 앉지 않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쳐 가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③ [C]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B]에서 그 나무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며, ‘눈부셔’라는 표현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⑤ [E]에서 ‘흩어진 꽃잎들’이라고 했으므로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제 나무에 피어 있지 않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작 그 꽃

있들은 이제 져버린 것이다. 따라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꽃잎이 진 ‘그 복숭아나무’를 가리킨다.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난 후에는 그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따라서 ㉠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강화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에서 필자는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생각이 웅색할 때’, ‘피로가 몸에 미칠 때’ 등이면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나무를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곳을 ‘떠나 살게 되니’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을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로 파악하기보다는 ㉠에서 화자가 휴식을 취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필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② ㉠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회복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가 아니라 밤나무가 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가 아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라고 서술되어 있다.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가 의인화되어 있으나 복숭아나무의 심리와 행동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아래에서 필자가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고민은 밤나무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필자의 고민은 주로 창작의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오는 것들이다.

[34~38] 현대소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의 가상의 섬인 ‘조마이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룬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설정된 서술자 ‘나’는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하는 학생 ‘건우’를 통해서 섬 주민들을 알게 되고, 섬 주민들의 처지와 삶의 내력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게 된다. 낙동강에 홍수가 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둑’을 허물려 하고, 섬의 법적 소유자는 ‘둑’을 지키려 한다. 그 대립의 과정에서 ‘건우’의 할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권력자들에게 패배하는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증언함으로써 소수 권력자와 다수의 주민 사이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조마이섬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 ‘나’가 ‘건우’의 글을 읽고,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 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알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주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 한 여성’임을, 볼록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의지나 정열을 지닌 인물임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건우’의 집 안팎의 광경은 ‘건우’와 ‘건우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하나,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일상적 소재의 나열로 보기 어렵고, 서술자의 판단 또한 복잡한 심리의 표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교에서의 ‘건우’에 관한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이후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건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우’의 입성이 깨끗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건우’가 공부를 잘해 ‘일류 중학’에 갈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인물이다. ‘일류 중학’은 ‘건우 어머니’와 ‘건우’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서도 이룩한 성취의 의미에 가깝다. 이것을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건우 어머니’의 ‘손’이 ‘상일(별다른 기술이 없이 하는 노동)에 거칠어 있는 양’이라 묘사된 데서 그의 고된 생활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책상’이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만든 것임을 볼 때, ‘건우’네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에 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투표한다는 책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조 때부터 강물과 싸우며 ‘독’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보기>의 시나리오에서, ‘손에 쥘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S#98)’와,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 온 사람들에 맞서는 ‘건우 할아버지(S#99)’는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

른 곳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나머지 인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다. 제시된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는 E.L.S. 기법을 쓰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 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시작 대목에서 그 이야기가 '언젠가 건우가 써 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마이섬'의 두 어른들이 해 준 이야기가 몇 일화를 제외하고 '건우'의 <섬 얘기>와 같다고 해서, 어른들이 '건우'의 글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술자가 '건우'의 선생님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그곳의 어른들에게서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에서 언급한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건우'가 그 중심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도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원한과 저주의 깊은 감정을 읽어내는 등 적극적이고도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자신의 글로써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의 '기막히는'은 현실의 부조리함, 어처구니 없음의 뜻에 가깝고,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화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은, 작품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땅을 빼앗긴 섬 사람들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깊은 원한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각골통한(刻

骨痛恨)이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㉔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 ㉓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㉔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㉕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39~42] 고전소설 - 작자미상, ‘흥부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보은(報恩) 설화가 바탕이 된 ‘흥부가’가 문자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형 놀부와 동생 흥부라는 대조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부농과 빈농 사이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갈등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신분 변동에 따라 나타난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富農)과의 갈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설화에서 차용한 모방담(模倣談)으로서의 소설적 구조를 계승하고 있으며, 인물이나 사건을 그려 나가는 방식은 판소리계 소설답게 다분히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은 이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의 심각성이나 비극적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웃음으로 인식, 극복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㉑은 놀부의 집에 가는 흥부의 행동과 차림새 등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다. ㉑의 바로 앞 구절은 ‘치장을 볼작시면’이다. 그러므로 ㉑은 흥부의 ‘치장(외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㉑의 내용은 머리에 두른 망건, 도포의 한 종류인 중치막, 도포 끈인 술띠, 바지(고의)와 대님, 짚신, 부채, 자루의 모양과 흥부가 걸어가는 모습 등인데, 이를 차례로 열거하며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래 있어야 할 편자가 없는 망건에, 보통 금·옥·뼈·뿔로 만드는 관자 대신에 박쫓가리로 만든 관자를 달고 있다. 게다가 망건 윗부분의 당끈은 원래 말총으로 하는데 말총이 아닌 물렛줄로 하였다. 이렇게 격식에도 안 맞고 우스운 모양의 망건을 흥부는 ‘대가리 터지게’ 동여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흥부가 입은 중치막은 깃만 남아 있고, 술띠는 동강을 이어 놓았으며, 고의는 떨어졌고 대님은 칩 노끈인데다가 감발을 하고 헌 짚신을 신은 모습이다. 이렇게 입고는 세살부채를 쥐고 볼품없이 생긴 자루를 꿈무늬에 차고 있다. 그런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이 ‘바람맞은 병인’ 같고 ‘잘 쓰는 대비(빛자루)’ 같은데 게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망설이는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㉒ ㉑은 내용 전체가 흥부의 외양 묘사이기 때문에 인물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은 전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교차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을 뿐 배경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⑤ ㉠은 흥부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서사 전개 속도는 느낄 수 없다.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이 아니라 지문의 밑줄 친 ㉠에 나타난 놀부의 행위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첫 문단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흥부의 성품을 드러낸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흥부의 대화를 통해 흥부가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놈’이라는 단어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서술자가 놀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화’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C] 부분은 강남으로 돌아간 제비가 황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바로 ‘강남’의 황제가 있는 곳이 우화적 공간에 해당된다. ④ [B]에서 흥부는 놀부에게 양식을 꾸어 달라고 애걸하고 놀부는 거절하는 갈등의 상황이 나타난다. [A]의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 맞는단 말이오?’와 ‘맞으나 건너가 뵙소’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흥부의 놀부네 방문이 [B]와 같은 갈등 상황이 될 것임을 [A]에서 예고하고 있다.

4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놀부는 한 짐승(갈가마귀)이 떠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비 이제 온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지만 ‘한 짐승(갈가마귀)’는 청천에 높이 떠서 울고 가 버린다. 놀부는 이를 보다가 하릴없어, 즉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제비를 자기 집으로 몰아들이려고 한다. 따라서 답지에 제시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이라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지선달’은 겨울이기 때문에 제비가 올 리가 없다. 올 리 없는 제비를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리는 놀부의 행동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속하며, 이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준다. ③ ‘삼월 삼일’이 되어 제비가 돌아와 옛집을 찾으려 하니 놀부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몬다. 이 행위는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속하며, 이 행동은 <보기>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해당한다. ④ ‘구월 구일’이 되어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놀부 입장에서는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는 놀부가 보상을 기대하지만 상황에 개입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 즉 <보기>의 II 단계에 해당된다. ⑤ ‘보수표’는 지문의 뜻풀이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갚는 박’으로 원수를 갚아 달라는 제비의 말에 황제가 제비에게 새겨 준 것이다. 이

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놀부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다. 놀부가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 ‘보수표’라는 금자가 새겨진 박씨를 심어서 키운 후 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II단계에 해당하며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놀부의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은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병 주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는(=약 주고) 놀부의 행동에 적절한 속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 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놀려 지내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힘없는 제비에게 가해를 한 것이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② ‘방귀 똥 놔가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똥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다. “가련하다, 이 제비야.”라고 말한 것은 가식적으로 한 말이지 제비에게 성을 내거나 비꼰 것은 아니다.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가 ‘약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련하다, 이 제비야.”라고 말한 것은 가식적으로 한 말일 뿐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하는 말은 아니다. 또한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황제에게 받은 박씨는 원수를 갚는 박씨이므로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43~45] 고전시가 - 이정보, ‘국화(菊花)야 너는~’ /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가) 이정보, ‘국화(菊花)야 너는~’

작품해설 : (가)는 낙엽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홀로 피는 국화를 지사(志士)의 절개에 비유하여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국화를 의인화하여 국화에 인간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꽃을 피우기 좋은 조건으로서의 ‘삼월동풍(三月東風)’과 춥고 외롭고 척박한 환경으로서의 ‘낙목한천(落木寒天)’을 대비하여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고 외롭게 피는 국화의 고고한 절개[오상고절(傲霜孤節)]를 돋보이게 하여 칭송하고 있다.

[주제] 국화(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 예찬

(나)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작품해설 : (나)는 봄밤의 풍경을 보며 느끼는 애상과 우수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미지를 통한 정서의 형상화가 돋보이는데, ‘삼경(三更)’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나는 검은색과 ‘이화’, ‘월백’, ‘은한’의 하얀색이 어우러져 봄밤의 정취를 극대화하고, 그 풍경을 관통하는 ‘자규’의 울음소리를 통해 ‘다정’한 화자가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봄밤의 애상적 정서

(다)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작품해설 : (다)는 ‘촉규화(접시꽃)’가 피어 있는 모습을 통해 출신(신분)상의 한계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아야 했던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출신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황량한 밭’은 화자의 미천한 출신을, ‘탐스러운 꽃’과 ‘향기’는 화자가 지닌 재능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수레나 말 탄 사람’은 화자의 능력을 펴게 해줄 수 있는 위정자를 상징한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맘껏 쓸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촉규화의 모습에 투사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스러움

43.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국화(菊花)’, ‘낙목한천(落木寒天)’의 시어를 통해 시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이화(梨花)’, ‘일지춘심(一枝春心)’의 시어를 통해 시의 계절적 배경으로서 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는 ‘매우(梅雨)’와 ‘맥풍(麥風)’의 시어를 통해 초여름 즈음의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의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 자규(子規)가 나타나지만 청각적 심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가)와 (다)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의 종장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에 직유법이 나타나 있으나, (가)와 (다)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의 종장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으나, (나)와 (다)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4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은 낙목한천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꽃을 피우기 좋은 조건을 나타내는 배경이고, (나)에서 은한이 기우는 삼경은 봄밤의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기에 적합한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가)와 (나)에는 화자와

대상 간의 이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다는 것은 다른 꽃들이 삼월동풍(三月東風)에나 피는 것과 대조되어 국화의 외롭고 고고한 속성을 드러낸다. ②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애상적'인 것으로, 이는 중장에 오면서 전통적으로 슬픔과 한(恨)을 표상하는 자규(소쩍새, 접동새)를 매개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④ '오상고절(傲霜孤節)'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의 굳은 절개를 드러내는 말이고, 다정(多情)은 '정이 많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화자의 속성은 초·중장을 통해 심화되는 애상적 정취에 화자가 흠뻑 취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오상고절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고, 이를 지닌 것이 '너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정(多情)한 화자가 봄밤의 애상적 정취에 '잠 못 들어' 한다는 것은 봄밤의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축규화'는 출신상의 한계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최치원의 처지를 표현한 작품이고, 이에 근거해 [B]를 해석해 보면 '향기'와 '그림자'는 최치원의 재능을 표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기우뚱'해진다는 것은 곧 최치원의 재능이 쓰임을 받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B]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쓸쓸하게 황량한 밤'은 출신상의 한계를, '탐스러운 꽃'은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A]에서 이들은 의미상 서로 대비되어 있다. ③ '수레나 말 탄 사람'은 화자를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별이나 나비들'은 늘 꽃과 함께 있는 평범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전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후자와 같이 지내는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다. ④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에서 출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탐스러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에서 축규화에 대한 외양 묘사가, '부끄럽고', '한스럽네'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내면 서술이 나타나 있다.

국어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①
 11. ②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①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① 23. ⑤ 24. ③ 25. ⑤ 26. ③ 27. ① 28. ④ 29. ④ 30. ①
 31. ③ 32. ② 33. ②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④ 40. ⑤
 41. ⑤ 42. ② 43. ③ 44. ④ 45. ③

[1~3]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희망 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라고 말하고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모의 면접’의 흐름으로 볼 때 피면접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한 질문의 내용이나 의도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라고 반응하고 질문한 것과, 세 번째 발화에서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라고 반응하고 질문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②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③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이 말은 학생이 ~ 편안한 마음으로 ~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며 질문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⑤ 피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 중 반언어적 표현인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과 두 번째 발화 중 반언어적 표현인 ‘힘을 주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2. 면접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은 피면접자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평가한다면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선생님’의 안내 중 ‘피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 글을 간단히 써서 면접자에게 전해 주라고 했었죠?’와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의 글을 보니’,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② ‘선생님’의 안내에서 ‘피면접자의 학과 선택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준비하도록 한 것과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은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③ ㉠은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④ 면접자가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

데 ~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고려한다면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3.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피면접자는 [A]에서 질문지의 질문을 고려하면서 면접자의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 수단의 차이부터 설명해 볼까요?’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고 파악한 것과, 질문의 성격을 ‘의견’보다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여 두 매체를 대조하여 답하기로 한 답변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 수단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고 질문을 파악한 것은, 면접자의 발언 중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질문 파악은 적절하나, 답변 계획에서 ‘글과 그림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하려는 것은 ‘차이’를 묻는 질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질문을 표현 수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면접자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⑤ 질문의 내용을 표현 수단이 다른 이유를 묻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독서 토론 노트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발표를 끝맺고 있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이 시간에 저는 ~ 제안하고자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독서 토론 노트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작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함으로써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학생 5’는 부장의 발표를 들은 후 독서 토론 노트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독서 토론 노트를 실제로 사용해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듣기 전략에 해당하는

다. 따라서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의 생각은 발표자가 설문 조사 결과로 제시한 동아리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발표 동기에 공감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의 생각은 발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므로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 3’의 ‘~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발표에 사용된 설문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을 점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학생 4’의 생각은 발표의 내용이 독서 토론 노트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한정된 것에 주목한 것이므로 편향성 여부를 평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논설문을 쓰는 단계에서는 유의 사항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설정’해야 하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을 동일한 관점의 것들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의 사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논설문의 특징이므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이라는 화제에 대해 비전문가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다. ③ 유의 사항에서 ‘관련된 개념은 명확히 한정해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글에 쓰이는 여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유의 사항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독자를 설득’하라고 하였으므로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해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용은 참신하게 구성’하라고 하였으므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참신한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⑤ 유의 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뿐만 아니라 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 설명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에서 고령 근로자의 65%가 경제적 안정을 근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를 보면 생계비 확보 욕구 충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장 진입형’의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이 ‘사회 공헌형’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를 활용해 ㉠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근로자들의 근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생계 수단에서 사회 참여 수단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

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설은 '고령화 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효 문화의 회복 촉구'에 대해 다루었다. 그런데 이 글의 논지는 노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 참여를 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므로, 노인들의 자립적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서론에서 언급하여 논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다)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장점을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고취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노인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다루고 있는 자료로, 이를 활용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 공헌형에 치중되어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에서 제시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 제시된 민간 분야 부진의 주요 요인을 해소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8.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 1>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노인 일자리의 현황과 노인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을 때의 장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립한 논지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이므로 이미 고령 사회 진입을 전제로 한 글임을 알 수 있다. ② '소외된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문제는 <보기 1>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사회의 효 문화 회복 촉구'는 연설과 동일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설과 다른 관점으로 논설문을 쓰기'라는 작문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 ③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 문제는 <보기 1>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 1>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10]

9.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예상 독자를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나)를 작성하였다. 이는 작문이 예상 독자를 고려한 행위임을 보여 준다. ② (가)

의 ‘자료 수집’에서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나)에는 잡상의 다양한 형상이나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 등 잡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첫 단락에서 ‘정의’의 방법으로 잡상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봉황, 용, 해태’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쓰기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계획된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라는 ‘글 쓰는 목적’에 따라, (나)에서 잡상을 소개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에서 (나)의 마지막 단락은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직유법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에서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잡상은~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잡상의 가치를 드러냈으며,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으므로 ㉠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열병식을 하듯이’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마치~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궁궐의 비밀을 전해 주는 것’에서 잡상의 가치가 담겨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에 잡상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온고지신’의 자세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정답해설 : ㉠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앞 음절의 끝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소리를 내는’ 연음 현상에 따른 발음이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그러나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것은 ‘높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를 ‘-이-’가 아닌 ‘-히-’로 잘못 파악한 경우로 연음 현상에 따른 잘못된 표기의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의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들어서다’의 연음에 따른 발음 [드러서다]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 ㉡의 ‘그렇지 / 그러치’는 ‘그렇지’의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발음 [그러치]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④ '엷혀'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얼켜]로 발음되는데, 이를 표기에까지 반영하여 '얼켜'로 잘못 적는 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은 '해돋이'의 구개음화에 따른 발음 [해도지]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인데, '금불이' 역시 구개음화에 따라 [금부치]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것은 같은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y]'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12.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잘못된 우리말 문장을 '이유'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은 ③으로,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한다'와 '동물은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서술어 '기대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 '사람에게'가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례 1]의 주어 '사람들은'과 서술어 '경향이다'가 호응하지 않지만 서술어를 '경향인 것이다'로 수정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과 호응되지 않는다. ② [사례 2]에서는 '야구를 차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공이나 야구를 하다'로 수정하면 이번에는 '공을 하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를 하거나 공을 찬다.' 정도로 수정하여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④ [사례 4]는 '사람을 좋아하는'이 꾸미는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문이다. '고양이가' 뒤에 쉽표를 찍는다고 해서 이러한 중의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나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정도로 수정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⑤ [사례 5]는 조사가 잘못 쓰인 문장인데, '누구나'를 '누구도'로 수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조사의 오용을 바로잡아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다.

13. 로마자 표기법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 ㉡, ㉢의 로마자 표기 사례를 통해 로마자 표기의 원칙을 수험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앞집'은 [압집]으로 발음되지만 '장롱[장:농]'에서와 마찬가지로 'ㅈ'를 'j'로 적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집'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ㅈ → [ㅉ])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락]을 'garak'으로 적은 사례에서 모음 앞의 'ㄱ'과 어말의 'ㄱ'을 각각 'g'와 'k'로 다르게 적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앞'은 [압]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종성을 'p'로 적는 것이다. ③ 장음을 표시하는 별도의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는데, '장롱'은 자음 동화가 일어나 [장: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jangnong'으로 적는 것이다. 자음 동화는 '음절 끝의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14.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 속에 쓰인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 속에서 지시 대상, 화자, 청자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②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③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달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5.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확인 사항'에 따라 ㉠, ㉡, ㉢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니, ㉠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와 '-아서'가 교체 가능할 때에는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서 가다'가 가능한 ㉡의

‘받아가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며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㉔의 ‘댁아가다’는 ‘댁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다. 그런데 만일 ‘댁아가다’가 한 단어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댁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띄어 쓴 ‘댁아 가다’와 붙여 쓴 ‘댁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㉑, ㉒, ㉔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㉑이다. **정답 ㉑**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에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보기 2>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㉑이다. 먼저, ㉑의 ‘아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ㆍ’가 양성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이’를 취해야 한다. 이때, ‘ㆍ’가 양성 모음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기 1>의 (예) 중에서 첫 번째에 제시한 ‘늬’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현대어 풀이를 통해 볼 때 ㉒의 ‘술위’는 현대 국어 ‘수레’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형격 조사 ‘스’를 취해야 한다. <보기 1>의 (예) 중에서 네 번째에 제시한 ‘나모(나무)’가 ‘스’를 관형격 조사로 취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답 ㉑**

[17~20] 예술, ‘작가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작가주의 비평을 설명하고 있다. 작가주의는 당시의 상투적인 프랑스 영화에 반발하여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하였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가장 산업화된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상업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을 복권시키기에 이른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된 ‘좋은’ 영화와 ‘위대한’ 영화들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 작가주의의 개념 및 영화사적 의의

17. 글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은 1문단에서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3~5문단에 걸쳐 작가주의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했던 할리우드 영화와 히치콕 감독을 예로 들고 있다. 또 6문단에서 작가주의의 영향력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윗글은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㉒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㉓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와 대립하는

비평 이론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⑤ 6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뒷글에서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맥거핀’ 기법은, 히치콕 감독이 관객의 오인을 부추겨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기법은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 극적 장치이다. 따라서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작가주의는 당대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 이유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할리우드에서는 제작 인력들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과 더불어 영화 흥행의 변수로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서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③ 5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이 복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뒷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한 결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뒷글의 ㉠이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여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반면, <보기>의 ㉡은 감독을 영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비

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1, 2문단에 따르면, ㉠은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여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④ ㉡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과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21~24] 인문, ‘정합설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진리에 대한 여러 관점 중 하나인 정합설에서의 ‘정합적이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관계가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전의 명제와 모순만 되지 않으면 추가되는 명제는 모두 참이 된다. 그렇지만 관련 없는 명제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라는 것을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다른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정합적이라는 것을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설명적 연관은 두 명제 사이의 그럴듯한 연관성만 있으면 정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측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확률 이론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주제] 정합설에서 ‘정합적이다’의 의미 -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2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모순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정의되는 관계인 ‘함축’에서는 모순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가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문단에서 정합설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명제와의 관계가 정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인 명제와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를 말한다. ‘함축’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설명되므로 모순이 있는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거짓이 된다. ⑤ ‘설명적 연관’의 한계에 대해서는 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2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참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참이 될 수 없다. 만약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거짓(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작거나 같은 경우)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민수가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데,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라면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③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이익도 손해도 아닌 경우라면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목요일이라면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⑤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역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명제와 함축 관계에 있는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라는 명제는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명제는 <보기> 명제와 전혀 관련 없는 명제이지만, <보기> 명제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는 참이 된다. ②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정전이 되면 우리 집도 반드시 정전이 된다. 그러므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명제도 참이 된다. ③ 예비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된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된다. ④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 명제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밝혀내다’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진상,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여 드러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의 ‘해결하다’는 제기된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밝혀내다’를 ㉠ 대신에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25~26] 과학,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지문해설 : 이 글은 맨눈으로 본 별의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에너지 총량인 ‘복사 플럭스’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절대 등급은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하는데,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또한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 별의 등급과 거리, 크기, 온도와 관계

2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별의 겉보기 등급은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으로 나타내다가, 그 값이 확장되어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2등급이 차이가 나므로 약 2.5²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이 더 어둡게 보인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1/9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1~6등급을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다고 했으므로,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고 하였으므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고 제시되었으므로,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2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되며,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별 A의 반지름은 1, 표면 온도는 1이고, 별 B의 반지름은 0.1, 표면 온도는 10이다. B별의 광도는 반지름만 비교했을 때는 A별의 1/100이지만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별 B가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별 A의 반지름은 1, 표면 온도는 1이고, 별 B의 반지름은 0.1, 표면 온도는 10이기 때문에,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별의 등급은 밝은 별을 작은 수로 나타낸다고 하였고, 2문단에 따르면 '리겔'의 절대 등급이 -6.8 정도이다. <보기>에서 별 A의 절대등급은 -1이므로

로,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어두운 별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거리 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하였으므로, 거리 지수가 7인 별 B는 4문단에 있는 거리 지수가 5.6인 '북극성'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극성'이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지구에서 보는 밝기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다. <보기>에서 별 B의 겉보기 등급은 1이므로,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밝게 보임을 알 수 있다.

[27~30] 사회,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그 유형'

지문해설: 이 글은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규제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모두 이익을 얻으려 하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서, 광고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광고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를 소비자로 보는 것이 소비자 부담 원칙인데, 이는 소비자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소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시대와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정확하게 광고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광고 규제 또한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는데,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법적 규제와,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로 등장한 자율 규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

[주제]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그 유형

27.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1문단에서는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업 광고 규제의 배경에 해당한다. 2~3문단에서는 광고의 책임 주체를 소비자로 보느냐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4~5문단에서는 광고의 주체가 정부 기관이나 기업 자율이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규제 유형에 관해서도 그러한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표제)'에 관한 글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피해 책임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부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광고'의 사회적 영향이 언급되었을 뿐,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③ 피해 책임 주체와 규제의 주체에 따라 광고 규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소비자, 기업, 정부의 역할이 모두 언급되었으므로, 부제에 쓰인 대로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로 보기 어렵다. ④ 광고의 역기능이 언급되었을 뿐, 광고 규제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광고 규

제를 반대하는 시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표제의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28.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3문단의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강조한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에 따르면, 자율 규제가 법적 규제를 잘 보완할수록 법적 규제의 역할이 커진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 1문단에서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상충 정도가 크면 그 규제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9.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르면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오히려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따르면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하므로 정부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② ㉡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광고를 제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③ ㉠에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에 따르면 광고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했다. 따라서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더 크다. ⑤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하였으므로 ㉠, ㉡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3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기>의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아니라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으므로,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소비자 규제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데 광고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자율 규제의 주체인 기업과 긴장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④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의 이기적인 행태를 한 광고 주체에 대해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규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1~33] 현대시 - 김광균, '와사등' / 박용래 '울타리 밖'

(가) 김광균, '와사등'

작품해설: (가)는 현대인의 고독감을 우울하면서도 애상적인 목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아무 것도 없이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등불'을 초점으로, 도시의 풍경과 거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이미지 위주의 표현으로 현란하면서도 황폐한 도시 문명과 그 속에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불안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도시 문명 속에서 단절과 소외를 느끼는 시적 화자의 우울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제]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고독감과 불안

(나) 박용래 '울타리 밖'

작품해설: (나)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회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잘 나타나 있다. 고향에는 소년과 소녀가 서로 낮이 설어도 그 낮설음의 거리를 좁혀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리고 2연에 나타나는 풍경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사물의 생명력이 순화되고 깨어나는 밝은 이미지이다.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제비는 약동하는 생명의 활기찬 움직임을 나타내며, 상승의 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그곳은 '별'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밤이나 낮에도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내밀한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은' 작가가 돌아가고자 하는 전통적 세계라 할 수 있다.

[주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이상적 공간에 대한 소망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늘어선 고층(高層)’을 창백한 묘석(墓石)’으로,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1연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를 마지막 연(5연)의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에서 반복하여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시는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나)는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키지 않았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의 ‘내 호올로’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만, 표면적 화자를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는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으로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적막한 배경인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사물인 ‘차단-한 등불 하나’에 주목하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나 호올로’를 통해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길-게 늘인 그림자’는 문장 부호 ‘-’를 사용하여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 다양한 소재들의 ‘천연’한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는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공허한 군중의 행렬’ 등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 ‘천연’한 자연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긴 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찬란한 야경’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울타리 밖에도 화초’,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별이 뜨는’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회화적 이미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③ (가)에서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문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과의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주는 것이므로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가)에는 ‘슬픈’, ‘낮설은’, ‘무거운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마늘쪽’,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가)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나)는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4~38] 현대소설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의 가상의 섬인 ‘조마이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설정된 서술자 ‘나’는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하는 학생 ‘건우’를 통해서 섬 주민들을 알게 되고, 섬 주민들의 처지와 삶의 내력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게 된다. 낙동강에 홍수가 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둑’을 허물려 하고, 섬의 법적 소유자는 ‘둑’을 지키려 한다. 그 대립의 과정에서 ‘건우’의 할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권력자들에게 패배하는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증언함으로써 소수 권력자와 다수의 주민 사이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조마이섬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 ‘나’가 ‘건우’의 글을 읽고,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 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알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주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임을, 볼록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의지나 정열을 지닌 인물임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

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건우’의 집 안팎의 광경은 ‘건우’와 ‘건우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하나,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일상적 소재의 나열로 보기 어렵고, 서술자의 판단 또한 복잡한 심리의 표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교에서의 ‘건우’에 관한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이후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건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우’의 입성이 깨끗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건우’가 공부를 잘해 ‘일류 중학’에 갈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인물이다. ‘일류 중학’은 ‘건우 어머니’와 ‘건우’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서도 이룩한 성취의 의미에 가깝다. 이것을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건우 어머니’의 ‘손’이 ‘상일(별다른 기술이 없이 하는 노동)에 거칠어 있는 양’이라 묘사된 데서 그의 고된 생활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책상’이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만든 것임을 볼 때, ‘건우’네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에 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투표한다는 책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조 때부터 강물과 싸우며 ‘독’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보기>의 시나리오에서, ‘손에 쥐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S#98)’와,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맞서는 ‘건우 할아버지(S#99)’는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나머지 인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다. 제시된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는 E.L.S. 기법을 쓰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

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시작 대목에서 그 이야기가 ‘언젠가 건우가 써 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마이섬’의 두 어른들이 해 준 이야기가 몇 일화를 제외하고 ‘건우’의 <섬 얘기>와 같다고 해서, 어른들이 ‘건우’의 글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술자가 ‘건우’의 선생님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그곳의 어른들에게서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에서 언급한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건우’가 그 중심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도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원한과 저주의 깊은 감정을 읽어내는 등 적극적이고도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자신의 글로써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의 ‘기막히는’은 현실의 부조리함, 어처구니없음의 뜻에 가깝고,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화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은, 작품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땅을 빼앗긴 섬 사람들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깊은 원한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각골통한(刻骨痛恨)이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39~42]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임경업전’

작품해설: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민족적 영웅이었던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는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사리사욕만을 일삼던 간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자호란의 국치는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간신들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출제된 부분에는 임경업의 충신으로서의 면모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 김자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임경업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임경업의 충절과 강직함에 감동한 호왕의 배려로 세자와 대군은 이미 귀국한 상태이며,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자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경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왕이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라고 말한 부분과 이에 대해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호왕이 ‘장군이 내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고 말한 부분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호왕의 여러 신하들이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임경업의 소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켜 주는 장면과 임경업이 부마가 되어주기를 재삼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장면은 모두 호왕이 임경업의 강직함에 얼마나 깊이 감동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건 전개 of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임경업 부마 삼기’가 성공했다면 임경업은 계속 청나라에 머물러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이 실패함으로 공간적 배경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계기가 무산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공주가 ~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에서 알 수 있듯이 호왕의 제의에 공주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업이 부마에 뽑힐까 두려워하여’와 ‘경업이 죽기로써 좃지 아니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임경업은 부마가 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공주는 아버지의 제안에 관상 보기를 청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관상을 본 결과와 상관없이 임경업에게 부마 제안을 하는 호왕의 모습이 지문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이 왕실의 갈등을 심화시

킨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죽기로써 쫓지 아니하니’와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억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심이 담긴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는 회유에 대응하는 말이고, ㉠은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라는 권유에 대답하는 말이다. ② ㉡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를 통해, ㉠은 ‘조강지처가 있사오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사건을, ㉠은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결혼한 사람임을 밝혀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④ ㉡은 호왕에게 ‘네게 항복하리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말하기이며, ㉠은 ‘지극히 황공하며’와 ‘존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를 높이며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 낭독을 통해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의 의주 백성들은 임경업이 칼을 쓰고 잡혀가는 것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임경업전이 창작되어 향유되던 시대의 사람들인 청중은 청에 대한 적대감과 임경업에 대한 흠모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작품 내용 전반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청중이 무슨 연고로 임경업이 잡혀가는지를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적국의 왕을 꾸짖는 임경업의 심리를 느끼면서 통쾌함을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은 ‘세자’에 대한 ‘주상’의 분노를 생생하게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인물이 청중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므로 ‘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환상을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으로 하여금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배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43~45] 고전시가 - 이항,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총 12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전반부인 전(前) 6곡의 언지(言志)와 후반부인 후(後) 6곡의 언학(言學)으로 나뉘어 있다. 전 6곡인 언지는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흥을, 후 6곡인 언학은 학문과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 것이다. 제시문에 실린 작품은 전 6곡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자가 세운 도산서원 주

변의 경관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감흥과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전 6곡(제시문 부분):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
후 6곡: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4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제3수에 나타난 시적 대상은 ‘순풍’과 ‘인성’으로 표현된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이다. 반면에 제4수에서는 시적 화자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자연인 ‘유란’, ‘백운’, 그리고 그리운 임금이 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작자 자신을 ‘초야우생’(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천석고황’(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생긴 깊은 병)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자연에 묻혀서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전 6곡의 주제인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환기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태평성대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라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제3수에서는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강조하며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유란’과 산에 있는 ‘백운’을 통해, 제5수에서는 산 앞에 있는 높은 대(臺)와 그 대 아래 흘러가는 물, 그리고 떼 지어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통해 화자가 머물며 바라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이 초장에서는 봄과 가을의 한 계절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중장에서는 사시, 즉 일 년 사계절로, 종장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시간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 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전 6곡의 주제 의식이 집약되어 표현되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갈매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 이것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자를 뜻하는 ‘교교백구’는 이 작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교백구’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풍월’은 바람과 달을 뜻하는 말이다. 둘 다 화자가 동화되고자 하는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재이다. ② ‘순풍’은 세상의 순박한 풍속을, ‘인성’은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 준다. ③ ‘유란’은 그윽한 난을, ‘백운’은 흰 눈을 뜻하는데 모두

화자가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⑤ ‘화만산’은 산에 가득한 꽃을, ‘월만대’는 대에 가득한 달빛을 뜻한다. 꽃과 달빛은 모두 자신이 벗이 되어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대상인데, 이것들이 산과 대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달빛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에서 화자가 충만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4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도산십이곡’은 제3수의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말하는 부분에, 제4수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부분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보기>는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는 부분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단의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늙은이가 되리라.’에서 전원의 별장과 고향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산십이곡’과 <보기> 둘 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사는 삶이 즐거워서이다. 또한 둘 다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이미 부친에게서 별장을 물려받았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집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두 화자 모두 불운하다거나,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 ④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초야[시골]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삶의 물질적 여건이 필요함을 상정한다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보기>는 별장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전원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별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 삶의 물질적 여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 <보기>의 화자는 현재 속세에 살고 있으며, 전원에 있는 별장에서의 삶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속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

01. ①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③
 11. ①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③ 17. ③ 18. ② 19. ② 20. ④
 21. ④ 22. ① 23. ⑤ 24. ④ 25. ⑤ 26. ③ 27. ④ 28. ④ 29. ⑤ 30. ②
 31. ② 32. ④ 33. ④ 34. ① 35. ⑤ 36. ① 37. ② 38. ④ 39. ⑤ 40. ③
 41. ④ 42. ① 43. ⑤ 44. ③ 45. ②

[1~5] 화법

[1~3]

1.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에 대해 학생 1이 ‘그러면 몇몇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라고 제안하였고(학생 1의 세 번째 발화), 이에 대해 학생 2가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반응하였다(학생 2의 세 번째 발화). 이를 통해 볼 때 (가)의 상황에서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끼는 것)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리 친구들 앞에서 연습하며 자신감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발표 주제가 흥미롭다고 반응한 것과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를 볼 때, ㉠은 ‘발표할 주제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주제를 교체하는 것은 ㉠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안이 아니다. ㉢ 학생 2 스스로가 첫 번째 발화에서 ‘자료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라고 하였으므로 ㉠은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발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안이 아니다. ㉣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를 볼 때 ㉠은 ‘발표에서 실패했던 예전의 기억 때문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 또한 ㉠의 해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를 볼 때 ㉠이 ‘청중의 높은 지적 수준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작성해 보는 것은 ㉠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안이 아니다.

2.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나)에서 제시된 사례는 발표의 뒷부분(지문의 세 번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옛날 사람들이 솔방울을 통해 날씨를 예측한 것과,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고안한 운동복에 관한 것이 바로 예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경제적 유용성과 연관짓지 않았으며, 이를 부각하기 위한 통계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ㄷ은 발표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첫째 문단에서 ‘여러분은 솔방울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니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ㄱ은 발표에 반영되었다. ② (나)에서 설명하려는 현상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오므라들고 벌어지는 것에 관해서인데, 이를 위해 둘째 문단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 주며 설명하고 있으므로 ㄴ은 발표에 반영되었다. ④ (나)의 둘째 문단 첫째 문장에서 ‘솔방울을 잘 살펴보면 날씨에 따라 오므라들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라고 질문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으며, 둘째 문단의 끝에서 셋째 문장에서 ‘이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한 후 청중의 대답을 듣고 발표를 이어갔으므로, ㄹ은 발표에 반영되었다. ⑤ (나)의 둘째 문단에서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셋째 문단에서 그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넷째 문단에서 ‘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이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ㄹ은 발표에 반영되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나)의 둘째 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서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실편 바깥쪽 조직이 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해서 솔방울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셋째 문단 첫 문장에서 ‘옛날 사람들이 솔방울의 특성을 알고, 솔방울이 벌어진 정도로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옛날 사람들이 솔방울이 활짝 벌어지면 습기가 적어서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은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둘째 문단의 넷째 문장에서 ‘실편 한 개는 대개 소나무 씨앗 한 개씩을 감싸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섯째 문장에서 ‘솔방울 하나는 보통 70~100개 정도의 실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솔방울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 70~100개 정도가 들어있다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씨앗 한 개가 들어있겠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둘째 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실편 바깥쪽 조직이 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한다고 하였으므로 솔방울이 습기를 잃으면 실편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안쪽으로 오므라들겠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둘째 문단에서 영상을 보여 주기 전에 ‘실편을 이루는 조직 중 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편 안쪽 조직이 바깥쪽 조직에 비해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하겠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셋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이 운동복은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 제작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동복이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겠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4. 의사소통 전략 평가

㉠은 대화 상대방인 진희가 언급한 내용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진희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여쭙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라는 진희의 말을 듣고 ㉡과 같이 묻는 것은 자신이 파악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고개를 끄덕이며’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고, ‘그렇군요.’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⑤ ㉣에서 ‘아, 정말 그렇겠네요.’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상담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5.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문제 상황은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진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문제 상황을 방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이지 <보기>의 4단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의 효과’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드라마에서 또래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는지 질문하는 것은 <보기>의 1단계에서 언급한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② ‘여러분은 ~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여 <보기>의 2단계에 제시된 것처럼 ‘문제 상황’과 청자인 ‘여러분’을 ‘연관’시키고 있다. ③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상담 동아리가 있다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보기>의 3단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또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5단계에 제시된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해당한다.

[6~10] 작문

[6~8]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향토 음식 요리 교실」이라는 동일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일기’와 ‘신문기고문’이라는 서로 다른 작문 맥락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비교대조하는 문제이다. 개인적 성격이 강한 일기인 (가)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다녀온 후 느낀 점과 ‘향토 음식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 반면, (나)에는 ‘향토 음식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짐’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향토 음식’을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그 지방 고유의 음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된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② (가)와 (나)는 모두 ‘향토 음식 요리 교실’ 체험이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가)와 (나)에는 모두 자신의 의견은 드러나 있으나 타인의 의견이 드러난 부분은 없어,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향토 음식 선호도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향토 음식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고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가지자’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설문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7.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을 이어 갈 소중한 유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였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속담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④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우물가에서 송능 찾기’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지만 이 속담을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이 아닌 ‘향토 음식의 발전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다. 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는 속담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향토 음식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지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의 식문화와 융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통 계승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8.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앞 문장에서 ‘향토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고 이어서 전통 음식과 구별되는 향토 음식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한 것은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므로,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첫째 문단에서는 향토 음식의 개념과 가치를 다루고 있고, 둘째 문단에서는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두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부사’인 ‘그런데’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주말에 시간을 내기 어려움’은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참여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양념을 많이 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담백한 맛’은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의 뜻이 있는 ‘활기찬’보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한’의 뜻이 어울리기 때문에 ‘소박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지역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데 ‘끼어들어 관계한’다는 것보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참여’보다 ‘기여’로 고쳐쓰는게 적절하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의 이야기를 접하고,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공간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인 피아노 계단을 예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고려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공간 디자이너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피아노 계단이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고 하여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10.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과 같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곳을 찾아간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수정 요청 사항’은 이러한 공간 디자인 작품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③과 같이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제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시각 자료에 해당하며 이를 첨부하면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⑤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면 예상 독자인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식물[싱물]’, ‘입는[임는]’, ‘뜯는[띯는]’은 각각 ‘ㄱ, ㅂ, ㄷ’이 ‘ㅁ, ㄴ, ㄴ’ 앞에서 ‘ㅇ, ㅁ, ㄴ’으로 바뀐다. 이를 제시된 자음 분류표에서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 사례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앞 자음의 조음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①

12.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은 ‘뛰어가다’에서와 같이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 ㉡의 ‘돌아서다’ 역시 ‘돌다’의 어간 ‘돌-’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 ‘서다’와 연결되어 형성된 합성어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꿈꾸다’는 체언 ‘꿈’과 용언 ‘꾸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뒤섞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지니는 접두사 ‘뒤-’와 용언 ‘섞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빛나다’는 체언 ‘빛’과 용언 ‘나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와 또 다른 용언의 어간 ‘내리-’가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경우로, <보기>의 ‘오가다’와 같은 경우이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다)는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만들어진 겹문장인데, 이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되어 (다)의 관형절에서는 (가)의 주어 ‘민수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④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가 ‘나는 사실을 몰랐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겹문장을 형성할 때 원래 있던 주어 ‘정수가’가 생략되지 않았다. 따라서 ④는 ㉠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동생이 숙제를 한다.’가 ‘형이 동생을 불렀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동생이’가 생략되었다. ②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가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형’이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형이’가 생략되었다. ③ ‘경희가 버스에 탔다.’가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경희’가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경희가’가 생략되었다. 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가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화가’가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화가가’가 생략되었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크다㉠’은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작다㉡’과 반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크다㉠’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꾼 ‘키가 몰라보게 작는다.’가 성립되지 않는 점이나, [반의어] 표시가 ‘작다’와 ‘크다㉠’의 사이로 한정된 점을 통해서도 ‘크다㉠’과 ‘작다㉡’이 반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크다㉠’과 ‘크다㉡’에 각각 ㉠과 ㉡의 국어사전 약호가 붙은 것을 통해 전자는 형용사이고 후자는 동사라는 품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크다㉠㉡’과 ‘작다㉢’은 반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눈이 작다.’, ‘글씨를 작게 적는다.’는 ‘작다㉢’의 용례가 될 수 있다. ④ 뜻풀이를 고려할 때,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는 ‘작다㉣’의 적절한 용례이다. ⑤ ‘작다㉤’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작은 실수를 하다.’는 적절한 용례이다.

15.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에’는 목적어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서술어가 호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불편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④ ㉣에서는 ‘운동을 동참합시다’를 ‘운동에 동참합시다’로 수정하였는데, 서술어 ‘동참합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다. ⑤ ㉤에서는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일이다’를 ‘일이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16~30] 독서

[16~18] 과학, ‘인간의 후각’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후각과 동물의 후각을 대조하여 인간 후각이 동물만큼 예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탐지 역치’라는 개념을 통해 취기재의 농도에 따라 냄새의 탐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탐지 역치’ 이상의 취기재의 농도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냄새의 탐지와 냄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실험을 통해 취기재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며 인간의 후각이 기억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주제] 인간 후각의 냄새 탐지 및 인식 메커니즘

1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탐지 역치’란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이며, 메탄올의 탐지 역치가 박하향에 비해 약 3,500배가량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메탄올의 탐지 역치는 박하향의 탐지 역치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취기재의 분자가 코의 내벽에 있는 후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난다고 탐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후각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탐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감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개의 후각 수용기는 10억 개에 달하는 반면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1천만 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5문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6문단에서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냄새에 대응되는 명명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의 향상은 냄새에 대응하는 명명 체계가 좀 더 잘 갖추어졌거나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취기재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취기재의 탐지 역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서 인간의 후각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 그와 관련된 냄새를 통해 환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쓰일 모든 취기재의 이름을 미리 알려 준 다음, 임의로 선택한 취기재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종류를 맞히게 하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의 틀린 답을 그때마다 정정해 주자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거의 두 배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냄새와 그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10만 개가 넘지만 그 취기재가 무엇인지 다 인식해 내지는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취기재의 가짓수보다 많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는 농도가 평균 11% 정도 차이가 나야 냄새의 세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 농도 차이가 평균 11% 미만이라면 냄새의 세기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의 상태는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3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높아야 냄새의 존재 유무를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탐지 역치의 세 배가 넘는 농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농도(15)가 탐지 역치(10)보다 높으므로 냄새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농도가 15에 불과하므로 탐지 역치의 세 배(30)가 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낮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③, ⑤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의 3배보다 높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19~21] 기술, 'CPU 스케줄링'

지문해설 : 이 글은 컴퓨터에서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때 사용되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고,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은 작업 대기 프로그램인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워진다. 때문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프로그램들을 번갈아 실행해야 한다. 한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총처리 시간'은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총실행 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준비하는 '교체 시간',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 때 총실행 시간이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인 '구간 시간'보다 길면 교체 시간이 늘어나고,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

[주제] CPU 스케줄링의 개념과 프로그램의 총처리 시간

19.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작업큐는 '실행 대기 프로그램 목록'으로서 CPU에서 실행이 종료된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지운다는 내용을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가 작업큐에 등록된다는 진술은 뒷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CPU 스케줄링이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임을 1문단 세 번째 문장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다는 것은 4 문단 세 번째 문장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CPU 한 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2문단 첫 문장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다는 것은 1문단 네 번째 문장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이 구간 시간인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해진다.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나려면 특정 프로그램의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 따라서 구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구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특정 프로그램의 총실행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구간 실행 횟수는 늘어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총처리 시간은 총실행 시간, 교체 시간,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은 줄어든다. ② 총처리 시간은 총실행 시간, 교체 시간,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③ 총처리 시간은 총실행 시간, 교체 시간,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따라서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⑤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 시간, 교체 시간, 총실행 시간을 합한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문에서와 같이 작업큐의 크기를 제한하여야 하는데 <보기>에서는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작업큐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대기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가 실행 중일 때 작업큐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Q, R의 순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후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재등록될 때 Q보다 낮고 R보다 높은 순위로 등록된다면 우선 순위가 가장 빠른 Q가 구간 실행된 후에는 Q가 다음 순위인 P로 교체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P가 작업큐에 재등록된 후에는 P가 Q로 교체되어 Q가 구간 실행 상태이므로 P가 R로 교체될 수 없다. ② Q가 구간 실행된 후 P가 구간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Q→P 교체가 빠져 있다. ③ R보다 P의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R의 구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Q의 구간 실행 이후 Q와 P의 교체, P의 구간 실행, P와 R의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⑤ R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에 R의 구간 실행이 Q나 P의 구간 실행보다 선행되어 나타날 수 없다.

[22~25] 예술,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를 먹으로 그린 '묵란화'를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희가 25세 때 그린 '석란'은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의 그림으로, 전형적인 양식을 빌어 당시 문인들이 지녔던 공통적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배 생활 이후 말년에 그린 '부작란도'는 거친 갈필을 사용해 뒤틀리고 꺾인 난초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쓸쓸하고 황량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형상화

하고 있다.

[주제] 묵란화에 나타난 추사의 작품 세계

22.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김정희의 두 작품 ‘석란’과 ‘부작란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김정희의 평탄했던 젊은 시절의 화풍과 오랜 유배 생활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가져온 변화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후대 작가의 작품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묵란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바탕으로 김정희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한 입장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 ④ 김정희의 두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석란’과 ‘부작란도’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라고 하여 묵란화에 서예의 필법이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김정희의 말년의 작품인 ‘부작란도’에 서예의 필법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묵란화는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묵란화는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함께 그려진 ‘꽃대’나 ‘꽃송이’에서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꺾인 잎’에서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김정희가 25세에 그린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김정희가 지녔던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묵란화는 문인들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2, 3문단에서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작가가 지녔던 이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문단에서 ‘부작란도’에는 ‘문인 공통의 이상’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까지 충실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 그려

진 난초는 작가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이 나타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김정희는 ‘부작란도’에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기>의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기존에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따라서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는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부작란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사체를 창안한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이 감동을 준다고 하였다.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김정희는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참모습’을 표현해 내었다. 따라서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시, 서예, 그림은 문인들에게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문인들이 시, 서예, 그림 각각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30] 사회, ‘자연법 사상’

지문해설 : 이 글은 자연법의 개념을 소개한 후, 서구 중세 이래 자연법 사상의 발전 과정을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자연법 사상은 18세기 미국의 독립 선언, 프랑스 대혁명 같은 사건에 영향을 끼치면서 근대적 법체계가 구축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19세기 들어 법률실증주의의 비판을 받으며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법률실증주의가 갖는 한계가 노출되었고,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자연법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연법의 개념 및 자연법 사상의 발전 과정

2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실정법은 5문단에서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18세기 미국의 독립 선언(1776년)에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5문단에 따르면 법률실증주의는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다. ④ 2문단에서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⑤ 4문단에서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 역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티우스의 국제법은 각국의 실정법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가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로티우스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법』은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로티우스가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법』은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한 저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로티우스가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고, 그는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으며, 자연법에 기반을 두어야 보편적인 법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그로티우스는 전통적인 신학 이론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2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자연법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이란 곧 자연법을 가리킨다. 또한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이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

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즉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로서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연법은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자연법은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연법의 역할이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법률실증주의는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가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실증주의는 국민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만 강조하였을 뿐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며 논의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 사상은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② 5문단에서 법률실증주의는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떠한 절대적인 법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이 퇴조하고, 법률실증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법률실증주의는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언급하면서 법률실증주의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실증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실현하다’는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루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가져오다’는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가져올’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늠하다’는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③ ‘기다리다’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④ ‘떠올리다’는 ‘기억을 되살리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을 내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⑤ ‘헤아리다’는 ‘집착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31~45] 문학

[31~33] 현대시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겨울-나무가 영하의 혹독한 날씨를 견디며 온몸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고 마침내 봄-나무가 되어 꽃을 피우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나무의 모습이다. 즉 나무 내부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꽃을 피우는 생성의 힘 역시 나무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나무가 외적인 요소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싹과 꽃을 피워내고 있는 능동적, 의지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반복과 점층적 표현을 통해 섬세하게 형상화하여 아름다운 시적 성취를 보여 준다. 조사 ‘-으로’, 연결어미 ‘-면서’와, 몇몇 부사어들을 ‘박고, 쳐들고, 서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밀고 올라간다, 부르터지고’ 등의 동사들과 연결하여 겨울-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온몸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어휘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유사한 몸짓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형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요소에 주목하여 이 시를 읽어 보면 시적 화자의 비장하면서도 의지적인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주제] 자기 부정과 스스로의 내적인 생명력을 통한 나무의 변화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는 반복과 점층적 표현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애타면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는 연결어미 ‘-면서’의 반복적 사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동사의 변주를 통해 나무의 역동적 측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와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는 반복을 활용한 점층적 수법으로 나무의 상승적 이미지와 변화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은 주로 구체적 청자를 상정하고 그 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을 경우에 말 건네는 방식의 수법을 흔히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청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의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문장의 종결 대부분이 ‘-(이)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표현 요소를 찾기 어렵다. ③ 이 시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나무’→나무의 ‘뿌리’, ‘두손’, ‘속’→‘나무’로 바뀌고 있어,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토속어란 어떤 지방의 고유의 정취가 느껴지는 말을 가리킨다. 즉 지역 방

언을 대표적인 토속어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특정 지방의 지역적 색채를 띤 시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시적 화자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 ⑤ 이 작품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을 수 없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처럼 감탄사와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많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A]의 ‘두 손’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단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겨울-나무의 외양적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가 싹을 틔우기 위한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나무 자신의 내부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므로 봄-나무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겨울-나무는 ‘쳐들고’, ‘두 손 올리고’, ‘서서’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나 ‘온몸을 뿌리 박고’ 있는 모습의 하강적 이미지 역시 나타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내밀고’, ‘하늘 들이받으면서’에서 봄-나무의 상승적 이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좌절감이라기보다는 혹독한 추위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굳건한 모습에 가깝다. 또한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이 아니라 싹을 내밀고 잎을 키워 마침내 꽃을 피우려는 나무의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추위에 굴하지 않는 곳곳한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B]의 ‘들이받으면서’ 역시 나무의 생명력과 의지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으로 보기 어렵다.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므로 고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B]의 ‘싹’은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결국 봄-나무가 되어 ‘꽃 피는 나무’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동이나 확신과 연관된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봄-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나무의 변화는 자기 부정을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자기 부정을 통해 변화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나무가 저절로 ‘자란다’로 표현하지 않고,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 간다’의 ‘밀다’, ‘올라가다’로 표현한 것은 나무가 능동적인 의지로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에서 ‘온몸’은 나무의 전면적인 모습을 부각한 것이므로 이 구절은 변화와 생성을 위한 나무의 전면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⑤ 1~2행과 비교하여 볼 때 ‘꽃 피는 나무’는 나무의 변화된 모습이면서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므로 새로운 단계로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34-37] 현대소설/시나리오 - (가) 김승옥, '무진기행' / (나) 김승옥, '안개'

(가) 김승옥, '무진기행'

작품해설 : (가)는 한 지식인의 내면 의식을 통해 현대인들의 허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허무한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무진(霧津)'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그 공간의 명산물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안개'이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현대인들의 인간성 상실과 그로 인해 방황하고 고뇌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감수성 짙은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작품의 초반부로 무진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느끼는 주인공의 상념을 감각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람'을 매개로 한 주인공의 영똥한 공상과 '제약회사 전무'라는 현실 사이의 대조를 통해 주인공의 성격과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허무 의식

(나) 김승옥, '안개'

작품해설 : (나)는 김승옥 자신의 소설 '무진기행'을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 작품으로 1967년 김수용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기본적인 서사 구조나 주제 의식은 원작인 '무진기행'과 동일하며 '서울-무진-서울'의 여로(旅路)와 회귀의 구조를 통해 인간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허무 의식과 내면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가)에 대응되는 부분이다. 서울에 사는 윤기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을 드러내면서 무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를 제시함과 동시에 무진으로 가는 버스와 주변 풍경을 통해 무진의 공간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허무 의식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서술자인 '나'는 무진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의 덜컹거림과 버스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그것에서 연상되는 내면의 의식을 섬세하게 서술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세밀하게 서술된 내면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유월의 바람을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수면제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바람에 대한 공상에서 무진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서술자가 다소 영똥하면서도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인물의 대화가 인용된 부분은 '나'의 회상 장면에서 아내의 말을 떠올린 부분이 유일하므로 인물 간의 빈번한 대화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는 '나'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는 데 치중되어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나 그 해소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주인공의 관념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의 길이가 간결하

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구두점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의식이 상세하게 서술됨으로써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서, 사건의 긴장감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가)는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주인공의 관념이 서술되어 있을 뿐, 역사적 사건이 회고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시대 배경이 부각되어 있지 않다. ⑤ (가)의 장면은 무진으로 향하는 버스 안과 '나'의 회상 속 서울 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잦은 장면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면 속에서 인물의 가치관이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진심에서 나온 권유'라는 구절은 해석하기에 따라 아내의 말에 대한 '나'의 긍정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뒤이어 나오는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이라는 구절을 보면 '나'는 아내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는 턱으로 버스의 덜컹거림을 느끼고 있을 만큼 몸에 힘을 빼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바로 뒤에 나오듯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이고, 이후 '나'는 '바람'을 매개로 수면제에 대한 공상을 하고 있다. ② '쓴웃음'은 무진에 오면 늘 영똥하고 뒤죽박죽한 공상을 하는 자신을 향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비웃음(자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아내의 말을 종합해보면 '나'의 무진행은 '나'의 '안색이 나빠'진 것과 아내가 장인과 함께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 계획을 실행할 '주주총회'가 계기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아내는 아버지와 함께 주주총회를 통해 남편인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전무님'은 아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가)에는 주인공이 무진을 향하는 현재의 시간에서 자신을 무진으로 내려가게 한 아내와의 과거 대화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역행하는 서사 전개가 나타나 반면, (나)에는 아내와 서울에서의 대화가 먼저 제시되고 무진을 향해가는 장면이 뒤이어 나오는,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서사 진행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나'는 무진에 다녀오라는 아내의 말에 대한 반응을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이라는 윤기준의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③ (가)에서 아내의 말은 세 번째 문단 첫 머리에 직접 인용을 통해 서술되어 있고, (나)에서는 시나리오 기호 ㉠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효과음(Effect)으로 처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④ (가)는 기본적으로 장르가 소설이므로 현재의 '무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과거의 '서울'로의 공간 변화가 '서술'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지만, 시나리오인 (나)는 장면(S#-)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버스의 덜컹거림은 '나'의 턱이 느끼는 감각을 통해 서술자의 서술로 표현되어 있고, (나)는 S#11에서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는 버스의 모습을 장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S#4의 대화 내용을 보면 주인공 윤기준과 아내는 제약회사의 전무이사 자리를 거론할 만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장면에 등장하는 공간과 소재들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사한 남성용 의류', '로우브(목욕 가운)', '방에 붙은 욕실' 등의 공간과 소품은 '전무 이사님 자리'와 연관을 이루며 이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이 보통 이상임을 짐작하게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인서트된 남녀 사진은 주인공 윤기준과 아내의 관계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이해할 수 있는데, 둘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의젓하고 여유있어 보이는' 모습을 통해 둘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③ S#4의 '방 안' 풍경이 여유로운 상류층 가정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S#5의 공간은 불이 밝혀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S#4와 S#5는 유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S#5는 S#4의 분위기를 강조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S#5의 공간은 불이 밝혀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S#11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 외부에서 버스 외부를 향하고 있으며, S#12는 버스 내부에서 버스 외부를 향하고 있다.

[38~42]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작품해설 :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영웅 유충렬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영웅 서사의 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귀양 온다는 설정을 통해 적강(謫降) 소설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주동 인물인 '유충렬'과 반동 인물인 '정한담'은 각기 충신과 간신의 전형을 보여 주는데, 이들의 대립을 통해 조선 후기 혼란한 사회 질서 속에서 '충(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등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으며, 충렬, 태자, 유심 등의 발화에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품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이지만, 지문에는 구체적

인 시간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지문에는 꿈속의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서술되어 있다. ③ 지문에는 초월적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 세계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전쟁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9.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자는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다. 다만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과인을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천자가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는 모습과 ‘그대는 ~ 살리는가?’에서 충렬에 대한 천자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며 통곡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유심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유충렬의 슬픔에 모든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를 통해 유충렬이 태자의 모습에 감화되어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주나라 성왕’이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런 말을 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렬의 마음을 돌려 천자를 돕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장은 ~ 충렬입니다.’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으며, ‘예전에 ~ 있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천자의 진행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하해 같은 ~ 풀을 맺어 깊으리라.’와 같이 보답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충렬에게 원망을 풀고 천자를 위해 싸워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⑤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울 것을 요청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모친을 만나 돌아오게 된다. 이는 국가 위기의 해소가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친 유심의 유배가 충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총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한 것은 가족 위기의 해소로,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은 국가 위기의 해소로 볼 수 있다. 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한 유총렬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영웅으로의 귀환을 확인할 수 있다.

42. 어휘 및 어구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감정이나 욕망, 흥취 따위를 억누른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의 ‘분을 이기지’에서 ‘분’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기지’는 ‘감정을 억누르지’의 의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는 ‘몸을 곧추거나 가누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과 ⑤는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④는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3~45]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가) 작자 미상, ‘정석가’

작품해설 : (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노래하는 고려가요이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이라 하여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임’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바위’에 떨어지는 ‘구슬(목걸이)’과 ‘끈’을 제시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효과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임’은 ‘연인’ 말고도 ‘임금’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임’을 ‘연인’으로 볼 경우 이 노래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백년해로를 소망한다는 것이 되며, ‘임’을 ‘임금’으로 볼 경우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과 임금에 대한 송축이 될 수 있다.

[주제] 임(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

(나)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작품해설 : (나)는 임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해학적으로 표현된 사설시조이다. 임이 온다는 약속을 생각하며 임을 기다리는 부분에서는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엿볼 수 있고, 임이 온 줄로 알고 뛰어나갈 때의 과장되고도 거침없는 행동(‘천방지방 지방천방’, ‘워령통탕’)에서는 화자의 행동이 진솔하게 그려지고 있다. 나중에 화자가 자신의 이전 판단(‘저것이 임이구나’)이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대목(‘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에서는 해학성이 나타난다. 임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해학적이고 과장된 행동, 수다스러운 어조와 결합하여 독자의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

4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을 보면, ‘천 년’과 ‘-나들’(‘-나다고 할 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서 상황의 가정을 과장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 워령통탕 건너가서’에서는 황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②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가)는 설의적 표현이 쓰였으므로(‘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가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대조는 상반된 내용을 나란히 배열하는 표현 방법이고,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 되풀이 되는 표현 방법(예를 들어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 …’)이다. (가)와 (나) 모두 대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연쇄법 역시 어느 작품에도 쓰이지 않았다. ④ 걱정적이라는 말은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가)와 (나) 모두 걱정적 어조라고 보기 어렵다. (가)는 비유와 가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걱정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고, (나)는 해학적 어조에 가깝다. 또한 (나)는 임을 맞이하려 나가는 화자의 과장되고 해학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고려 가요가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된 의도와 맥락을 제시하여, (가)의 고려가요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노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한 임금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을 풀이한다면, ‘바위’에 ‘떨어진들’은 임(임금)과의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풀이되고, 이것은 다시 ‘천 년’을 ‘외따로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이 끊어질리야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사설시조의 독자가 웃음을 지으면서도 내용에 깊게 공감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착각에서 낭패로 이어지는 행동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 행동 이면의 절실함과 애뜻함 등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는 <보기>의 사설시조의 해학성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참고했고, (나)의 화자가 한 착각과 거침없는 행동을 <보기>와 적절하게 관련시켰으므로 그 이해한 바가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임이 온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 저녁밥을 지어 먹었고 대문 지방에 앉아서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집 안 마당을 서성대는 것이 아니라 대문 지방에 앉아 있으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④ 화자는 '임'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삼대'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고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⑤ 화자는 '밤'에 관하여 '임'이 오지 못하게 한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웃음을 덜 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① 16. ②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① 22. ① 23. ⑤ 24. ④ 25. ⑤ 26. ① 27. ④ 28. ⑤ 29. ④ 30. ③
 31. ② 32. ③ 33. ① 34. ③ 35. ④ 36. ② 37. ④ 38. ④ 39. ⑤ 40. ③
 41. ④ 42. ① 43. ① 44. ② 45. ③

[1~5] 화법

[1~2]

1. 의사소통 전략 평가

㉠은 대화 상대방인 진희가 언급한 내용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진희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여쭙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라는 진희의 말을 듣고 ㉢과 같이 묻는 것은 자신이 파악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고개를 끄덕이며’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고, ‘그렇군요.’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⑤ ㉤에서 ‘아, 정말 그렇겠네요.’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상담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2.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문제 상황은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진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를 제시하고 있다.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문제 상황을 방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이지 <보기>의 4단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의 효과’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드라마에서 또래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는지 질문하는 것은 <보기>의 1단계에서 언급한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② ‘여러분은 ~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여 <보기>의 2단계에 제시된 것처럼 ‘문제 상황’과 청자인 ‘여러분’을 ‘연관’시키고 있다. ③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상담 동아리가 있다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보기>의 3단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또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5단계에 제시된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해당한다.

[3~5]

3.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㉔은 토의 진행자인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인 '최 교수'의 주된 발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토의 참여자의 관점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한다.'라는 ㉓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① ㉑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은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② ㉑의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라는 발언은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㉔의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발언은 '최 교수'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⑤ ㉔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라는 발언에서 사회자가 두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을 종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E]는 '청중 1'의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윤 교수'의 대답이다. '윤 교수'는 먼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함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뒤 '청중 1'이 언급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㉕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① 문제의 원인은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에서, 해결 방안은 '학교에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된 ○○ 지역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④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 이를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에서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5.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최 교수'는 문제의 원인이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청중 2'는 마지막 발화에서 학교가 학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학교 내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는 구청이 학교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① 학교가 원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② 학교 측의 요구보다 주민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이익 고려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라는 '최 교수'의 관점에 어긋난다. ④ 학교가 주차장 조성 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시설 조성을 반대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최 교수'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청중 2'의 발언에 따르면 주차장 조성 문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는 구청의 입장과 학생의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지역과 학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의 시작 부분인 (나)의 1문단에서는 카페인의 효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함께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에 제시된 '글을 쓰게 된 배경' 중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음'은 반영되었지만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실태로 글을 시작한다.'라는 글쓰기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을 반영하여 (나)에서는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카페인' 등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을 위해 (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을 반영하기 위해 (나)의 2문단과 3문단의 시작 부분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을 반영하기 위해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이 '하루에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거나 '커피 한 캔과 콜라 한 캔을 마시고 초콜렛 두 개를 먹'는 것과 같은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 해석'에 따르면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일부 액체 식품의 포장 용기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된 식품만 먹는다면 총 카페인 섭취량을 계산하여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을 먹는 경우 섭취량 계산이 불가능하여 자신도 모르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액체 식품과 관련된 자료를 다루고 있는데 초콜릿이나 과

자, 사탕 등은 액체 식품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본문에 이미 ‘체중 1kg 당 2.5mg’이라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④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 식품 중에서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 식품 중에서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만 섭취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⑤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액체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 제시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는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에 맞춰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하루에 섭취하는 각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의 합이 ~ 유의해야 한다’라는 진술은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해 독자가 유의할 점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카페인을 섭취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과 조금 더 유의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초고의 앞부분에서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덜해진다고 하였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또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유의할 점으로 카페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만,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알면 카페인을 덜 섭취하겠지만 잘 모르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표현이지만, 청소년과 성인에게 일어나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은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과 어른 흉내를 내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길’이라는 것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표현이지만, 청소년들이 무심코 성인들을 따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의 이야기를 접하고,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공간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인 피아노 계단을 예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고려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공간 디자이너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피아노 계단이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고 하여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10.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과 같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곳을 찾아간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수정 요청 사항’은 이러한 공간 디자인 작품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③과 같이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제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시각 자료에 해당하며 이를 첨부하면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⑤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면 예상 독자인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나의 삶만’에서 ‘삶만’은 명사 ‘삶’에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만’이 결합한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ㄹ’을 [ㅁ]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삶과 자연’의 ‘삶과’는 명사 ‘삶’에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과’가 붙은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ㄹ’을 [ㅁ]으로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② ‘국수를 삶고’의 ‘삶고’는 ‘삶다’의 어간 ‘삶-’에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 ‘-고’가 결합되는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ㄹ’을 [ㅁ]으로 발음한다는 ㉠과, 겹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어말에서 겹받침 ‘ㄹ’을 [ㄹ]으로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④ ‘삶에 대한 의지’의 ‘삶에’는 명사 ‘삶’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에’가 붙은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겹받침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면 뒤의 ‘ㄹ’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⑤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일찍이’가 된 것이므로 ㉢의 ‘더욱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더욱이’ 역시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부사 ‘더욱이’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급히’는 ‘급하다’의 어근 ‘급-’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꾸준히’ 역시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방긋이’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생긋이’ 역시 부사 ‘생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③ ‘많이’는 ‘많다’의 어간 ‘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같이’ 역시 어간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④ ‘깊이’는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굳이’ 역시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13. 높임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말씀’은 말하는 이(경준)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서술어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③ ㉢에서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다’가 아니라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 ‘여쭙다’를 써서 말해야 한다. ④ ㉣의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영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당신’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⑤ ㉤의 주체는 영희의 입장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여 ‘말씀하셨잖아’라고 말해야 한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크다㉠’은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작다㉡’과 반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크다㉠’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꾼 ‘키가 몰라보게 작는구나.’가 성립되지 않는 점이나, [반의어] 표시가 ‘작다’와 ‘크다㉠’의 사이로 한정된 점을 통해서도 ‘크다㉠’과 ‘작다㉡’이 반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크다㉠’과 ‘크다㉡’에 각각 ㉠과 ㉡의 국어사전 약호가 붙은 것을 통해 전자는 형용사이고 후자는 동사라는 품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크다㉠㉡’과 ‘작다㉢’은 반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눈이 작다.’, ‘글씨를 작게 적는다.’는 ‘작다㉢’의 용례가 될 수 있다. ④ 뜻풀이를 고려할 때,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는 ‘작다㉣’의 적절한 용례이다. ⑤ ‘작다㉤’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작은 실수를 하다.’는 적절한 용례이다.

15.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은 목적어 ‘밭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서술어가 호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불편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④ ㉣에서는 ‘운동을 동참합시다’를 ‘운동에 동참합시다’로 수정하였는데, 서술어 ‘동참합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다. ⑤ ㉤에서는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일이다’를 ‘일이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중세 국어 ‘업던’과 현대 국어 ‘없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인 이어 적기(연철, 連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하지 않고 ‘모딘’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하늘히’에는 ‘ㆍ’가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음소로서의 ‘ㆍ’는 18세기에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와 양성 모음 ‘ㅑ’가 어울려 ‘모새’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가 어울려 ‘못에’가 된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⑤ ‘열븐’에는 ‘빙(비순경음)’이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다. ‘빙’은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 ‘고와, 구워’의 사례에서처럼 ‘빙’이 [w]로 변하여 이중 모음을 형성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17~30] 독서

[17~21] 인문, ‘맹자의 ‘의’ 사상’

지문해설 : 이 글은 맹자의 ‘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 추구가 배제된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맹자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하여,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다.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한 맹자는 인간에게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

17.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맹자의 ‘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을 소개하고, 2~6 문단에서 맹자가 제시한 ‘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③ 맹자의 ‘의’ 사상의 뿌리인 공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상반된 관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④ 맹자가 당시에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는 설명은 있으나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1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또한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규정하고, 유비적 확장을 통해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그러므로 맹자는 ‘의’보다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서 맹자는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6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③ 3문단에서 맹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으며,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옳고 그름

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결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덕의 내재성을 강조한 ㉠과는 거리가 멀다. ③ 도덕은 성인이 만든 것이고 인간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도덕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과 맞지 않는다. ④ 군자나 소인이나 모두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도덕의 선천성을 강조한 ㉠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원래부터 어른으로 대우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도덕의 내재성을 강조한 ㉠과 거리가 멀다.

2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목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맹자가 강조한 ‘의’는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의 ‘정당성’이라는 공자의 사상을 강조한 것인 반면, <보기> 목적의 ‘의’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보기>에서 목적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의’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인간이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보기>에서 목적은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맹자는 ‘의’를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으며, <보기>에서 목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21.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경도’는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은 ‘오인’의 의미이다.

정답 ①

[22~25] 예술,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를 먹으로 그린 ‘묵란화’를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희가 25세 때 그린 ‘석란’은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의 그림으로, 전형적인 양식을 빌어 당시 문인들이 지녔던 공통적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배 생활 이후 말년에 그린 ‘부작란도’는 거친 갈필을 사용해 뒤틀리고 꺾인 난초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쓸쓸하고 황량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묵란화에 나타난 추사의 작품 세계

22.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김정희의 두 작품 ‘석란’과 ‘부작란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김정희의 평탄했던 젊은 시절의 화풍과 오랜 유배 생활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가져온 변화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후대 작가의 작품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묵란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바탕으로 김정희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한 입장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 ④ 김정희의 두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석란’과 ‘부작란도’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라고 하여 묵란화에 서예의 필법이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김정희의 말년의 작품인 ‘부작란도’에 서예의 필법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묵란화는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묵란화는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함께 그려진 ‘꽃대’나 ‘꽃송이’에서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꺾인 잎’에서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김정희가 25세에 그린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김정희가 지녔던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묵란화는 문인들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2, 3문단에서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작가가 지녔던 이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문단에서 ‘부작란도’에는 ‘문인 공통의 이상’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까지 충실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 그려진 난초는 작가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이 나타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김정희는 ‘부작란도’에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기>의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기존에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따라서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는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부작란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사체를 창안한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이 감동을 준다고 하였다.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김정희는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참모습’을 표현해 내었다. 따라서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시, 서예, 그림은 문인들에게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문인들이 시, 서예, 그림 각각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28] 사회,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을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은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화’와 ‘경영화’를 도입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민간화’와 ‘경영화’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공동체 의식 고양,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

2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민간화'와 '경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각 개인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공동체 의식 고양을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의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화'와 '경영화'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의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27.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은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② ㉠은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과 ㉠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⑤ ㉠과 ㉠은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 것이 아니다. ② <보기>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으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아니다. ③ <보기>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자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보기>에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지지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29~30] 과학, '점탄성체'

지문해설 : 이 글은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탄성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탄성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되지만 힘을 제거하면 즉각적으로 원형을 회복하는 성질로,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점성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서서히 변형되는 성질로,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체를 점탄성체라고 한다.

점탄성체의 물리적 성질을 잘 보여 주는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있다. 응력 완화는 물체가 변형된 상태로 있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고무줄을 당긴 상태로 고정해 두면 고무줄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서서히 변하여 응력은 줄어들게 된다. 크리프는 물체에 일정한 응력을 가했을 때 물체가 서서히 변형되는 현상이다. 고무줄을 일정한 힘으로 당기면 고무줄은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점탄성체이며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 구조, 온도에 따라 변형 속도가 달라진다.

[주제] 점탄성체의 개념과 물리적 특성

29.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유리창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은 유리창에 일정한 응력(중력)이 작용하여 서서히 변형되는 것이므로 크리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힘에 의해 즉각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는 것이므로 '시간 지연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용수철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갖는 것을 탄성이라고 하였다. ② 5문단에서 같은 온도(상온)에서 나일론은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은 인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물질의 유동성 정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분자들의 위치가 변하여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하였으므로 분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하는 힘이므로 풀이 받는 힘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기타 줄을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했을 때 기타 줄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팽팽한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응력이 감소되는 응력 완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5문단에서 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는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로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하면 응력 완화가 느리게 일어나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느리게 감소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타 줄을 풀자 원래의 길이가 되었다는 것은 물체에 가한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인 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기타 줄을 당겨서 고정시켜 놓았는데,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응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응력 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책의 무게는 일정하기 때문에 선반에 작용하는 응력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는 응력에 의해 선반이 서서히 변형된 것이므로 (나)의 예는 크리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⑤ 5문단에서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가속화된다고 하였으므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 크리프에 의한 변형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45] 문학

[31-33] 현대시 -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김종길, ‘고고(孤高)’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해설 : (가)는 모란이 피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모란을 보내는 서러움을 표현함으로써 기다림의 정서와 상실의 설움을 대응시키며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시의 중심 소재인 모란은 화자에게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며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참고 기다리고 또 우는 것도 모두 모란이 피고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이지만 모란은 곧 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화자는 모란이 피어 있는 잠깐의 시간을 위해 삼백 예순 날을 기다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나) 김종길, ‘고고(孤高)’

(나)는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통해 삶의 고고한 자세를 환기시키면서 북한산이 제 높이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북한산은 신록이나 단풍, 혹은 적설, 또는 안개 낀 상황에서는 제 높이를 나타낼 수 없다. 그 이유는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되어야 그 고고한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산이 그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런 기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아울러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고한 삶의 자세 지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1~2행과 11~12행이, (나)는 1연과 6연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는 첫 연과 끝 연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처럼 일부 행이 같은 내용과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되거나 (나)처럼 첫 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한 시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거나, 반복되는 부분의 내용이 강조되거나, 운율을 형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다. (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주제 의식이,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날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이 반복되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③ (가)의 11~12행이 어순의 도치를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수묵’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눈으로 덮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흑백의 대비를 떠올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는 모란꽃의 색깔이 연상되고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가)는 모란이 핀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나타낸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이다. (나)의 ‘~려면’이라는 표현을 가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표현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의 대상인 북한산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이려면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 한다. 즉 대상의 높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나’가 모란이 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대상(모란)은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 있다. 시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5일 동안만 모란이 피어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5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만 모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한다. 오랜 기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소중하며 더 아름답게 느낀다는 것이다. ④ (나)에서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2연과 3연에, 그렇지 않은 순간은 4연에 드러나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⑤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설움’은 ㉠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날, 혹은 사계절 중 봄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을 ‘한 해’가 다 갔다고 할 정도이므로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③ ‘찬란한 슬픔’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닳을 때의 설움을 뜻한다. 역설적인 표현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찬란한 슬픔’은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④ 백운대와 인수봉이 ‘고고한 높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즉 ‘어느 겨울 이른 아침’이 ㉠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은 ‘눈이라도 원산을 뒤덮는 적설’이어서는 안 되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정도의 눈이어야 경험할 수 있다.

[34-37] 현대소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각각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부는 병식의 눈으로, 제2부는 병국, 제3부는 아버지, 그리고 제4부는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 서로 이질적인 인물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의 정신적 상처를 통한 실향민들의 한, 병국의 퇴학, 공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 현대 사회의 문제와 지식인들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도요새’는 아버지와 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적 유대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아버지에게는 고향을, 병국에게는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 이 ‘도요새’는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2부로 대학에서 제적당한 병국이 낙향하여 실의에 빠져 지내던 중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진강 주변의 환경 파괴 원인을 밝히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주제] 비극적 역사 현실과 산업화의 폐해로 훼손된 인간성 회복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은 ‘나’가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나고 나서(체험) 도시의 생활 환경이 자연을 파손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됨을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어리숙한 인물이라 할 수 없으며, 진술이 해학적인 부분도 없다. ②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인 ‘나’는 사건의 주인공이며, ‘나’는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 입장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⑤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35.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㉞에서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환청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A]에 제시된 것과 같은 생각을 ‘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물이 대상(도요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도요새는 ‘나’에게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를 ‘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새가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는 것은 ‘나’의 머릿속이 대상(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의 진술을 보아도 ‘나’는 대상(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② ‘나’는 대상(도요새)을 찾아 헤매었으나 대상(도요새)은 이미 시베리아 등으로 북상한 뒤여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상(도요새)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의 사고는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굳게 닫힌 문’의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사고를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았다고 했으므로 ‘나’의 의식이 도요새에 의해 각성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나’가 석고 천과 동진강을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수천 번 반복하여 자기 최면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의 다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나’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뜻한다.

3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는 도요새가 사람처럼 말을 하도록 하여, 즉 우화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 부분에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 부분에서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는 떠올릴 수 있으나 도요새 무리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갈등 해소 과정도 보여 주지 않는다. ④ [A] 부분에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을 비행경로라고 오해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 부분에서 도요새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문의 ‘도요새’는 ‘나’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고, <보기>의 ‘매화’는 어리고 성기어서 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꽃을 피우고, 암향이 부동하기까지 하여 화자가 경이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요새’가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도요새와 같은 자연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 오염을 극복하겠다는 ‘나’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자신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화’가 화자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매화’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일 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 ‘도요새’는 ‘나’의 의지와 욕망을 대리 표현한 소재라고 볼 여지가 있다. [A] 부분에서 ‘도요새’가 한 말은 사실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는 아니다.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라 볼 수 없다. 제시된 부분에 ‘도요새’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으며 ‘나’가 자신의 의식을 강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동원한 자연물에 가깝다. ‘매화’는 화자가 두고 보아 온 존재로 굳이 말하자면 화자와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한다.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어리고 성긴’ 상태에서도 꽃을 피워 내고, ‘암향부동’까지 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8~42]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작품해설 :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영웅 유충렬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영웅 서사의 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귀양 온다는 설정을 통해 적강(謫降) 소설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주동 인물인 ‘유충렬’과 반동 인물인 ‘정한담’은 각기 충신과 간신의 전형을 보여 주는데, 이들의 대립을 통해 조선 후기 혼란한 사회 질서 속에서 ‘충(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등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으며, 충렬, 태자, 유심 등의 발화에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품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이지만, 지문에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지문에는 꿈속의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서술되어 있다. ③ 지문에는 초월적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 세계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전쟁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9.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자는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다. 다만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과인을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천자가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는 모습과 ‘그대는 ~ 살리는가?’에서 충렬에 대한 천자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며 통곡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유심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유충렬의 슬픔에 모든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를 통해 유충렬이 태자의 모습에 감화되어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주나라 성왕’이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런 말을 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렬의 마음을 돌려 천자를 돕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장은 ~ 충렬입니다.’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으며, ‘예전에 ~ 있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천자의 진행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하해 같은 ~ 풀을 맺어 값으리라.’와 같이 보답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충렬에게 원망을 풀고 천자를 위해 싸워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⑤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울 것을 요청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모친을 만나 돌아오게 된다. 이는 국가 위기의 해소가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친 유심의 유배가 충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충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한 것은 가족 위기의 해소로,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은 국가 위기의 해소로 볼 수 있다. 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한 유충렬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확인할 수 있다.

42. 어휘 및 어구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감정이나 욕망, 흥취 따위를 억누른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 ‘분을 이기지’에서 ‘분’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기지’는 ‘감정을 억누르지’의 의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는 ‘몸을 곧추거나 가누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과 ㉤는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는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3~45] 고전시가 - 조위, ‘만분가’

작품해설 : 조위가 지은 가사로,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서 간신히 죽음을 면한 작가가 순천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임을 잃은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충신연군지사(忠臣戀君之辭)를 노래하고 있지만,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귀양 간 처지의 원통한 심정을 하소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천상에서 하계로 추방된 자가 옥황상제로 비유된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품을 지은 의도가 굴원의 ‘천문(天問)’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철의 ‘사미인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제] 유배당한 처지에 대한 원통함과 연군의 정

43.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두견의 낮이 되어’,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두견’, ‘구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표면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반어적 표현이나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 기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확인하기 어렵다. ㉣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빗대어 비유는 풍자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 가렸으니’와 같은 묘사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물(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구체적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44.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지척에 나아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구름’이 되어 시적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꿈이라도 갈동 말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만리’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먼 거리를 의미한다. ㉢ ‘흘리 날아’, ‘날아올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은 ‘구름’이 된 화자를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후신인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을 굴원이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 ‘함께 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백구’는 화자의 벗이 되고 있다.

4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 1>의 ‘연군의 마음’이라는 진술을 통해 지문이나 <보기 2>에 있는 ‘임’은 임금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③에서 [C]의 ‘백옥 같은 이 내 마음’은 임을 위해 지킨 마음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의 ‘옥 같은 얼굴’은 임의 얼굴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금의 얼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식어지어 ~ 두견의 뉘이 되어’, ‘식어지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임과 만나는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한다. ② ‘쓸커시 사되리라’, ‘슬카장 삶자 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마음껏 임금께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 ④ 임금 곁을 떠나 ‘일모 수죽’이나 밤중 ‘모침’에 처해 있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냉박할사’, ‘찬 자리’와 같은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임 계신 데’를 바라보는 화자와 ‘임이 어디 간고’라고 탄식하며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연군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② 08. ③ 09. ⑤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① 18. ③ 19. ② 20. ③
 21. ② 22. ③ 23. ④ 24. ② 25. ② 26. ③ 27. ⑤ 28. ④ 29. ① 30. ④
 31. ③ 32. ③ 33. ④ 34. ① 35. ① 36. ④ 37. ② 38. ① 39. ⑤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④ 45. ⑤

[1~5] 화법

[1~2]

1. 의사소통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에게 각 화폐에 나타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이 본 그림이 별자리인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항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은 ‘그렇군요.’라는 말로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라든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의 배경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라는 말은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박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며 설명해 주고 있다.

2. 필요한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상황을 설정하여,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태성’의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라는 말은 인터뷰 내용 구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터뷰 대화는 천 원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후 만 원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화제로 제시한 천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후기의 그림이고 나중 화제로 제시한 만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이므로 박사님의 설명 순서가 시대순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쓸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지폐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다.’라는 발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생소한 명칭인데다 박사님의 설명에도 이 천문도의 가치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말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 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차’란 목성의 운동을 기준으로 설정한 적도대의 열두 구역을 말하고, ‘분야’란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열둘로 나눠 지상의 해당 지역과 대응시킨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를 추가로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생소한 이름의 천문도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계상정거도’는 천 원권 지폐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을 확대하여 제시하면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⑤ 박사의 마지막 말인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박사의 당부를 전달할 수 있다.

[3~5]

3.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조사한 자료들 중에서 발표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자료들을 제대로 선별해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 2’는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한 신문 기사가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학생 3’은 기사의 내용 중 ‘전국의 전통 시장 분포에 대한 내용’은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하려는 발표의 주제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빼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2’는 자신이 찾은 연구 보고서에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을 불편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이 전통 시장의 우수 사례로 뽑힌 아름시장의 특징을 부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발표 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에 드러나는 자료의 선별 과정은 자료가 아름시장이라는 화제의 특징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학생들이 언급한 자료들은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한 신문 기사 내용’, ‘전국의 전통 시장 분포에 대한 신문 기사 내용’, ‘연구 보고서에 제시한 설문 결과 자료’ 등이다. 각각의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것은 취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기준으로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들의 대화에서 발표 장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수업을 하는 교실일 수 있으나, 도서관일 수도 있고, 시청각실처럼 다소 넓은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발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인지 점검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들이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신문’이라는 구체적인 출처가 제시된 것도 있지만 ‘한 연구 보고서’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제시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출처를 자료 활용 여부의 기준

으로 삼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는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청중은 학급 친구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청중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선별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4. 말하기 전략 및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실제 발표에서 사용된 말하기 전략과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의 ‘궁금하지 않으세요?’라는 표현은 앞서 말한 장보기 도우미라는 특징 외에도 아름시장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는 내용을 전제하면서, 그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자신의 인식이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통 시장이 불편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름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발표자의 견해를 제시한 후,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한 우수 사례라는 내용이 실린 ○○신문의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④ 발표자의 구체적인 경험은 청중들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이 발표의 발표자는 자신이 직접 아름시장의 야금장터를 방문했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평범한 표현보다는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 한자 성어를 활용함으로써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아름시장 방문을 효과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발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자 1, 2, 3의 반응을 분석하면 각각의 청자가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발표의 내용이 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청자 3’은 반응의 말미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야금장터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는 데는 공감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통해 야금장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청자 3’의 이런 비판적 태도를 간과한 채 ④에서 ‘청자 1’과 ‘청자 3’의 반응을 토대로 ‘야금장터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의 특징을 설명한 것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군.’이라고 분석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청자 1’은 장보기 도우미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런 제도의 시행이 대형 매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

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청자 2’는 전통 시장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우수한 사례라는 신문 기사를 대비함으로써 아름시장의 성공적인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내용 구성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발표의 내용을 통해 자신도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다. ③ ‘청자 3’은 장보기 도우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야금장터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아름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는 내용에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 즉 아름시장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청자 2’는 장보기 도우미가 전통 시장에 관한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청자 3’도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발표 내용에는 공감이 간다고 말하고 있다. 즉 ‘청자 2’와 ‘청자 3’의 반응을 통해 발표에서 장보기 도우미의 예를 들어 아름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한 것은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6~10] 작문

[6~8]

6.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친환경 인증 표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쓰게 된 작문 상황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가)와 (나)에서 글쓴이인 학생이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지식을 배제하려는 특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을 드러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쓰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문이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도입이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글의 화제가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도 지님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표시하는 그림 세 가지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가 무엇인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음을 밝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쓰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문이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7.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A]에서는 애초의 글쓰기 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느는 것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계속 늘고 있는 데 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한 농산물’ 정도에 그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볼 때, 점검·조정 결과에 따라 인증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도입은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글의 첫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A]의 두 번째 문단에서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하며, 각각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통과와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소비하여야 함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8.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기농 농산물’의 기준과 ‘무농약 농산물’의 기준은 상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을 접속 부사 ‘그런데’로 고쳐 쓰게 되면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해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주어인 ‘인증 표시가’와 서술어인 ‘부착할’이 서로 호응되지 않으므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부착될’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나뉘어진다’는 이중 피동 표현으로, ‘나누--+이--+어지--+나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표현 ‘-이-’와 ‘-어지-’가 중복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어지-’를 뺀 ‘나뉘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안전 사용 기준’이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부사격 조사 ‘에’를 관형격 조사 ‘의’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실감(實感)’은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을 고려하여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을 나타내는 ‘실천(實踐)’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9~10]

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⑥의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며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에서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우물 안 개구리처럼'에서 비유를 활용하고 있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리 토끼' 그림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드러내고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어 좋지 아니하게 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색안경'을 활용하여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 2'의 글에서는 '대학 전공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에서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②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에서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에서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에서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었음을 알 수 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의 변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모음의 변동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단모음, 이중 모음, 반모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을 중심으로 모음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의 ‘살피 + 어 → [살피]’에서는 ‘ㅣ + ㅍ → ㅍ’의 변동이 일어나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ㅍ’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ㅍ’로 변동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 ‘배우 + 어 → [배워]’에서 역시 ‘ㅜ + ㅍ → ㅍ’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단모음 ‘ㅜ’와 단모음 ‘ㅍ’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ㅍ’로 변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으로 변동되는 유형인 ㉠에 해당하는 것은 ㉠과 ㉡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의 ‘기 + 어 → [기여]’에서 모음의 변동 양상을 표현해 보면, ‘ㅣ + ㅍ → ㅣ + ㅍ’로 나타난다. 즉, 어간의 단모음 ‘ㅣ’는 변동되지 않지만, 어미의 단모음 ‘ㅍ’는 이중 모음 ‘ㅍ’로 변동된다. 그런데 이때의 ‘ㅍ’는 반모음 ‘ㅣ[ㅣ]’와 단모음 ‘ㅍ’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의 모음 변동 양상은 ‘ㅣ + ㅍ → ㅣ + ㅣ[ㅣ] + ㅍ’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은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ㅣ[ㅣ]’가 첨가된 유형에 해당한다. ㉣의 ‘나서 + 어 → [나서]’에서 모음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ㅏ + ㅍ → ㅍ’로 나타나므로, ㉣은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유형에 해당한다.

12. 시제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선어말 어미 ‘-았-/-었-’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임(㉠)’을 나타낼 때,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선어말 어미 ‘-았-/-었-’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이다. ㉣은 ‘소풍날’이라는 과거 시간에 ‘날씨’라는 상태가 나뻐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임(㉠)’을 나타내기 위해 ‘-았-’이 쓰인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텔레비전을 본’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 ‘아까’라는 과거의 시간에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 ‘아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이 잠긴’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 과제 준비 때문에 앞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두 문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문장은 각각 ‘내가 노래 부르기’,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이라는 명사절이 ‘친구들은 원한다.’와 ‘우리는 몰랐다.’에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의 안긴문장 ‘내가 노래 부르기’에는 ‘노래(를)’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에는 목적어가 없다. ㉡에서 ‘벼농사에’는 ‘적합함’이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지 목적어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과 ㉡의 문장 성분을 큰 틀에서 분석해 보면, 각각 [주어 + 목적어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 서술어], [주어 + 목적어(주어 + 부사어 + 서술어) + 서술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사어는 ㉡에만 나타날 뿐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에서 부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에서 서술절이나 관형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 문장에는 관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 문장에는 ‘이’가 ‘지역’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 지역’이라는 구 역시 ‘토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더하다’와 ‘덜하다’라는 특정 어휘에 대한 다양한 국어사전의 정보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더해, 품사, 문형, 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덜하다’의 반의어로는 ‘더하다 [Ⅱ]②’가 아니라 ‘더하다 [Ⅰ]’이 적합하다. ‘덜하다’와 ‘더하다 [Ⅰ]’의 뜻을 비교해 보면 둘 모두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약하다/심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항목의 용례를 비교해 보아도 ‘더하다/덜하다’ 사이의 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더하다 [Ⅰ]’은 ‘심하다’라는 상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더하다 [Ⅰ]’의 반의어인 ‘덜하다’가 형용사라는 점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② ㉡에는 ‘더하다 [Ⅱ]①’의 문형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시된 용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시된 용례 중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는 【…을 …과】에 해당하며,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는 【…을 (…과)】에서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목적어로 오는 경우이다. 이렇게 볼 때, ㉡에는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와 관련된 문형이 요구되는데, 【…에 …을】이 이에 해당한다. ③ ‘더하다 [Ⅱ]②’는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에/에게 …을】가 문형 정보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

다.’는 ‘더하다[Ⅱ]②’의 용례로 적합하다. ④ ‘더하다[Ⅱ]③’의 의미가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라는 점, 해당 용례로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가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는 ‘더하다[Ⅱ]③’의 용례로 적합하다.

15.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②에 제시된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 경우로, 이를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라고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어 ‘요청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③ 서술어 ‘소개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누나에게’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④ 서술어 ‘삼다’는 【…을 …으로】의 꼴로 쓰여,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에는 목적어가 없었으므로 ‘그 일을’을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 ‘어둡다’는 【…에】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동네 지리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16~30] 독서

[16~19] 과학,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단백질 분해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결합을 끊어내는 것인데, 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이 분해되더라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아

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은 높게 된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특정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를 제한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제한아미노산이 있으면 단백질로 합성되지 못하는 필수아미노산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주제] 단백질의 분해 과정과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아미노기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체내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소량이라는 하지만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제한아미노산에 대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이 정의를 통해서 보면 제한아미노산은 필수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이 제한아미노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분을 통해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단백질 합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체내 합성, 체내 단백질 분해, 음식물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체내 단백질 분해, 음식물 섭취를 통해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보면 제한아미노산이 있는 식품은 특정 아미노산의 양이 부족하여 공급된 필수아미노산들이 모두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못하는 식품이다. 그러므로 제한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필수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공급된 필수아미노산들이 모두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내용을 보면 분해된 단백질은 포도당을 생성하거나 지방산으로 합성되기도 하고, 체외로 배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3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

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필수아미노산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하게 된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가)는 필수아미노산 A, B, C를 사용하여 2몰의 단백질 Q를 합성할 수 있다. 공급된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가)에서는 제한아미노산이 없다. (나)는 B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몰의 단백질만 합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B가 제한아미노산이 되며, 4몰의 A와 2몰의 C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다) 역시 B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몰의 단백질만 합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시 B가 제한아미노산이 되며, 2몰의 A와 2몰의 C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나)와 (다)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은 같기 때문에 (나)의 양이 더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모든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었으므로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아미노산이 없다. ② (가)에서는 2몰의 단백질 Q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12몰의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된 반면 (다)에서는 1몰의 단백질 Q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6몰의 필수아미노산이 사용되었다. ④ (나)와 (다) 모두 B가 부족하여 단백질을 1몰밖에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와 (다) 모두에서 B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⑤ (나)에서는 합성에 이용되지 못한 필수아미노산이 4몰의 A와 2몰의 C로 총 6몰이지만, (다)에서는 2몰의 A와 2몰의 C로 총 4몰이 된다.

1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높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값이나 비율’과 관련되는 것은 ‘수입 의존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0-22] 기술, ‘디지털 영상’

지문해설 : 이 글은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입력 영상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든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한다. 확대를 할 때 가상 영상을 얻는 방법은 원래 화소값을 복사하여 빈 화소값을 채우는 ‘확대 복사 방법’, 인접한 화소들의 평균값으로 빈 화소값을 채우는 ‘선형 보간법’이 있다. 축소를 할 때 가상 영상을 얻는 방법은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 한 칸씩 건너뛰면서 선택하는 ‘선택 복사 방법’과 인접한 네 개의 화솥값 평균으로 하나의 화솥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이 있다.

[주제] 디지털 영상에서의 확대와 축소 방법

20.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가상 영상의 화소수가 많아질 때는 입력 영상을 확대할 때이다. 그리고 가상 영상의 화소수와 화소들의 밝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화솥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이며, 0일 때 가장 어둡고 255일 때 가장 밝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해상도는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화소들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고 하였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은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A_0 \sim A_3$ 에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A값과 C값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A_0 과 A_2 값은 모두 화소 A의 값을 가지므로 두 화솥값의 차이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을 적용한다면 $A_0 \sim A_3$ 은 A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B_0 \sim B_3$ 은 B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A와 B값이 같다면 A_1 과 B_0 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③, ④ ㉡은 인접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므로 인접한 A와 C의 차이가 없다면 A_0 과 A_2 도 차이가 없게 된다. 그렇지만 A와 B의 차이가 2보다 크다면 A_1 은 A와 B의 평균값을 가지게 되므로 A_0 과 차이가 나게 된다. ⑤ ㉡을 적용했을 때, A_3 은 인접한 A~D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네 값이 모두 같다면 인접한 화소들과 차이가 없게 된다.

2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할 경우 화솥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명암 대비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서 정삼각형의 윤곽선 부분의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입력 영상을 확대해서 화면에 표시할 때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확대율이 높아질수록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 상황에서는 입력 영상에 비해 모자이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② 4문단에서 ‘선형 보간법’은 화솥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 상황에서는 평균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확대 복사 방법’에 비해 처리 시간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선택 복사 방법’은 입력 영상의 화

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㉞의 상황에서는 입력 영상의 화소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㉝ ㉞에서는 200×200개의 화소를 가진 가상 영상이 만들어지고, ㉞에서는 50×50개의 화소를 가진 가상 영상이 만들어진다.

[23~26] 사회,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지문해설 : 이 글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에 따른 민간 위탁 방식 제도의 도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과 경합성(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성질)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으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 제도는 서비스의 결정권과 책임을 정부가 갖고 서비스 생산을 민간이 맡는 것으로, 그 방식에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다. 민간 위탁 제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 공공 서비스에서의 민간 위탁 제도 도입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공공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맡은 민간 위탁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언급이 4문단에 나와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1문단에서 언급하였다.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1문단의 '정부는 ~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에 언급되어 있다.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은 2문단의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은 3문단에 세 가지('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가 언급되어 있다.

24. 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 두 가지 '배제성'과 '경합성'을 소개한 다음, '국방이나 치안'과 '공공 도서관'의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대상에

대한 비유적 설명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문제점의 다양한 원인 또한 분석되지 않았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변화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지도 않았다.

25. 인과 관계, 상관 관계추론

정답해설 : ㉠ 바로 앞의 접속 표현 ‘따라서’에 유의한다면, 민간 위탁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이유를 4문단 ㉠의 앞부분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민간 위탁 업체의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에서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의 이유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2문단에는 민간 위탁을 고려하기 이전의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위주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을 민간 업체에 주로 맡긴다는 내용은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다. ㉢ 3문단에서 민간 위탁의 세 방식 중 하나인 ‘면허 발급 방식’이 주된 민간 위탁 방식인지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 3문단에 따르면 민간 위탁 방식 세 가지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 방식은 ‘보조금 지급 방식’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방식에 따라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 위탁 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문단에 제시된 세 가지 민간 위탁 방식 중 어느 하나로 단일화되었다는 추론은 ‘윗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경감(輕減)되다’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의 뜻으로, ‘부담’이나 ‘고통’에 해당하는 말과 의미상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에 제시된 문장의 맥락을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로 본다면,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경감되다’와 의미상 호응을 이루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열람(閱覽)’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의 뜻이므로, ‘서류의 열람’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 ‘충당(充當)’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의 뜻이므로, ‘자금 충당’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 ‘개선(改善)’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의 뜻이므로, ‘무역 수지(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의 수출입 거래로 생기는 국제 수지.) 개선’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 ‘저해(沮害)하다’는 ‘막아서 못하도록 해치다.’의 뜻이므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27-30] 예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논외로 취급했던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반발하여 미감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달리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며,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칸트는 취미 판단에는 공통감이 전제로 작용하므로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의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 칸트의 취미 판단의 원리 및 의의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고 언급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하면서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와 관련하여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제의 적용 범위도 '규정적 판단'과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계'가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성 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1문단에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선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없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에서 ‘권선징악’은 교훈적 내용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취미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용하다’는 실용적 유익성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이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③ [A]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해당하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⑤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액자식 구조’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맥락으로 끼어들었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1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언급하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규정은 규정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통의 미적 감수성을 전제로 한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통감은 미각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관적 보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

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여기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펼치다’는 ‘생각, 꿈, 계획 따위를 실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펼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끼어들다’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개입하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끼어들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퍼지다’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확산되다’는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퍼지다’와 바꿔 쓸 수 있다.

[31~45] 문학

[31~33] 갈래복합 - (가) 정지용, ‘조찬’/ 수필 - (나) 이태준, ‘파초’

작품해설 : (가)는 1941년 “문장”에 발표된 시로, 비 갠 후 햇살이 퍼지는 아침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절제된 언어와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상과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고 있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아침의 정경이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1~2연이 원경에 해당하고 3~4연이 근경에 해당한다. 시의 뒷부분인 5~7연에서는 시적 화자 자신을 ‘서러운 새’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의 ‘새’는 일제 강점기의 폭압적인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시인 자신의 초라하고 서글픈 처지가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비 온 뒤의 아침 풍경 속에서의 자아 성찰

(나)는 파초에서 느끼는 남국적 정취와 파초에 대한 인간적이고 애뜻한 마음 등을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나’는 비오는 날 파초의 정취를 음미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 반면, 앞집 사람은 파초를 ‘5원’에 팔도록 권유하면서 세속의 논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현실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으로 파초를 대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태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제] 파초에 대한 애정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2연은 둘째 행은 ‘골을 옮기는 구름(구름이 골짜기 사이를 움직이는 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연의 마무리가 명사(‘구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시의 전반부에는 산골의 아침 정경이 제시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서러운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2연의 시선이 원경의 대상(‘구름’)을 향했다면, 제3연의 시선은 ‘길경(도라지) 꽃봉오리’를 향해 있으므로,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⑤ 4연에서는 ‘죽순 돋듯’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가 온 뒤 차돌부리가 드러난 모양을 죽순이 돋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서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32. 작품 간의 공통점·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물소리를 듣고 이가 시릴 정도의 차가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차가움은 마지막 연의 ‘서러운’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서 ‘나’는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가 내리는 정경을 만끽하는 오묘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질로 쉽게 맛바꿀 수 없는 그 느낌은 파초에 대한 화자의 행복감,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비를 기다림’, ‘영광스러운 일’). 따라서 ㉠의 화자와 ㉡의 ‘나’의 감각적 경험은 정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을 청각(‘물 소리’)이 촉각(‘시리다’)으로 전이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을 촉각(‘서늘함’)이 시각으로 전이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에서 ‘구름’이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지는 알 수 없고, ㉡에서 ‘나’는 ‘폭염’이 아니라 자신을 서늘하게 해 주는 ‘비’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④ ㉠에서 화자에게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외적 자연물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앞부분의 ‘다른 화초들은’, ‘파초만은’의 구절로 볼 때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차이점을 드러낸 것이지, 공통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의 차가운 물소리를 화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의 ‘나’가 현재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챙’은 ‘차양(遮陽)’이라고도 하는데,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을 뜻한다. (나)에서 ‘챙’은 ‘앞집 사람’이 ‘파초’를 오 원에 팔고 대신 서재에 챙을 달라고 성화를 부릴 때 언급된 대상이고, ‘나’에게 ‘챙’은 파초의 비 맞는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챙’은 파초의 운치와는 거리가 먼 속물적 대상에 가까우므로, 속물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보기>에서 말한 ‘자연물’이자 ‘속물적인 현

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은 '파초'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자연이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화자의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서러움'을 '현실의 번뇌', '초월의 어려움(좌절)'을 느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적절하다. ②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5원'과 '챙'은 거절하고 '파초' 감상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나'가 '파초' 감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을 나타낸다. ③ (가)의 화자는 '서러운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냈으며, (나)의 '나'는 두 여름을 함께 보냈고 이제 꽃을 피운 파초를 팔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파초'와의 교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햇살, 구름, 도라지꽃, 차돌부리로 이루어진 정경은 <보기>의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의 자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의 파초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보기>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4-37] 고전소설 - 작자미상 '소대성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영웅의 일생을 모티브로 한 군담 소설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군담 소설이 지닌 전형을 따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인공 대성이 이 승상의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나오는 대목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 흥중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는 인물 설정은, 지체나 처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고난을 극복한 영웅의 활약상

(대성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고 이를 돕는 승상)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나무 베는 아이'(대성)의 의상, 머리털, 얼굴빛 등과 같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B]에서는 대성을 만난 승상의 발화를 통해 재회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요약적 서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대적 배경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두 인물 간의 갈등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다루지 않았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건의 원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B]를 볼 때,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은 대성의 생각에서 드러나며, 두 사람의 만남의 원인은 승상의 발화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이 인과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35. 인물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나무 베는 아이’의 ‘추레함’을 보고도 이를 회피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그 옆에서 아이의 옷에 있는 이를 잡아주며 아이가 잠을 깨기를 기다리는 승상의 모습을 통해 그의 따뜻한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라는 승상의 말을 볼 때, 과오를 범한 것은 승상이 아니라 승상의 자식이다. 따라서 승상이 대성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라는 승상의 말은 먼저 큰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른 후 그 다음으로 자신의 딸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라는 승상의 말을 볼 때, 대성은 아직 청총마를 얻지 않았으며 동해 용왕의 도움은 미래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승상이 대성에게 주고자 한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라는 것은 ‘보신갑’이다. 이것은 대성이 전장에 나가 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갑옷이다. 따라서 승상은 죽은 후에도 대성을 돕고 있으므로 “죽은 몸으로 ‘소쟁’을 도울 수 없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 공간의 상징적 성격 파악

정답해설 : ㉠(조대)는 ㉡(책상)에서 꿈을 통해 이동한 ㉢(조대)와 동일한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은 ‘승상’이 꿈을 통해 이동한 초현실 공간(㉢)에서 돌아온 후에 이동한 특정 현실 공간으로, 그가 실제로 경험한 공간이다. 따라서 ㉠은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는 ‘승상’이 꿈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공간으로 특정 현실 공간이며, ㉢는 ‘승상’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초현실 공간이다. ‘승상’은 꿈을 통해 ㉡에서 ㉢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② ㉢와 ㉠은 모두 ‘조대’라는 공간이지만, ㉢는 ‘청룡’을 본 꿈속의 공간이고 ㉠은 ‘아이’를 본 특정 현실 공간이다. 즉 ‘조대’는 특정 현실 공간이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승상’이 본 ‘청룡’은 ㉠에서 ‘승상’이 본 ‘아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사건의 흐름상 ㉢에서 ‘승상’이 만난 청룡은 현실 공간에서 ‘아이’임을 암시하고, ㉡에서 초월적 존재인 ‘승상’에게 ‘대성’이 받은 ‘보신갑’은 현실 공간에서 ‘갑옷과 투구’임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이다. ⑤ ‘승상’이 ‘대성’을 만난 공간은 ㉡이지만 ‘승상’이 사라진 후에 ‘대성’이 혼자 있는 공간은 ㉢이다. 또한 ㉡에서 ‘대성’이 ‘승상’에게 받은 ‘보신갑’은 ㉢에서 ‘갑옷과 투구’로 남아 있지만 ㉡의 모습은 ‘승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는 ㉢와 겹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초월적 존재인 승상이 사라지자 그 공간 역시 사라진 것이다.

37. 속담을 활용한 작품 이해

정답해설 :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속담은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승상이 ㉠과 같이 말을 하는 아이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은 ‘너의 능력이 뛰어난을 모든 사람들이 알 날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은 무능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는 속담은 자기에게 좋은 기회만 늘 있는 것은 아님을 표현하거나 자주 바뀌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이다. ④ ‘차면 넘친다’라는 속담은 너무 정도에 지나치면 도리어 불완전하게 된다는 말이다.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8-42] 현대소설 - 현진건, ‘무영탑’

작품해설 : 이 소설은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 사랑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무영탑’은 설화에 얽힌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 현진건은 한 석공의 예술혼과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하여 석공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이겨내고 신라 시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석가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현진건은 ‘유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제 치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려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려는 유종의 내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의 중략 앞부분에는 ‘주만’의 혼사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는 ‘유종’의 내적 갈등이, 중략 이후에는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는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윗글에서는 “한 나이나 젊었더면!”이 인물의 유일한 발언이다. 이는 고립무원의 처지인 ‘유종’이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내뱉는 발언이다. 아울러 ‘유종’은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윗글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뭇감을 구하려 하는 ‘유종’이 탈속적 세계를 지

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있고, ‘아사달’은 거룩한 부처님의 형상을 돌에 새기려 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의 아들 ‘금성’과 자신의 딸인 ‘주만’의 혼사를 막기 위해 ‘다른 데 정혼’을 하여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일 뿐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금지’로 대표되는 당학파가 당학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네들의 한문’이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삼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씩씩한 기풍이 당학에 지질리고 나라가 문약으로 흐른다는 ‘유종’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종이 ㉡을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유종’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서 사라지고 혼자만 외로이 남은 처지에 놓인 자신을 ‘무 밑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 ③ ‘이 늙은 향도’는 화랑도를 숭상해 온 ‘유종’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인 당학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그럴 만한 인물’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가리킨다. ‘유종’은 당학파에 맞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회복하려고 하므로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는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처럼 ‘주만’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B]는 자신을 떠나 보내는 ‘아사녀’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을 뿐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 두 얼굴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눈을 번쩍 뜨고, ‘원불’ 상을 돌에 담아내고 있다. 이는 ‘주만’과 ‘아사녀’로 인해 번민하던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떨치며 종교적 세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으므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를 비판하면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바로세우기 위해 화랑도 사위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은 죽은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는 ‘아사녀’에 대한 ‘아사달’의 사랑과 그의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 현진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유종’은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외세를 추종하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사달’은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에, ‘아사녀’를 샬넉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에 빛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낀다. 이는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원불’ 상을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빛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윗글에서는 ‘아사녀’의 얼굴과 ‘주만’의 얼굴이 녹아들어 ‘거룩한 부처님’ 모양으로 변한 것이 ‘원불’ 상으로 새겨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서 ‘아사녀’는 ‘아사달’을 찾아왔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었다. 이는 ‘아사녀’가 석공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료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료2]에서 ‘그’는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 윗글에서도 ‘아사달’이 ‘아사녀’의 죽음을 계기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자

료1]과 [자료2]에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지 않지만, 윗글에서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자료1]의 ‘연못’은 ‘아사녀’가 석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다. 그러나 [자료2]의 ‘못’은 ‘그’가 ‘아사녀’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지는 곳이며, 윗글의 ‘못’은 ‘아사달’의 아내인 ‘아사녀’가 죽은 곳이다. 따라서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3-45] 고전시가 - 박인로 ‘상사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전편에 걸쳐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임을 사모하는 심정을 노래한 박인로의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임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일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임은 임금이며, 화자는 신하라 할 수 있어 이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다른 내용은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 임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안타까움, 편작이 와도 고칠 수 없을 정도인 자신의 상사병,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 등이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변함없는 연군의 정)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게 서러운가 /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등과 같이 이 글에서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가 아니라 이별로 인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태어를 나열하고 있지 않으나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대비 등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4. 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㉞은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예견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즉 화자는 임과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에는 이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리되자 맺었던가’는 이별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지 현재의 이별이 예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㉞은 좋은 시절(화조월석)에 임과 함께 있지 못함을 서러워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② ㉞은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인 ‘하루’가 ‘삼년’ 같이 느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별한 임을 기다리는 시간을 부각하기 위해 시간의 대

비를 사용하여 그의 간절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㉓ ㉔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임과 함께 있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㉕ ㉖은 은하로 가로막힌 견우직녀도 일 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화자와 임은 그러하지 못함을 대비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기구한 처지를 말하고 있다. 또한 ‘몇 은하’는 임과의 만남이 매우 어려움을 의미하는 시구로 화자의 앞에 놓인 장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하’는 임과의 만남을 이룰 수 없는 화자의 슬픔과 관련 있다.

45. 작품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비유조는 불완전한 두 대상이 만나야 하나가 되는 존재이다. 화자는 임과 자신이 만나 하나의 존재가 되어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현실에서는 임과 자신이 ‘동과 서에 따로’ 살고 있는 처지이다. 따라서 ㉔를 통해 화자와 임이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㉒(청조)는 소식을 전해 주는 존재로서 화자는 자신에게 이러한 존재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㉒를 활용하여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다. ㉑ ㉒(사택망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화자는 임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 이를 ‘원수’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를 잊어버리는 ㉑ 같은 사람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것이다. 즉 그리워해도 임을 못 보는 자신의 처지에서는 잊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㉒를 활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㉓ ㉔(사광)의 총명과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총명을 비교하여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함을 말하고 있다. ㉑ ㉒(편작)도 화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매우 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01. ①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③
 21. ① 22. ② 23. ① 24. ⑤ 25. ② 26. ④ 27. ⑤ 28. ④ 29. ① 30. ④
 31. ④ 32. ⑤ 33. ④ 34. ② 35. ③ 36. ⑤ 37. ② 38. ① 39. ⑤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①

[1~5] 화법

1. 의사소통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에게 각 화폐에 나타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이 본 그림이 별자리인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항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은 ‘그렇군요.’라는 말로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라든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의 배경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라는 말은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박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며 설명해 주고 있다.

2. 필요한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상황을 설정하여,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태성’의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라는 말은 인터뷰 내용 구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터뷰 대화는 천 원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후 만 원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화제로 제시한 천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후기의 그림이고 나중 화제로 제시한 만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이므로 박사님의 설명 순서가 시대순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지폐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다.’라는 발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생소한 명칭인데다 박사님의 설명에도 이 천문도의 가치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말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 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차’란 목성의 운동을 기준으로 설정한 적도대의 열두 구역을 말하고, ‘분야’란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열둘로 나눠 지상의 해당 지역과 대응시킨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를 추가로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생소한 이름의 천문도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계상정거도’는 천 원권 지폐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을 확대하여 제시하면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⑤ 박사의 마지막 말인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박사의 당부를 전달할 수 있다.

3. 논제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문학 작품에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토론의 논제를 파악하고, 그 논제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 파악하는 문항이다. 이 토론의 논제는싼 값에 산 책을 비싼 값에 되파는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상대방의 판단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1’은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고, ‘학생 2’는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토론의 논제는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사회자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라고 토론의 중심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토론의 논제가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토론의 쟁점은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론의 논제는 행위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는 것이지 ‘어떤 현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④ 대체적으로 토론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가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화법의 유형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⑤ ‘학생 1’과 ‘학생 2’가 자신의 주장이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 상대방보다 더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두 사람은 각각 ‘책방 주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책방 주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라는 판단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4. 이어질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의 흐름을 파악하여 앞 사람의 말에 반박하는 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타당한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학생 1’은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과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책방 주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의 과정에서 ‘학생 2’는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의 상황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1’이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것이다. 즉 ‘학생 2’는 ‘학생 1’의 입론 내용을 잘못 파악했거나 왜곡된 채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학생 1’은 자신이 ‘구매자들마다 책값을 달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는 ‘학생 2’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책을 파는 사람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하여 책값을 책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가]의 앞에서 ‘학생 2’가 제시한 말과 동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학생 2’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책을 파는 사람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은 반론의 과정에서 ‘학생 1’이 한 말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학생 1’이 ‘학생 2’에 대한 반박으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내용은 ‘학생 2’가 ‘학생 1’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학생 2’는 반론의 과정에서 ‘그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 1’이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이라고 반박하게 된다면, 이는 [가] 앞에 제시된 ‘학생 2’의 반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④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생 1’과 ‘학생 2’가 이미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책방 주인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5. 말하기 과정 분석 및 작문의 과정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의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1’과 ‘학생 2’의 말하기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다시 작문의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㉞에서는 1989년 설령탕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인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이지 이 논거가 현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

다. 즉, ㉠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반론 부분에서 ‘이윤 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학생 2’는 처음부터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모두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시작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학생 2’는 입론 부분에서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학생 1’은 반론 부분에서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활용하여 ㉡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④ ‘학생 1’은 반론의 둘째 논거로 ‘책방 주인이 구입 가격의 열 배의 금액으로 책을 팔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윤 추구로 볼 수 없고 과도한 이윤 추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 같은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학생 1’은 입론, 반론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책방 주인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비판하고 있다. 즉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학생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을 활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10] 작문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종자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던 그동안의 모습을 제시하며, 국내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종자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정책과 자신이 내세운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국내 채소 종자 시장의 경우 종자 매출액의 50%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종자를 심고 키우기 어려워질 것이고 ~ 결국에는 종자 문제가 식량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일단 그동안 ~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다는 데 있다.’에서 현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생명 공학과의 접목을 통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

출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종자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에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국내 종자 기업의 품종 개발 투자 수준이 낮다는 조사 내용을 밝히고 있다. ‘종자 개발에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가)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을 구체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새로 개발된 콩 종자의 획일적인 보급으로 인한 문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된 종자의 장점만을 중시하여 종자를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종자의 개발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 드러난 현상에서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 시장의 적극적 개척에 대한 내용 역시 (나)에 드러난 현상의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토종 종자로 단일화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에 드러난 현상의 문제점을 간과한 내용이다. ③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 드러난 현상의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종자 기업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종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외래 종자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는 (나)에 드러난 현상의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8. 발표 전략 계획

정답해설 :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달 효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 현황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발표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는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종자 문제를 제시하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이라는 발표 화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해 주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② 흔히 먹는 곡물과 채소를 언급하며 그 종자가 어느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중에게 질문하고 반응을 살피는 것은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④ 전문가가 식량 안보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은 내용을 청중에게 더욱 생생히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화제와 청중의 관련성을 부각하여 종자 산업이 부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안보 문제가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면 발표 내용에 대해 청중들이 공감하도록 이끌 수 있다.

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⑤의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며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에서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우물 안 개구리처럼’에서 비유를 활용하고 있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리 토끼’ 그림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드러내고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어 좋지 아니하게 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색안경’을 활용하여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 2’의 글에서는 ‘대학 전공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에서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②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에서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에서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

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에서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었음을 알 수 있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 양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음운 변동의 양상 자체를 탈락과 교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탈락과 교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뺨는’이 [뺨: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되어 ㉠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뺨:는*]이 아니라 [뺨:는]으로 발음됨을 통해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의 교체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음의 교체가 아니다. ‘ㅂ’은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뺨고, 뺨지’는 [뺨:꼬], [뺨:찌]로 발음되어 ‘ㅂ’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뺨는’이 [뺨: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것은 뒤이어 소리 나는 ‘ㄴ’의 영향에 따른 비음화의 결과이며, 이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교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는 ㉠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읽다’가 [익따]로 발음되어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웁는’이 [웁:는]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닥지’가 [닥찌]로 발음되어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데, 이를 ‘ㄱ’에서 ‘ㄱ’이 탈락되어 ‘ㄱ’으로만 발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ㄱ’은 겹받침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며, 따라서 자음 ‘ㄱ’이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7개 자음 중 하나인 자음 ‘ㄱ’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는 ㉠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웁기’가 [웁끼]로 발음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되어 ㉠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웁’의 ‘ㅍ’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속하지 않으므로 ‘ㅂ’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ㅍ’이 ‘ㅂ’으로 교체되는 것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상으로 ㉡에서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12.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에 제시된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

장이 된 경우로, 이를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라고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어 ‘요청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③ 서술어 ‘소개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누나에게’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④ 서술어 ‘삼다’는 【…을 …으로】의 꼴로 쓰여,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에는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그 일을’을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 ‘어둡다’는 【…에】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동네 지리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13. 한글 맞춤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잘못 표기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사례를 고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이 주로 규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왔음에 비해, 이 문항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고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처럼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제시된 용례처럼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표결에 부치다.’, ‘재판에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등처럼 쓰인다. ‘부치다’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붙이다’는 대체로 ‘붙다’의 사동사로 쓰여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벽에 메모지를 붙이다.’, ‘연탄에 불을 붙이다.’,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등과 같이 쓰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제저녁’의 준말로, ‘엇저녁’이 아니라 ‘엇저녁’으로 써야 한다. ③ ‘적지 않은’의 준말로, ‘적잖은’이 아니라 ‘적잖은’으로 써야 한다. ④ 김치의 일종을 뜻하는 말로,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가 바른 표기이다. 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넙적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가 바른 표기이다.

14.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학생들의 설명이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학생

3'은 한글의 자음자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사소리>-<거센소리>의 관계를 <A>-<A에 획 추가>로 표현한 것을 통해 '나'의 '가획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사소리>-<된소리>는 <A>-<AA>로 표현한 것을 통해 '다'의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라는 '병서(並書)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ㄱ-ㅋ-ㆁ'에서 거센소리 'ㅋ'은 예사소리 'ㄱ'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이고, 된소리 'ㆁ'은 'ㄱ'을 나란히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학생 1'은 자음자 중 'ㄱ'이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가'의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가'에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초성의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과 중성의 기본자 'ㆍ, ㅡ, ㅣ'는 각각 발음 기관과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이다. '학생 2'는 'ㆍ, ㅡ, ㅣ'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모든 모음자를 휴대 전화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라'의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해당한다. 모음자라 불리는 중성자는 기본자 'ㆍ, ㅡ, ㅣ'를 바탕으로 'ㅡ'와 'ㆍ'를 합성하여 'ㅜ, ㅠ'를 만들고, 'ㅣ'와 'ㆍ'를 합성하여 'ㅓ, ㅕ'를 만들었다. 여기에 다시 'ㆍ'를 하나씩 더해 'ㅛ, ㅜ, ㅠ, ㅑ'를 만들어 모두 11자의 중성자(모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학생 4'는 'ㅁ'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ㅂ, ㅍ'은 모두 'ㅁ'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것은 'ㅁ, ㅂ, ㅍ'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의 '가획의 원리'가 반영되었다. '학생 5'는 중성자, 즉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 점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특징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제자 원리 중에는 이 점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더하다'와 '덜하다'라는 특정 어휘에 대한 다양한 국어사전의 정보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더해, 품사, 문형, 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덜하다'의 반의어로는 '더하다 [II]②'가 아니라 '더하다 [I]'이 적합하다. '덜하다'와 '더하다 [I]'의 뜻을 비교해 보면 둘 모두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약하다/심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항목의 용례를 비교해 보아도 '더하다/덜하다' 사이의 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더하다 [I]'은 '심하다'라는 상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더하다 [I]'의 반의어인 '덜하다'가 형용사라는 점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② ㉠에는 '더하다 [II]①'의 문형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시된 용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시된 용례 중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는 【...을 ...과】에 해당하며,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는 【...을 (...과)】에서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목적어로 오는 경우이다. 이렇게 볼 때, ㉠에

는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와 관련된 문형이 요구되는데, 【…에 …을】이 이에 해당한다. ③ ‘더하다Ⅱ]②’는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에/에게 …을】가 문형 정보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는 ‘더하다Ⅱ]②’의 용례로 적합하다. ④ ‘더하다Ⅱ]③’의 의미가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라는 점, 해당 용례로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가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는 ‘더하다Ⅱ]③’의 용례로 적합하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문법적, 표기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에 대한 의미적 이해는 물론 선지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대 국어의 ‘걸음을’을 중세 국어에서는 ‘거르믈’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분철)’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은 것(연철)’이다. 즉, 현대 국어는 ‘걸음을’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고, 중세 국어는 ‘거르믈’로 소리대로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현대 국어 ‘부처의’와 중세 국어 ‘부텃’을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의’가 쓰임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ㅅ’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음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텃 말’을 높이기 위해 ‘-줍-’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시-’로, 중세 국어에서는 ‘-샤-’로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현대 국어 ‘바가’와 중세 국어 ‘배’를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가 쓰임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에 결합되어 ‘배’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7~30] 독서

[17~20] 인문, ‘신채호의 역사관’

지문해설 : 이 글은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으로 본 신채호의 역사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채호의 역사관의 핵심 개념은 ‘아’로, ‘아’는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이때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는데,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

다.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인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상속성은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실현되며 보편성은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하게 된다. 식민 지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으며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 민중을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주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으로 인식한 신채호의 사상

17. 글의 개괄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면서 대아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대아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자성'이 '나의 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조선 민중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함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 연대의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8. 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약화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아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것은, 대아의 고유

성이 약하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성을 상속성과 적응성을 보편성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대아의 향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⑤ 소아는 대아와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상속성과 보편성의 실현 여부를 소아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19. 글의 논지 이해

정답해설 : 4,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조선 민중을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신채호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하였다고 언급한 점에서 『조선상고사』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선 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아의 향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신국민을 강조한 것에서 신채호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20. 사전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둬.’이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③**

[21~24] 사회,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

지문해설 : 이 글은 19세기 시민 사회론을 통해, 사회 이론이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헤겔의 시민 사회론은 당시 프러시아가 산업화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빈부 갈등 등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동시에 요구받던 상황에서 대두되었다. 한편 뒤르켐의 시민 사회론은 프랑스 혁명 이후 사익 추구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던 프랑스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헤겔과 뒤르켐 모두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으나 두 학자가 처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이 다르므로 인해 두 이론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주제]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는 사회 이론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논지는 사회 이론이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헤겔과 뒤르켐의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헤겔과 뒤르켐 모두 시민 사회와 직업 단체에 대해 이론을 펼쳤지만 두 사람의 이론은 상이한 성격을 갖는데, 이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에는 화제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헤겔과 뒤르켐의 시민 사회론은 모두 이 글의 화제인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③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반증이 되는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쟁점이란 논쟁의 중점 사항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글에는 논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헤겔과 뒤르켐의 두 사례를 들어 논지를 펴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산업 자본주의가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헤겔은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해결할 최종 주체는 국가라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뒤르켐은 사익의 추구가 극대화된 당시의 사회를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헤겔은 공리주의가 국익 증대에는 기여하지만 무한한 사익 추구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헤겔은 직업 단체가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뒤르켐 역시 직업 단체가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을 실현할 주체로 보았다고 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직업 단체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본 것은 뒤르켐의 견해를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헤겔이 제시한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이다. ④ 2문단에서 헤겔은 당시 프러시아 상황에서 사익 추구가 국부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공리주의를 긍정했다고 할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 것은 뒤르켐의 견해이다. ⑤ 2문단과 3문단에서 헤겔과 뒤르켐의 직업 단체는 모두 시민 사

회의 역할을 논하면서 제시된 이론이므로, 시민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4. 글의 주제 추론

정답해설 :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사회 이론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된다. 따라서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과 4문단에서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과학적 연구이지만, 그 이론이 탄생한 시대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② 4문단에서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③ 1문단과 4문단에서 글쓴이는 사회 이론이 시대적·역사적 조건, 현실의 문제 상황,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④ 1문단과 4문단에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25~26] 과학,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지문해설 : 이 글은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데, 타원 궤도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지게 된다.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심률은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작아지게 된다. 달의 타원 궤도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관측된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달의 공전 궤도로 인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을 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양 면이 가장 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된다.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하는데,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주제]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른 천문 현상의 변화

25. 글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천체의 공전 궤도에 존재하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궤도가 원 모양에 가까워지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적용해 보면, 달의 이심률은 0.055로 지구의 이심률인 0.017보다 크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가 현재의 달의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미세하게 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금환 일식은 태양이 달에 비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하게 가려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관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름달의 크기는 원지점일 때가 근지점일 때보다 더 작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고, 이와 반대로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설명하면서 이심률에 따른 조차의 변화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이심률 변화 전보다 1월의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7월의 원일점은 더 멀어지게 된다. 이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근지점에는 변화가 없고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짐으로써 A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지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게 된다. <보기>에서 A지점에서의 조차가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으므로 7월보다는 1월에 달과 지구의 거리가 더 가깝고 이에 따라 7월보다 1월에 조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근지점에 있을 때는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1월에 A지점에서는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근지

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커지게 된다. ③ 슈퍼문이 관측된 것은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퍼문이 관측될 때는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깝고 그에 따라 A지점에서의 조차도 더 커지게 된다.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지구가 더 타원 궤도로 공전하면서 원일점이 현재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 이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원지점에는 변화가 없고 지구가 태양에서 더 멀어짐으로써 A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27-30] 예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논외로 취급했던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반발하여 미감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달리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며,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칸트는 취미 판단에는 공통감이 전제로 작용하므로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의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 칸트의 취미 판단의 원리 및 의의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고 언급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하면서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와 관련하여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제의 적용 범위도 ‘규정적 판단’과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계’가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

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1문단에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선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없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에서 ‘권선징악’은 교훈적 내용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취미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용하다’는 실용적 유익성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이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③ [A]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해당하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⑤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액자식 구조’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맥락으로 끼어들었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1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언급하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규정은 규정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통의 미적 감수성을 전제로 한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통감은 미각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관적 보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여기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펼치다’는 ‘생각, 꿈, 계획 따위를 실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펼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끼어들다’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개입하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끼어들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퍼지다’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확산되다’는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퍼지다’와 바꿔 쓸 수 있다.

[31~45] 문학

[31-34] 갈래복합 - (가) 정철, ‘관동별곡’ / (나) 최익현, ‘유한라산기’

작품해설 : (가)는 정철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받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내용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관찰사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와 연군지정(戀君之情)과 같은 위정자로서의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자연에 동화되어 신선이 되고픈 개인적인 자아의 욕망, 그리고 두 자아 사이의 갈등과 해소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풍경 묘사와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나)는 조선 말기에 최익현(崔益鉉)이 지은 한라산 기행문으로 『면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한라산을 등정하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하여 등반 과정, 백록담의 풍경, 정상에서 의 감회, 한라산의 주변 풍경 등에 대해 묘사한 후 한라산의 형세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주제]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

31. 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여정에 해당한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곳을 간단히 나열하는 한편 서술어는 ‘너머 디여’로 최소화하여 여정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노국이 좁은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라는 의미로 성현(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넙거나 넓은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개와 높은 경지를 떠올리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② ㉢의 ‘더 디워’는 천하를 작다고 했던 성현(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화자가 헤아릴 수 없는, 성현의 높은 기개와 정신적인 경지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③ ㉣의 ‘삼일우’는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살려낼 수 있는 소재로서 죽어가는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이 백성(민초)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은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정치적인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남여(藍輿)’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의미하고 ‘완보(緩步)’는 ‘느린 걸음’을 뜻하므로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행이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내려온 내용과 하인들이 식사 준비를 완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와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주위가 1리 남짓하고~얼음이었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등에서 작가의 소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와 같은 간략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는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인 ‘최고봉’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노흔 고래’, ‘은산을 것거 내여 육합의 느리는 듯’, ‘오월 장천의 백설’ 등을 통하여 ‘망양정’에서 바라본 물결과 파도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와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하수’는 ‘은하’를 강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A]에서는 폭포를 ‘은하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자연물인 물결과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는 ‘굽어보며’, ‘돌아보고’, ‘가리키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최고봉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의하면 ‘와유’는 글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간접 유람에 해당하고, ‘원유’는 실제 여행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직접 유람에 해당한다. (가)의 ‘이적선이 이제 이셔 고타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혀려니’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여산’을 직접 유람한 것이 아니라 이적선의 글을 통해 와유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화룡소’를 직접 보고 느낀 감회를 서술하였으므로 ‘관동별곡’을 읽은 다른 이들에게 와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나)의 글쓴이는 2문단에서 직접 ‘백록담’과 주변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원유를 통해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나)의 글쓴이는 4문단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최고봉의 모습을 서술한 후, 5문단에서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나)의 글쓴이는 5문단에서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37]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숙향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하늘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가 각각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고, 주인공인 숙향은 가혹한 시련을 겪지만 결국에는 천상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루게 되며, 예정된 행복을 누리고 다시 천상으로 복귀한다는 구조를 가진 애정 소설이다. 숙향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 영웅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전개를 보이고, 천상에서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어간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주제] 고난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35. 등장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숙부인'은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라고 하였으므로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땅은 명사계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 보셨나이 까?'와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옮게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하니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반은 죽은 사람이라.'라는 진술은 '숙향'의 심리를 드러낸 표현이 아니라 서술자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다. 따라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첩첩산중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새들마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오갈 데 없는 숙향의 힘든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에서 '숙향'은 '파랑새'를 따라 가다 궁궐의 '큰 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후토 부인'이 있는 '명사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큰 문'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라는 진술은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므로 ㉣은 인물에게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원통'의 발언으로 '숙향'에게 일어난 사건의 자초지종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B]에서 '후토 부인'은 자신을 '한낱 조그마한 신령'으로, '숙향'을 '월궁의

으뜸 선녀'로 칭한 후,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의 일시적인 고생을 겪더라도 본래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의 '천상에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 어찌 하시나이까?'라는 진술은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④ [C]의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⑤ [C]의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에는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38-42] 현대소설 - 현진건, '무영탑'

작품해설 : 이 소설은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 사랑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무영탑'은 설화에 얽힌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 현진건은 한 석공의 예술혼과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하여 석공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이겨내고 신라 시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석가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현진건은 '유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제 치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려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려는 유종의 내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의 중략 앞부분에는 '주만'의 혼사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는 '유종'의 내적 갈등이, 중략 이후에는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는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윗글에서는 "한 나이나 젊었더면!"이 인물의 유일한 발언이다. 이는 고립무원의 처지인 '유종'이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내뱉는 발언이다. 아울러 '유종'은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윗글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유종'이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있고, '아사달'은 거룩한 부처님의 형상을 돌에 새기려 하고 있다. 따

라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의 아들 ‘금성’과 자신의 딸인 ‘주만’의 혼사를 막기 위해 ‘다른 데 정혼’을 하여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일 뿐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금지’로 대표되는 당학파가 당학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네들의 한문’이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삼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씩씩한 기풍이 당학에 지질리고 나라가 문약으로 흐른다는 ‘유종’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종이 ㉡을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유종’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서 사라지고 혼자만 외로이 남은 처지에 놓인 자신을 ‘무 밑둥’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 ③ ‘이 늙은 향도’는 화랑도를 숭상해 온 ‘유종’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인 당학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그럴 만한 인물’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가리킨다. ‘유종’은 당학파에 맞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회복하려고 하므로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는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처럼 ‘주만’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B]는 자신을 떠나 보내는 ‘아사녀’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을 뿐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 두 얼굴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눈을 번쩍 뜨고, ‘원불’ 상을 돌에 담아내고 있다. 이는 ‘주만’과 ‘아사녀’로 인해 번민하던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떨치며 종교적 세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으므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를 비판하면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바로세우기 위해 화랑도 사위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은 죽은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는 ‘아사녀’에 대한 ‘아사달’의 사랑과 그의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 현진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유종’은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외세를 추종하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사달’은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에, ‘아사녀’를 샬넉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에 빛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낀다. 이는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원불’ 상을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빛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윗글에서는 ‘아사녀’의 얼굴과 ‘주만’의 얼굴이 녹아들어 ‘거룩한 부처님’ 모양으로 변한 것이 ‘원불’ 상으로 새겨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서 ‘아사녀’는 ‘아사달’을 찾아왔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었다. 이는 ‘아사녀’가 석공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료 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 ‘그’는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 윗글에서도 ‘아사달’이 ‘아사녀’의 죽음을 계기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자료 1]과 [자료 2]에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지 않지만, 윗글에서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

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녀’가 석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다. 그러나 [자료 2]의 ‘못’은 ‘그’가 ‘아사녀’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지는 곳이며, 윗글의 ‘못’은 ‘아사달’의 아내인 ‘아사녀’가 죽은 곳이다. 따라서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3-45] 현대시 - (가)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최두석, ‘낡은 집’

작품해설 : (가)는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난 화자가 그리운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서성이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고향의 소식이나마 듣고자 한다. 그러나 전나무 우거지고 집집마다 누룩 뜨는 냄새 가득하던, 훼손되지 않은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고향을 잃은 민족의 슬픔과 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고향을 잃은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낸 작품이다. 부모와 동생이 사는 고향집은 ‘슬레이트 흙담집’, 제목 그대로 ‘낡은 집’이다. 여전한 고구마 뒤주와 벽에 매달린 메주들의 박치기는 화자가 애정을 갖고 고향집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허리 굽은 어머니’, ‘닭똥으로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에서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콩깍지로 군불을 피워 주는 어머니, 화자를 반겨 주는 동생, 아들을 위해 오리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장되지 않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주제] 고향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타까움

43.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가)의 2연에는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오가는 행인에게서조차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 화자는 고향집을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고향집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4연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에서 조상이 있는 공간은 화자가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뿌리인 고향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잠자는 조상을, 권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집 늙은이’와 슬픈 심정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나)에서 세상의

변화나 인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은 신세이며 (나)에서 화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에서 ‘전나무 우거진 마을’은 화자의 마음 속 고향의 모습이자 화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고향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화자가 내세우는 가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며 ‘차비 정도를 버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으므로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장꾼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서, 실상 고향 잃은 화자의 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독백조의 토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갈라지고 강물에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고향에서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가족을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로 지칭해 마치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텅 빈 집 안과 선뜩한 냉돌에는 가난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지우는 것은 화자의 슬픔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화자가 공감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고향을 떠난 이가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가)의 6연에서 고향이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가난한 농촌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에 그려진 고향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화자를 반가워하며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보여 주는 소재들이다. ⑤ (가)에서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에서 귀향은 이상적 공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와 (나) 모두 귀향의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01. ③ 02. ① 03. ②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①
 21. ① 22. ④ 23. ⑤ 24. ⑤ 25. ④ 26. ②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⑤ 32. ④ 33. ① 34. ② 35. ① 36. ⑤ 37. ④ 38. ② 39. ⑤ 40. ③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1~5] 화법

[1~2]

1.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학생1’은 ‘학생2’가 홍보지 제작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 일을 잘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다는 학생1의 말에 동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② 고개를 젓는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며 ‘안 될 것 같아.’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이다. 이들은 모두 토요일에 연습하자는 ‘학생2’의 말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낸다. ④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 수 있을까?’에는 상대방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무대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는 ‘학생1’의 말을 반복하여, 상대방이 앞서 한 말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A]에서 ‘학생2’는 ‘학생1’에게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1’은 이 요구를 수용해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 만드는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학생1’은 이를 위해 ‘학생2’에게 홍보지 만드는 일을 도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2’는 이 요구를 수용해 ‘학생1’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학생1’과 ‘학생2’는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연습 시간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학생1’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더 하자는 ‘학생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③ [A]에서는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④ [A]와 [B] 모두 ‘학생1’과 ‘학생2’의 공동의 문제인 공연 연습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⑤ [A]에서는 ‘학생1’이 대화에서 제시된 안을 종합해 ‘수요일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자는 내용을 끝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B]에서는 두 사람 모

두 제시된 안을 종합하고 있지 않다.

3.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설명하려는 대상인 ‘처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1문단의 ‘먼저, 처마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그 뒤로 처마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에서 발표자가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ㄷ: 2문단에서 처마가 있는 한옥과 ‘서양식 주택’을 비교해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ㄴ: 1문단의 ‘지난여름에 저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하면서 ~ 알게 되었습니다.’에서 발표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ㄹ: 마지막 문단에서 발표자는 처마의 기능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4.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은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를 요약해 메모한 것이다. 발표자는 계절과 태양 고도의 관계 및 처마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사실적 정보를 제시했을 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메모에도 제시된 정보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발표를 듣는 학생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한옥의 벽과 기둥을 이루는 흙과 나무가 물에 약하다는 사실은, 벽과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처마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 학생은 두 정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메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처마의 첫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발표자가 반복했음을 메모한 것으로 보아, 이 학생은 발표자가 강조한 내용에 주목하여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처마의 기능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 것은 발표 내용을 자기 경험과 관련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학생은 처마의 첫 번째 기능이 한반도의 긴 장마와 관련되며, 두 번째 기능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큰 한반도의 기후 특성과 관련됨을 파악하여, 두 기능이 모두 한반도의 자연 환경을 고려한 것임을 메모하였다. 이로 보아 이 학생은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을 비교하며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가 준비한 시각 자료가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자3은 매체 활용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까래’ 등 일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다고 하였으므로, 용어 설명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청자1은 처마가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발표자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청자1은 발표 내용과 같이 여름철 한옥이 시원한 것이 처마가 직사광선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창호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 아니다. ③ 청자2는 처마의 기능에 대해 무척 흥미롭게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발표 주

제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④ 청자2는 발표자가 청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해 고칠 부분이라고 말했으므로 발표자와 청중 간 상호 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6~10] 작문

[6~7]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의 다음 문장에서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었다’고 밝혔듯이 필자는 ㉠의 의미를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 했었지만, 밑줄 친 ㉡ 다음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소개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관련된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과 ㉡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공감을 드러냄으로써 보편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통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과 ㉡은 까치밥을 남겨 두시는 까닭을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변이다. 이를 ‘문제를 제기하는 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다른 생명들에게 겨울 날 힘이 되는 까치밥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인 ㉠과 ㉡에서 나눔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을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던 ㉠과 ㉡을 ‘이성적인 설명’, ‘감성에 호소하는 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의 앞에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렇게’로 지시하며 할머니에 대한 필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 전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필자의 유년 체험, 뒷부분은 필자의 현재 상황이다.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글의 전개 방법에 해당한다. ㉡ ㉣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다른 생명을 배려하셨던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용을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보다는 내용의 인과성을 드러내는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속어 사용에 해당한다. ㉣ 활짝 웃으시며 학생들의 성의를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고려할 때, ‘물리치다’의 의미가 담긴 ㉡보다는 남의 호의에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사양하다’가 보다 적절한 어휘이다. ㉤ ㉥ 앞부분은 나눔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효 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㉔는 문맥에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0]

8.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에서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으로 상업화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위축을 언급하고 있을 뿐 요리 프로그램에 심취한 시청자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부정적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의 경우, ‘여러 나라의 요리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요리 비법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㉕의 경우,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기본적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하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친숙함을 느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㉖의 경우, ‘요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㉗의 경우, ‘불필요한 간접 광고의 노출이 많아지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작문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듬원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중 매체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된 언급은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하라는 것은 작문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언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모듬원이 정한 중심 소재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글의 도입부에 중심 소재와 관련이 적은 요리 관련 서적의 판매량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중심 소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 내용은 작문 상황에 벗어난 조언이다. ④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요리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글의 흐름이 주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⑤ 작문 상황에서 글의 주제를 ‘~ 부정적 영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만약 초고에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내용을 긍정적 영향과 관련한 내용으로 바꿀 경우 글의 내용이 화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조언2’에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 중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요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A]의 앞에 인기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A]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앞서 언급된 내용에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A] 앞에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진술해야 조언2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②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내용이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된 상업화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위축과는 관련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④ 앞서 언급된 내용에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조언2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진술해야 한다. ⑤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는 조언2가 제시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은 동화이다. 왜냐하면 조음 위치로 양순음이고 조음 방법으로 파열음인 ‘ㅂ’이 조음 위치로 치조음이고 조음 방법으로 비음(콧소리)인 ‘ㄴ’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로 양순음이고 조음 방법으로 비음인 ‘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에서 ‘뽕’이 [뽡]으로 발음되는 것은 ‘ㅂ’이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은 채 뒤에 오는 ‘ㄴ’의 조음 방법과 같은 조음 방법으로 발음되어 ‘ㅁ’으로 변한 현상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ㄱ’이 ‘ㄲ’으로 발음되는 것은 ‘ㄷ’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ㄲ’은 ‘ㄷ’과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가 아니다. ② ‘ㅎ’과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되는 것은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합쳐져 줄어든 음운의 축약으로서 음운의 교체인 동화 현상이 아니다. ③ ‘흠네[흠레]’는 우선 ‘ㄷ’이 탈락하고 앞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뒤의 ‘ㄴ’이 ‘ㄹ’로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ㄴ’이 ‘ㄹ’로 동화된 것은 ‘ㄷ’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⑤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이 되었다는 것은 [뉘더라]로 발음된다는 뜻인데, 이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음절 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은 국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뉘더라]를 억지로 발음한다 해도 ‘뉘더라[널떠라]’와는 다른 발음이므로, 이 답지의 진술은 틀린 것이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는 낯선 사람이 사귀는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문이다. 그 예문은 ㉡의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는 다른 사람과 ‘일 따위를 함께’ 하는 뜻을 드러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문이다. ③ ㉢은 모두 격 조사로서의

의미를 보인 것이다. 보조사나 접속 조사로 보기 어렵다. ④ ‘과’의 유의어인 ‘하고’와 마찬가지로 ‘이랑’도 “닭{하고, 이랑} 오리는 동물이다.”, “책{하고, 이랑} 연필을 가져와라.”가 성립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앞말이 받침 있는 체언일 경우에는 ‘과’가 쓰이고, 앞말이 받침 없는 체언일 경우에는 ‘와’가 쓰인다. 곧 앞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과’가, 모음으로 끝나면 ‘와’가 쓰인다. 예컨대 ‘말과 소’에서는 ‘과’가 쓰이지만 ‘소와 말’에서는 ‘와’가 쓰인다.

13.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에서 ‘뿌리’는 자연물 ‘뿌리’가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에서의 ‘뿌리’는 자연물 자체를 드러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에서의 ‘별’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에서의 ‘별’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②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에서의 ‘번개’는 자연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에서의 ‘번개’는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④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에서의 ‘태양’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에서의 ‘태양’은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⑤ ‘들판에는 풀잎마나 이슬이 맺혔다.’에서의 ‘이슬’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에서의 ‘이슬’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보기 2>에서 바뀐 부분은 세 군데이다. 첫째,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뀌었다. 이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둘째,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가 ‘청소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각 지역’처럼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로 쓰는 것은 ‘각 지역에 소통하고 답사하다’와 같이 서술어를 꾸며 준다는 뜻인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셋째,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이 첨가되었다. ‘답사하다’라는 동사가 누가 어디를 답사하는지 밝혀 주어야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빠져 있다. ②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

다. ㉓ ㉔과 ㉕이 빠져 있고 ㉖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㉗ ㉘이 빠져 있고 ㉙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15.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각 품사의 기능 파악, 부정 표현 파악, 문장의 종류 구분
정답해설 : ㉚은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로서 대명사가 아닌 감탄사이다. 대명사로서의 ‘저기’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쓰이지만 이 예는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정답 ㉛

[오답피하기] ㉜ ‘끊은 게 아니고 끊어진 거’라고 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일 경우에는 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㉝ ‘아차’라는 감탄사는 어떤 것, 특히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㉞ 어떤 이의 능력 부족이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는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 ㉟ “자세히 말해 볼래?”는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말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문장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있는데 이를 간접 표현이라 한다.

[16~30] 독서

[16~18] 과학, ‘지문 인식 시스템’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문 인식 시스템의 원리와 종류, 그리고 그 인식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문은 손가락 표피의 융선과 골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흐름의 모양을 가리키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지문 인식 시스템에는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등이 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일반적인 생체 인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의 과정을 거쳐 사람의 신원을 판정한다.

[주제] 지문 인식 시스템의 원리와 종류, 인식 단계

16.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의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에 따르면,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프리즘을 필요로 한다는 ㉜의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㉜

[오답피하기] ㉝ 1문단의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에 따르면, 정맥이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될 수 없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㉞ 5문단의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에 따르면,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초전형 센

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에 더 유리하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④ 3문단의 ‘용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 건성 지문인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에 따르면, 용선 모양의 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온전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⑤ 5문단의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 마찰열이 발생하여 용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에 따르면,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야 양호한 지문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진술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17.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손가락 피부의 ‘용선’은 솟아오른 부분, ‘골’은 파인 부분을 가리킨다. 4문단의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 관한 설명에서, 센서가 배치된 판에는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고, 손가락이 닿으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손가락이 센서에 닿을 때 손가락의 용선이 골보다 센서에 더 많이 닿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용선 부분에 막이 형성되고, 그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과 산란을 거쳐 약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선의 위치에서 반사된 빛이 골의 위치에서 반사된 빛보다 더 세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센서의 접촉면과 지문의 용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므로, 마찰열이 발생하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높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8.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의 ‘특징 데이터’가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라면(6문단 참조), <보기>의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의 ‘특징 데이터’는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로 볼 수 있다. 홍채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나, 이러한 변화로 두 사람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두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특징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손가락을 장치에 직접 갖다 대지만, 홍채는 각막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의 ‘전처리’는 지문 형태와 무관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영상을 보정하는 단계인데,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의 ‘전처리’ 때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를 분리하거나 무늬를 선명하게 보정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⑤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값을 기준치와 비교해 본다고 하였는데,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도 유사도를 판정하는 단계에서 기준치가 필요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9~21] 과학, ‘원자 모형에 대한 탐구’

지문해설 : 이 글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 시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설명하는 글이다. 과거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전자이다. 1897년에 톰슨이 기체 방전관 실험을 통해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를 발견하였다. 이후 1898년 퀴리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1911년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하는 실험을 통해 양전기를 띤 물질이 원자핵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후 1919년 러더퍼드는 질소 원자의 충돌 실험을 통해 원자핵 속의 양성자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하였다. 1932년 채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였고, 1935년 유카와 히데키는 원자핵 속에는 서로 밀어내려는 양성자와 이를 잡아당기는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서로 밀어내려는 양성자와 이를 잡아당기는 중성자로 원자핵이 구성되었으며, 이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공전한다는 원자의 구조가 그려질 수 있게 되었다.

[주제] 원자의 구성요소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발견

1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글을 통해 원자의 구조(서로 밀어내려는 양성자와 이를 잡아당기는 중성자로 원자핵이 구성되었으며, 이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공전한다)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정보는 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을 통해 양성자는 전자보다 대략 2,000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4문단을 통해 중성자는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질량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전자는 음전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3문단을 통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4문단을 통해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전자는 1897년에 톰슨에 의해, 양성자는 1919년에 러더퍼드에 의해, 중성자는 1932년에 채드윅에 의해 발견되었다. ⑤ 4문단을 통해 원자핵 속에는 서로 밀어내려는 양성자와 이를 잡아당기는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3문단을 통해 이러한 원자핵이 주변의 전자를 잡아당겨 공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마리 퀴리가 천연 광물에서 라듐을 발견하였고, 이후 양전기를 띠는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로 방출하는 라듐을 이용하여 러더퍼드가 금박 충돌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양전기가 아주 좁은 구역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구역을 ‘원자핵’이라 하였다. 따라서 라듐이 발견됨으로써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이해은 절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은 이미 발견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관계, 즉 핵 속에서 반발력을 가지는 양성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이다. ③ 양성자가 핵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한 사람은 유카와 히데키다. 채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다. ④ 19세기 말 전자가 발견되면서 톰슨이 ‘건포도빵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후 20세기 초 원자가 발견되면서 ‘태양계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⑤ 알파 입자가 금박의 일부분에서 튕겨 나간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양성자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고르다’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으며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지 ㉡의 ‘고르다’도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적당한 단어를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동사로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목소리를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동사로 ‘목소리 또는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판판하게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동사로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날씨가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형용사로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2~26] 인문,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를 제시한 후 둘을 비교하고 있다. 도덕 실재론은 도덕적 판단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정서주의는 도덕적 판단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하는 명제로 나타낼 수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옳음과 옳지 않음으로 보고 있다.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보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나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감정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주제] 도덕 실재론과의 비교를 통해 이끌어 낸 정서주의의 의의 및 한계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라)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하는 도덕 실재론보다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정서주의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정서주의에서는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라)가 도덕 실재론의 장점과 의의를 정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규범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인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보는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서주의의 견해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나)에 따르면 도덕 실재론은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한다. (다)에 따르면 정서주의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하고, ‘옳음’의 판단은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이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은 도덕 실재론이 아니라 정서주의의 입장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 따르면 메타 윤리학은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을 다루는 연구 분야이다. ② (다)와 (라)에 따르면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보며,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은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고 본다. ③ (다)에 따르면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④ (가)에 따르면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도덕적 판단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나)에 따르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에서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ㄱ), (ㄴ)의 예술적 판단에 대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으므로 도덕 실재론자인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서주의에서는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므로 정서주의자인 A는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참으로 판정된 명제는 도덕적 진리로 보고 있으므로 도덕 실재론자인 B는 예술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서주의자인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ㄱ), (ㄴ)의 예술적 판단에 대해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 실재론이다. ⑤ 도덕적 진리가 없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서주의이다. 따라서 (ㄱ)과 (ㄴ)을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정서주의자인 A이다.

26.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규정(規定)’의 사전적 뜻풀이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이다.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은 ‘규제(規制)’의 사전적 뜻풀이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판정(判定)’의 사전적 뜻풀이는 ‘판별하여 결정함.’이다. ③ ‘합의(合意)’의 사전적 뜻풀이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이다. ④ ‘제기(提起)’의 사전적 뜻풀이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이다. ⑤ ‘배치(背馳)’의 사전적 뜻풀이는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남.’이다.

[27~30] 사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으로 나눈 뒤 각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같은 행정적 수단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요구됨을 제시하고, 이 제도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에

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을 더하여 배상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히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은 피해자에게는 횡재이며,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횡재'를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 부과 방법으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4문단과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사례를 들고 있거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찬반 논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수단에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수단으로서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될 경우' 기업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손해 배상이 있다는 것을 들고,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

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벌금'은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제도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므로 ㉠은 형사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벌금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키므로 ㉢이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에서 사용된 '이 제도'는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황재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0.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보기>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금에다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포함하여 받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윗글 2문단에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경우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고, 4문단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 배상에다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보기>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규정이므로 <보기>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커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의 규정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기>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위백규 ‘농가(農歌)’/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작품해설 : (가)~(다)는 모두 농촌 생활을 중심 소재로 삼아, 양반사대부가 지은 노래이다. (가)~(다)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농촌은 건강한 삶의 터전이자 노동의 현장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작품의 주된 내용도 농가의 일상이라 할 수 있는 농사일과 관계되어 있다. (가)는 일종의 ‘권농가(勸農歌)’로서 화자는 작품의 앞 부분에서 농촌의 정겨운 아침 풍경을 제시한 뒤, ‘소 치는 아이’에게 농사일을 부지런히 할 것을 타이르듯 부드러운 어조로 권유하고 있다.

[주제] (가) 농사를 부지런히 할 것을 권유

(나)는 농가(農歌)의 생활과 농사일의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연시조(전 9수) 중 일부로서, 한자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촌의 일상어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나)의

제2수와 제3수는 노동의 풍경과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제4수는 부지런히 일한 뒤에 만끽하는 휴식의 즐거움을 흥취 있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나) 농가(農家)의 생활과 농사일을 하는 즐거움.

(다)는 1월에서 12월까지 그 달에 해야 할 농사일과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을 담고 있는 월령체 가사(전 13장)로서, 농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농부가 해야 할 바람직한 일들을 명령형·청유형 어미를 사용해 노래한 작품이다.

[주제] (다) 각 달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세시풍속 소개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노고지리 우지진다’, (나)의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다)의 ‘뻐국새 자주 울고’와 ‘피꼬리 노래한다’와 같은 표현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다)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② (나)의 <제2수>는 농가의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생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는 초여름을 배경으로, 자연에 넘쳐흐르는 생명력을 그려 보이고 있으므로 ‘소멸의 이미지’와는 무관하다. ③ (나)의 <제3수>는 부지런히 일한 뒤에 누리는 휴식의 기쁨을 묘사한 작품으로,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제4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다)에 묘사된 ‘비 온 끝에 별’이 나는 ‘화창’한 날씨는 ‘4월이 농사일을 하기에 적절한 때(농사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농사일의 괴로움’과는 무관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지금이 밭일을 나가야 할 이른 아침임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② ㉡은 농사일을 하러 나가는 농가의 일상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은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과 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며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농가의 식구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 집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농번기의 농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된 작품은 (다)이다. (다)는 4월에 심고 기를 만한 작물로 목화, 수수, 동부, 녹두, 참깨를 열거하고 있다. (나)에는 이러한 작물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제4수>에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다)는 그 달에 해야 할 농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휴식의 즐

거움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다)는 (나)와 달리, '보리', '수수' 등 먹는 것과 '누에 치기', '목화' 등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나타나 있다. ④ (나)와 (다)의 화자는 '건강한 노동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을 묘사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모두 농촌을 배경으로, 일하는 농부들의 일상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34~37] 현대소설 - 김유정, '봄·봄'

지문해설 : 1930년대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배경은 1930년대 어느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이다. 이 작품은 구성이 특이하다.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의 회상에 의해 진행되는데,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한다. 즉, 시간적 순서가 부분적으로 뒤바뀔으로써 '장인님'과 '나' 사이의 갈등을 유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나'의 갈등을 그리고 있지만 삶의 현실을 따듯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장인과의 갈등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작품 전반에 웃음이 넘치게 하고 있다. 딸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속보이는 술책, '나'를 충동질하는 점순이의 당돌함, 장인의 술책에 맞서 보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우직함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해학적 모습이 잘 드러난다.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의 해학적 갈등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와 장인과 대립하고 있던 중에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년 이맘때'의 사건, 즉 장인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나'가 태업을 하자 장인이 장가를 들여 주겠다고 회유했고 '나'가 이에 넘어갔던 사건을 회상한다. 그러한 회상을 통해 '나'가 점순이와 혼인하기로 하고 장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인물임이 드러나며,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이 회상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의 병치로 볼 수 없다. ③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어서 현학적 표현을 찾기 어렵다. ④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⑤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35.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종알거렸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이로 미루어 점순이는 성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나'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은 ‘장인님’이 ‘나’에게 ‘큰소리할 계제’가 아님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술된 것이다.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일만 시키고 점순이와 혼례를 시켜 주지 않는 데 있다. ④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인들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다. ⑤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36. 구절의 기능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점순이가 겉으로 보이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진 듯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욕필’이라는 별명이 본명인 ‘봉필’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② ㉢은 괄호를 제거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③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 소유의 소에게 대신 표출하는 중인데, ㉣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은 점순이의 행동 특성에 대해 장인이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평가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밭’에서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소에게 풀고 있다. 점순이는 ‘나’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인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많았다면 소작인들이 안정적으로 소작하기 어려워,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② 장가를 들여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논’에서 이틀 걸릴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노래를 하는 등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⑤ ‘이날’은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혼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38~4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홍계월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남장을 한 여주인공 홍계월의 고행담과 무용담을 엮어놓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이다.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또다시 중책을 맡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등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활약상을 펼치는 여주인공을 통해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봉건적 가치관에 맞서는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과 활약상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어의’는 평국의 맥이 여자의 맥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천자’는 평국의 얼굴이 곱고 체격이 작아 여자처럼 보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평국이 여성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에서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십여 성을 항복 받고 장안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어의’이며, [B]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남관장’이다. 정황을 전달받는 천자가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A]에는 ‘천자’가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으나, [B]에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서는 ‘어의’가 ‘천자’에게 평국이 여자라는 것을 보고하고 ‘천자’는 이를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장면만 묘사되어 있고, [B]에서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어, [A]와 [B] 모두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A]는 ‘천자’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B]는 반란군이 ‘장안을 범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아야 하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은 흥계월이 혼인한 이후 규중에 거하였으므로 ‘천자’가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그리웠다는 말이다. ‘규중에 처’한다는 것은 흥계월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므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규중에서 흥계월은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흥계월이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치하’는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을 표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㉔은 평국과 보국이 여공에게 엎드려 절하며 먼 길을 와 준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② ‘경동’은 ‘매우 놀라 움직인다’는 말이므로 ㉔은 흥계월이 아픈 사실에 집안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밤낮으로 치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느낀다’는 말은 ‘서럽거나 감격에 겨워 운다’는 말이고, ‘종횡한다’는 ‘거침없이 마구 오간다’는 말이므로 ㉔은 부모 앞에서 서러움에 겨워 눈물을 터트리는 흥계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지금은 혼인하여 규중에 거하며 여성으로 살고 있는 흥계월을 다시 불러내어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는 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평국과 보국이 천자의 명에 따라 한 궁궐에 거하면서 ‘위의나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로 인해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는 내용은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기>에 의거할 때, 흥계월에게 닥친 2차 위기는 보국과의 혼인 이후 규중에서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천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천자가 남관장의 장계를 보고 크게 곤란하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는 자리에서 우승상 명연태가 ‘좌승상 평국이 방비하올 것’이라며 홍계월을 추천하고, 다른 신하들도 평국의 ‘이름이 조야에 있’다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장면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평국이 어의가 다녀간 후 ‘본색이 탄 로날’ 것을 짐작하고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도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위공과 정렬 부인이 여공에게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여공이 어린 시절 1차 위기에 처한 홍계월을 구하여 도와준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⑤ 혼인 이후 여성으로서 살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는 명을 받는 부분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43] 현대시 - (가) 고은, ‘성묘’ / (나)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지문해설 : (가)는 분단에 대한 참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있다. 화자의 아버지는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전국을 돌며 소금을 팔았다. 그런 아버지가 다시 남북을 돌면서 소금을 팔 수 있도록 남북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주제] 조국 분단의 한과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나)는 산문의 형태의 시로, ‘외할머니네 집 뒤편 ~ 먹오딧빛 툇마루’라는 공간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 그 툇마루는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화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는 곳이다.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화자에게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보호로 위안과 치유의 공간으로 가슴 속에 남게 된다. 또한 툇마루를 통해 화자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질책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외할머니에 대한 신뢰도 보이고 있다.

[주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4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 ‘하얀 소금’ 등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나)도 ‘먹오딧빛 툇마루’에서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행,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와 21행 이후의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이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는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변주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

의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으나, (나)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가), (나)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觀照)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③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러 간 인물이므로 성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가)는 동화적 분위기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에는 아버지가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남북통일)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로 감상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떠돌던 공간인 것은 맞지만, (가)의 화자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오늘날 이 땅에 남지도 않은 사실을 슬퍼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화자에게 ㉠은 빼앗긴 국토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남북분단의 차원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은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이 땅’을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화자가 가업을 잇는 것과는 무관하다.

4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집 뒤편’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숨을 바로 하’던 공간이다. 이러한 할머니의 사랑과 위안을 바탕으로 현재의 화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 뒤편’이 유년 시절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화자와 유년 시절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만들어진 ‘거울’은 ‘뒷마루’이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하는 것이 맞다. ③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찾아간 곳이 ‘뒷마루’이고 거기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장소이므로 위안의 경험과 관련된다. ④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⑤ 거울처럼 반짝이는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으므로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

[44~45] 극 - 이강백, '결혼'

지문해설 :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통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본질은 무엇인지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는가 하면,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극중 현실로 바꾸어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거나, 극 중 시간과 상연 시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는 공연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누군가를 사랑해 결혼한다면 정해진 시간동안 빌린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죽어서 이별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 의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4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는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여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것은 그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의 '회중시계'는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도 물건을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 후에 여자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은 '구둣발'로 상징되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동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 앞부분의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과 연결되어 결국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글의 하인은 대사가 없는 인물로 소통을 거부한 채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그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므로 여자의 등장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남자의 첫 대사 중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를 통해 남자가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② 하인은 무대에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남자의 초조감을 고조시키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발한다. ③ <보기>에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 되어 있는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후의 상황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 보여주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되돌아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남자가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말을 건네는 행동은 관객을 극의 진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어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①	06. ③	07. ⑤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③	24. ①	25. ⑤	26. ④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⑤	39. ④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1~5] 화법

[1~3]

1.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찬성 측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1의 입론 마무리 부분에 제시된 ㉠은,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모습을 제시하며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에서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에서는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은 입론 부분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의 물음은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2.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자료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반대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반대 2는 반대 신문의 첫 발화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찬성 1이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답한 것을 듣고 발언하는 부분이 [A]에 해당한다. 따라서 [A]에는 자료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말하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자료의 편파성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발화는 ㉤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찬성 1이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점검하려는 <보기>에 제시된 점검 사항에 어긋나며 토론의 흐름에도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 자료의 조사 시기에 관한 질문은 <보기>에 제시된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발화이다. ㉣ 찬성 1이 입론에서 한 발언에서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3.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반대 1의 입론에서 주장에 대한 네 번째 근거로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제시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는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에서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논제에 부합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토론에서 찬성 측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론에서 찬성 측이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 근거는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에 해당하여 찬성 측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② 찬성 측 입론의 뒷부분에서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 근거는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에 해당하여 찬성 측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③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 1이 입론에서 ‘팬덤 활동의 배타성’이나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를 근거로 언급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⑤ 찬성 1은 반대 측 입론에 이은 반대 신문에서 반대 측이 사용한 중독의 의미를 질문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라고 점검하고 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는 ‘중독’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여 상대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4~5]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학생1’은 ‘학생2’가 홍보지 제작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 일을 잘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다는 학생1의 말에 동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② 고개를 젓는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며 ‘안 될 것 같아.’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이다. 이들은 모두 토요일에 연습하자는 ‘학생2’의 말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낸다. ④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 수 있을까?’에는 상대방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

로 볼 수 있다. ⑤ 무대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는 ‘학생1’의 말을 반복하여, 상대방이 앞서 한 말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A]에서 ‘학생2’는 ‘학생1’에게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1’은 이 요구를 수용해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 만드는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학생1’은 이를 위해 ‘학생2’에게 홍보지 만드는 일을 도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2’는 이 요구를 수용해 ‘학생1’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학생1’과 ‘학생2’는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연습 시간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학생1’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더 하자는 ‘학생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③ [A]에서는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④ [A]와 [B] 모두 ‘학생1’과 ‘학생2’의 공동의 문제인 공연 연습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⑤ [A]에서는 ‘학생1’이 대화에서 제시된 안을 종합해 ‘수요일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자는 내용을 끝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B]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제시된 안을 종합하고 있지 않다.

[6~10] 작문

[6~8]

6.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다. ③의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의 초고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에 관한 내용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해 무관심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지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최근 국외의 ○○ 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조선 덕종어보가 우리나라로 공식 반환되었다.’라는 진술은 ‘국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최근 사례에 해당한다. ② 3문단의 전체 내용은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을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④ 4문단의 ‘민간단체를 통한 기증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진술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⑤ 5문단의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국외 문화재의 환수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술은 ‘기대 효과를 언급’하여 결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수집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시한 후 초고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쓸 때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항의 표 왼쪽에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국외 문화재의 소재국가가 편중되어 있고, 정부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가 민간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소재가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 증가 폭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의 수량 증가 폭이 미미하다는 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는 사실 여부만 따진다면 셋 모두 적절하다. 하지만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의 바로 앞 문장을 고려할 때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환수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국외 문화재가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이 좋지 않은 것과는 관련성이 적다. ㉡ 국외 문화재 환수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이 좋지 않은 것과는 관련성이 적다. ㉢ 민간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의 증가 폭이 정부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보다 크지 않은 것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수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래프의 내용은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의 수량이 적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8.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초고를 보완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문제 삼아,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문화재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금전적 기준(비용)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국외 문화재 환수 비용 내용을 추가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하는 것은 <보기>의 입장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다)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더 적절한 내용이다. ㉡ ‘문화재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제시’한다고 하여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외 문화재를 환수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국외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리려면 환수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것보다 외국에 그냥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외 문화재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된다는 내용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문화재는 환수할 필요가 없다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문화재 환수는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여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 <보기>의 주장이

‘공공 기관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가하여’도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의 다음 문장에서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었다’고 밝혔듯이 필자는 ㉠의 의미를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 했었지만, 밑줄 친 ㉡ 다음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소개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관련된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과 ㉡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공감을 드러냄으로써 보편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통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과 ㉡은 까치밥을 남겨 두시는 까닭을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변이다. 이를 ‘문제를 제기하는 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다른 생명들에게 겨울 날 힘이 되는 까치밥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인 ㉠과 ㉡에서 나눔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을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던 ㉠과 ㉡을 ‘이성적인 설명’, ‘감성에 호소하는 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의 앞에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렇게’로 지시하며 할머니에 대한 필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 전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필자의 유년 체험, 뒷부분은 필자의 현재 상황이다.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글의 전개 방법에 해당한다. ㉡ ㉤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다른 생명을 배려하셨던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용을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보다는 내용의 인과성을 드러내는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속어 사용에 해당한다. ㉣ 활짝 웃으시며 학생들의 성의를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고려할 때, ‘물리치다’의 의미가 담긴 ㉤보다는 남의 호의에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사양하다’가 보다 적절한 어휘이다. ㉥ ㉥ 앞부분은 나눔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효 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는 문맥에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엿지만’을 [언찌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얹을 수록’은 어간 ‘얹-’과 어미 ‘-을수록’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안즐쑤록]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수록’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품을 적에’를 [푸믈찌게]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ㄱ’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넓거든’을 [널꺼든]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얹을지라도’는 어간 ‘얹-’과 어미 ‘-을지라도’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얹블찌라도]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라도’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신깁네요’를 [신깁네요]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밧지도’를 [밧찌도]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비웃을지언정’은 어간 ‘비웃-’과 어미 ‘-을지언정’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비웃을찌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언정’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훑던’을 [훑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 [ㅌ]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적용

정답해설 : ‘ㄴ’ 뒤에 ‘-어’가 붙은 형태는 ‘내’로 줄어질 수 있으므로 ‘찌어라’는 ‘찌라’로 줄어질 수 있고 표기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찌라’는 틀린 표기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괴-’와 ‘-느냐’가 결합하는 것은 ‘ㄴ’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내’의 표기가 나올 수 없다. ③ ‘ㄴ’과 ‘-어’가 ‘내’로 줄어지는 것이므로 ‘꽤도’의 원래 말은 ‘죄어도’이고 이는 어간 ‘죄-’와 어미 ‘-어도’가 결합한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뵈-’와 ‘-어서’의 결합인 ‘뵈어서’는 ‘ㄴ’ 뒤에 ‘-어’가 오는 경우이므로 ‘뵈서’로 줄어질 수 있다.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하는 것은 ‘ㄴ’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내’의 표기가 나올 수 없다.

13.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는 고체인 초콜릿이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된 상태를 진술한 문장이므로 이때의 ‘녹다’는 ‘녹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이 필수적이지 않다. 또한 ‘녹다㉢’의 뜻일 경우에는 ‘...에’ 성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순식간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해당 문장의 ‘녹다’는 ‘녹다㉢’일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굳다’는 ㉠, ㉡을 통해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녹다’는 ㉡을 통해 동사로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시멘트가 굳다’는 ‘굳다㉠㉡’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녹다㉠㉡’의 반의어로 제시되어 있는데, ‘녹다㉠㉡’의 예시에서 ‘엿이 녹다’가 제시되어 있다. ③ ‘굳다㉢’는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을 굳게 달다’와 같은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녹다㉢㉣’은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와 같은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보기 2>에서 바뀐 부분은 세 군데이다. 첫째,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뀌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둘째,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가 ‘청소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각 지역에’처럼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로 쓰는 것은 ‘각 지역에 소통하고 답사하다’와 같이 서술어를 꾸며 준다는 뜻인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셋째,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이 첨가되었다. ‘답사하다’라는 동사가 누가 어디를 답사하는지 밝혀 주어야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이 빠져 있다. ②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③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⑤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15.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각 품사의 기능 파악, 부정 표현 파악, 문장의 종류 구분

정답해설 : ㉡은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로서 대명사가 아닌 감탄사이다. 대명사로서의 ‘저기’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쓰이지만 이 예는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끊은 게 아니고 끊어진 거’라고 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

위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일 경우에는 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③ ‘아차’라는 감탄사는 어떤 것, 특히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④ 어떤 이의 능력 부족이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는 ‘못’을 사용한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 ⑤ “자세히 말해 볼래?”는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말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문장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접 표현이라 한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은 ‘나랏’과 ‘을’의 결합인데, ‘ㅎ’ 종성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결합되었으므로 ‘ㅎ’을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 ‘나라흠’로 써야 한다. ㉡은 ‘깊’과 ‘스’의 결합인데, ‘ㅎ’ 종성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되었으므로 ‘ㅎ’이 나타나지 않아 ‘깊’로 써야 한다. ㉢은 ‘얹’과 ‘과’의 결합이고 ‘과’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인데, ‘ㅎ’이 뒤따르는 ‘ㄱ’과 어울리면 ‘크’이 되므로 ‘안과’로 써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③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④ ㉠, ㉡, ㉢의 어형이 모두 잘못 제시되었다. ⑤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17~30] 독서

[17~20] 인문, ‘장자(莊子)의 물아일체 사상’

지문해설 : 이 글은 ‘물아일체’ 사상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호접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를 잊는다’는 것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기 위해 두 편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두 편의 일화는 각각 ‘참된 자아’를 잊으면 안 되며,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어야 한다는 장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장자는 자아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하는 ‘물아일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 사상

1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장자』의 일화 두 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의 결론으로 제시된 물아일체 사상을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장자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이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글은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함으로써 자아가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행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아니라 자아와 만물의 합일을 위한 것이다. ④ 3문단에서 정적(靜寂)은 분별 작용이 사라진 텅 빈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적 상태는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경지이다. ⑤ 2문단에서 설명한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상태는 맹목적 욕망일 뿐이므로 지양해야 하지만, 3문단에서 설명한 텅 빈 마음인 정적의 상태에서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의 두 가지 상태가 상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흘린 듯 쫓는 이야기는, 맹목적 욕망일 뿐인 마음이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바깥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언급된 이야기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린 경우인데, 4문단에서는 이 이야기가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3문단의 이야기는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5문단에서 장자는 이 경지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3문단에서 명경지수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비유한 말이므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의 순자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므로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순자는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장자 식의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보기>의 순자는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자아를 잊고 장자의 ‘물아일체’, 즉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보기>의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편협한 자아를 잊어 마음속의 분별 작용이 사라져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자 사상이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보기>의 순자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한다고 해서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출현(出現)하다’는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인다.’라는 뜻의 단어로서 주로 시각적인 대상에 주로 사용된다. ㉠의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드러나다’는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의 ‘발현하다’와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미혹(迷惑)되다’는 ‘무엇에 홀려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홀리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수용(受容)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받아들이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탈피(脫皮)하다’는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벗어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초월(超越)하다’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뛰어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1~24] 사회,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체화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의 경우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할 가능성에 주목한 반면,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대에 닥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주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백과 바우만의 견해

21. 논지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의 개체화 현상과 관련하여 백과 바우만은 개체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백의 경우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보며, 개체화된 개인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하여 위기에 대응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반면 바우만은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며, 개체화된 개인들이 위험에 대한 공포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개체화가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개체화 현상에 대한 백과 바우만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념을 비판하며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한계와 의의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개체화 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22.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2문단의 내용을 볼 때,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개인의 자율성이 약화되면 개체화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이 글의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족 해체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이 글의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조건이 현대인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이 글의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현대의 위기에 개인 수준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고, 이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는 생각을 가졌음을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백의 경우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 보았는데, 이 위험 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 시대’는 개체화된 개인들이 현대의 위험에 대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위험 사회’라는 말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여 만들어낸 용어이다. ②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목하여 ‘액체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액체의 성격으로부터 이끌어 낸 말이다. ④ 백과 바우만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대를 ‘위험 사회’와 ‘액체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⑤ 백과 바우만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2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방치(放置)’의 사전적 의미는 ‘내버려 둬.’이다. ‘쫓아내거나 몰아냄.’을 의미하는 단어는 ‘축출(逐出)’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연대(連帶)’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이다. ③ ‘표출(表出)’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나타냄’이다. ④ ‘전락(轉落)’사전적 의미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이다. ⑤ ‘몰두(沒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이다.

[25~26] 과학, ‘우주의 암흑 물질’

지문해설 : 이 글은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 중 약 8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암흑 물질에 대한 개념은 1933년에 츠비키에 의해 제시되었다. 츠비키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크다는 사실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질량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 이후 1970년대에 루빈은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확증하였다. 루빈은 일반적으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 별의 공전 속력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속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관측 결과에 따라 중력을 보충해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였다. 나아가 2006년에는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된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통해 암흑 물질이 보통의 물질이나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제] 암흑 물질의 발견 과정과, 암흑 물질의 특징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츠비키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 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크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암흑 물질의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흑 물질은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⑤의 진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을 통해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과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 중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이 85%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을 통해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을 통해 암흑 물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서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 추가적인 중력은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을 통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공전 속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하는 것은 보통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은 추가적인 중력과 상관없이 보통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흑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중심부와 별의 공전 궤도 사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한 곡선이고, B는 실제 관측한 곡선이다. ② 계산된 A와 달리 실제 관측 결과가 B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계산에는 감안하지 않은 추가적인 중력 물질의 원천, 즉 '실종된 질량'인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③ 곡선 A는 암흑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그래프이다. 반면 B는 실제 관측 결과를 반영한 그래프로, 중심부 밖에서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심부 밖에서는 별을 당기는 중력이 A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⑤ 암흑 물질을 배제한다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속력도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 속력이 줄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속력이 감소해야 하는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멀리 떨어질수록 중심으로 당기는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즉 암흑 물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7~30] 사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으로 나눈 뒤 각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같은 행정적 수단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요구됨을 제시하고, 이 제도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에 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을 더하여 배상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히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은 피해자에게는 횡재이며,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횡재'를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 부과 방법으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4문단과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사례를 들고 있거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찬반 논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수단에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수단으로서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될 경우’ 기업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손해 배상이 있다는 것을 들고,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벌금’은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제도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므로 ㉠은 형사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벌금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키므로 ㉠이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에서 사용된 ‘이 제도’는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황재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0.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보기>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금에다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포함하여 받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윗글 2문단에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경우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고, 4문단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 배상에다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보기>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규정이므로 <보기>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커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의 규정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기>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나)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다)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지문해설 : (가)는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면서 입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입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입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장애물 때문인 것은 아닌지 연쇄법과 열거법을 통해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나)는 화자와 기러기 사이의 대화 형식을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입을 보러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와 달리, 화자는 입의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입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와 같이 이 시조는 화자와 기러기의 처지를 대비시켜 입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입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다)는 전문 소리꾼 외에 정선의 뱃사공, 보부상 등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료함과 피로를 달래기 위해 가창되었고, 함께 이동하던 사람들도 따라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용과 전파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작품에 접합되면서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되는 변이 작용을 일으키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노래 속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선 아우라지 나루를 사이에 두고 여량리의 처녀와 유천리의 총각이 서로 사랑하였다. 여량리의 처녀는 싸릿골 동백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날마다 유천리로 건너가 총각과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홍수가 저서 물을 못 건너게 되자 처녀가 이러한 상황을 원망하여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외기러기’는 화자의 말을 듣고 한양성에 잠깐 들러 화자의 처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입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없느냐는 물음은 단순히 시간의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입에 대해 묻는 형식을 통해서 입이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려 하는 것이지, 입과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 제시된 공간은 입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한 공간이며, (나)에서 입이 있는 곳으로 제시된 공간인 ‘한양성’에 대해서는 그 공간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D]에서는 변함없이 돌아오는 해와 달을,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 임과 대조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임이 떠나간 것을 자연 현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고비나 고사리와 같이 만물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임이 늙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은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임이 떠나는 것을 해가 지는 것에 빗대어, 임의 떠남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③ 동생이 묻고 언니가 답하는 방식으로 시집살이로 인해 고단한 여성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⑤ 임이 오지 않는 것은 임에게 자신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 하여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33.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는 화자가 기러기에게 소망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저’는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 둘의 관계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무쇠’ → ‘성’, ‘성’ → ‘담’처럼 시어나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배치되고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집과 가구들이, (나)에서는 식재료로 이용하던 식물들이 시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은 ‘못 오던다’와 ‘성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의 ‘전혀여 주렴’은 외기러기를, (다)의 ‘건네 주게’는 뱃사공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것이다.

[34~36] 현대소설 - 최일남, ‘흐르는 북’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80년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단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울에 기반을 둔 한 중산층 가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흐르는 북’은 이기적 삶의 세태를 배경으로 하면서 속물적 삶과 본원적 삶의 갈등을 예리하게 그려 내고 있다. 또한 할아버지(민익태), 아버지(민대찬), 손자(민성규)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북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세속적인 가치를 열렬히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성규’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성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인간이 잃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며, 현대인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에 대한 소설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모색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은 ‘성규’의 어머니의 발화인데,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에서 삽입되어 있다. ‘성규’의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편견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아들’, ‘며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구절은 ‘민 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많은 힐난을 내쫓고 있음’이라고 해석하여 며느리(‘성규’의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은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라고 집약된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갈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을 살펴보면,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던 과거의 시절에는 그래도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기도 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된 현재의 상황은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아들과의 ‘단절’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현재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④ ㉤의 앞 발화는 ‘성규’의 말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규’ 자신의 말은 둘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규’의 아버지는 이를 비꼬기 위해 ‘기특하’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라고 서술된 내용이다. 이 부분의 발화는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구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련된 입신’은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민 노인’이 아니라 ‘성규’의 아버지이다. 이 구절은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이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민 노인’의 소망이 아니라 아들, 즉 ‘성규’의 아버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로 볼 수 있다. ② ‘날씬한 생활’은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성규’가 지향하는 삶과 연관성이 없고, ‘성규’의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과도 무관한 구절이다. ③ ‘역사의 의미’란 ‘전 세대끼리의 갈등’을 ‘다음 세대’가 화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쾌적한 만남’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성규’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⑤ ‘비극의 차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3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④의 진술은 일단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성규’ 자신은 민 노인과 불화할 까닭이 없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규’의 아버지와 ‘민 노인’의 갈등은 ‘민 노인’의 예술 지향적인 삶을 ‘성규’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규’와 ‘성규’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중략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민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민 노인’은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37~4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지문해설 : 중종 때의 실존 인물인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도술에 능한 전우치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 당시의 부패한 정치와 당쟁을 풍자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등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필사본 이외에 여러 판본이 전해지는데, 주된 내용은 전우치가 도사를 만나 선도(仙道)를 배워 탐관오리들을 혼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등神通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생고를 고발하는 등 사회의식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나, 지나치게 도술에 의존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제시문에서도 전우치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주제] 전우치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부패하고 무능력한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3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임금은 전우치가 도적의 형세를 살피고 그들을 토벌할 계획을 정하겠다고 아뢰자 크게 기뻐하며 어주와 인검을 하사하고 있다. 임금은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그를 격려하는 의도로 어주와 인검을 하사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솔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④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집장과 나졸이 매를 한 대 친 후 팔이 아파 치지 못하는 사이에 전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 ⑤ 전우치는 마음속으로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전우치는 역모의 누명을 쓰게 되자 임금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를 내어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임금이 속아 넘어가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전우치의 원혼에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하여 결박을 풀어 주는 것이므로, ㉠과 ㉡은 전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함경도 가달산의 도적들이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전우치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임금 입장에서 도적을 토벌할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임금이 전우치가 역도로 거론되자 화를 내는 것으로 사건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임금이 분노하여 임금과 전우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임금과 전우치 사이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임금과 전우치의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에서 전우치는 혼자 도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전우치가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에서 전우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② 전우치는 엄준 토벌 삽화에서 솔개로 변신하고, 진언을 외워 수리(독수리)가 상을 걷어치우게 하고 광풍을 일으켜 차일과 병풍을 날아가게 만들고 있고, 역모 누명 삽화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도술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도술을 사용한다는 연결 고리를 통해 전우치의 행적이 펼쳐지고 있다. ⑤ 전우치가 솔개로 변하거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도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부

각하며 신비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0.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④는 엄준과 그의 부하들이 전우치의 도술로 인해 몹시 놀라고 당황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인 ‘혼비백산(魂飛魄散)’이 가장 어울린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③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41~43] 현대시 - (가) 고은, ‘성묘’ / (나) 서정주, ‘외할머니의 뒀안 툇마루’

지문해설 : (가)는 분단에 대한 참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있다. 화자의 아버지는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전국을 돌며 소금을 팔았다. 그런 아버지가 다시 남북을 돌면서 소금을 팔 수 있도록 남북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주제] 조국 분단의 한과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나)는 산문의 형태의 시로, ‘외할머니네 집 뒀안 ~ 먹오뎡빃 툇마루’라는 공간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 그 툇마루는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화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는 곳이다.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화자에게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보호로 위안과 치유의 공간으로 가슴 속에 남게 된다. 또한 툇마루를 통해 화자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질책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외할머니에 대한 신뢰도 보이고 있다.

[주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4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빃’, ‘하얀 소금’ 등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나)도 ‘먹오뎡빃 툇마루’에서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행,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와 21행 이후의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이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는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변주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으나, (나)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가), (나)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觀照)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③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러 간 인물이므로 성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가)는 동화적 분위기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에는 아버지가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남북통일)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로 감상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떠돌던 공간인 것은 맞지만, (가)의 화자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오늘날 이 땅에 남지도 않은 사실을 슬퍼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화자에게 ㉠은 빼앗긴 국토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남북분단의 차원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은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이 땅’을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화자가 가업을 잇는 것과는 무관하다.

4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집 뒤편’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숨을 바로 하’던 공간이다. 이러한 할머니의 사랑과 위안을 바탕으로 현재의 화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 뒤편’이 유년 시절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화자와 유년 시절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만들어진 ‘거울’은 ‘뒷마루’이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하는 것이 맞다. ③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찾아간 곳이 ‘뒷마루’이고 거기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장소이므로 위안의 경험과 관련된다. ④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⑤ 거울처럼 반짝이는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으므로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

[44~45] 극 - 이강백, ‘결혼’

지문해설 :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통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본질은 무엇인지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는가 하면,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극중 현실로 바꾸어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거나, 극 중 시간과 상연 시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는 공연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누군가를 사랑해 결혼한다면 정해진 시간동안 빌린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죽어서 이별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 의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4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는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여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것은 그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의 ‘회중시계’는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도 물건을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 후에 여자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은 ‘구둣발’로 상징되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동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 앞부분의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과 연결되어 결국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글의 하인은 대사가 없는 인물로 소통을 거부한 채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그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므로 여자의 등장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남자의 첫 대사 중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를 통해 남자가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② 하인은 무대에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남자의 초조감을 고조시키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발한

다. ③ <보기>에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 되어 있는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후의 상황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 보여주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되돌아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남자가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말을 건네는 행동은 관객을 극의 진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② 12. ⑤ 13. ① 14. ③ 15. ⑤ 16. ③ 17. ① 18. ② 19. ④ 20. ③
 21. ④ 22. ④ 23. ③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④ 29. ④ 30. ①
 31. ⑤ 32. ③ 33. ② 34. ⑤ 35. ③ 36. ② 37. ① 38. ④ 39. ④ 40. ①
 41. ① 42. ⑤ 43. ⑤ 44. ② 45. ③

[1~5] 화법

[1~2]

1.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지호는 ㉠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특강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승우와 자신의 공통된 경험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특강에서 들은 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지호는 승우에게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지를 직접 묻고 있다. ② ㉢에서 지호는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승우의 말을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③ ㉣에서 지호는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라는 발언을 통해, 승우에 대한 상황 추측이 반장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에서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등을 통해 지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학생’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으나 경희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것과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강사가 특강에서 소개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 중 ‘희소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라고 하였으므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은 경희루 내부 특별 관람이 한시적이며 소수 인원만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람을 결심하게 되었으므로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나,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위해 관람을 결심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은 '희소성'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추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

3.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학생1'이 발표 주제를 정하지 못해 고민이라며 좋은 생각이 없는지 묻자 '학생2'는 '휴보'라는 로봇을 발표 주제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생1'이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발표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자 '학생2'는 로봇이 인간의 삶에 주는 유익함을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학생2'는 '학생1'의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2'가 두 번째 대사에서 "이건 어때?"라고 묻는 것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다. ③ '학생2'는 주로 '학생1'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2'는 '학생1'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2'가 '학생1'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해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D]에서는 로봇으로 인한 인간 삶의 변화를, '초창기 로봇-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대화가 가능한 로봇'으로 이어지는 로봇의 발전사와 관련하여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로봇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기는 하나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기 등장하는 로봇은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입니다.", "사람과 비슷하네 참 신기하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진을 보여주며) 이 당시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014년에 국내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전망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메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은 자신이 본 영화 중 발표 내용과 관련된 한

장면을 떠올린 것이고, ㉞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발표 내용에 적용한 것이며 ㉟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 현상과 발표 내용을 연관지은 것이다. 따라서 ㉠~㉟의 공통점은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과 관련짓고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㉟ 모두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 ‘발표자가 언급했던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의 발표 내용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연관 짓고 있다. ㉣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발표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며 듣고 있다. ㉤ 발표자 의견의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6~10] 작문

6. 작문의 과정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글을 신는 매체는 ‘교지’로, 글을 쓰는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작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가)에서 밝혔듯이 글쓰이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나)에 이를 반영하였다. 글쓰이는 (나)의 첫째 문단에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등 네 가지의 항목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교지의 주요 독자층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들을 정의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며, (나)에서도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서 언급했듯이 글의 필자는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나)에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들의 정보 이용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④ 글쓰이는 (가)에서 언급했던 설문 조사의 결과를 (나)에서 ‘73%’, ‘18%’ 등과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정보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⑤ 글쓰이는 (가)에서 언급했던 정보 이용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대조와 가정의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지는 않았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와 관련된 자료인 ㉡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9%, ‘평가 방법을 몰라서’가 23%,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가 5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 ㉠는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에 관한 항목이고, ‘안한다’라

고 응답한 경우가 77%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㉔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㉕ ㉒에서 ‘평가 방법을 몰라서’가 23%,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가 54%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㉕는 ‘73%’를 ‘77%’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㉖ ㉑ ‘매우 높은 것’, ㉗ ‘드물었다’는 다소 추상적인 진술이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77%’, ‘4%’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라 할 수 있다. ㉘ ㉔에는 인터넷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18%’를 제외한 항목으로, ‘검색한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활용한다’ 77%와 ‘기타 5%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㉘는 ‘5%의 기타 의견을 제외한’을 보완하거나 ‘77%의 학생은 그대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8.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강구하다’의 경우 ‘대책을 강구하다’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반면 ‘강구되다’의 경우 목적어를 필수 성분으로 필요로 하는 동사는 아니다. ㉔의 경우, ‘태도 형성을’은 ‘위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강구될’을 ‘강구할’로 고칠 경우 어색하게 된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㉑의 경우, ‘이용이’가 서술어 ‘적극적이다’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도록 조사 ‘이’를 ‘에’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㉒ ㉑의 경우,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므로’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㉓ ㉑의 경우, 실태를 알아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연결 어미인 ‘~려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㉔ ㉑의 경우, 학생들이 정보 수용의 주체이므로 사동 표현보다는 주동 표현인 ‘수용하는’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글쓴이는 ‘비와 약속’에 대한 자신의 양면적 태도를 책에서 읽었던 ‘긍정적 농부와 부정적 농부’의 일화(逸話: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㉓에서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깨달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긍정적 마음이 글쓴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것의 사회적 의미가 제시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㉒ 긍정적 마음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언급되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장점에 대해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㉔ 긍정적인 마음이 글쓴이의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글쓴이의 과거 경험에 대해 동생이 지적하였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 ㉕ 긍정적 마음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가치는 언급하였지만 그것을 실용적 가치라 말하

기 어려우며, 행동의 실천을 다짐하였지만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10.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평소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의 거름’, ‘활력의 나무를 키운다.’고 표현한 것은 핵심 내용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비가 내려 꽃을 피우는 상황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를 ‘용서’와 연관 짓는 것은 핵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글의 내용에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제시되고 있지만 ‘공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핵심 내용이 ‘우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⑤ 긍정적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이 ‘이웃과 소통하는 삶’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의 사례를 통해 음운 변동의 종류를 제시한 후 같은 변동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의 ‘흙까지[흑까지]’에서 ‘흙’이 [흑]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른 것인데, ㉡의 ‘값싸다’가 [갑싸다]로, ‘닭똥’이 [닥똥]으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밥하고’가 [바파고]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먹히다’가 [머키다]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목걸이’가 [목꺼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따른 결과이다. ③ ㉢의 ‘잡고’가 [잡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굳세다’가 [굳쎄다]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솜이불’이 [솜: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에 따른 결과이다. ④ ㉡의 ‘듣는다’가 [든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따른 것이다. ‘겁내다’가 [검내다]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맨입’이 [맨닙]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에 따른 결과이다. ⑤ ㉣의 ‘칼날’이 [칼랄]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에 따른 것이다. ‘설날’이 [설:랄]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잡히다’가 [자피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결과이다.

12. 연결 어미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예문을 통해 동사 어간에 결합되는 연결 어미 ‘-(으)며’의 문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의 ㉠에서

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⑤는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가 의미적으로 어색하다는 점에서 ‘-(으)며’를 ‘-(으)면서’로 교체할 수 없고, 앞뒤 문장의 주어 ‘일부’가 서로 다른 집단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앞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⑤의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이것은 감이며 저것은 사과이다’, ‘남편은 친절하며 부인은 인정이 많다’에서처럼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④는 모두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는 점, ‘-(으)며’를 ‘-(으)면서’로 교체하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으)며’가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의 의미를 지니는 예문이다.

13. 각 품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자립 명사가 단위성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①이다. ①~⑤의 밑줄 친 명사는 모두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특정 대상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데, 이 중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의 ‘군데’는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등에서처럼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 명사로 항상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며, 자립 명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릇’은 ‘그릇을 비우다, 그릇을 씻다’ 등에서처럼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③ ‘덩어리’는 ‘덩어리가 지다,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진다’ 등에서처럼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④ ‘숟가락’은 ‘숟가락으로 먹다, 숟가락을 놓다’ 등에서처럼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⑤ ‘발자국’은 ‘발자국이 남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등에서처럼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자료>에서 수정 전후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비록 초보자일수록’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로 수정되었고, ‘그러서 작성할 수 있다’가 ‘그러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고쳐졌다. 전자는 ‘비록’이라는 부사어와 연결 어미 ‘-르지라도’의 정확한 호응을 고려한 결과이고, 후자는 ‘작성하다’의 목적어 ‘문서를’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은 결과이다. **정답 ③**

15.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일부 의문문과 청유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이다. ⑤의 ‘어디 보자’는 특정한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발화가 아니며,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B의 발화 ‘거기서 혼자 뭐 해요’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기다리는 행위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④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6~30] 독서

[16~18] 기술, ‘해시 함수의 특성과 이용’

지문해설 :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인 해시 함수를 소개하고, 그 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해시 함수는 입력된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입력 데이터에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 나온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해시 함수 중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하는 경우는 암호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방향성은 주어진 해시 값을 통해 원래의 입력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성질을 말한다. 충돌회피성은 서로 다른 입력 데이터가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경우(해시 충돌)가 생길 수 있지만, 충돌쌍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입찰 참여자가 입찰가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이 된다.

[주제] 온라인에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시 함수의 특성과 이용의 실제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해시 함수는 입력 데이터 x에 대해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입력 데이터가 같고, 함수가 같다면 동일한 해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함수가 달라지면 해시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해시 값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해시 함수는 입력 데이터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④ 1문단에서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특정 해시 함수 H를 적용하면 문자열의 길

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⑤ 2문단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상호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할 때, 발신자가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수신자는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얻은 해시 값과 비교하여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은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방향성을 가진 해시 함수를 적용한 해시 값을 가지고는 원래의 입력 데이터인 x, y 를 복원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1문단에서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없다 하더라도 x, y 의 해시 값 문자열 길이는 같다. ㉢ 입력 데이터 x, y 에 같은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으므로 ㉣과 상관없이 두 해시 값의 문자열 길이는 같다. ㉣ ㉣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력 데이터 x, y 의 해시 값이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 때문에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충돌은 입력 데이터 x, y 에 같은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같은 해시 값이 도출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의 성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입찰 참여자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게시한다고 하였다. 이때 해시 함수 G 가 일방향성을 만족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들이나 운영자는 게시판에 게시된 해시 값을 바탕으로 입찰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운영자는 마감이 된 후 입찰 참여자가 보내 준 입찰가와 논스를 통해 최고 입찰가를 알 수 있게 되므로 마감되기 전에는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A 는 논스의 해시 값인 r 과 입찰가에 논스 값을 더한 해시 값인 m 을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하지만, 입찰가 a 는 게시 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하면 된다. ㉢ 해시 값 m 과 n 이 같다는 것은 입찰가와 논스의 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r 과 s 가 다르다면 이는 A 와 B 의 논스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찰가가 같을 수는 없다. ㉣ 논스의 해시 값 r 과 s 는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이고, 해시 값을 통해 원래의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r 과 s 만으로는 입찰가를 비교할 수 없다. ㉤ B 가 게시판에서 m 과 r 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추적하여 입찰가를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게시판이 비공개로 운영될 필요는 없다.

[19~21] 과학, '산화 작용에 의한 지방질의 산패'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관련하여 산패의 과정과 그 지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패란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지방질 구성 성분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에 있는 탄소 간 결합이 단일결합이면 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이면 불포화 지방산이다. 글리세롤에 오메가-6 지방산만이 결합되어 있는 A 지방질이 있다고 했을 때,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의 탄소가 외부 에너지인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한다.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한다. 퍼옥시 라디칼은 주변의 지방산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그 자신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한다. 이러한 연쇄 반응으로 계속 생성되는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되면서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하는데,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냄새가 난다. 이러한 산패를 지연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디칼 분자가 다른 분자와 쉽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산화방지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주제] 산화 작용에 의한 지방질의 산패 과정과 그 지연 방법

19.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을 볼 때, 오메가-6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며 불포화 지방산에서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가 일어난다. 또한 3문단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의 산화 작용은 산패를 일으키는 시작점인 셈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볼 때, 지방산에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므로 이중결합이 있다. ② 2문단에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볼 때, 이중결합 구조는 포화 지방산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에 있다. ⑤ 2문단을 볼 때, 일반적으로 지방질 구조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2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을 볼 때, A 지방질의 분자가 변화한 라디칼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주위 분자들과 쉽게 반응한다. 따라서 A 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은 그 자체로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의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지, 자신이 속해 있는 A 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주위의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 4 문단을 볼 때, A 지방질의 분자가 산패되는 과정에서 홀수의 전자를 가지는 라디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을 볼 때, A 지방질의 산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된 화합물 중 하나이다. ④ 4문단을 볼 때, A 지방질의 산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이드로퍼옥사이드

는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분해되는데, 이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냄새를나게 하는 원인이다. ⑤ 4문단을 볼 때, A 지방질의 산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의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화한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 ‘받다’는 ‘빛, 별, 열이나 바람 따위의 기운이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③ ‘차가 난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의 ‘받다’는 ‘머리나 뺨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앞의 ‘받다’와는 다른 의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④ ‘일어나다’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주었다.’의 ‘일어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⑤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유리창에 빗방울이 무늬를 이루고 있다.’의 ‘이루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③ ‘주다’는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태풍은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의 ‘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⑤ ‘들다’는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이 물질에는 염화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다.’의 ‘들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22~26] 인문, ‘소비자 권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

지문해설 : 이 글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인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설명하는 글이다. 경쟁 정책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 기업이 생산적 효율을 추구함으로써 거기서 창출된 여력을 소비자를 위한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부되는 것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면서 발생한다. 독점 기업의 경우 생산적 효율 측면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리면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 정책은 일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음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소비자 정책으로 이것은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주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22. 설명 방식

정답해설 :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음을 들고, 경쟁 정책은 반경제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의 개념 정의와 유형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과 사례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소비자 정책 중의 하나가 주로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의 안전 기준의 마련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㉞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 소비자 정책의 조치이므로 경쟁 정책의 수단이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㉞은 개별 기업이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창출된 여력이므로 ㉞이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㉞은 경쟁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것

이므로,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은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 때문에 경쟁 정책을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내용이므로 ㉠이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에 관한 요구이므로 ㉠이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원산지 공개는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ㄱ은 소비자 정책, 5문단에서 소비자 정책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ㄴ은 소비자 정책, 5문단에서 소비자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ㄷ은 소비자 정책, 1문단에서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제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ㄹ은 경쟁 정책이다. **정답 ④**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의 의미이므로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세우다’와 바꾸어 쓸 수 없다. **정답 ⑤**

[27~30] 예술, ‘회화주의 사진’

지문해설 : 이 글은 단순히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사진의 위상을 회화와 같은 예술성을 갖춘 위치로 끌어올리려 했던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창작 과정과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 그리고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를 통해 스타이컨이 작품으로 내놓은 사진에 담긴 다양한 기법 속에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한 그의 노력이 녹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회화주의 사진을 추구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대리석상인 <빅토르 위고>는 로댕의 작품이다. 스타

이컨은 로댕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를 피사체로 삼았을 뿐 빅토르 위고가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회화주의 사진은 현실 재현의 수단이 아니라 사진작가가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사진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으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댕과 스타이컨이 조각의 역할을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의 작품은 밝은 원경과 어두운 근경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인화 과정에서의 처리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근경의 사진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이 아니며, 원경의 대상인 <빅토르 위고>만 따로 촬영한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로댕의 작품이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한 것은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해서이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작품은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은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한 스타이컨의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사진에서 원경에서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에서 벗어나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한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이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1~45] 문학

[31~33]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지문해설 : 이 소설은 평양 기생 옥단춘의 순정과 절의, 그리고 이혈룡과 김진희 사이의 그릇된 우정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에 찬 주인공의 처지가 마지막에는 행복으로 전환되면서 악인이 천벌을 받는 권선징악이 실현되어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 친구 간의 약속을 어긴 김진희의 배신이라는 요소와 이혈룡에 대한 옥단춘의 헌신과 신뢰 문제를 조명하면서 인물들 사이의 신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몰락한 사대부에 대한 기생의 동정적인 사랑과 몰락한 사대부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로 입신출세하는 모티프는 조선 후기 애정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로 볼 수 있다.

[주제] 영락한 사대부에 대한 기생의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한 복수

3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혈룡이 “소신과 같은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忠臣之子忠臣)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라고 말하는 것은 겸양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임금이 내린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쓸데없고’, ‘쓸데없구나’를 반복하여 김진희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내가 네 처지라면’을 통해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② ㉠

앞에서 옥단춘이 몸값을 후하게 준다며 이혈룡을 죽이지 말라고 사공들에게 부탁하자, 사공들은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잃었던 낭군 다시 본 듯’처럼 모친과 부인의 입장에 어울리는 직유법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④ ‘글을 지을 생각을 ~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까지가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준 것이고, 글자마다 비점을 찍고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행위는 임금이 이혈룡의 글을 읽고 그의 재능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다.

32.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이혈룡은 김진희의 ‘학정’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임금께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비밀스럽게 기록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이를 보고 수없이 탄식한 후에 이혈룡을 암행어사로 임명한 것이므로, ‘학정’은 사실대로 보고된 것이며,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혈룡은 과거의 글제인 ‘천하태평춘’에 대한 탁월한 답안을 제출해 장원급제를 한 것이다. ② 이혈룡이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 지위를 제수받게 되었으므로, ‘장원급제’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밀록’을 임금에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밀록’은 김진희의 학정 때문에 작성된 것이고, 김진희가 학정을 한다는 것은 천하(나라)가 아직 태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첫째 봉서 안에 이혈룡을 평안도 암행어사로 봉하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봉서’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김진희의 ‘학정’을 바로잡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옥단춘은 김 감사(김진희)가 이혈룡을 대동강 한가운데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혈룡을 동정하여 스스로 나서서 이혈룡의 목숨을 구한다. 그러므로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감사를 선택한 것도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옥단춘은 사공들을 회유하여 이혈룡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한을 핑계대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으므로 특별하고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지인지감’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옥단춘이 이혈룡의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녀가 지인지감을 소유했음을 알려준다. ④ ‘동시에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를 통해 이혈룡의 가족들이 조력자로서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연회장에서 처음 본 이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동정하여 사공들에게 후한 몸값을 주고 살리려는 옥단춘의 태도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다.

[34~38] 장르 복합 - (가) 신석정, ‘꽃덤불’ / (나) 전봉건, ‘사랑’ / (다) 한흑구, ‘보리’

지문해설 : (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졌던 삶의 다양한 태도와 모습을 성찰해 보고 있다. 이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고뇌가 잘 드러난다. 이 시의 제목인 ‘꽃덤불’은 우리가 새롭게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 국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더 나은 세계(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

(나)는 제목 ‘사랑’과 더불어 ‘사랑한다는 것은’을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함으로써 이 시의 화자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과목을 가꾸는 행위에 빗대어 사랑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은 저절로 아름답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과 맞서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연은 주로 사랑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고 3연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 지켜보는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보살핌과 지켜봄의 의미를 통해 바라본 사랑

(다)는 보리를 ‘너’라고 부르면서 보리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추운 겨울과 싸우기 위해 땅 속에서 굶하지 않는 의지로 견뎌내던 보리가 따뜻한 봄이 오자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리를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시련을 통한 성숙의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성실한 농부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예찬하고 있다.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예찬

34. 작품 간의 공통점

정답해설 : (가)의 ‘혈어진 성터’, (나)의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다)의 ‘어둡고 차디찬 눈 밑’ 등의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화자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다)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색채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 만한 대상이 없다.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대상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화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항상’은 ‘거룩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②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④ ‘아무리’는 적대적인 것들이 화자의 사랑을 위협해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에 가깝다. ⑤ ‘이미’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가)의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위협적인 대상에게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혈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④ ‘밤’은 부정적 상황이므로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꽃덤불’과 ‘새 과목’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3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사랑의 의미’라는 (나)의 주제로 볼 때 ㉠은 1행으로 이루어져 1연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와 단서로 기능하고 있고, 첫 연과 끝 연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다룬 내용을 찾기 어렵다. ③ ㉠에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고, ㉡는 비교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 않다. ④ ㉠과 ㉡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다. ⑤ ㉠과 ㉡ 모두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과 무관하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은 ‘온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②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③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보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노고지리들이 보리에 보금 자리를 틀어 놓는 것과 연결되므로 보리와 다른 자연물들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39~42] 현대소설 - 허준, '잔등'(殘燈)

지문해설 : 허준의 '잔등'은 1946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 1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해방 직후 사회의 풍경을 객관적·사실적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여로형 소설'이다. 징용에 끌려갔다 해방을 맞이한 주인공(화자)이 친구 '방(方)'과 함께 만주 장춘을 출발해 함경도 회령, 청진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길 위에서 보고 겪은 일들이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주인공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뱀장어를 잡아 파는 소년'과 '국밥집 할머니'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직결된 중요한 두 인물이다. '소년'은 일본인을 향한 강한 증오심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국밥집 할머니'는 일제의 폭압에 아들을 잃었음에도 패망한 일본인들의 비참한 처지 앞에선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두 인물의 모습에서 패망한 일본인을 대하는 조선인의 태도가 다면적인 것을 알게 되며, 특히 '국밥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적 해원(解冤)과 민족적 갈등을 넘어서는 '인간애'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는다. 지문에 실린 부분은, 주인공이 '국밥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국의 패망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일본인들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제목인 '잔등'(희미한 등불)은 소설 속 '국밥집 할머니'가 보여준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작가가 전하려고 했던 주제 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주제] 해방 후 혼란한 사회 현실에서 보편적 인간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대 정신의 모색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노인의 아들)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아득하였겠어요.”라는 ‘노인’의 말에서 노인이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단지 사망 소식만 전해들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 애(=노인의 아들)가 돌아가던 해 여름, ~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공살이를 들어갔지요.”라는 ‘노인’의 말에서 ‘노인’이 ‘그 애’가 죽기 전에도 고공살이를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라는 ‘노인’의 말에서 ‘노인’이 불면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행상의 여인네’는 남루한 행색의 일본인 아낙네가 과일 값을 묻자 가격을 알려주었을 뿐 공짜로 과일을 주지는 않았다. ⑤ ‘세 어린 것’이 각자 엄마(일본인 아낙네)를 밀고 당기고 어깨에 타 오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보챌 때 으레 하는 행동이다.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40.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노인’과 ‘나’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나’는 ‘노인’의 생각과 감정

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적 상처, 민족 간 갈등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애의 가치를 깨닫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은 마지막 자식마저 잃는 비통한 일을 겪고도 여전히 혼자 남아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진 목숨을 ‘노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B]에서 ‘노인’의 성격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와 같이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④ [B]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는 표현에서 자식들을 모두 잃은 ‘노인’의 깊은 슬픔과 고통스런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노인은 일제강점기에 자식들을 하나둘 잃어버렸으며 마지막 남은 아이마저 감옥에서 죽고만다. [A]와 [B]에서 ‘그 애’, ‘그것’, ‘그놈’은 모두 감옥에서 숨진, 노인의 마지막 남은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4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주인공 ‘나’는 그날 낮에 좁은 행상로 위에서 목격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때 보았던 일본 여자의 남루하고 애처로운 행색을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길에서 만난 일본 여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나’는 거리를 두고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④ ‘나’는 일본 여자가 처한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일본 여자의 현재의 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미래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일본인 아낙네’는 아이들과 함께 여러 날 굶주렸을 것이나 과일의 가격을 물어보고, 기운 없이 ‘행상의 여인네’를 바라만 볼 뿐 구걸하지는 않는다. ‘행상의 여인네’ 또한 무심히 과일 값을 알려줄 뿐 애처로운 행색의 ‘일본인 아낙네’에게 어떠한 자선이나 동정도 베풀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보고 ‘비참’하다고 한 데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객관적 태도가 연민과 동정의 태도로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일본인 아낙네’를 떠올림으로써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노인’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일본인 아낙네’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보여준 측은지심에 영향을 받은 ‘나’는 그날 낮에 마주했던 ‘일본인 아낙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③ ‘노인’은 자국의 패망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일본인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 ④ ‘측은한 표현’이라는 말에서 ‘나’

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제삼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잔류 일 본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측은하게 여기는 태도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45] 고전 시가 - 정훈, ‘탄궁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빈곤한 생활상을 소재로 하여 궁핍함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가사 작품이다. 가난한 생활의 모습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가난을 의인화한 ‘궁귀’와의 대화를 통해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봄이 되어 농사를 지으려니 농기구도 없어서 빌려와야 하고, 농기구를 빌려 와 씨앗을 찾아보니 법씨 한 말은 쥐가 반 이상 먹어버렸고, 기장, 피, 조, 팔은 겨우 서너 되 남아 있어 춥고 굶주린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과 탄식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전송하면서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라고 하니, (가난귀신이) 불평하며 화를 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이별할 일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며 우는 듯 꾸짖는 듯 험박하는 의인화된 가난귀신과 화자와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가난귀신의 말에 설득적 어조가 있지만, 이것을 화자의 의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에는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구체적인 소재(쟁기, 호미, 올벼, 기장, 피, 조, 팔 등)가 열거되어 있고, [나]에는 추상적인 소재(가난귀신)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궁핍한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대화 형식으로 드러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라는 표현에서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가]에는 농기구도 없고, 농사지를 씨앗도 없고, 남은 곡식도 없다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로, 이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그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이지, 가난을 핑계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종들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은 남들에게는 (예년에

비해) 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의복이 제대로 없는 자신에게는 춥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④ ㉞은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⑤ ㉞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 온 친척들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하늘이 만든 자신의 가난한 인생에 대해 ‘이다지도 괴로운 고’라며 탄식하고 있고, [B]에서 화자는 빈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며 가난에 대해 체념하며 수용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② 나기 싫지도 않은지 너무도 잘 나는 잡초 ‘싸리피 바랭이’는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낙관적 세계관이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는 화자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곡 장리, 부역, 세금 등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괴로운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으며, ‘설마한들 어이하리’에는 우월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이 얼굴 지녀 있어’는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도 배고프고, 겨울에도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벼를 복도 솔 시루도 쓸 일이 없으며, 제사도 못 지내고 손님 접대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빈천도 내 분수니’는 자신감이 약화된 표현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체념과 수용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②
 11. ② 12. ① 13. ① 14. ③ 15. ⑤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③ 24. ⑤ 25. ⑤ 26. ② 27. ① 28. ④ 29. ④ 30. ①
 31. ④ 32. ④ 33. ⑤ 34. ⑤ 35. ③ 36. ② 37. ① 38. ④ 39. ② 40. ①
 41. ① 42. ① 43. ④ 44. ① 45. ②

[1~5] 화법

[1~2]

1.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지호는 ㉠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특강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승우와 자신의 공통된 경험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특강에서 들은 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지호는 승우에게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지를 직접 묻고 있다. ② ㉢에서 지호는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승우의 말을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③ ㉣에서 지호는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라는 발언을 통해, 승우에 대한 상황 추측이 반장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에서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등을 통해 지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학생’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으나 경희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것과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강사가 특강에서 소개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 중 ‘희소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라고 하였으므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은 경희루 내부 특별 관람이 한시적이며 소수 인원만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람을 결심하게 되었으므로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나,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위해 관람을 결심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은 '희소성'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추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

3. 협상 내용 파악

정답해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제시된 협상 상황 설명과 B의 일곱째 발화, A의 여덟째 발화를 통해,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A 마을과 B 마을이 축제를 공동 개최한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협상 중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한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고 축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첫째 발화에서, '축제 공식 명칭'을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이번 협상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넷째 발화에 따르면, A는 B 마을이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협상 전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A의 다섯째 발화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일곱째 발화에서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A는 일곱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을 '50%를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통해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제안을 이끌어냈음을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응한 B의 여덟째 발화를 살펴보면, B가 자신이 제안했던 행사 배분 비율을 낮추는 대신 행사 선택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A의 셋째, 일곱째, 여덟째 발화에서, 축제 공동 개최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이나 행사 배분 비율에 대한 요구, 단독 개최 추진에 대한 의사 등의 상대방 의견이 적절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언급한 것을 통해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제 타결의 시급함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의 질문은 연쇄적인 방식을 활용한 것이 아니며, 축제 공식 명칭에 마을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와 행사 배분 비율에 관한 갈등은 있으나 그 갈등 상황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의 다섯째 발화에서 마을 인지도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

나, 그와 관련된 설명이나 감정에 호소한 내용은 없으며, 상대방의 무조건 양보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⑤ A의 여덟째 발화에서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라고 하여 가정적 진술은 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이다.

5. 협상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A의 다섯째 발화와 B의 여섯째 발화에서 A 마을은 인지도 향상, B 마을은 경제적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다섯째 발화부터 B의 여섯째 발화까지에 이르는 협상 내용에서, 축제 명칭에 A 마을 이름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A 마을의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속하며, A의 여섯째 발화부터 이후의 협상 내용에서, B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고 B 마을부터 행사 선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B 마을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과 관련된 방안이 도출되었으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의 둘째 발화에서 B는 자신들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말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양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의 셋째 발화에서,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A 역시 상대방이 양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B는 여덟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을 양보하고 있으나, A는 둘째 발화에서 제안한 축제 명칭에 대한 요구를 이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양보하지 않는 대신 다른 조건에 대해 양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행사 선택의 순서는 B의 마지막 발화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에 대해 A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B의 최초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 캐릭터에 관해서는 B의 여섯째 발화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에 대해 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도 이후에 다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의 다섯째 발화에서 마을을 홍보하는 목표라고 언급하였으며, 축제 홍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B는 일곱째 발화에서 마을 주민 중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음은 언급하였으나 마을의 화합 증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6~10] 작문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에는 “‘도움 오작교’ 제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다는 ‘오작교’라는 이름에서 착안하였음”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초고 1문단에서 “이에 교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학생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글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는 학생의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었다. ③ 학생의 초고 2문단을 살펴보면 학생회는 ‘도와줄게요’와 ‘도와줘요’ 게시판에 개설해야 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필요한 게시판에 들어가서 목록을 검색하고 주고받을 도움을 찾아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ㄷ의 ‘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과 참여하는 학생이 할 일을 각각 제시’한다는 학생의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었다. ④ 학생의 초고 3문단에서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도와줄 있는 일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함께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ㄹ의 “학생회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학생의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었다. ⑤ 학생의 초고 4문단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을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과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은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7.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도움 오작교’ 제도 시행상의 유의점은 ‘학생들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함께 등록하는 것’인데 이를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로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나)와 (다)를 활용하여 과도한 의무 부여가 참여율을 낮춘다는 내용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여긴다.’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나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행으로 이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의 근거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도움 오작교’ 제도의 기대 효과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을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과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을 들고 있으므로, (다)를 활용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신문 기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도움을 주려는 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웃 학교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에 ‘도움 오작교’제도가 도입되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8.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교사의 조언은 ‘첫째,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둘째, 주장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자.’로 요약할 수 있다. 작문 상황인 글의 목적과 글의 독자를 고려할 때 ‘학생회는 ‘도움 오작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자의 제안 내용으로 적절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는 작문 상황 중 글의 독자인 ‘학생회 간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② 학생회가 ‘제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학생회에 대한 필자의 제안 내용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의미 있는 삶을 누리 수 있게 된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회가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을 권장하여 ‘도움 오작교’ 제도의 연결 횟수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필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필자는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학생회 간부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글쓴이는 ‘비와 약속’에 대한 자신의 양면적 태도를 책에서 읽었던 ‘긍정적 농부와 부정적 농부’의 일화(逸話: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③에서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깨달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긍정적 마음이 글쓴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것의 사회적 의의가 제시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② 긍정적 마음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언급되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장점에 대해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④ 긍정적인 마음이 글쓴이의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글쓴이의 과거 경험에 대해 동생이 지적하였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 ⑤ 긍정적 마음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가치는 언급하였지만 그것을 실용적 가치라 말하기 어려우며, 행동의 실천을 다짐하였지만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10.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평소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

의 거름’, ‘활력의 나무를 키운다.’고 표현한 것은 핵심 내용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비가 내려 꽃을 피우는 상황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를 ‘용서’와 연관 짓는 것은 핵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글의 내용에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제시되고 있지만 ‘공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핵심 내용이 ‘우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⑤ 긍정적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이 ‘이웃과 소통하는 삶’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구개음화의 형태론적 조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사, 접미사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의 ‘솔이나’는 명사 ‘솔’에 접속 조사 ‘이나’가 결합된 경우로, ‘솔이나’를 [소치나]로 발음하는 것은 ㉠에 따른 결과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같이’의 ‘-이’는 조사가 아니라 어근 ‘갈-’에 결합되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③ ‘팔이다’의 ‘이-’는 접미사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따라서 ‘팔이다’를 [파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④ ‘받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받히다’를 [바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⑤ ‘붙이다’는 ‘붙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에서는 접미사 ‘-히-’가 결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다’를 [부치다]로 발음하는 것을 ㉢에 따른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규정은 ㉡이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흔히 잘못 쓰기 쉬운 ‘오’, ‘요’의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의 ‘아니요’는 ‘아니오’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오’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한 규정 ㉡를 ㉠의 올바른 표기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짚지은 ㉠이 정답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가지요’의 ‘요’는 종결 어미 ‘-지’ 뒤에 덧붙은 보조사이다. ‘요’가 보조사임은 이를 뺀 ‘영화 구경 가지.’가 성립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의 표기를 규정한 것은 ㉢이다. ㉢ ‘설탕이요’의 ‘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며,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⑥의 설명을 볼 때 ‘이요’로 적어야 한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특정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일련의 절차로 제시한 후 이를 다른 서술어에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다소 복잡하게 문항이 구현되어 있지만 <보기>에서도 설명하듯이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보기>에서 ‘지내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제시한 것은 결국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를 추출한 것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①로, 제시된 두 예문에서 ‘산으로, 가족으로’는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며, 이때 ‘되다’는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되다’의 문형 정보를 【…으로】로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참고로, ‘여기 머물게 되다’의 ‘되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의 의미를 지니며, ‘머물게’가 필수적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되다’의 문형 정보로는 【-게】가 추출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넘어가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속임수에’, ‘피에’이기 때문에 【…에/에게】를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③ ‘옷 때문에, 한밤중에’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다투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에】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언니와’, ‘누군가와’이기 때문에 【…와/과】를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 환자의 생명은 분초를 다투다’에 쓰인 ‘다투다’는 ‘사태가 매우 급하다’의 뜻을 지니며 ‘분초를’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는 【…을/를】을 추출할 수 있다. ④ ‘사은품으로, 부록으로’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딸리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딸리다’의 문형 정보로 【…으로】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가방에, 그 책에’이기 때문에 【…에/에게】를 ‘딸리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⑤ ‘깨끗하게, 허영게’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빠지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때가, 물이’라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옷에서, 청바지에서’이기 때문에 【…에서】를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자료>에서 수정 전후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비록 초보자일수록’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로 수정되었고, ‘그러서 작성할 수 있다’가 ‘그러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고쳐졌다. 전자는 ‘비록’이라는 부사어와 연결 어미 ‘-르지라도’의 정확한 호응을 고려한 결과이고, 후자는 ‘작성하다’의 목적어 ‘문서를’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은 결과이다. 정답 ③

15.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일부 의문문과 청유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이다. ⑤의 ‘어디 보자’는 특정한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발화가 아니며,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B의 발화 ‘거기서 혼자 뭐 해요’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기다리는 행위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④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문법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에 대한 의미적 이해는 물론 선택지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은 ⑤로, 다섯 가지 욕구[五欲]를 설명하는 각 문장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흠 씨라’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면, ‘먹고저’의 ‘-고저’는 종결 어미가 아니라 연결 어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가 ‘먹고자 (하는 것이다)’임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어 풀이에서 ‘먹고자 (하다)’의 ‘-고자’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五欲은’의 현대어 풀이는 ‘오욕은’인데, 이때의 ‘은’은 문장 속에서 어떠한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 책은 재미있다, 오늘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다’ 등의 예문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② 현대어 풀이의 ‘눈에 좋은 빛’은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되었지만 ‘보고자’의 목적어임을 감안하면, ‘누네 도훈 빛’ 역시 ‘보고저’의 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 ③ ‘귀예’의 현대어 풀이는 ‘귀예’인데, 이때의 ‘예’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몸에 좋은 음식, 감기에 잘 듣는 약’ 등의 예문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현대어 풀이의 ‘좋은 빛,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옷’에서의 ‘좋은’이 용언

‘좋다’가 관형사형으로 활용한 형태임을 감안하면, 중세 국어 ‘도흔’ 역시 용언 ‘똥다’의 관형사형임을 알 수 있다.

[17~30] 독서

[17~20] 인문,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과학철학에서 사용되는 설명 이론 중 험펠과 셸먼의 설명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험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논증이다. 이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는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셸먼은 설명은 논증이 아니라 인과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 인과적 설명 이론을 내세웠다. 셸먼의 설명 이론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하지만, 인과 관계가 근원적으로 불명료한 개념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제] 험펠과 셸먼의 설명 이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

1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밝히며,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셸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는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험펠과 달리 셸먼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으며, 그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설명’에 관한 험펠의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

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험펠의 세 번째 조건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며,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띠는데,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1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설명 이론에 인과 개념을 도입하려면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고 연결하는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은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모두 불명료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중 어느 것이 더 불명료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② 4문단에서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⑤ 4문단에서 설명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험펠은 설명이 논증의 형식을 띠어야 하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이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물음]에 근거할 때 <보기>의 명제들 중 피설명항에 놓여야 할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라는 ‘ㄷ’이다. 그리고 2문단에서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보기>의 명제들 중 보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

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는 ‘ㄹ’이다. 또한 2문단에서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보기>의 명제들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라는 ‘ㄴ’과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라는 ‘ㄱ’이다.

정답 ④

[21~24] 사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 곧 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는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는 과학 혁명으로 인해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과학과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또한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을 중시한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18,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활동적 삶이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을 기계처럼 관리하는 이론까지 만들어졌다. 물론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20세기 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사색적 삶을 잊은 채 활동적 삶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주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

21.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테일러는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다. 그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는데, 이로 인해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색적 삶의 영역을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중시했다. ②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인해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③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⑤ 20세기 초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는 활동적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즉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

성을 역설하기 위한 목소리이다. 사색적 삶은 자극에 예민한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과 관계가 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계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② 일하기 위한 삶을 중시하는 서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④ '나태'는 여유로운 삶과 관련이 있으며, 나태가 사람을 녹슬게 한다는 생각은 활동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⑤ 인간을 사색하지 못하는 기계라고 여기는 진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0세기 후반 이후 '후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성과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사회인 규율 사회가 후근대 사회인 성과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규율 사회에서는 이 요구가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을 뿐이다. 즉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만 달라졌던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근대 사회에서는 기계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을 확립했는데, 이런 노동 규율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의 외적 강제에 해당한다.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자기 착취를 함으로써 결국 피로라는 만성 질환을 앓게 한다. ④ 기술 발달이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고 있지만,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을 위해 자기 착취를 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이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포섭(包攝)'은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м.'의 의미로, 이 말에는 '너그러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는 '포용(包容)'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추구(追求)'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다. ② '검약(儉約)'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이다. ③ '응용(應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이다. ④ '모색(摸索)'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다.

[25~26] 과학,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지문해설 : 이 글은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암제 중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역할

을 하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의 분열까지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 표적 항암제는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암세포 증식 단계와 종양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 증식 단계에,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작용한다. 암세포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존재하는데 신호 전달 억제제는 그 전달 경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신호 전달 경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암세포가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신생 혈관 억제제는 그 공급의 통로인 혈관의 생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생 혈관 억제제는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주제]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와 특징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데, ㉠은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작용하여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은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효소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 ‘이마티닙’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이지만, ㉡ ‘파클리탁셀’은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이다. ② ㉡ ‘파클리탁셀’은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또한 ㉢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방해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 ㉡ 모두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③ ㉠ ‘이마티닙’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에 작용하여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지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 ‘베바시주맙’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돌연변이 유전자와는 상관없다. ④ 3문단에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가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마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만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을 보면 오히려 ㉢ ‘베바시주맙’이 여러 종류의 암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의 암세포는 시험관 속의 액체 속에서 세포 분열을 한 후 작은 암덩이로 자라고, 그 뒤에 증식하지 않았다. 반면 실험동물의 체내에 들어간 암세포는 증식을 거쳐 종양으로 자라났다. 이는 시험관은 종양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고, 동물의 체내는 종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관 액체 속의 암세포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함께 넣는다 하여도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자라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Bcr-Abl 단백질은 만성골수백혈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암세포가 특정되지 않은 <보기>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물에게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자랐지만, 동일한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에 넣었을 때 종양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시험관 속의 액체가 종양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혈관 생성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 모두에게 암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입된 암세포에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자라난 종양의 일부 조직 속에 혈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⑤ 2문단에서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다한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입된 암세포가 커다란 종양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포 증식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7~30] 예술, '회화주의 사진'

지문해설 : 이 글은 단순히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사진의 위상을 회화와 같은 예술성을 갖춘 위치로 끌어올리려 했던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창작 과정과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 그리고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를 통해 스타이컨이 작품으로 내놓은 사진에 담긴 다양한 기법 속에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한 그의 노력이 녹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회화주의 사진을 추구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대리석상인 <빅토르 위고>는 로댕의 작품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를 피사체로 삼았을 뿐 빅토르 위고가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회화주의 사진은 현실 재현의 수단이 아니라 사진작가가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사진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으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맹과 스타이컨이 조각의 역할을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의 작품은 밝은 원경과 어두운 근경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인화 과정에서의 처리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은 로맹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근경의 사진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이 아니며, 원경의 대상인 <빅토르 위고>만 따로 촬영한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맹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로맹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로맹의 작품이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한 것은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해서이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작품은 로맹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은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한 스타이컨의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사진에서 원경에서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에서 벗어나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한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맹>이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신계영, ‘전원사시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제1수, 제2수),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의 모습(제3수, 제4수), 가을을 맞아 흥을 즐기는 모습(제5수, 제6수), 눈이 쌓인 겨울의 모습(제7수, 제8수), 한 해를 보내며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제9수, 제10수) 등을 노래하고 있다. 전원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그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을 춘하추동의 순서로 노래한 후(제1수~제8수), ‘제석(除夕, 한 해의 마지막 밤)’ 부분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그에 따른 늙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함으로써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제9수, 제10수)

[주제] 전원에서의 유유자적한 삶

3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6수에서 화자는 중앙절을 맞이하여 올벼로 빛은 술이 다 익었는지를 묻고, (다 익었으면) 맛있는 안줏감을 준비하도록 아이에게 이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에서는 ‘자해(꽃게)’, ‘황계(털빛이 누런 닭)’ 등 미각을 돋우는 소재를 제시하여 가을을 맞이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양지바른 언덕의 풀빛은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의 세계이며, 초월적인 세계는 아니다. ㉡ ㉠에서 꽃이 진 후의 녹음이 깊어가는 것은 화자가 인식한 계절적 풍경이며,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제6수에서는 계절적으로 녹음이 짙어가고, 대낮의 고요한 마을에 닭이 울고 있다. 종장인 ㉣에서 화자가 아이에게 노래(계면조)를 불러 긴 졸음을 깨우도록 이른 것은 전원에서의 한가로움을 표현한 것이며,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에서는 겨울의 저녁 시간, 즉 긴 밤과 저녁 식사(콩죽 또는 팥죽)를 앞둔 때를 표현하고 있으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세월이 젊음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새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화자 역시 새해를 즐겨 했던 젊은 날이 있었으나, ‘현재’의 화자는 늙음을 한탄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아히들(아이들)’에게도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 말도록 훈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늘그니(노인)’가 다른 ‘늘그니’를 만나 반갑고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같은 처지의 상대방을 만난 기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는 화자와 같은 처지의 대상을 만난 반가움이 제시되었을 뿐, 젊음과 늙음이 대조되지 않았다. ② [A]의 화자는 (특히 ‘이 백발이 되얏노라’에서) 자신의 ‘백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보기>에는 세월의 빠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세월의 빠름을 빗댄 구체물도 제시되지 않았다. ⑤ [A]에서는 화자도 ‘아히들’처럼 새해를 즐겨하였으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는 현재 삶의 행복감이 나타나 있으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의 각 연에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계절적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자도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흥을 즐기고 있다. 작품의 각 연에서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제2수>에는 봄이, <제3수>에는 여름이, <제6수>에는 가을이, <제7수>에는 겨울이 제시되어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② 앞의 네 수 모두의 종장에서 ‘아히야’가 등장함으로써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되고 있다. ③ 계절을 다룬 앞의 네 수에서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된 다음, 주로 ‘아히야’로 시작되는 화자의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④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빚은 술을 찾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이자 일상의 풍경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4~38] 장르 복합 - (가) 신석정, ‘꽃덤불’ / (나) 전봉건, ‘사랑’ / (다) 한훤구, ‘보리’

지문해설 : (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졌던 삶의 다양한 태도와 모습을 성찰해 보고 있다. 이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고뇌가 잘 드러난다. 이 시의 제목인 ‘꽃덤불’은 우리가 새롭게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 국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더 나은 세계(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
 (나)는 제목 ‘사랑’과 더불어 ‘사랑한다는 것은’을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함으로써 시의 화자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과목을 가꾸는 행위에 빗대어 사랑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은 저절로 아름답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과 맞서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연은 주로 사랑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고 3연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 지켜보는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보살핌과 지켜봄의 의미를 통해 바라본 사랑
 (다)는 보리를 ‘너’라고 부르면서 보리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추운 겨울과 싸우기 위해 땅 속에서 굶하지 않는 의지로 견뎌내던 보리가 따뜻한 봄이 오자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리를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시련을 통한 성숙의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성실한 농부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예찬하고 있다.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예찬

34. 작품 간의 공통점

정답해설 : (가)의 ‘혈어진 성터’, (나)의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다)의 ‘어둡고 차디찬 눈 밑’ 등의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화자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다)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색채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 만한 대상이 없다.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대상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화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항상’은 ‘거룩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②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④ ‘아무리’는 적대적인 것들이 화자의 사랑을 위협해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에 가깝다. ⑤ ‘이미’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가)의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벋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 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위협적인 대상에게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혈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④ ‘밤’은 부정 적 상황이므로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꽃덤불’과 ‘새 과목’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사랑의 결실에 해 당한다.

3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사랑의 의미’라는 (나)의 주제로 볼 때 ㉠은 1행으로 이루어져 1연을 이 루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와 단서로 기능하고 있고, 첫 연과 끝 연에서 반복되고 있으 므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다룬 내용을 찾기 어렵다. ③ ㉠ 에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고, ㉡는 비교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 않다. ④ ㉠와 ㉡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다. ⑤ ㉠와 ㉡ 모두 생성에서 소 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과 무관하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은 ‘온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 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②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③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보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노고지리들이 보리에 보금 자리를 틀어 놓는 것과 연결되므로 보리와 다른 자연물들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39~41] 현대소설 - 오정희, ‘옛우물’

지문해설 : 1994년 문예중앙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지방 도시에 사는 마흔다섯의 중 년 주부가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작품의 제재가 되는 ‘옛우물’ 은 출생한 아이를 씻기기 위한 물을 제공하는, 상상 속 금빛 잉어가 사는 신성하고 신화화된 생명의 공간인 동시에, 동네 염쟁이의 딸 정옥이가 빠져 죽은 죽음의 공간 이기도 하다. 작가는 ‘옛우물’의 이런 상징성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 니라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것임을 감각적이고 섬세한 문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주제] 삶(생명)과 죽음, 인간의 정체성 등에 대한 성찰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뒷글은 1인칭 주인공인 ‘나’가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한 것과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고백적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뒷글은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아이를 낳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애에 있어 사십오 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대해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중략’ 아래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인물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 진술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중략’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의문과 추측의 진술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삶이 가질 수 있었던 가정적 가능성을 진술한 것이므로, 이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중략’ 윗부분에서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무관하다.

4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도도’가 언급된 아래 부분을 보면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여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를 인간의 모습과 연관 짓고 있고, 다음 부분에서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인공의 아들이 멸종된 종인 ‘도도’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도도’에 대한 연상이 주인공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도’를 주인공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주인공은 아들이 ‘도도’에 대해 설명해주기 전에는 ‘도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고, 주인공이 진화의 표본에 대한 언급한 것 역시 ‘도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삶의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제시된 글만으로는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주인공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한 것은 티브이 뉴스의 영향이 크고, ‘도도’ 역시 그 연상에 개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앞뒤 맥락에서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한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도도’를 통해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도도’가 관습과 제도에 희생된 존재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도’는 관습과 제도에 억압된 존재이지 관습과 제도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는 외에 가끔 밤 외출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가 아닌 일상적 세계의 범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이 되어, 다시 산하에 분분히 내린다고 진술하는 것을 통해 주인공이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성찰한다고 했고, 윗글의 첫 부분에서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 할머니의 정성스런 행동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공은 출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 탐색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떠올린 아프리카나 광야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윗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은 경계인으로서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2~45]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조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쟁탈이나 외부 적과의 전쟁으로 채워져 있지만, 내용의 중심은 화진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문 내부의 질서 확립이 작품의 중심이 되며, 부차적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 배경을 차용하면서도 기존의 역사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사회의 문제를 자유롭게 그리면서 실존인물까지 적절히 배치해 허구적 내용에 실감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내용에 반영된 주제가 전통적 관념을 고수하여 참신성이 약하지만 구성이 치밀하고 전개가 매끄러워 우리나라 고소설 가운데 우수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가문의 화목과 국가의 안정

4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진 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가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시된 것으로 볼 때, 진 소저의 혼인 여부는 진 공과 오 부인이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부모가 떠난 후 진 소저가 수십 일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성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조문화의 아들은 결혼을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③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의 행방을 묻자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모른다고 대답했다.

43.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조문화는 [A]에서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족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등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오 낭중에게 전하고 있다. 오 부인은 [B]에서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라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조문화는 자신의 권세에 의거하여 오 낭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B]에서 오 부인은 딸(진 소저)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고 있다. [A]에서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에서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아니다. ② [A]에서 조문화는 지난 일을 들어 진형수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청자인 오 낭중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B]에서 오 부인은 청자인 딸에 대해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조문화는 오 낭중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 소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딸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다. ⑤ [A]와 [B]에서 화자가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4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오 낭중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권력자인 조문화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가 올바른 사리 판별을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문화는 자신의 청혼을 진형수가 거절하자 그를 무고하여 옥에 가둔 후 나중에 귀양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농단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진 소저는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룬 후 병을 가장해 조문화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 후에 부모가 멀리 이동했을 시점에 행장을 꾸리고 남장을 하여 회남으로 떠나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청혼을 거절한 것이 진형수 가문에 위기로 닥치는 상황을 통해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을 통해 주변 인물인 유모가 적극적 인물인 진 소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부친이 중죄를 받을 상황에서 딸인 자신이 욕됨과 그렇지 않음을 가릴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가 어려운 형편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당장에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인데, ㉠과는 관련이 없다. ㉢ 진 소저가 혼인을 허락한 것은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의도이지,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다. ㉣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는 훌륭한 인물에게서 훌륭한 자손이 난다는 말로, ㉠과는 관련이 없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은 진 소저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정답 및 해설(홀수형)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②
 31. ①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⑤ 37. ①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⑤ 44. ④ 45. ③

[1~5] 화법

[1~2]

1.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해설사는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진행자는 해설사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즉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와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해설사가 말한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대담을 하겠다며 대담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② [B]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에 대해 해설사에게 물었다. 또 해설사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③ [C]에서 해설사는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해설사가 이를 인용한 것은 진행자의 말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해서이다. ⑤ [E]에서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하지 않고 청취자에게 대담의 중요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권유하였다.

2.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학생 1과 학생 2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대담의 핵심 내용은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잘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므로, 답사 홍보 포스터의 제목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2는 포스터 제목에 의인법을 활용했다고 했다.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이라는 제목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한산성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표현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답사의 목적에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답사 목적을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담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답사 포스터의 제목에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목에 의인법을 사용하지는 않

있고, 답사 목적도 대담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대담에서는 남한산성에 얽힌 향전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대담에서는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대담의 핵심 내용은 신라 시대의 축성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별 축성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3~5]

3. 발표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A]에서 발표자는 희토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청중에게 “이제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라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 청중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음으로 희토류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A]에서 발표자는 자신의 설명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 뒤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발표자는 발표 대상인 희토류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희토류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발표자는 설명을 할 때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④ [A]에서 발표자는 발표 중간에 영상을 보며 주며 희토류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중간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⑤ [A]에서 발표자는 희토류가 활용되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지만,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하지는 않았다.

4. 발표 내용 파악

정답해설 : ㉠ 발표자는 발표의 마지막에 자신이 발표한 중심 내용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이 희토류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있다고 밝혔다. ㉡ 희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비유하면서 희토류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 발표자는 청중에게 생활 속에서 희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를 권유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발표자가 희토류로 인해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학생 3은 발표를 들은 후 발표자에게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발표자는 표를 제시하며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 3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이트륨이 TV 스크린에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발광 효율이 높다고만 밝혔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학생 1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네오디뮴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쓰인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 외에 네오디뮴의 활용 사례에 대한 학생 2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생산 기술에 대한 학생 4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2050년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의견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 외에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연구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6~10] 작문

[6~8]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㉞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로 초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고의 3문단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를 활용한 앱과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를 활용한 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의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공공 데이터 활용에 따른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1문단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앱 개발 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 앞부분에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2문단 마지막 부분에, 현재 정부가 개설한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내용은 [가]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용은 [가]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공 데이터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는 않다. 또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② 학생의 초고에는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 ‘늘리다’는 문맥상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늘리고’는 문맥상 적절하게 사용된 단어이다. ‘늘리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혹은 ‘(주로 ‘선’과 관련된 말을 목적으로 하여)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굿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을 ‘늘이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문맥상 ㉠에는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헤매다’가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에서 ~을 헤매다.’와 같이 활용되므로 ㉠은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에서’를 활용하여 ‘도심에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헤매다’가 ‘~에 ~을 헤매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허덕이다.’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므로 ㉠의 ‘도심에’는 조사의 사용이 잘못된 것이다. ② ㉠의 앞부분에는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앱 개발 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갱신 문제로 인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의 뒷부분에는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역접의 의미를 갖는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주어는 ‘공공 기관이’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피동 표현인 ‘시행된’을 ‘시행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들이다’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를 지닌 ‘들다’의 사동사이다. ‘들이다’가 사용될 경우 주어로는 행위의 주체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의 앞에 ‘비용이’라는 주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들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10]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에서는 ‘가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나무가 아름답다고 언급하였을 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스쳐 가자 어제까지 자신도 버스를 타고 오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는 내용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학생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걸

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학생은 나뭇잎을 보며 나뭇잎들의 빛깔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학생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내용 생성(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의 점검 내용에 따르면, 초고 마지막 부분의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출하고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초고 둘째 문단에는, 학생이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룬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점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빛깔로 이루어진 세상을 위해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는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빛깔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2문단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나의 고유한 빛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각자의 빛깔이라는 내용과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을 연결 지어 볼 수 있지만, 2문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2문단에는 다양한 빛깔들의 조화를 통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학생의 태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두 종류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 ‘숯도’는 /숯도/ → 순도 → [순또]로, ‘웃고름’은 /웃고름/ → 온고름 → [온꼬름]으로 발음되어 평파열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의 ‘닭는’은 /닭는/ → 닥는 → [당는]으로, ‘부역문’은 /부역문/ → 부역문 → [부영문]으로 발음되어 평파열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 ㉡에 대해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③은 적절하다. 또한 ③에서 제시하고 있는 ‘깊다’ 역시 /깊다/ → 깃다 → [깃따]로 발음되어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적절한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옹지[옹치]’, ‘좁히다[조피다]’는 각각 ‘ㅎ+ㅈ → ㅊ’, ‘ㅂ+ㅎ →

표'의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만, ㉠의 '끊어[끄너]', '쌓이다[싸이다]'에서는 'ㅎ'이 탈락한다. ㉡ 앞서 살폈듯이,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또한, ㉣의 '읽지[익찌]', '훑거나[훑꺼나]'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겉모양'은 /겉모양/ → 겉모양 → [건모양]으로 발음되어 ㉢과 마찬가지로 평파열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안고'는 /안고/ → 안고 → [안꼬]로 발음되어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에서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겹받침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형태소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사례를 통해 형태소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우선 밑줄 친 '은/는', '듣-/들-', '-았-/-'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여야 하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각각 받침의 유무 및 결합하는 어간과 어미의 차이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이형태의 관계가 있는 형태소들이다. 먼저, '은/는'은 결합하는 말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또한, '듣다'의 어간 '듣-'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라'와 결합할 때 '들-'로 형태가 바뀐다.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았-/-'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실현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해당 형태소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은/는'과 같은 조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은/는'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나머지는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은/는', '-았-/-'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이지만, 동사 어간 '듣-/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듣-/들-'은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⑤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듣-/들-'은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13. 시제 표현 파악

정답해설 :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이 진행상(㉠)의 의미를 지닐 때, 완료상(㉡)의 의미를 지닐 때, 두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때(㉢)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당되는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맥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로 모두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에서는 '안경을 잃어버린 뒤의 상황'이라는 일정한 문맥이 부여되어 해당 문장은 '안경을 벗고 지내다.' 정도의 완료상의 의미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치질을 하는 중이었어요.’로 교체하여도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진행상(㉠)의 예로 적절하다. ② ‘오해하는 중이다.’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료상(㉡)의 예로 적절하다. ③ ‘아는 중이다.’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생신임을 아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료상(㉡)의 예로 적절하다. ⑤ 해당 문맥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네.’는 ‘신입 사원이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진행한다는 의미’, ‘신입 사원이 현재 넥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때(㉢)의 예로 적절하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부사와 조사로 쓰일 수 있는 ‘같이’와, ‘같이’와 ‘하다’가 결합한 ‘같이하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조사로 쓰이는 ‘같이㉠’은 ‘얼음장같이 차갑다’처럼 ‘앞말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①)’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새벽같이 떠나다’처럼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의미(㉠②)를 지니기도 하는데, ②의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 쓰인 ‘같이’는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같이㉠’은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고, ‘같이㉡’은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 ‘㉡’라는 국어사전의 품사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같이하다’의 뜻풀이에 ‘같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같이하다’는 ‘같이’와 ‘하다’의 복합어로 볼 수 있다. ④ 문형 정보가 【(…과) …을】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같이하다’는 ‘~과’의 형태로 쓰이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전자의 용례이며, ‘그들은 견해를 같이했다.’는 후자의 용례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은’처럼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⑤ ‘같이하다① = 함께하다①’의 정보를 제시하는 점을 볼 때, ‘평생을 같이한’과 ‘평생을 함께한’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양한 유형의 비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②에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는 이론을 발전해’라는 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유럽은 18세가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④ ‘요점은’과 ‘알아야 한다’를 확인해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책

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⑤ ‘이름의 혼동’과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16~30] 독서

[16~18] 과학 -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을 다루고 있다. 돌림힘이란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 축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알짜 돌림힘은 돌림힘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체의 회전 속도 변화는 알짜 돌림힘이 물체에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나는데,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하는데,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때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주제] 알짜 돌림힘의 작용에 따른 물체의 회전 속도 및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

1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에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하면서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으며,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③ 6문단에서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

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하며,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물체에 속한 점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갑의 돌림힘은 $300\text{N}\cdot\text{m}(=300\text{N}\times 1\text{m})$ 이며, 을의 돌림힘은 $400\text{N}\cdot\text{m}(=200\text{N}\times 2\text{m})$ 이다. 따라서 알짜 돌림힘은 갑의 반대쪽에서 작용하는 $100\text{N}\cdot\text{m}$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므로 $50\pi(=100\text{N}\cdot\text{m}\times 0.5\pi)$ 이며, [가]에서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갑의 반대쪽으로 90° 를 회전시키는 것이므로 알짜 돌림힘은 문이 갑의 반대쪽에서 갑의 있는 쪽으로 회전하도록 작용하는 양(+)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6문단에서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문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힘은 $100\text{N}\cdot\text{m}$ 로 일정하다. ③ 문에는 갑의 반대쪽에서 갑이 있는 쪽으로 $100\text{N}\cdot\text{m}$ 의 알짜 돌림힘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알짜 돌림힘은 갑의 반대쪽에서 갑이 있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다르다. ⑤ 갑의 돌림힘은 $300\text{N}\cdot\text{m}$ 이며, 을의 돌림힘은 $400\text{N}\cdot\text{m}$ 이므로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작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overline{OA} 는 \overline{OB} 의 절반에 해당하며, A, B에는 각각 \overline{OA} , \overline{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두 돌림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힘은 2배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2문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기>의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므로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는 알짜 돌림힘만 존재한다. 이때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한다면,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에 해당하므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가 아니라 2배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A와 B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는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밀어 주는 돌림힘의 2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는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는데, 6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는 원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어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상황에서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B에 가해지는 시계 반대 방향의 알짜 돌림힘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알짜 돌림힘은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므로 양(+)의 일을 하면서 원판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상황에서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시계 방향으로 밀어 주는 알짜 돌림힘만 작용한다. 이때 알짜 돌림힘은 음(-)의 일을 하고, 음의 일을 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런데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알짜 돌림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에 의해 돌림힘의 평형 상태에 이르는 순간에 도달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던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었다가 원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따라서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19-21] 기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해설 : 이 글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은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이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된다. 흡수층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 곳이다. 흡수층에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하는데, 양자 효율은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흡수층에서 형성되는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 영역에서 전자가 강한 전기장에 의해 급속히 가속되어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되면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충돌 이온화는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하는데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주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 과정

1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입사된 광자가 전극에 도달할 때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작동하려면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에 의해 형성되는 강한 전기장이 필요하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800~1,600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

2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흡수층에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인 '양자 효율'은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강한 전기장에 의해 급속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② 충돌 이온화는 전기장에 의해 충분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 전자가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④ 애벌랜치 영역에서 충돌 이온화가 반복되면서 전자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애벌랜치 증배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⑤ 충돌 이온화는 큰 속도를 갖게 된 전자가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든다. 이때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애벌랜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21. 결론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그런데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

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 온도 0°C를 본 실험에서 20°C로 높이면 증배 계수가 감소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지고, 증배 계수는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전압 110V를 본 실험에서 100V로 낮추면 증배 계수는 예비 실험에서의 40보다 작아진다. ② 본 실험에서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높이면 예비 실험에서보다 증배 계수가 늘어나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광신호의 세기가 커지므로 예비 실험에서보다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다.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하면 빛의 세기가 감소해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진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광통신 케이블 1m를 본 실험에서 100m로 늘리면 측정되는 광신호, 즉 전류는 예비 실험에서의 100nA보다 작아진다. ⑤ 예비 실험을 수행할 때 제공된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800nm 파장의 빛을 본 실험에서 900nm 파장의 빛으로 바꾸면 양자 효율이 작아져 본 실험에서는 예비 실험에서의 전류 100nA보다 작아진다.

[22-26] 인문 -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지문해설 : 이 글은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귀납은 지식 확장적 특성으로 인해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중 하나가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며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하였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안을 통해 귀납이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소개한 뒤, 3문단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인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소개한 뒤, 5문단에서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안을 통해 귀납이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은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흠의 견해가 언급되고 있지만, 흠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귀납의 개념을 설명하며 연역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格上)되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에 대해 소개하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도 않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상호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귀납은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어서 결국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직관에도 잘 들어맞지만,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고 하더라도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귀납이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③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이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귀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고 하였다. 즉 흠은 귀납의 정당화가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로 보아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24.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며,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라이헨바흐는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이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해 보려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② 라이헨

바흐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라이헨바흐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이로 볼 때,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증은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B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C이기 1년 전에 60°C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더라도 (L)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관찰 증거를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와 B는 모두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L)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② A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A는 확률을 근거로 (ㄱ)과 (L)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A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확률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A가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C이기 1년 전에 90°C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것이다. ④ B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L)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에 사용된 ‘빠지다’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에 사용된 ‘빠지다’ 역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7~30]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벌인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부가되는 ‘부관’, 즉 ‘기한’과 ‘조건’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이므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에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룰 수 없다. ② (가)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의 경우 금전을 갚아 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갑기로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을 갑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부가하다’는 ‘주된 것에 덧붙이다.’는 의미이므로 ㉞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 ‘수취하다’는 ‘거두어 모으다.’, ‘받아서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는 의미의 ‘지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는 의미의 ‘발생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경유하다’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치다.’는 의미의 ‘경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31~45] 문학

[31-33] 현대 소설 - 박완서, ‘나무’

작품해설 : 이 소설은 6·25 전쟁 혼란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화가인 옥희도와 ‘나’가 맺었던 인연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전쟁의 피해가 가시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가난함 속에서도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옥희도와 그를 사랑했던 젊은 날의 ‘나’의 이야기가 세월이 흐른 뒤에 ‘옥희도 유작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매개로 ‘나’의 삶에 다시 환기되는 구조를 지닌다. 젊은 시절의 ‘나’는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세속적인 삶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옥희도의 가난한 삶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결국 태수와 결혼하게 되면서 옥희도와의 인연을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유작전에서 옥희도의 그림 ‘나무’를 보고 옥희도가 추구했던 진정한 삶과 예술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제시된 부분은 ‘고가’를 제재로 하여 과거의 ‘나’가 지녔던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 주는 부분과 ‘옥희도 유작전’을 보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주제] 젊은 날의 내면 갈등과 진정한 예술가의 초상

3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문에서 남편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면을 지닌 인물로, ‘나’는 그것과 합치되지 못한 채 남편이 그런 모습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은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샷대질까지 해’ 대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남편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고, ㉡은 추억이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 집착하면서 실용적인 편리만으로 정신적인 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나’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의 남편의 행동이 내면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남편의 흥정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흥정일 뿐, ‘나’가 지키고 싶은 은행나무와 거기에 깃든 소중한 가치

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장사꾼들과 흥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속적이면서도 영악한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 남편의 콧구멍과 코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모멸과 혐오'를 느끼고 있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③ '나'가 고가(古家)의 해체가 주는 내면적인 고통을 견딘 것은 고가의 해체마저도 실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편에게 맞춰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추억을 지니고 있는 은행나무를 지키려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 속에 남아 있는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④ ㉠의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뜰어 맞추고 싶었다.'라는 표현에는 남편의 가치관과 판단에 자신을 맞추려는 '나'의 심리가, ㉡에는 남편의 이마에 돌발적인 키스를 퍼부음으로써 세속적으로 살아온 남편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이겨 내려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⑤ 고가를 해체하고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가 은행나무만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족들과 자신의 애환 등 내면의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문의 내용을 통해 남편이 고가를 철거하는 것은 고가가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기 때문이고, '음침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단순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면만 고려하고 있을 뿐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고가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것은 고가를 해체하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하여 새 집을 짓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나'는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 남편의 뜻이 반영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가 고가의 해체를 보며 '나 자신의 욕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고가가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가는 해체된 뒤에도 '나'의 내면에 '해체되지 않은 모퉁이'를 남김으로써 갈등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⑤ '음침한 고가'에는 고가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인식이, '숙연한 고가'에는 '나'의 고가에 대한 아쉬움과 애뜻함이 담겨 있다.

33. 인물의 심리 파악, 관용어구의 이해

정답해설 : ㉡에서 '농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화가를 평가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이다. 즉 죽은 다음에 그렇게 치켜세울만한 화가였다면 왜 살아있을 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로, 특별한 원칙 없이 대상을 평가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므로 ㉠에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

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34-36] 극 - 유치진, '소'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선량한 소작농인 국서네 집안의 '소'를 매개체로 하여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농촌의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그려 낸 사실주의 계열의 희곡이다. '소'를 둘러싼 국서네 집안의 가족 분열과 지주, 마름, 소작농 등의 계층 간 대립이 몇 차례의 반전을 거치면서 극적인 요소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지문에는 오랜만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쌓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국서네와 마름 간의 갈등, 애지중지하던 소를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

3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지문에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길 궁리를 하는 개똥이를 의심하는 말뚝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서와 개똥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뚝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국서의 "보시다시피 우리는……"과 말뚝이의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사람은 빚을 갚기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이해관계는 공유하고 있지만 마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국서는 사정조로 말하는 반면 말뚝이는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그놈일는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라고 말하는 국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젊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라고 말하는 소장수 B의 말을 받으며 "인제 알었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라고 말하는 말뚝이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라고 말하는 마름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헛간에서 자신의 시선을 피해 슬슬 나가는 개똥이와 소장수의 모습을 보며 말뚝이는 ㉠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은 가족 몰래 소를 팔아 치우려는 개똥이의 모의(謀議)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의미하는 바는 "두고 봐! 기둥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솔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 “저놈의 소는 못 물고 갈 줄 아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말뚝이는 ㉠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소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서는 ㉡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말뚝이와 달리 마름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마름은 금명간 빛을 갚지 못할 경우 ㉠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② ㉠은 헛간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개똥이가 취하는 행동을 통해 예감하는 것으로 말뚝이가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는 그에 너 늠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라는 국서의 말을 볼 때 말뚝이는 ㉡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다. ③ ㉠의 결과로 인해 말뚝이가 개똥이에 대해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은 빛을 갚을 것을 종용하는 마름의 헐박의 수단이므로 이를 마름이 국서 부부에게 불만을 갖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국서와 말뚝이의 갈등은 ㉠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름을 대하는 말뚝이의 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는 가족 몰래 소를 팔아 치우려는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개똥이에 대한 말뚝이의 개인적 판단이 담긴 대사이다. 이를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따른 판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당대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 ‘울타리’ 등의 소재를 연극적 장치로 사용할 경우 무대 상황에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등장인물이 실제처럼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 표현을 하거나 구어체의 말투로 연기할 경우 연극 상황에 보다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명령하는 마름의 모습과 조심스럽게 마름을 대하는 국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당대의 마름과 소작농 간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다. ④ ‘농지령’, ‘작인’, ‘도지’와 같이 특정 시기에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를 사용하면 당시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실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다.

[37-39]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토끼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수궁에 가면 호의호식하며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권력층의 무도함에 대처하는 서민의 발랄한 재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용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용왕의 명을 받아 육지로 나온 자라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뻔한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종략 이후의 내용에서는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의 토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자라에게 복수하려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주제]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37.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육지에 나온 자라가 호랑이를 만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라는 백호를 죽여 달라며 하늘에 빌다가 “일사면 도무사라. 무이불식이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호랑이를 위협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설혹 죽더라도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한번 대항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자라에게 느닷없이 앞턱을 물린 호랑이는 일단 주춤한 상태이며, 그 상황에서 움츠렸던 목을 길게 뻗 자라의 모습은 갑옷을 잘 갖추어 입고 총을 빼든 것처럼 느껴져 호랑이는 겁을 먹고 있다.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낌새를 알고’를 통해 자라를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③ 자라가 ‘도로랑 귀신’ 운운하며 겁을 주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물똥을 싸고 도망간다. 겨우 자라에게서 도망친 후,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장담하는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라는 말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끼가 “낌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범치가 춤을 추는 토끼를 보다가 “뺏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자칫 낭패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한 것이다. ⑤ 별주부 자라는 잔치에서 범치의 말을 듣고 토끼를 질책하며 대왕을 속이려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토끼가 분한 마음을 품고 왕배탕 얘기를 용왕에게 하여 결국 자라 대신 자라의 부인이 죽게 된 상황이다. 자라는 경솔한 말로 인해 음해를 당한 것에 대해 부인에게 얘기하며 토끼에게 용서를 빌자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8. 구절의 표현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별주부 자라가 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끼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용서를 비는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치우고’, ‘배설하여’, ‘앉히고’, ‘애걸하는’ 등 부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 드러나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못 보겠네’의 반복, ‘나의 충성 부족던가’와 ‘나의 정성 부족던가’의 대구를 통해 용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자신의 팔자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②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뚝’,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의 의미인 ‘빙빙’,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치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찧꺨’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자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③ 패왕이 달아나는 모습, 조조가 도망하는 모습, 북풍을 타고 구름이 빠르게 가는 모습, 편전살(화살)이 날아가는 모습, 조총의 탄환이 나는 모습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호랑이의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으면 좋은 활이 숨는다’는 고

사를 인용하여 공이 있는 자라를 죽이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자라의 공적을 내세워 암자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왕이 베푼 잔치에서 토끼가 춤을 추는데, 용궁의 대장인 범치가 토끼의 옆에서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하자 별주부가 그 말을 거들면서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라며 꾸짖는다. 이는 토끼에게 불리한 내용인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화제로 삼아 상대를 공박하려는 것으로, 토끼를 회유하거나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등 호랑이에게 자신의 근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호랑이가 모르는 자신의 근본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②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는 호랑이의 말은 자라 별자를 알아듣지 못한 무식의 소치로, 별나리를 무서워하는 호랑이의 반응을 보며 자라는 큰소리를 치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④ 범치와 자라가 토끼의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자 토끼는 놀라면서도 한편 자신을 해치려는 자라에게 분노하여 원기회복을 위해 왕배탕을 먼저 먹은 후 자신의 간을 쓰면 효과가 좋으리라고 용왕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⑤ 별주부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자, 토끼는 자신을 용궁으로 유인한 과거의 잘못을 따지며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40-42] 고전시가 - (가)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나) 맹사성, ‘강호사시가’

지문해설 : (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면서 왕조의 영원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전 125장의 서사적인 시가 작품으로, 개국송-사적찬-계왕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2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적 상징과 비유의 방식도 탁월하다. 또한 제125장은 ‘용비어천가’의 마지막 장으로 제1장을 제외한 다른 장들이 2절 4구인 것과 달리 3절 9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국운에 대해 송축하면서 하나라 태강왕 고사를 인용하여 후대 왕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주제]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왕조의 번영 송축 및 후대에 대한 권계

(나)는 자연에서의 한가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노래한 연시조이다. 각 수들은 일정한 형태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계절적 특성을 보여 주면서 자연한정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의 ‘역군은이샷다’를 통해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태평성대에 유유자적하는 사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주제]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생활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4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2장은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의 두 사례의 열거를 통해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된 미래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표면에 드러난 내용은 자연 현상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이 대조되고 있지는 않다. 제125장은 천명을 받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영원무궁한 발전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어서 경천근민의 왕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강조하면서 하나라 태강왕 고사를 언급하며 설의법을 통해 교훈적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역시 자연 현상과 대조된 인간의 삶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근원이 깊고 튼튼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등의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② 제125장의 첫 행은 ‘-으시니’, 2행은 ‘-으시리이다’, 3행은 ‘-겠습니까’로 서로 다른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③ 제125장의 3행 ‘임금하’에서 이 노래의 수신자(청자)가 후대의 임금됨을 알 수 있다. ④ 제125장은 ‘천세’, ‘누인개국’, ‘복년’, ‘성신’, ‘경천근민’, ‘낙수’ 등 한자어의 사용이 비교적 많지만, 제2장의 경우 한자어는 사용하지 않은 채 순우리말만을 구사하고 있다.

41.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강호에 ...이 드니’가 반복되는데, 이때 변별적인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적 배경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시상을 열고 있다. ㄴ. 또한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은 ‘역군은이샀다’의 시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제2수의 초장 후반부는 ‘초당에 일이 업다’, 제3수는 ‘고기마다 살찌 있다’, 제4수는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등으로 구체적 사물인 ‘초당’, ‘고기’, ‘눈’ 등을 언급하면서 화자의 자연한정을 암시하고 있지만, 제1수의 초장 후반부에서는 ‘미친 흥이 절로 난다’로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ㄷ. 제1수의 중장은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지내는 한가로운 정취를 보여 주고 있다. 제2수의 중장은 강물에 이는 파도가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는 풍광을 그림으로써 여름날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제3수의 중장은 강물 위에 작은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 놓은 채 가을 풍광을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4수의 중장인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강파’, ‘바람’이 자연물, ‘소정’, ‘그물’이 인공물이기는 하지만 (나)에서 이 소재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다. ‘소정’과 ‘그물’ 등의 인공물은 자연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강파’나 ‘바람’, ‘탁료계변’ 등의 자연물과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

히려 화자의 강호한정의 내면적 감흥을 드러내기 위한 유사한 성격의 소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선비로서 자연을 즐기는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신하로서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무’와 ‘물’은 튼튼한 근원을 지닌 존재로, 조선의 기틀이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조선의 왕업이 영원무궁할 것임을 송축하고 있다. ② ‘경천근민’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대함에 있어 늘 성실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왕들이 지켜야 하는 덕목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관직 수행을 목표로 하는 대부로서의 신하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정치적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③ (나)에서 화자는 각수의 종장에서 매번 ‘역군은이샷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진행되어 오던 강호한정의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임을 드러낸 것으로, 신하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조선의 새로운 수도로서의 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나)의 ‘강호’는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운 정서를 누릴 수 있는 개인적 삶의 공간인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역시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3-45] 현대시 -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해설 : (가)는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오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일상의 섭리를, 모체(母體)인 어둠이 사물을 잉태하고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며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여기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 더해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를 느끼며 존재하던 물상들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다양한 동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이미지로 아침이 밝아온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새벽과도 같은 사건처럼 독특하고 신선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나)는 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서 벗어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접하게 된 화자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연의 평온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의 환경들과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인공적인 삶 속에서 원초적인 쾌락에 몸을 내맡겨 버린 자신의 삶에 대

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까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풀벌레들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풀벌레 소리로 인한 삶에 대한 성찰

4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둠이 물상들을 품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면서 비로소 어둠을 접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는 상태의 지속이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이 벌레 소리들로 환해지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점점 밝아오는 태양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만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려 아침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물들의 몸부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움직임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온갖 물상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아침의 모습을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물상들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감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5.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그 인식을 확대하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쳐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풀벌레 소리를 통해 환함을 느끼게 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쉬는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정답 및 해설(홀수형)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⑤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① 19. ① 20. ④
 21. ③ 22. ③ 23. ③ 24. ② 25. ① 26. ③ 27. ⑤ 28. ②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⑤ 34. ③ 35. ② 36. ④ 37. ① 38. ⑤ 39. ③ 40. ①
 41. ④ 42. ① 43. ⑤ 44. ④ 45. ③

[1~5] 화법

[1~2]

1.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해설사는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진행자는 해설사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즉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와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해설사가 말한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대답을 하겠다며 대답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답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② [B]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해설사에게 물었다. 또 해설사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③ [C]에서 해설사는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해설사가 이를 인용한 것은 진행자의 말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해서이다. ⑤ [E]에서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하지 않고 청취자에게 대답의 중요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권유하였다.

2.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학생 1과 학생 2는 대답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대답의 핵심 내용은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잘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므로, 답사 홍보 포스터의 제목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2는 포스터 제목에 의인법을 활용했다고 했다.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이라는 제목은 대답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한산성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표현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답사의 목적에는 대답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답사 목적을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답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답사 포스터의 제목에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목에 의인법을 사용하지는 않

있고, 답사 목적도 대담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대담에서는 남한산성에 얽힌 향전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대담에서는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대담의 핵심 내용은 신라 시대의 축성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별 축성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3~5]

3.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연설에서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로 출전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설에서는 주로 도로 경기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사이클 전용 경기장 내부 구조의 장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설자는 대회 취지의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대회 운영 능력과 관련하여 사이클 대회 개최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②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며, A시가 이런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③ 연설자는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이클 선수 출신인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였다. ④ 연설자는 선수로 출전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A시의 도로 경기장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임을 밝혔다.

4. 연설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먼저 대회 취지가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임을 밝혔다. 이는 대회 취지 부합성 면으로 볼 때는 약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설자는 이런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사이클에 대해 개최지 시민들과 개최지 인근 국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A시에의 대회 개최가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으로, 연설자는 대회 취지 부합성과 관련하여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장점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회 취지 부합성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전환하려 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우호 증진이 대회 취지와 관련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 여건의 강점으로 시민의 지지율이 높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④ 연설자는 개최지 선정에 불공평성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는 대회 개최 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연설자는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에 대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A시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밝혀 A시가 대회 개최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연설자는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연설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중의 반박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연설자는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것처럼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④ 연설자가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을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A시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중의 반응은 연설의 내용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연설의 내용에 공감한 것이다. ⑤ 연설자는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에 있는 도시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설자는 사이클에 대한 A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6~10] 작문

[6~8]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개요의 'Ⅱ. 현재의 소비 생활'의 하위 항목 중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은 '현재의 소비 생활'의 양상이나 경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과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은 현재의 소비 생활로 인해 나타나게 된 문제점 혹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Ⅱ의 내용을 '양상과 문제점'이라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 ㉡은 '양상'의 하위 내용으로 ㉢, ㉣은 '문제점'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은 개략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현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 중 '현재의 소비 생활'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 ㉡은 현재의 소비 생활의 양상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실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 ㉣은 현재의 소비 생활이 초래한 결과이자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원인이라는 항목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 중 '현재의 소비 생활'의 목적이나 필요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 중 '현재의 소비 생

활'과 관련한 대책이나 심각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7. 매체 활용의 효과

정답해설 : (나)의 ㉔, ㉕는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제시한 구체적 질문으로, ㉔는 앞서 전문가가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제도로 소개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의 효과를 묻고 있다. 또 ㉕는 앞서 전문가가 환경 친화적 제품의 기대 효과를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지의 구체적 종류를 묻는 질문이다. 따라서 ㉔, ㉕는 글의 주제인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촉구'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㉔, ㉕는 질문자가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전문가의 답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㉔, ㉕에는 앞서 제시된 전문가의 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㉔는 앞서 전문가가 소개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므로 전문가의 답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나)에는 예상 독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㉔, ㉕ 모두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8.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의 내용 중 기업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다. 따라서 (나)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다)에는 기업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에 부여하는 공인된 표지의 구체적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를 'Ⅲ-1-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하여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에는 ○○기업이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를 고려하여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제품을 출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러한 환경 표지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다)를 'Ⅲ-1-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소비

자에게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Ⅲ-2-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이라는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다)에는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를 고려하여 ○○ 기업이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인 환경 친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Ⅲ-2-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에서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9~10]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에서는 ‘가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나무가 아름답다고 언급하였을 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스쳐 가자 어제까지 자신도 버스를 타고 오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는 내용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학생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학생은 나뭇잎을 보며 나뭇잎들의 빛깔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학생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내용 생성(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의 점검 내용에 따르면, 초고 마지막 부분의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출하고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초고 둘째 문단에는, 학생이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룬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점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빛깔로 이루어진 세상을 위해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는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빛깔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2문단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나의 고유한 빛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각자의 빛깔이라는 내용과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을 연결 지어 볼 수 있지만, 2문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2문단에는 다양한 빛깔들의 조화를 통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학생의 태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음운 환경에 따른 겹받침의 다양한 발음 방식을 제시한 뒤, 그에 따른 각 사례별 발음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닭하고’의 ‘닭’은 ㉞에 따라 [닥]으로 발음하며, 여기에 ‘하고’가 결합하면 ㉟에 따라 ‘ㄱ’과 ‘ㅎ’을 합쳐서 [ㅋ]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는 ‘닭하고’의 발음에 적용된 내용과 발음이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경우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덟이’는 ‘여덟’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㉞에 따라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여덜비]로 발음해야 한다. ② ‘뭇을’은 ‘뭇’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을’이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㉞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㉞에서 ‘ㅅ’은 [ㅆ]로 발음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슬이]가 아니라 [목쓸]로 발음해야 한다. ③ ‘흙만’의 ‘흙’은 ㉞에 따라 [흑]으로 발음하며, 여기에 ‘만’이 결합하면 ㉟에 따라 [흑만]이 아닌 [흥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값까지’의 ‘값’은 ㉞에 따라 [갑]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㉞는 [ㄱ]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연결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가 결합한 ‘값까지’의 발음은 ㉞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웃소매’와 ‘밥알’은 모두 합성어이지만 소리 나는 대로 ‘온쏘매’, ‘바발’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웃소매’와 ‘밥알’은 ㉡만 충족하는 합성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파리’는 ㉠의 사례가 되지만, ‘얼음’은 소리 나는 대로 ‘어름’으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이다. ② ‘마소’는 ㉡의 사례가 되지만, ‘낮잠’은 소리 나는 대로 ‘날잠’으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합성어이다. ③ ‘웃음’은 ㉡의 사례가 되지만, ‘바가지’는 어법에 맞도록 ‘박아지’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이다. ⑤ ‘꿈’은 ㉡의 사례가 되지만, ‘사랑니’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즉 ㉠만 충족하는 합성어이다.

13. 담화 내의 호칭어 및 지칭어 파악

정답해설 : 대화 상황 내에 사용되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를 묻는 문항이다. <보기>의 담화 상황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 ‘누나’는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지만 ㉡의 ‘영수’는 청자인 아들을 가리킨다.

정답 ㉡

[오답피하기] ㉠ ㉠ ‘엄마’와 ㉡ ‘누나’는 모두 청자인 아들(영수)의 관점에서 지칭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 ㉡ ‘우리 아들’은 영수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 ㉡은 모두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과 ㉡의 ‘저거’는 모두 ‘저 옷 가게 광고판’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의 ‘오늘’과 ㉢의 ‘어제’는 모두 ‘2015년 12월 30일’의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부사와 조사로 쓰일 수 있는 ‘같이’와, ‘같이’와 ‘하다’가 결합한 ‘같이하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조사로 쓰이는 ‘같이㉠’은 ‘얼음장같이 차갑다’처럼 ‘앞말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새벽같이 떠나다’처럼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의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 쓰인 ‘같이’는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같이㉠’은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고, ‘같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 ‘㉡’라는 국어사전의 품사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같이하다’의 뜻풀이에 ‘같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같이하다’는 ‘같이’와 ‘하다’의 복합어로 볼 수 있다. ㉣ 문형 정보가 【(…과) …을】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같이하다’는 ‘~과’의 형태로 쓰이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전자의 용례이며, ‘그들은 견해를 같이했다.’는 후자의 용례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은’처럼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같이하다㉠ = 함께하다㉠’의 정보를 제시하는 점을 볼 때, ‘평생을 같이한’과 ‘평생을 함께한’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양한 유형의 비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에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그는 이론을 발전해’라는 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유럽은 18세가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요점은’과 ‘알아야 한다’를 확인해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⑤ ‘이름의 혼동’과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16.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세 국어의 문법적, 표기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仙人(선인)이’와 ㉡ ‘蓮花(연화)ㅣ’의 현대어 풀이가 ‘선인이’와 ‘연꽃이’임을 고려할 때, ‘이’와 ‘ㅣ’는 모두 주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라는 ㉡의 기술은 타당하지 않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체언의 끝소리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달리 실현되었는데, ‘선인’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이’가, ‘연화’는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ㅣ’가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체언이 ‘ㅣ’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대어 풀이가 ‘대사 하신 일’임을 고려할 때 ㉠의 ‘ᄒᆞᆫ산’에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현대어 풀이가 ‘남굴의 선인’임을 고려할 때 ㉢ ‘남굴ᄒᆞᆫ선인’의 ‘ᄒᆞᆫ’이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과 ㉣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로는 모두 ‘에’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세간애’와 ‘시절에’로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말의 끝모음 ‘ㅏ’, ‘ㅣ’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모음조화에 따른 결과이다. ⑤ ㉢ ‘쉽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쉽지’로 실현되는데, ‘ㄷ → ㅈ’의 구개음화에 따른 결과이다.

[17~30] 독서

[17~20] 인문 -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누고, 운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편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는 부정될 수 있으며,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로 국한한다면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의 차이

1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2, 3, 4문단에서 ㉠은 그런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눈 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도덕적 운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5문단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4문단에서 ㉠의 결과적 운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어떤 화가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나 ㉠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므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글쓴이는 모두 ‘상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으며, ‘상식’을 존중하는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도덕적 운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 후, 2, 3, 4문단에서 각각의 도덕적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서 도덕적 평가에 개입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5문단에서 글쓴이 역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글쓴이 모두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 3문단에서 ㉢은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니므로 도덕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달리 글쓴이가 도덕적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18.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에 따르면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도덕적 평가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ㄴ’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리는 ‘강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ㄷ’은 글을 모르는 ‘무지’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를 찢으며 논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과 ‘ㄷ’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ㄱ’과 ‘ㄹ’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익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1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도덕적 운('결과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성공 여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비난받는 이유는 무책임한 행위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는 똑같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축구 선수이다. 그러나 A는 상대팀 골키퍼의 실수로 골을 넣은 반면, B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였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골을 넣지 못한 B는 골을 넣은 A에 비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성품이 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와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며, <보기>의 상황은 결과적 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우리의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은 같다고 하였으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보기>의 A와 B는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 동기가 같으므로 3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황적 운에 따라 똑같은 두 사람 중 누군가의 성품이 발현되기도,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4문단에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는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 동기가 같으며 골을 넣었는지의 결과가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불공평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국한(局限)’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이다.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을 뜻하는 단어는 ‘적용(適用)’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기반(基盤)’의 사전적 의미는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이다. ② ‘거론(擧論)’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이다. ③ ‘개입(介入)’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이다. ⑤ ‘폄하(貶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이다.

[21-24] 사회 - ‘지식 경영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폴라니는 지식 경영론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나카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해 지식 경영론을 펼쳤는데, 그는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노나카는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의 네 가지로 유형화했는데, 그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한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에 대해 소개하며,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지식 경영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지식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통해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지도 않다.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노나카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② 폴라니는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④ 노나카는 지식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나카는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을 유형화했으므로,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했을 것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공동화’에 해당한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연결화’에 해당한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에 해당한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표출화’에 해당한다.

2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F사는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명시지)의 산출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암묵지)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못하였다. 이미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보상한 바 있으므로,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창의적 아이디어와 같은 암묵지는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해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인 암묵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과 헌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⑤ 그간 명시지에 대해서만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인 암묵지를 존중하고 명시지와 암묵지를 모두 평가하고 보상하도록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5~28]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벌인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부가되는 '부관', 즉 '기한'과 '조건'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

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이므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에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툴 수 없다. ② (가)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의 경우 금전을 갚아 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갚기로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을 갚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28.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부가하다'는 '주된 것에 덧붙이다.'는 의미이므로 ㉞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 '수취하다'는 '거두어 모으다.', '받아서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는 의미의 '지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는 의미의 '발생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경유하다'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치다.'는 의미의 '경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29~30] 과학, '빛방울의 종단 속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어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자유 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중력, 부력, 항력)에 대해 설명한 다음, 물체의 낙하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해지는 '종단 속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빛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져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져 가속도가 0이 되어 빛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진다.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주제]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중력, 부력, 항력)과 종단 속도

29.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부력'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의 부력은 동전의 부피만큼의 액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동전이 낙하하는 액체

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했으므로,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낙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항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힘으로 부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낙하 운동할 때에는 압력 항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마찰 항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압력 항력(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이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한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종단 속도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속도라고 하였으므로, 종단 속도일 때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에서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였으므로,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잠긴 쇠 막대의 부력은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므로 상승 운동하는 물체의 항력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위 방향으로 작용한다.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이때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면 '부력=중력+항력'이 된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의 B의 부력은 공기 중에서의 B의 부력보다 더 크다. 두 경우 모두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력=중력+항력'인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의 부력이 더 크므로 항력 역시 더 크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항력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되어 있는 두 물체의 항력을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물체 A, B의 부피는 같으므로 각각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물체의 밀도는 B가 A보다 크다고 하였으므로, 각각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부력과 중력의 차이(부력-중력)가 진행 속도를 결정하므로, 물체의 상승 진행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물체의 진행 속도에 따라 커지는 항력 역시 A가 B보다 크다. ③ 1문단에서 중력은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며, 부력은 물체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로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물체의 고정/운동 여부는 중력과 부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A, B가 일정해진 속도(종단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처음에 부력 때문에 물체의 상승 속도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중력의 합이 부력의 크기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종단 속도)에 도달한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33] 현대소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작품해설 :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적지 않은 소시민들은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작품의 '권 씨'는 이러한 사회 상황이 낳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권 씨'는 선량한 소시민으로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나, 결국 생활고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아홉 켄레의 구두만을 남겨 놓은 채 사라진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패배한 권 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에 대한 연민

3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의 부인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 '나'의 아내는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임신부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 주고 난 후 아내가 '생병'을 앓은 이유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하여 못마땅한 사내(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과심해서이다. ② '권 씨'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엿그제까지' 권 씨가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아내가 속삭이기는 하였으나,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뜸해 준 것이다. ⑤ '권 씨'가 '나'의 염려에 대해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장면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아내'의 월망이 누그러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에서는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아내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나'가 꾸 꿈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에서 서술자는 '권 씨' 부부가 사태를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 부부의 내면 심리나 의도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④ ㉣과 ㉤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서술자 '나'의 심리적 갈등이다. '권 씨' 부부와 외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에는 출산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최악의 선까지 몰려가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불안과 염려가 드러나 있으므로, ㉣과 ㉤에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

이 드러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출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가 ‘권 씨네’를 염려하는 모습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일면 공동체의 유대감의 표현이기는 하나,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로 표현되는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해서’를 공동체의 유대감 회복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대한 거리두기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소설에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괘씸해하는 ‘아내’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해산을 맞이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4-36] 극 - 채만식 ‘제향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할머니 ‘최 씨’가 외손자 영수에게 남편과 자식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학 혁명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김성배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김영수의 이야기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했던 가족의 수난사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수난으로 확대되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건네준 이야기로 비유된다. 투쟁의 결과 김성배와 김영수는 불행을 겪었고, 불을 전해 준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작가가 주목한 것은 투쟁의 비극적 결말이 아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상인의 앞날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 부정적 세력에 대한 투쟁과 부조리한 시대를 개선하려는 부단한 저항 의지

3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네 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 씨는 과거의 사건을 손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은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이라고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한 최 씨의 답변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외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내

용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서 동학당원의 가족과 병졸들의 대립은 확인할 수 있지만 최 씨와 영호의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과 ㉡에는 동학당원과 그들을 처형하려는 관원들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에 대해 전경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영오는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라고 묻고 있으며, ㉡에서 최 씨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묻는 영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따라서 영오가 최 씨의 대답을 듣고 있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올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최 씨는 ㉠과 ㉡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3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은 과거 처형장의 장면에서 극중 현재인 제향날로 장면을 교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극중 상황에서 최 씨와 자신의 시어머니인 김성배의 모친은 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암전’은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막을 여닫지 않은 상태에서 장면을 전환할 수 있다. ③ ㉢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무대 상황 및 등장인물의 변화를 줄 시간이 필요하다. ④ ㉣ 직전은 처형 전의 장면에 해당하며 ㉤ 직후는 처형 후의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장면은 시간의 순차성을 가지고 연결된다. ⑤ ㉥ 직전은 처형장으로 가기 전의 공간에 해당하고 ㉦ 직후는 처형장에서의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장면은 동일 공간이 아니지만 처형과 관련되어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자작 안내」에서 밝혔듯이 작가는 동학과 3·1운동에 관련된 최 씨 가족의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조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와 지문을 통해 처형장에 나가지 못한 채 올타리 구멍으로 남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최 씨의 모습을 신중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려는 작가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독자가 시대적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작중 상황을 전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가는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거 상황을 모르는 손자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상황을 겪었던 최 씨가 대답하는 구조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② 작가는 최 씨로 하여금 어린 손자에게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들려주게 함으로써 그들의 제삿날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독자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작가는 최 씨 가족이 겪은 사건을 정기정 재판과 위력적인 관부의 모습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극의 소재를 개인적 차원인 아닌 역사적 차원으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⑤ 작가는 강자의 횡포와 관련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일제 강점기

를 살고 있는 1937년의 독자가 읽게 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게 하려는 창작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37-39] 고전소설 - 작가 미상, '토끼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수궁에 가면 호의호식하며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권력층의 무도함에 대처하는 서민의 발랄한 재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용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용왕의 명을 받아 육지로 나온 자라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뻔한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종략 이후의 내용에서는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의 토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자라에게 복수하려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주제]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37.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육지에 나온 자라가 호랑이를 만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라는 백호를 죽여 달라며 하늘에 빌다가 “일사면 도무사라. 무이불식이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호랑이를 위협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설혹 죽더라도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한번 대항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자라에게 느닷없이 앞턱을 물린 호랑이는 일단 주춤한 상태이며, 그 상황에서 움츠렸던 목을 길게 뻗 자라의 모습은 갑옷을 잘 갖추어 입고 총을 빼든 것처럼 느껴져 호랑이는 겁을 먹고 있다.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낌새를 알고’를 통해 자라를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③ 자라가 ‘도로랑 귀신’ 운운하며 겁을 주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물똥을 싸고 도망간다. 겨우 자라에게서 도망친 후,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장담하는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라는 말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끼가 “낌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범치가 춤을 추는 토끼를 보다가 “뺏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자칫 낭패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한 것이다. ⑤ 별주부 자라는 잔치에서 범치의 말을 듣고 토끼를 질책하며 대왕을 속이려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토끼가 분한 마음을 품고 왕배탕 얘기를 용왕에게 하여 결국 자라 대신 자라의 부인이 죽게 된 상황이다. 자라는 경솔한 말로 인해 음해를 당한 것에 대해 부인에게 얘기하며 토끼에게 용서를 빌자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8. 구절의 표현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은 별주부 자라가 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끼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용서를 비는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치우고’, ‘배설하여’, ‘앉히고’, ‘애걸하는’ 등 부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 드러나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① ‘못 보겠네’의 반복, ‘나의 충성 부족던가’와 ‘나의 정성 부족던가’의 대구를 통해 용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자신의 팔자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②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뚝’,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의 의미인 ‘빙빙’,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치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찧꺨’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자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③ 패왕이 달아나는 모습, 조조가 도망하는 모습, 북풍을 타고 구름이 빠르게 가는 모습, 편전살(화살)이 날아가는 모습, 조총의 탄환이 나는 모습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호랑이의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으면 좋은 활이 숨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공이 있는 자라를 죽이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자라의 공격을 내세워 암자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왕이 베푼 잔치에서 토끼가 춤을 추는데, 용궁의 대장인 범치가 토끼의 옆에서 “토끼 뺨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하자 별주부가 그 말을 거들면서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라며 꾸짖는다. 이는 토끼에게 불리한 내용인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화제로 삼아 상대를 공박하려는 것으로, 토끼를 회유하거나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①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등 호랑이에게 자신의 근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호랑이가 모르는 자신의 근본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②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는 호랑이의 말은 자라 별자를 알아듣지 못한 무식의 소치로, 별나리를 무서워하는 호랑이의 반응을 보며 자라는 큰소리를 치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④ 범치와 자라가 토끼의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자 토끼는 놀라면서도 한편 자신을 해치려는 자라에게 분노하여 원기회복을 위해 왕배탕을 먼저 먹은 후 자신의 간을 쓰면 효과가 좋으리라고 용왕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⑤ 별주부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자, 토끼는 자신을 용궁으로 유인한 과거의 잘못을 따지며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40~42] 고전시가 - (가) 정철, '어와 동량재를~' / (나)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작품해설 : (가)는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만을 일삼으며 나라의 인재들을 모함하고 내치던 세태를 풍자한 시조이다. '동량재'는 나라의 유능한 인재가 가리키고, '못 목수'는 당쟁을 일삼는 무능한 정치가, '기운 집'은 위태로운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주제] 조정의 혼란 속에서 인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겪은 뒤 명신 이원익이 지은 가사로 알려져 있다. 허전이 지은 '고공가'에 화답한 가사로 '고공답가(雇工答歌)'라고도 한다. 허전의 '고공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관리들을 대가집의 머슴들에 비유하여 주인의 무너진 살림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도 다하지 않는 머슴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나태하고도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4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에서 연쇄의 표현 기법이 쓰였고, (나)의 3-4행에서는 '뉘라셔 곳쳐'가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는 연쇄와 반복의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3-4행, '뉘라셔 곳쳐이며', '뉘라셔 곳쳐 쓸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동량재(나라의 인재)', '기운 집(어려운 지경에 놓인 나라)' 등 직유가 아닌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옥 곱튼 얼굴'과 같은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가)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마누라(임금)'가 새끼를 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서둘러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끼 꼬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로 본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이어지는 구절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사릴/꺼릴 뿐이로다)'로 볼 때, '바깥 마름'이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② '불한당 구멍 도적'이 멀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을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③ 화자는 임금이 하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니 주인'을 설득의 대상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⑤ 화자는 주인이 '상벌'을 밝게 하기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벌'을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는 ‘동량재’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한탄하고 있고, (나)에서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이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는 ‘기운 집’을 바로세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하인들(신하들)과 주인(임금)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위험에 놓여 있지만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워야 할 나라를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의논’은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전개되는 당쟁을 꼬집는 말이므로, 국가 대사를 위한 대책인 (나)의 ‘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관심은 많으나 당쟁을 일삼는 이들을 가리키고, (나)의 ‘험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무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⑤ (가)의 여러 목수들은 ‘고자 자’를 들고 입씨름만 하고 있을 뿐 집을 바로 세울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의 ‘문혀진 담’은 위험에 빠진 국가를 가리킨다. ‘고자 자’와 ‘문혀진 담’이 외세의 침입에 협조한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3-45] 현대시 -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해설 : (가)는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오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일상의 섭리를, 모체(母體)인 어둠이 사물을 잉태하고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며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여기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 더해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를 느끼며 존재하던 물상들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다양한 동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이미지로 아침이 밝아온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개벽과도 같은 사건처럼 독특하고 신선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나)는 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서 벗어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접하게 된 화자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연의 평온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의 환경들과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인공적인 삶 속에서 원초적인 쾌락에 몸을 내맡겨 버린 자신의 삶에 대

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까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풀벌레들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풀벌레 소리로 인한 삶에 대한 성찰

4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둠이 물상들을 품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면서 비로소 어둠을 접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는 상태의 지속이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이 벌레 소리들로 환해지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점점 밝아오는 태양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만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려 아침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물들의 몸부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움직임에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온갖 물상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아침의 모습을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물상들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감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5.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그 인식을 확대하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쳐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풀벌레 소리를 통해 환함을 느끼게 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쉬는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